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2022-11-11

鵝洲申氏 시조바로세우기 協議會

申有植(신유식)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 |
| 판심제 |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 |
| 간종 | 활자본(木活字) |
| 간행년 | 1927 년 간행 |
| 권책 | 10 권 5 책 |
| 행자 | 10 행 18 자 |
| 규격 | 19.7×17.5(cm) |
| 어미 | 上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소장도서번호 | 古 819.5-Si61m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18 |

저자

| | |
|------|----------------------|
| 성명 | 신달도(申達道) |
| 생년 | 1576 년(선조 9) |
| 몰년 | 1631 년(인조 9) |
| 자 | 형보(亨甫) |
| 호 | 만오(晩悟) |
| 본관 | 아주(鵝洲) |
| 특기사항 | 조목(趙穆),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

행력

| 왕력 | | 서기 | 간지 | 연호 | | 연령 | 기사 |
|---------|----|------|----|----|----|----|---|
| 선조 | 9 | 1576 | 병자 | 萬曆 | 4 | 1 | 8 월 20 일, 義城縣 陶巖里에서 태어나다. |
| 선조 | 13 | 1580 | 경진 | 萬曆 | 8 | 5 | 족형 鼎峰 申弘道에게 「十九史」를 배우다. |
| 선조 | 24 | 1591 | 신묘 | 萬曆 | 19 | 16 | 長川書院에서 독서하다. |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17 | 4 월, 倭亂이 발발하자 부친을 모시고 黃鶴山으로 피란하다. ○ 6 월, 왜적이 沙村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淸涼山으로 향하다. ○ 9 월, 황학산 城洞으로 돌아오다. |
| 선조 | 29 | 1596 | 병신 | 萬曆 | 24 | 21 | 7 월, 陶山書院에서 月川 趙穆을 뵈다. ○ 苟全 金中淸과 易東書院에서 禮書를 공부하다. |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22 | 7 월, 부친을 모시고 성동에 다시 들어가다. ○ 靑松 涑谷에 가서 旅軒 張顯光을 뵈다. |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24 | 2 월, 全州李氏 李鸞壽의 딸과 혼인하다. |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26 | 봄, 仙巖에 書塾을 짓고 '無忝'이라 편액하다. |
| 선조 | 36 | 1603 | 계묘 | 萬曆 | 31 | 28 | 7 월, 義城 縣令으로 온 장현광이 방문하다. |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29 | 3 월, 西厓 柳成龍을 뵈다. ○ 9 월, 月波亭에 올라 朴敦復, 崔喆 등과 重陽會를 가지다. ○ 高敬履가 五賢에서 晦齋 李彥迪을 빼버리고 成渾을 넣자 변무하는 상소를 가지고 상경하다. |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30 | 8 월, 향시에 합격하다. |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31 | 2 월, 梧里 李元翼을 뵈다. ○ 11 월, 조목을 곡하다. |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32 | 2 월, 別試 初試에 장원하다. ○ 3 월, 安東 府使 寒岡 鄭逵를 뵈다. ○ 10 월, 부친의 명으로 不知巖으로 장현광을 스승의 예로 찾아뵈다. |
| 광해 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34 | 4 월, 장남 申在가 태어나다. |
| 광해 군 | 2 | 1610 | 경술 | 萬曆 | 38 | 35 | 윤 3 월, 생원 회시에 합격하다. ○ 5 월, 유성룡의 手簡書後를 짓다. |
| 광해 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36 | 1 월, 차남 申圭가 태어나다. ○ 7 월, 鄭仁弘을 성토하기 위해 상경하는 부친을 모시다. |
| 광해 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37 | 5 월, 蘆谷에서 정구를 뵈다. |
| 광해 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38 | 4 월, 訥齋 崔暉를 뵈다. ○ 9 월, 鏡城 判官으로 부임하는 石潭 李潤雨를 전송하다. |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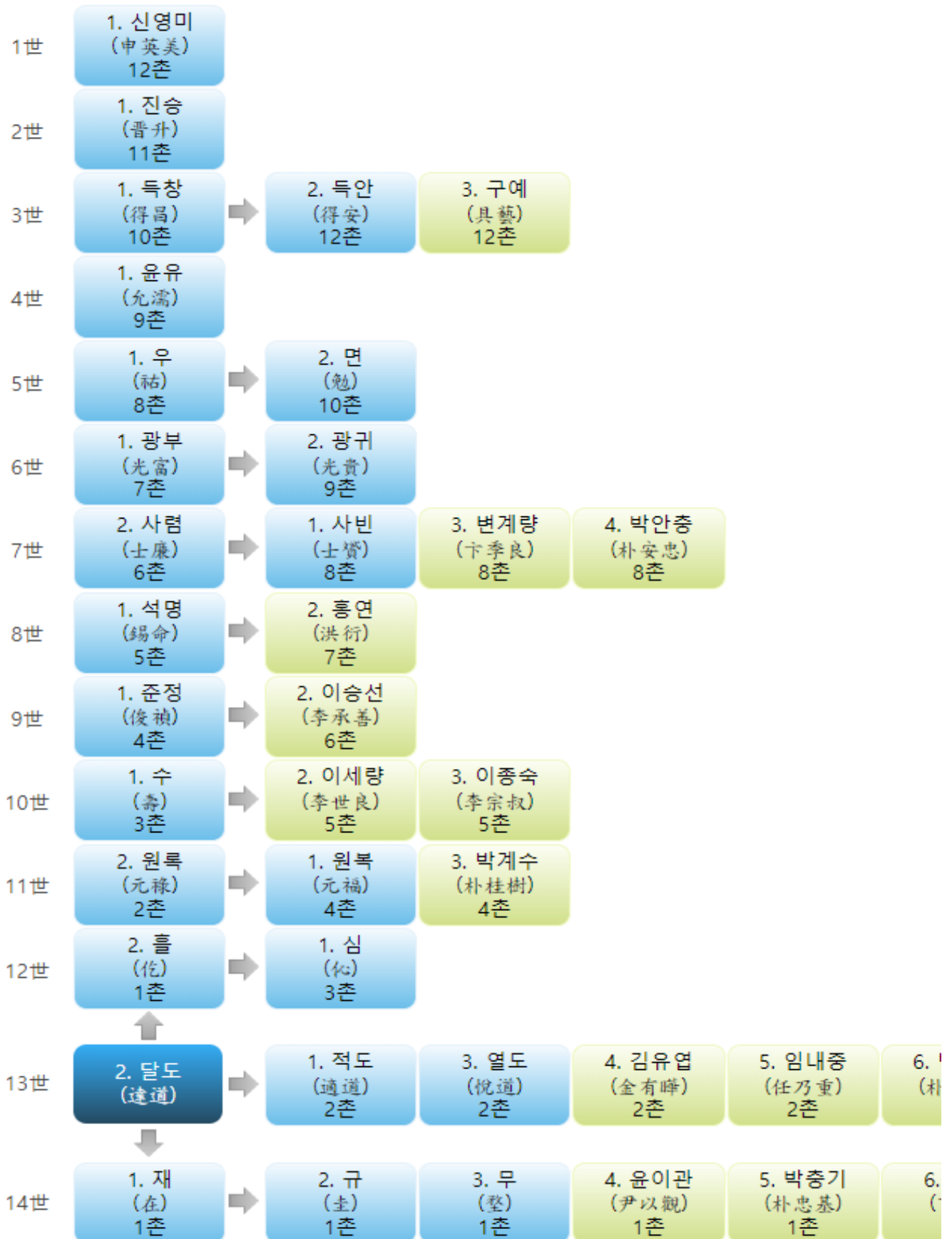
| | | | | | | | |
|---------|----|------|----|----|----|----|---|
| 광해 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39 | 1 월, 「鶴峯集」을 교정하다. ○ 4 월, 모친상을 당하다. ○ 6 월, 부친상을 당하다. |
| 광해 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42 | 金城山 아래 蔚馬里로 거처를 옮기다. |
| 광해 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43 | 3 월, 黃鶴山에 薇山精舍가 완성되다. |
| 광해 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44 | 5 월, 장현광을 뵈고 '理氣分舍'을 논하다. |
| 광해 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45 | 1 월, 정구를 곡하다. ○ 3 월, 金誠一의 「言行錄」을 勘定하다. |
| 광해 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46 | 陶山書院 尙德祠을 배알하고 月川書堂을 거쳐 梅園 金光繼, 溪巖 金垞을 만나고 돌아오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48 | 1 월, <自警箴>을 짓다. ○ 6 월, 明政殿 庭試에 장원하다. ○ 성균관 전적이 되다. ○ 10 월, 成歡道 察訪이 되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49 | 李适의 난으로 仁祖가 公州로 幸行하자 경계에 서 맞이하다. ○ 5 월, 상소하여 驛의 폐단 6 가지를 아뢰다. ○ 10 월, 全州府 判官이 되다. |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50 | 5 월, 관직을 버리고 서울집으로 돌아와 「冠禮儀節」을 찬정하다. |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51 | 4 월, 倉谷에서 장현광을 뵈다. ○ 윤 6 월, 형조 정랑이 되다. ○ 9 월, 예조 정랑이 되다. ○ 11 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상소하여 時弊 10 조와 修省의 도리를 아뢰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52 | 2 월, 강원도 순찰사로 부임하는 동생 申悅道를 전송하다. ○ 5 월, 지평이 되다. ○ 7 월, 식슬들을 거느리고 남으로 내려오다. 禾谷에 晩悟齋를 짓다. |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53 | 1 월, 예조 정랑이 되다. ○ 2 월, 德陵과 安陵의 奉審使에 차임되다. 봉심을 마치고 會寧에 유배 중인 崔暉을 찾아뵈다. ○ 3 월, 咸興 樂民樓, 安邊 駕鶴樓를 유람하다. ○ 복명하여 關北의 실상을 아뢰다. 세자시강원 문학이 되다. ○ 7 월, 지평이 되다. 冬至使 書狀官으로 북경에 가는 동생 申悅道를 弘濟院에서 전송하다. ○ 8 월, 시강원 필선이 되다. ○ 12 월, 사헌부 장령이 되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54 | 6 월, 장령이 되다. ○ 8 월, 李貴의 교만 방자함을 아뢰다. ○ 10 월, 헌납이 되다. ○ 11 월, |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 | | | | | | | |
|----|----|------|----|----|---|----|---|
| | | | | | | | 사직하고 남으로 내려와 蒼石 李俊을 만나다. |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55 | 3 월, 장령이 되다. ○ 桐溪 鄭蘊을 변론하고 피험하다. ○ 5 월, 장악원 정이 되다. ○ 9 월, 都堂錄에 들다. |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56 | 3 월, 장령이 되다. ○ 5 월, 군자감 정, 홍문관 수찬이 되다. ○ 阿峴으로 거처를 옮기다. ○ 6 월 14 일, 阿峴 寓舍에서 즐하다. ○ 7 월, 義 城 陶巖里에 빈소를 마련하다. ○ 12 월, 梧桐 山에 장사 지내다. |
| 인조 | 24 | 1646 | 병술 | 順治 | 3 | — | 8 월, 도승지로 추증되다. |
| — | — | 1927 | 정묘 | — | — | — | 후손 申鴻基 등이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다. |

가계도

13세 달도(達道) 父 : 흘(佺)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 만오공파(晩悟公派)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사후 약 300여 년 동안 간행되지 못하고 초고 상태로 전해져 왔다. 동생 申悅道가 1653년에 행장, 1656년에 묘지를 짓고 연보를 편차해 두었고, 증손 申生濂이 李玄逸에게 묘갈명을 받은 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손들이 저자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손 申鴻基와 申錫基 등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1927년에 慶北 義城郡 召文面 道境洞에 있던 申錫基의 塾舍에서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였다.《초간본》이 본은 규장각(古819.5-Si61m),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939), 국사편찬위원회(D3B-11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D3B-50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93년에 14세손 申大源이 초간본을 대본으로 국역한 「晩悟文集」을 간행하였다.

본서의 저본은 후손 申鴻基가 1927년에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권8의 제4판은 卷次가 '七'로, 권10의 제29판은 板次가 '三十九'로 오기되어 있으며, 권10의 제50판은 권차가 누락되어 있다.

墓碣銘(李玄逸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권수에 총목이 있고 권마다 목록이 실려 있다.

권1은 시(118)이다. 경광을 읊은 시, 차운시, 회고시, 만시 등이 고루 섞여 있다. <城洞卽事>는 임진왜란 때 피란했던 黃鶴山 성동에서의 일을 읊은 것이다. <敬次月川先生下示韻>은 1596년 도산서원에 갔을 때 趙穆이 心學의 요체를 알려 주며 지어 준 시를 차운한 것으로 배움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送李從事征西>는 1618년 명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하자, 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는 李民奩을 전송하는 시이다. <思歸>는 全州 判官으로 재직할 때 지은 것으로 객지에서의 쓸쓸한 심정을 읊은 것이다. <江都記事十八首>는 정묘호란때 인조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란 갔을 때 지은 것으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읊은 것이다. 만시는 柳成龍, 朴而章, 李民成, 金奉祖 등에 대한 것이다.

권2~3은 疏(13), 劄(1)이다. 권2에는 <陳時弊十條疏>만 실려 있는데 1626년에 올린 것으로 어진 이를 등용할 것, 守令을 잘 택할 것, 인심을 수습할 것, 풍속을 후히 할 것, 諫諍의 길을 열어 놓을 것, 庶獄을 신중히 할 것, 貢賦를 균등하게 할 것 등 10조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권3은 지평·문학·필선·장령 등을 사직하는 상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소와 여러 상황에 대한 소회를 아뢴 것 등이다. <寇退後陳所懷疏>는 정묘호란이 끝나고 소회를 아뢴 두 건의 상소로, 서약을 맺은 것은 종묘사직의 수치이고 백성들의 씻기 힘든 울분이니 대소 신료들이 힘을 다하여 自彊策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다. <請賑西路饑民疏>는 1628년에 德陵과 安陵을 봉심하고 나서 西路의 굶주린 백성들이 關北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아뢰고 구제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伸救司諫尹煌筭>는 화친은 일국의 굴욕이라고 하다가 삭탈관직되어 유배된 윤황을 변론한 것으로 三司에서 연명으로 올린 것이다.

권4~5는 啓(44), 公緘(1), 呈文(2)이다. 계는 주화론을 주장한 崔鳴吉을 律文대로 처분할 것, 윤황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적을 막지 못한 도원수 張晩을 遠竄할 것, 諸宮家의 魚鹽船稅 등을 혁파할 것, 羅萬甲을 원찬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張維를 羅州 牧使에 보임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豊呈宴에 妓樂을 보내지 말 것, 地主를 무고한 竹山의 軍民들을 처벌할 것 등을 아뢴 것이다. 권5의 <椴島奉使時間見啓>는 1627년에 접반사 元鐸과 椴島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도로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날짜별로 적어 아뢴 것이다. 공함은 사헌부의 추고에 대해 자신을 변론한 것이다. 정문은 毛文龍에게 보내는 것으로, 적에게 붙어 침략을 행하는 변방의 백성들을 살육할 때 선량한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권6은 書(35)이다. 조목, 장현광, 정경세, 이호민 등과의 편지이다. 1605년에 올린 <上月川先生>은 조목에게 누누이 가르침을 주고 장려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며 道를 궁구하는 데 힘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 것이다. 1623년에 올린 <上旅軒先生>은 장현광의 理氣說이 李滉의 定論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것이다. 1629년에 올린 <上鄭愚伏>은 世道를 바로하려면 우선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 어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1623년에 올린 <上李五峯>은 李好閔에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光海朝 때의 죄인을 엄히 다스리고, 오랑캐를 막을 계책을 세울 것을 청한 것이다. <答崔認齋>는 최현에게 보낸 것으로 「학봉집」의 교정에 참여해 달라는 청을 승낙한 것이다. <與黃大進>은 黃宗海에게 보낸 것으로, 竹林書院에 鄭逵와 金駟孫을 追享할 때는 세대보다 道學이 우선하므로 정구를 먼저 모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장현광에게 여쭙어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與洪副學>은 洪瑞鳳에게 보낸 것으로 號牌法의 시행 시기를 잘 살펴서 하라고 한 것이다.

권7은 雜著(4)이다. <南山問目>은 아우 申悅道와 함께 남산에 머무르고 있는 장현광을 찾아가 경전을 논의한 것, 장현광의 저술인 「易學圖說」을 보고 理氣에 대해 논의한 것, 「心經」을 강론하며 四端七情論에 대해 논의한 것 등이다. <榜諭境內文>은 전주 판관으로 재직시 풍습을 교화하기 위해 불인 방문으로 呂氏鄉約에 의거하여 미풍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江都日錄>은 정묘호란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로, 호란 초기 조정에서 강화도로 피란 여부를 논의한 것, 1월 17일 적군이 義州를 침입했다는 평안감사 尹暄의 장계 등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권8은 序(5), 記(2), 跋(1), 箴(2), 表(1), 箋(5), 哀辭(1), 告辭(2), 祭文(5), 墓誌(1), 行狀(3)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이다. 서의 〈送金孝仲越北幕序〉는 함경도로 가는 金榮祖를 전송한 것이고, 〈送金孝徵遊清涼山序〉는 淸涼山으로 유람을 떠나는 金應祖를 배웅하며 지은 것으로, 이항의 자취와 정대한 가르침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送許仲開之任蓬萊郡序〉는 高城 郡守로 부임하는 許啓를 전송하며 지은 것으로 金剛山이 있는 곳으로 부임하니 신선의 자취를 볼 수 있겠다며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懶齋記〉는 동생 申悅道の 당호인 '懶齋'에 붙인 것으로 '懶' 字의 진실된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成歡郵館重創記〉는 성환도 찰방으로 부임하여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관사를 중창하고 지은 것이다. 〈力學箴〉은 9세에 지은 것으로, 하늘이 준 人性은 聖賢과 다를 것이 없으니 그들의 자취를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本朝請由海路入貢表〉는 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으니 바닷길로 입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本朝訓鍊都監進金應河忠烈錄箋〉은 훈련도감에서 봉진한 金應하의 「충렬록」을 진언하며 올린 것으로, 醫巫閭를 회복하려다 전사한 金應하의 충절을 기린 것이다. 〈金而和哀辭〉는 장현광의 문인이었던 金中淸의 죽음을 애도한 글이다. 〈焚黃告辭〉는 세자시강원 좌필선이 되었을 때 부친에게 좌승지가 증직되고 모친에게 숙부인의 칭호가 내려지자 이를 고하는 것이다. 제문은 趙穆, 鄭復享, 申弘道 등에 대한 것이다. 이어 백부 申佖의 묘지, 부친과 죽형 申弘道の 행장, 司空精의 실기가 실려 있다.

권9는 동생 申悅道가 편찬한 年譜이다. 1656년에 지은 간략한 後識가 첨부되어 있다.

권10은 附錄으로 申悅道가 1653년에 지은 行狀, 李玄逸이 지은 墓碣銘, 申悅道가 1656년에 지은 墓誌, 金尙琦·崔暉·李民寅 등이 지은 祭文 8편, 張顯光·李好閔·金堉·李垞·尹煌 등이 지은 挽章 52편이다.

끝 부분에 1927년에 申鴻基가 발행자가 되어 慶北 義城郡 召文面 申錫基의 塾舍에서 발행한다는 刊記가 붙어 있다.

만오집(晩悟集)

晩悟先生文集卷之一

詩

城洞卽事 壬辰

我生如浮雲。擾擾東復西。六月入清涼。三秋淹竹溪。同來百餘口。轉輒相扶携。朝晡有時缺。所愧子職虧。干戈日相尋。生理焉得謀。此地少知己。惘然難久留。聞道黃鶴山。有洞名是城。磅礴扶輿氣。歛吸靈眞精。崖壑擁而奧。荒畚亦可耕。俶裝畏周行。杖策尋小垆。鄉井自茲近。不辭行役艱。曉發甘泉月。暮向蘆江雲。飄蓬今幾月。羣盜尙紛紜。向來百戶村。未見一人還。危逕細如縷。處處山崢嶸。上有茂樹陰。下有湍水清。川原屢曲折。梯石復攀荆。斜日遞隱見。怪鳥時一聲。鈇鉞巖更奇。面面穹厓蒼。霜楓照面紅。浩歌乘絕岡。山勢成郭郭。地形藏堂隍。幽泉瀉其中。掛壁勢何狂。激石渾白雪。墜淵忽晴雷。枯松與怪石。錯落左右頽。偉哉造化功。厥初誰劈開。當時擬地利。茲焉留小堆。雉堞尙礪礪。麗王去不迴。那知數架菴。寄在窮山隈。僧去佛猶存。一身半莓苔。寂寂梵放響。寥寥蓮花臺。山家也如此。怊悵一徘徊。呼僮啓戶牖。灑水滌塵埃。寥廓乾坤淨。蒼茫星月低。重闌自此安。羅立諸孫兒。六親相對面。情話亦樂且。有山朝可採。有水暮宜漁。霜前滿篝實。不患生計疎。物外無餘事。隨分任起居。在昔許魯齋。風塵不廢書。男兒合做事。詎因喪亂沮。逝携兄及弟。孜孜誦聖言。光陰不我待。及時思勉旃。時運故不齊。浮名何足論。中夜念時事。傷心涕交頤。廟社隨灰燼。玉駕何所之。南徼連烽燧。西塞動鼓鞮。郡國日以病。赤子靡孑遺。朝廷足良弼。有誰濟顛危。懷憤欲掃除。愧乏經濟姿。撫劍發長嘯。聊題城洞詩。

謾筆

愁深歲月悠。興溢乾坤窄。把酒欲書懷。山光筆下碧。

登黃鶴菴

鶴山東畔亂雲堆。中有禪宮窈窕開。佛祖丈身金半落。麗王曲堞石全頽。融峯興足三盃酒。鹿洞思誅一畝萊。斜日不堪頻北望。當今誰是濟川才。

途中偶吟

城南昨夜東風起。城北今朝柳色新。滿地干戈無了日。從今將作遠遊人。

聽鷄 乙未

爲善日孜孜。何憂未至聖。晨鷄兩三聲。起坐發深省。

敬次月川先生下示韻 丙申

當日溪門講此心。操存旨訣細推尋。先生開示無餘蘊。小子惟思諦得深。

原韻

千聖相傳只一心。微言尚可卷中尋。要收已^P放歸腔裏。誠敬關頭着力深。

轉客眞城。宿孫君 倪 草堂。次韻却寄。

草草離鄉客。棲棲幾問津。荒村依古木。窮峽絕羈塵。漂泊今三歲。情親我二人。猶堪雞黍宿。且莫恨家貧。

敬次月川先生見寄韻 己亥

短什長牋次第開。都從丈席手中裁。別來珍重相思字。挑盡殘燈閱幾回。

自笑愚生謾好古。三年門下不知裁。諄諄引誘猶如此。木石雖頑庶感回。

^P原韻

別來消息今安否。離恨朝朝未易裁。目送歸雲天遠大。芙蓉山下首頻回。

仙巖小築 壬寅

城塵無地可藏書。故傍先楸縛小廬。已識溪山閒者主。不妨門巷俗人疎。浮名分外何關我。古紙堆邊自在渠。懶習年來猶未祛。曾中草木奈消除。

臥雲途中口占 甲辰○往拜西厓先生時

何處春風座。河南花柳村。後生誠意薄。三十始^P登門。

白雲亭奉贈金以承 是樞○己酉

十六臨河曲。先生五弟兄。塤箎當日樂。太平白雲亭。

西厓先生挽 丁未

夫子挺南服。嫡傳胤退翁。經綸三代際。勳業八年中。加額今司馬。鞠躬古臥龍。斯文嗟已喪。何處挹餘風。

庚戌春。以新恩。同柳季華 軫，李孟堅 時幹。拜五峯李相公。時庭梅未花。令各賦。

Ⓟ 晚托芳園裏。清姿迥出塵。含情未肯吐。羞與柳爭春。

贈別李茂伯 潤雨 通判龍庭 癸丑

玉塞三千里。南還又北歸。途窮仍此別。歲晚更誰依。驛路遍秋草。離亭帶夕暉。男兒忠信仗。何必淚霑衣。茂伯以輸城承遞還。未幾又赴鏡城。

不知巖。與崔訥齋 睨 諸公。敬次旅軒先生下示韻。丁巳

天道自好還。有夜必有曉。嗟哉今世人。此理知者少。

Ⓟ 原韻

長夜苦漫漫。天地何遲曉。羣鼠亂床邊。宿客夢自少。

金烏書院。敬次旅軒先生韻。

大節誰能及。烏山仰止高。百年遺像在。風範政非遙

不有一絲重。誰欄七里高。青青無限竹。殘日共逍遙。

原韻

竹有當年碧。山依昔日高。清風猶豎髮。誰謂Ⓟ 古人遙。

薇山別業四景。做金子峻 玲 作。

春山采蕨

廉纖微雨夜來過。春入山阿長蕨芽。采取朝朝充鼎實。樂飢聊可送生涯。

夏畦鋤禾

數頃新畬若易荒。田家長夏事全忙。辛勤理盡衡縱畝。會見秋來詠萬箱。

秋園燒栗

高秋八月欲繁霜。園栗初收半坼黃。撥灰贏得^P穉童喜。轉覺山家滋味長。

冬爐烘酒

雪榻蒼茫送歲華。擁爐孤坐酌流霞。此身自在羲皇上。勝致高陽未足夸。

濯足

濯足滄浪曲。歸來帶夕暉。清明元自在。何必振吾衣。

鈇鉞潭口占

居兼山水協初心。惟恐年來入不深。洞號峨嵋環石角。潭名鈇鉞繞楓林。啼猿唳鶴時時逐。飛^P鷺潛魚在在尋。早晚吾亭成突兀。閒探二樂聖賢心。

晉甫弟自葛山來會讀朱書。頗有思索之工。喜贈三絕以勸之。

澗飲巖居分所甘。一床相對弟兄三。今君欲向康莊路。却把朱書作指南。

鑪錘藥石紫陽書。節約陶翁更註疏。直與六經相表裏。面前門路日星如。

緊着工夫大着心。耐煩咀嚼味方深。分躋寸進旁通去。容易竿頭百尺臨。大一本作虛

奉次金孝仲 樂祖 見寄韻

十載窮途任往還。一番離合一悲歡。襟期許我形骸外。麗澤資君伯仲間。楓葉題詩黃鶴洞。禪燈講道白蓮山。悠悠昔事渾如夢。無怪于今鬢雪斑。

秋夜有感

向來周道轉荒榛。獨抱遺經感慨新。前去光陰難把玩。終身恨未免鄉人。

山中卽事

避地安吾拙。柴荊晚始開。有書消白日。無客破^P蒼苔。小榻千嶂月。幽泉萬壑雷。荒畬餘數頃。猶足寄生涯。

敬次旅軒先生下示韻

紛紛世道任崩分。歸作山人與友雲。獨抱瑤琴彈夜月。曲中真訣有誰聞。晦庵詩曰自作山中人。卽與雲爲友。

原韻

大道難容世路分。此身端合臥山雲。山雲寂寞塵寰遠。人是人非摠不聞。

漁磯

清溪斜日雨霏霏。黃鶴山前白鷺飛。自笑機心^P猶未斷。手携竿竹上漁磯。

玉笛洞

山下清溪溪上臺。登臨無地可塵埃。悵望雲際低回久。吹笛仙人倘一來。

送李從事 民寅 征西 戊午

送君西去路悠悠。羽箭銀鞍馬紫騮。男子當需天下策。元戎政借幄中籌。行邊落葉鶯兒夕。戰後陰雲鴨水秋。勒石燕然千古事。遼城前夜隕旄頭。

晉甫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咏懷。語極悲惋。覓和於余。遂口號書之。庚申

古有桓君山。憤世長流涕。我亦豈忘世。仰屋門獨閉。雄心日千里。耿耿懷奇計。無由叫閭闔。雲臥友松桂。已乎曷之爲。俛仰聊卒歲。

我欲指聖路。日暮且途遠。乃知力不任。初誠不自忖。聖人著明訓。何不於身反。惺惺喚主翁。速令遊騎返。上達由下學。不關時早晚。

皇綱久不振。女真今倒戈。富車一敗績。士卒爲蟲沙。防秋令尤急。徵發赴金河。大東民已竭。猛虎政又苛。國事今如此。言之將奈何。

^P人君代天工。固是天所子。變異不虛生。儻予豈無意。枉矢出西方。芒角竟天起。不敢指某事。畢竟是誰使。君相信造命。勿言吾何以。

十年任飄泊。所居非牙簷。容膝苦未安。風震而雨沾。人歎食無魚。我歎食無鹽。憑將百錢卜。欲問君平巖。盡室又歸南。我突何時黔。

讀書破萬卷。世人嗤我愚。談兵窮六韜。世人譏我迂。茫茫穹壤間。拓落成腐儒。自料百無用。願作耕田夫。中宵心萬緒。髮白非故吾。

濁滓日橫流。清芬坐銷歇。井甘泉先渴。木秀風^P必折。世道已焉哉。念之腸欲裂。古人有至言。積毀能銷骨。惟當炳幾先。徙薪復曲突。

挽宗丈 之^回○戊午

吾祖按廉公。永世芳澤流。公能趾厥後。孝友爲箕裘。所尚守本性。曠然無外求。勤耕生理足。卜築境界幽。棲棲田畝中。俯視世俗偷。披襟去表襮。到底皆青眸。七旬無一累。天餉亦已優。先人愛任眞。半世許交遊。自遭風樹痛。傾嚮不暫休。春前一趨候。滿眼韶光浮。謂可執長筭。拜賀情綢繆。天乎不憐遺。沉痾竟莫瘳。人間萬事謬。倏^P忽同壑舟。娟娟霜月苦。刺刺寒風愁。半生依仰地。題挽淚未收。

挽朴宣傳 己未

妙技穿楊葉。英聲早出羣。馮唐嗟已老。李廣竟何勳。處世無畦畛。休官任釣耘。悠然乘化盡。萬事不須云。

到烏川。奉次金子峻韻。辛酉

[I]ITKMOXML | 복사 URL 복사

悠悠歲月駛東流。十載重逢已白頭。尊酒如今相別後。陽春一曲和無由。

原韻

^P一帶長江束峽流。百年心事到壺頭。參商幾入從前恨。此日臨分不自由。

祇謁陶山尙德祠

青山深處白雲堆。夫子宫牆萬古開。四十年來生晚歎。滿江風月獨徘徊。

月川書堂感舊

月翁遺躅水南庄。庭樹依依草自荒。已矣人文今寂寞。不堪斜日獨登堂。

次金以直 光岳 韻

世事聞來欲白頭。閒愁聊寫暮江洲。逢君說盡^P心中蘊。不覺交頤涕泗流。

九日有感

年年此日作佳辰。白酒黃花慰二親。有酒如今誰爲酌。每當花發淚盈巾。

與諸益留南山。敬次旅軒先生韻。二首

吾黨二三子。周旋長者後。匏樽舉相屬。悠然到夜久。高歌奏流水。絲桐在我手。

維時遭喪亂。胡爲不我後。遼界日蹙國。王師暴露久。我願天悔禍。稽首且拜手。

咏懷奉呈伯氏。兼示晉甫。

^P業文還愧老無成。擬學孫吳致太平。給餉已令妻制閫。攻愁更用酒爲兵。讒鋒永戢誰乘釁。怒寇投降自豎旌。從此天君端拱坐。區區何事築長城。

次金孝徵 應祖 韻。贈別晉甫葛山之行。

天地茫茫老此身。無端華髮鬢邊新。風樹已纏泉下痛。離亭今日更沾巾。

原韻

乾坤何處可容身。罪戾餘生鬢髮新。人子誰無烏鳥志。咏君詩句我沾巾。

挽朴參判 而章○辛酉

木稼頻呈孽。驚聞哲士萎。丘原無起日。雲物尙前時。一代風流盡。三韓禮樂衰。題詩長太息。非直爲吾私。

謾詠

爲桀爲堯摠在吾。一心操捨判賢愚。欲知活物危微界。須佩明誠二字符。

挽洪持平 璋○甲子

悃悃無畦畛。溫良自性眞。乘驄抽直氣。剖竹霈深仁。蕙死香猶在。鴻飛影未因。那堪題挽日。涕^P淚滿衣巾。

思歸 乙丑○判全州時

客心何事轉悽然。容易江南月五弦。去夜偶成東郭夢。寒梅落盡草堂前。

贈別完山士民

民病未醫身病深。無端濡滯半年今。攀轅父老休勤苦。分副盧扁兩副心。

醉酬聞慶倅 丙寅

薜蘿深處是官衙。簾外幽禽下上啼。賴有主人無事酒。高談不覺日西斜。

挽鄭秀才 櫟

去年在湖外。奄哭翰林喪。今年在洛下。又聞君繼亡。連年哭弟兄。慘怛如焚腸。君生好門庭。炯然如圭璋。少知讀書好。長能持己莊。識路且疾驅。前途不可量。鬼物竟售猜。天道何靡常。阿爺哭徹天。阿婦病在床。死者如有知。哀怨定無疆。玉樹埋窮泉。夜臺何時暘。春風吹細草。落日雲蒼茫。縻職違執紼。邈焉若相忘。他日還鄉路。何辭慰北堂。

大殿春帖 丁卯

^P青籥新吹歲律更。乾坤玉燭藹歡聲。百年耕鑿民安業。佇見笙歌醉太平。

聞賊警

夜來風雨暗西徼。胡騎長驅勢悍趨。近日雲中無李廣。頻年塞下動天驕。朝廷但恃金湯險。廊廟徒然口舌囂。白首腐儒何所事。壯心空撫匣中刀。

送鄭錦南 忠信 西征

社稷逢今日。將軍有此行。堂堂殉國志。天下已知名。

送晉甫弟赴關東幕府

風塵千里別。塘草百年情。一箇精忠字。書燈已講明。

送李石潭，朴正郎 瑋 赴號召幕。

生死論交地。存亡許國身。傷心今日事。分手故鄉人。嶺路梅經雪。湖亭草染春。風塵無限意。觸物轉悲辛。

江都記事 十八首

高皇初載奠吾東。禮遇由來內服同。忍說寧陵西狩事。至今遺老泣神宗。

❶ 一片丸都尙敵隋。三韓弓馬盛於斯。際當聖主中興日。蕞爾狡奴折箠笞。

胡馬崩騰勢若飛。重重鐵鎖忽披靡。西師十萬歸何處。昨日安州又被圍。

三時撥馬渡江來。肉食羣公面面灰。爭道去邠爲上策。九華門外謾低徊。李延平勸上避入江都

大老筵前建一言。撫軍監國古來然。東朝分向湖南路。草草宮僚三兩員。完平相請命世子出鎮全州。以繫人心。上從之。春坊衛司只許各四員隨行。

風雪紛紛日色微。乘輿顛倒出宮時。回看鳳❷ 翥鸞翔地。無限蒼生慟哭歸。

西出都城百里餘。錦帆高揭海門虛。元戎急牒緣何事。爲有金人去夜書。賊致書于我。有五種說。因示求和之意。

碧海茫茫萬折回。摩尼山色帆前開。風濤盡日能安穩。知是魚龍暗護來。

一髮孤城萬事非。暮雲殘角不勝悲。控弦帶甲千乘國。豈意君臣賦式微。

廟堂論議日紛紜。却把羈縻誤聖君。昨讀行宮哀慟札。堂堂大義足聽聞。教書有虞以拒絕天朝爲辭。寧以國斃。不敢從等語。

❸ 金營潮信暗相催。通使朝朝短棹回。莫道完城多勝算。中間陵律作奇媒。時崔完城。與虞差劉海議和。弘立，蘭英爲紹介。

往事深河大不忠。甘心挾虜抑何功。可憐二百年間議。折入降俘俯仰中。弘立引見時。廷臣有以忠信可尙稱之者。

咫尺天威敢抗顏。狡奴情狀太無端。侍臣恐失慙懃意。請賜兼銀二百緡。劉海見上欲抗禮。給銀千兩喜從。

星月蒼茫燕尾亭。滿城刁斗寂無聲。三壇半夜網繆事。腥血銅盤約弟兄。

一統山河重紀年。春秋書法儘森然。不知揭帖從誰手。漏却天朝正朔編。金昇平以爲姑從胡差之言不書年號。只爲揭帖許和爲宜。

晚天金鼓動淵淵。信誓分明在兩邊。是日王孫穹幕去。那堪春草綠年年。朝廷以原城令陞原昌君。稱王弟爲質。

幼一危言德耀章。一門忠義兩堂堂。海東男子重宸歎。日月爭光萬口張。幼一在春坊。自書尺疏以進。上特稱海東男子。德耀疏論諸宰主和誤國之罪。且請斬弘立，蘭英等。時人謂之日月爭光。○幼一輔德尹知敬字。德耀司諫尹煌字。

主辱如今未死臣。乾坤無地可容身。朝來草進防胡策。哀淚紛紛落滿巾。

虜使已退。憤懣無聊。遂成一律。

一死嗟無勇。偷生愧此身。亂離仍作客。漂泊尚依人。怨起胡笳夕。愁連漢水春。望鄉千里外。消息苦難真。

三月奉使椴島。馬上口占。

孽虜滔天計。宰臣誤國謀。東牕當日事。誰雪聖朝羞。

到海州。次芙蓉堂板上韻。

宇宙風塵暗。關河道路難。仗劍憑危檻。首陽春色闌。

宿神光寺

咫尺禪門雪未融。病夫行役恻寒風。千尋老栢連雲翠。數點疎花向日紅。關塞氛祲誰蕩掃。海山遊賞墮虛空。愁來徙倚城頭望。無限滄溟一眼中。

信川郡酬寄尹使君 命之

使君含笑倚梅軒。遠客停驂日已昏。多病不堪當世用。相看始覺此身存。風塵歲月催華鬢。戎馬關山惱別魂。莫問向來多少事。百年名義忝東藩。

北津

兵戈猶未定。棲棲此何人。西塞無男子。全遼入女真。一春長走馬。千里少耕民。西事時方急。揮鞭向北津。

旅舍偶逢成友 俊耆 打話

偶逢管餉使。仍宿北川津。天地容吾輩。干戈老此身。人言空織貝。王事質明神。歷歷西邊事。挑燈更細陳。

龍岡途中

龍灣一帶尙胡塵。豈意吾生際不辰。忍垢君臣^P當此日。誓心天地更何人。路傍白骨埋無土。閨裏紅顏慟徹旻。戰守如今都沒策。可堪回首望楓宸。

舟中次接伴使元公 鐸 韻

天長海濶縱雙眸。羈紲今行得壯遊。臣子惟當安職分。丈夫焉得惱鄉愁。自憐塵世難青眼。堪笑浮生易白頭。鴉軋一聲驚客夢。微茫新月滿汀洲。

謾吟

世事堪流涕。羈懷對落暉。春從前夜去。人得幾^P時歸。報主身空老。殲胡計已違。夜夜南州夢。前溪漲沒磯。

聞奴賊所過多搶殘。吟成一絕。

官軍頻敗衄。胡馬尙縱橫。中宵望北斗。淚盡血交零。

甌山口占

始覺邊城近。仍知節序移。關山空勝槩。天地入瘡痍。未死當憂國。無才可濟時。王程元有限。不敢計歸期。

途中有感

仙槎館外夕陽低。凌漢城中芳草迷。表裏山河防守地。傷心最是潁江西。

舟中裁付家書

積水迷茫日易催。浮休人世正堪哀。舟中衾篋常如鐵。病後形骸轉似灰。縱寄家書嶺外去。誰將鄉信海西來。滿腔離恨無由寫。強作新詩當酒盃。

夜泊雲從島

客睡何曾穩。江天不肯明。愁來仍轉輾。欹枕聽潮聲。

再疊

聞道陳鈴轄。軍中號令明。留防今政急。刁斗已傳聲。

晚泊椴島

竟夜涉重溟。寒鷄報五更。人如天上坐。船似鏡中行。忠信吾何有。波濤自不驚。王程無淹滯。知是賴神明。

留椴島

大寇何時解。元戎幾日回。孤臣憂國淚。疎雨總軍臺。時都督毛文龍領兵向麟山未還。

書懷

殘燈垂半壁。永夜悄無人。久客仍多病。他鄉又送春。黃金囊裏盡。白髮鬢邊新。憂國勞肝肺。歸魂遶紫宸。

夢見晉甫

摻手都門兩斷腸。鴈行分散海天長。分明紀得今宵夢。對討朱書共一床。

鄭鳳壽，金礪器西土名帥也。聞余過此來見。遂書一律以勸之。

白羽辭弓客。風塵意氣豪。側身探虎穴。堅壁蘊龍韜。將相無今日。英雄見爾曹。平胡早晚事。麟閣紀功高。

贈弓鄭，金兩帥。

不斬名王首。誰欄介子豪。臨分無所贈。爲解腰間弰。

刷還東土飢民擄在島中者。吟成一絕。

半千翳鬼載歸船。放爾東還督府賢。却笑書生迂濶甚。前頭濟接屬誰邊。

病臥甌山憶伯氏

臥病誰相問。殘燈獨自親。通宵愁不寐。神往虎溪邊。

西關吟

莫詫西關勝。繁華著處殘。當時歌舞地。戰骨白如山。

送閔參判 聖徽 赴京

滄海元無極。鯨波渺接天。舟行碣石外。鞭拂泰山邊。玉帛千年會。衣冠萬國賢。燕南多慷慨。試和郢中篇。

歸去來曲

是秋余自京歸。躑躅方茂。感物有作。名之曰歸去來曲。

我本無心人。於世任飄泊。一進與一退。徑情非外飾。去實無營求。來寧爲戀着。悠悠復悠悠。綽綽又綽綽。歸歟天台下。蕭灑數間屋。圖書尙無恙。松菊生顏色。山自無心青。水自無心白。萬鍾亦奚爲。一瓢聊足樂。無人共此味。滿眼山躑躅。禾村別業在天合峯下。

自歎

九死歸來萬念虛。此身端合臥田廬。閒中却有傷心處。塵暗床頭舊讀書。

禾村幽居

清江一曲少塵烟。閉戶端居便覺仙。近日朝廷多悔吝。晚年丘壑合盤旋。丹楓翠竹踈籬外。黃卷青燈淨几邊。從此機心消去盡。蘆花時傍白鷗眠。

閱盡

閱盡驚濤更險巖。悠悠世路去逾難。從今萬事都休了。深閉衡門草野間。

閒居即事

晚覺頤神法。移家近水村。閒居從我好。幽抱向誰論。疊壁留雲氣。殘花帶雨痕。元無需世具。不妨倒芳樽。

春盡

強欲尋春去。其如衰病何。無端前夜雨。落盡滿山花。

挽李丈 民弘

杖屨相隨卅載餘。晚情先契未曾踈。眞襟露出含盃際。雅論冰生講學初。夢裏相思千里面。病中猶寄數行書。如今更晤從何處。喬木蒼然蔭舊居。

送姜學顏 大進 之任

清朝雅望蔚嵯峨。瀝血危言啓沃多。暫解皁囊辭北闕。旋紆朱紱赴南衙。行藏有命君安分。用舍隨時我不嗟。此去飄然堪吏隱。翱翔誰與共衣華。

挽李立仲 禮遵

竹馬從遊早。金蘭托契深。半生同冷落。末路任浮沉。幾發憂時歎。猶懷濟物心。良朋嗟已喪。斜日淚盈襟。

挽申訓導 之問

吾門衰替甚。零落幾人存。川院會同榻。禪牕共對樽。浮生如幻夢。後死獨傷魂。花樹他年會。難聞

長者論。

送金伯承

柳綠花紅日正長。臨分携手意茫茫。莫道男兒無別淚。東風吹斷去留腸。

三月奉命赴關北。登鐵山關。口占一律。

昔聞咸關險。今登鐵嶺高。溪流多曲折。山勢極周遭。方信摧輪歎。誰憑叱馭豪。神州方有事。悵望我心勞。

登磨天嶺

踏盡重關去。蒼茫日已斜。四時長見雪。三月未開花。駟路通山頂。人居傍海涯。敢言行役苦。回首且高歌。

安邊道中

去年關西路。東風草如茵。今年關北路。花柳正爭春。連年鞍馬苦。不知景物新。

鶴湖臺

浪城東畔有仙臺。一笑登臨萬念灰。欲泛孤舟尋鶴去。不知何處是蓬萊。

安邊倅李令公 弘望 設酌于駕鶴樓。請題詠。仍成一律。

千家籬落滿城開。中有高樓何壯哉。地接魯連東蹈海。雲迷漢武北登臺。神仙底處驂鸞鶴。聖祖初年闢草萊。風物有餘身易老。憑欄催進紫霞盃。

奉酬李令公

駕鶴樓前日欲殘。白雲東指海中山。今君已作玄都客。昔我同居青瑣班。亂後徒勞千里夢。天涯聊得暫時歡。相逢欲問長生訣。萬事其如鬢雪斑。

登樂民樓

拂劍高歌逸興催。樂民樓上暫徘徊。乾坤日夜扶元氣。萬古東溟水一杯。

送宋僉樞 克訥 朝天

啣命丹墀下。乘槎碧海津。孤忠萬里路。賀節一陽辰。夷險須安分。馳驅肯顧身。鵠原相送淚。爲子更霑巾。

挽崔重吉 詰

洛山明而秀。洛水清且漪。山水鍾精英。孕出奇^P男兒。個儻有大志。如馬脫重鞵。俯視世俗偷。慨然慕軒羲。茂先辨物博。子雲識字奇。千古百家語。貫穿無餘遺。雄詞肆滂沛。筆勢何淋漓。豈無濟世策。耿耿空自持。瓮間數斗酒。憤世如狂癡。笑傲天地間。知音更是誰。昔我風塵裏。逢君許相知。聯袂流離際。共被對眠時。秋詠小山桂。春開清夜卮。語我太極妙。宏博真吾師。游騎失太遠。我言亦不差。切切相規義。金石不磷緇。別來幾多時。歲月秣馬馳。居然二十載。無計相追隨。君棲白雲壑。我受紅塵羈。顛仆困泥塗。屢被吾^P子嗤。邇來風雨惡。世路何嶮巇。行將謝塵氛。與子同棲遲。此志未及諧。人事奚至斯。崑璞不見採。幽蘭未秋萎。洛路忽幽音。一慟雙涕垂。君是達理者。一死未須悲。白髮雙親在。子子去何之。抱病違執紼。慚負恨無涯。

憶弟晉甫

滄海乘槎遠。孤城掩戶幽。去留俱萬里。離別又三秋。步月何宵思。看雲此日愁。杜陵詩數句。爲我弟兄酬。思一本作恨

出都門 己巳

^P遲遲行色出都門。歸路茫茫鎖凍雲。回首終南山漸遠。不堪哀淚落紛紛。

得晉甫書。知己渡江。喜而作。

池草三更夢。驛梅萬里書。春風西塞外。消息復何如。

生朝感懷

今日吾初度。劬勞母氏辰。無窮風樹感。悲涕坐沾巾。

洛中。次金忘窩 榮祖，鶴湖 奉祖 兩友韻。

斗祿非吾願。青山有舊盟。故園秋正好。歸興夢中驚。

原韻

早歲君民志。中年鷗鷺盟。佳期成晚晚。中夜壯心驚。忘窩

久臥憐同病。雲林負素盟。居然歲已晚。不覺旅魂驚。鶴湖

挽李敬亭令公 民晟

夫子適來世。高名衆所推。學該萬物象。文起三韓衰。雲錦製爲裳。瓊佩何陸離。昏辰曾卓立。清朝暫高馳。銀臺罷出納。林巷樂棲遲。蕭然圖書室。欹枕看戲兒。隨分理舊業。寄興題幾詩。伊我幸同鄉。少小相追隨。德音頻入耳。藥石砭狂癡。秋初余赴洛。慇懃寄短詞。隋珠耀白日。文字多古奇。南北渺雲樹。離懷自肝脾。何知數句語。便訣幽明爲。無命位不大。有才志莫施。空餘風月在。灑落見清儀。他日還鄉井。有誰更切悃。懷祿負匍匐。俛仰多忸怩。遙聞葬有日。千里空緘辭。辭將涕淚去。爲公復爲私。瓊佩一作蘭佩

江亭咏懷

風櫺徙倚縱雙眸。天欲窮時地欲浮。少日工夫惟帶劒。暮年心事獨登樓。千山亂雪三更夢。一曲長歌萬古愁。歸計祇今成晚晚。不堪吟罷更搔頭。

馬上口占

君恩未報身多病。扶鼻歸田道路長。回首長安何處是。暮雲殘日兩微茫。

渡懷德城江

石走知風急。冰堅覺雪寒。征人迷去路。斜日掛前山。

寄呈襄陽使君 四首

邈彼滄海東。實惟神仙窟。作宰豈易得。吾公有道骨。高臥未經旬。政聲已超越。葆真獨內觀。精光吸日月。安期尙相問。報我今華髮。

會合能幾時。世故不可道。海嶠隔清漢。孤城傍絕島。嗣音路已曩。惜別心如擣。獨有盈樽酒。慙懃慰所好。杜門祇自憐。安知我衰老。

政教聖所重。家國豈異本。民情大可見。柯則亦不遠。治亂竟何常。人和在布悃。風俗貴一變。世道足回挽。願作迂儒拙。毋爲俗吏狠。

吏道何其難。臨民敢不慎。無謂海邑陋。十室有^P忠信。太察戒傷明。令急慎招吝。所貴惟絜矩。中和爲大順。佇聞政化成。遠近流芳訊。

歲行盡矣。天道好還。而環顧平生。無一事粗酬己分。遂吟一絕以自悼。

孤燈永夜不成眠。點檢平生却悄然。枉費許多閑歲月。白頭何事又新年。

除書到日。吟成一絕。

年來已結鷗鷺盟。老去猶存犬馬誠。進退如今俱不得。堪憐見道未分明。

幽谷途中

^P驛亭微雨晚來晴。虛負西疇十畝耕。自是聖朝恩數重。白頭寧復戀功名。

與襄都事 尙益，洪撚髭^彙。舟中口占。

千里長江片帆開。終南山色碧崔嵬。沙鷗自是忘機物。應笑斯翁謾去來。

挽金持平 奉祖

奎運關山南。賢士彬彬出。公家九弟兄。箇箇金玉質。聯床日探討。白眉尤特達。餘事乃文章。濡染前修烈。功名豈所屑。晚來始嵬擢。平生補袞志。戴豸何諤諤。偃蹇非臣分。隨處思盡職。余在^P結髮初。一見心恍惚。有時拈話頭。如入芝蘭室。長安去年冬。雪後風凜冽。擁鑪客牕前。蕭然雙白髮。少時我何愚。老大公逾傑。我欲退耕田。公猶志拯溺。我笑公亦笑。閒談竟一夕。那知此日別。便作幽明訣。百年儘朝菌。萬事同風燭。旅櫬千里返。天意不可測。乘黃嗟已矣。何處儲華國。老夫空嗟惜。題詩和淚墨。

挽李秀才 文圭

蒼石先生我所尊。早蒙獎誘開昏癡。大兄因與托晚契。飽聞君是男兒奇。文章磊落及元古。庶^P起東韓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千載衰。青松萬丈合棟樑。荀氏八龍稱白眉。江陵山水佳可賞。子長之遊心所期。吟鞭一拂嶺東雲。豈知鬼物還相猜。蘭摧荷折不待秋。慘惓丹旌天一涯。人生到此那堪說。天理茫茫不可推。哀詞欲寫淚先下。坐對落日風淒其。

挽金而靜 允安 夫人

素與夫公好。從聞壺德賢。齊眉婦道順。主饋母儀全。落日窺塵鏡。淒風動絕絃。舊時鷄黍客。題挽一悽然。

送別

門前烟柳綠依依。送子今朝折一枝。征客催鞭登遠道。主人摻袂問歸期。正當宋玉悲秋日。又值蘇卿惜別時。莫遺音書長斷絕。時因南鴈慰相思。

月夜

蟾光此夜十分明。上下乾坤白玉京。王子弄簫乘鶴去。天風吹散步虛聲。

夢中作

殤短彭脩只一間。不須忻憾死生間。朝聞夕可宣尼訓。惟在熊魚取舍間。

覺後又吟一絕示兒輩 絕筆

道非虛寄宵冥間。不出吾人日用間。却向平平蕩蕩去。分明至理在那間。

晩悟先生文集卷之二

疏

陳時弊十條疏 丙寅

通訓大夫司諫院正言臣申達道。誠惶誠恐。百拜上言于主上殿下。伏以殿下天縱聖德。神授英謀。躬定大難。手振宏綱。勵精圖治。四年于茲矣。而治具之漸張者。未見其日進。而但見其日返。旁招俊乂。禮遇賢士。一時人才。皆立於朝。而同寅之效蔑如。掃除煩苛。洗滌貪污。十年弊瘼。盡祛於民。而安集之期邈然。念軍兵逃故之弊則設汰講勑號牌而只增騷屑之端。虛簿尚多。憂儲蓄匱乏之患則立裁廳減貢膳而徒有更張之名。實效未著。稽衆察邇。每切自用之戒。而言官論事。動觸批鱗之怒。克寬克仁。屢下惻怛之教。而有司峻法。釀成羅織之禍。紀綱頹廢。壅闕猜疑之習生焉。政教解弛。矯巧躁競之風滋焉。以至天怒於上。變異層生。民怨於下。饑饉荐臻。此皆衰季之例患。危亡之已迹。而朝廷之上。未聞有長慮却顧。敕厲而救正之。益張虛文。修飾外貌。上下憂勤者。不過蟣蝨細務。朝夕可否者。只是簿書常程。大官悠悠。小官泛泛。斂手相顧。一事莫措。遂使祖宗鞏固之基。中興丕大之業。日入於委靡渙散之域而莫可收拾。是豈殿下初心所期。而亦豈臣民所蕪望於殿下者哉。臣職忝言地。目擊艱憂。區區憂愛之心。不以疏遜而自外。庸淺而自沮。謹以私嘗講究於中者。條列于左。日用賢良。日擇守宰。日收人心。日厲風俗。日納諫諍。日決壅蔽。日慎庶獄。日省冗官。日均田賦。日修軍政。凡此十者皆經國之要道。救時之急務。然其振發施設之機。實在於殿下之一心。故茲敢掇拾古聖賢心法之要修省之實。忘其僭猥。申告于終。伏惟聖明垂察而進退焉。

其一曰用賢良。臣聞王者建官分職。任賢使能。乃所以共天位而治天職也。從古人君。莫不欲求忠以自裨。舉賢以自佐。然苟無道以照之。則鮮有不以賢爲不肖。以不肖爲賢。而好惡反常。舉措倒置。國之不底於亂亡者無幾矣。方今用人之失。有二焉。曰黨論也曰物議也。才難之歎。三代猶然。願今衰世人物渺然。雖使一時賢儁俱收并蓄。奔走率職。尚患不克有濟。况分朋立黨。互相傾軋。不問事之可否言之得失。而同於己則引進之如不及焉。異於己則排斥之無餘力焉。九疑阻於咫尺。瞿塘起於平地。在上之人。眩於是非。雖欲擇人而賢否莫辨。當事之士。疑於見敗。雖欲報國而才智莫展。此則黨論之弊也。近日朝著之間。又有一種物議之說。不知唱之者何人。和之者何人。而每當注擬之際。輒以物議爲口實。除某爲某職則必曰物議如此。陞某爲某階則必曰物議如彼。今之所謂時望者。專出於物議。清顯之選。亦由此路。然是之者未必皆是。非之者未必皆非。用之者未必皆賢。舍之者未必皆不肖。亦有無甚高下而別之太苛。無甚利害而爭之太銳。此則物議之弊也。夫以我國至尠之人才。黨論以疇之。物議以乖之。應窠塞臼。不合不公。無怪乎上有願治之主而下有不遇之士也。臣伏觀近日大小除拜。多出特旨。廢朝之轍。其忍蹈之耶。國家之官人。猶權衡之稱物。其柄在於銓官。非人主之所得以任情低昂者也。設使揚仄明明。量才而授之。已失任官擇人之義。况其實未必然。而前後所親除。非戚畹則勳貴。孰不曰殿下辟於親愛。欲其榮顯而信任之乎。苟不猛加懲省則夤緣曲徑。無所不有。希世取寵者。接跡而進。潔身修行者。識微而退。將何以明公道而服衆心。革宿弊而防後患乎。唐太宗責龐相壽曰我爲四海主。不可偏與一府恩澤。此可爲後世人主之法程也。伏願殿下務盡窮格之學。克去偏係之私。洞達光明。廓然大公。無有纖毫之翳。而於其所惡者。必察而知其善焉。於其所好者。必察而知其惡焉。如其才也賢也。無論彼此。舉而用之。苟其不才不賢則無論疏戚。擯而斥之。錄德而正位。隨材而授

官。洗朋黨潰裂之習。振流俗委靡之論。則王褒所謂明明在朝。穆穆布列。聚精會神。相得益章者。不難致矣。以今日之^P人才。了今日之事業。尚何憂哉。孔子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二曰擇守宰。臣聞親民之官。莫切於守宰。所以導上德意。致之於民者也。夫君之於民。有父母之道焉。苟不得人以任之。則雖有哀傷之念惻怛之政。而上下否隔。邈然不相接。椎剝之禍。反至於率獸而食人。可不慎哉。反正之初。特下哀痛之教。痛滌貪饕之習。庶幾吏得以戢奸。民得以息肩。^P而掄選之不公依舊。濡染之宿習尚在。今之爲守宰者。率多殘酷放縱爲能事。抑勒集辦爲長技。顧於急征橫賦之外。更括龜背之毛。上所以厚饋遺而結權貴。下所以廣田宅而侈服御者。皆出於殘氓之脂膏。而恣意割剝。甚於曩日。使窮閭無告之民。流離失所。號泣道路而莫之恤焉。是豈盛世之所可忍爲者哉。伏願殿下宜令卿宰二品以上。無論時帶與罷散。搜訪經術才器可堪牧民者各幾人。每於歲首。從實^P入啓。而列書所薦人才行於一冊。仍籍其舉主於其下。守令有闕則出付銓曹。例以被薦人差遣。而俾專其任。勿責近效。所舉之人。如其賢也。增秩而褒獎其薦主。苟其不才也。以其人所犯之罪。并罪其薦主。則明試之下。孰敢徇情容私。自貽身禍乎。既又嚴飭方伯。明其黜陟之典。頻遣御史。考其能否之績。賞罰不爽。撫摩得宜。則驕橫^嚼嘖之習。因此可戢。而廉簡循良之治。庶可得見於今日矣。漢宣帝時。郡吏有治^P理效者。輒以璽書勉勵。賜金增爵。唐太宗手疏縣令姓名於屏風。著其善惡。以備黜陟。二君爲民之心如是誠切。故漢唐良吏於斯爲盛。有非後世之所及也。掄選之法既精。勸懲之道已至。而民安得不寧。國何由不泰乎。朱子之言曰四海之利病。繫於斯民之戚休。斯民之戚休。繫乎守令之賢否。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臣聞古者立刑必先施於贓吏。蓋以贓吏之爲患。甚於酷吏之肆虐。先去贓吏。猶除草^P先去其根也。近日贓律解弛。方伯連帥未有以貪污聞者。雖有之鞠治未竟。旋即收用。爲貪吏者將安所懲艾乎。蓋我朝贓律本峻。以私用五斗米爲犯贓。如此則舉世守令皆是贓吏。安得人人而罪之哉。祖宗之法。雖不可妄議。今姑輕其律而重其罪。苟麗于法。不少饒貸。擯逐而禁錮之。不齒簪纓之列。則實爲戢貪激廉之要道矣。并乞財擇。

其三曰收人心。臣聞人心之於國家。如魚之^P有水也。燈之有膏也。魚無水則死。燈無膏則滅。人主失人心則亡。古之興王。不畏乎方張之賊勢。而深畏乎至微之人心者。誠以內潰之禍。甚於外侮也。頃者國運中否。政昏刑亂。八域嗒嗒。皆懷離散之心。幸賴我殿下奉天順民。撥亂而反之正。表著彝倫。剷除兇穢。是其一着。有足以厭服人心。故內而都城旬服。外而遐荒僻村。凡有血氣者。莫不歡忻鼓舞以爲己歸。感應之速。捷於桴鼓。蓋國家之興亡。決於人心^P向背者。不可誣也。顧今天命之眷顧方新。民情之蘄向已切。其於收拾撫摩之道。不容少緩。而竊觀殿下求治之誠。漸不如初。政令施措之間。所以失人心者多矣。改紀之初。教諭中外。凡干貢賦逋欠。一切蠲免。御供方物。亦令裁減。而教墨未乾。徵斂依舊。此失人心之一也。武王散鹿臺之財而人心胥悅。德宗創瓊林之庫而民皆怨叛。富有一國。又蓄私藏。非盛世事也。內需司之弊。殿下之所親見。而至今未^P革。此失人心之二也。不擇守宰。到處貪虐。此失人心之三也。爵賞頗濫。刑罰失中。此失人心之四也。號牌之設。所以搜括閑丁。而久散之民。厭其羈束。怨誹朝廷。眞所謂不度時宜。輕犯人心者。此失人心之五也。凡此五失。皆足以亡殿下之國。而今之當事之臣。又從以變易舊套。排置新規。施行無漸而過於峻急。規模未定而傷於煩瑣。使新經塗炭之民。疑懼脅息。不得自安。苟不及時收合。則民心一去。莫可挽回。^P此臣愚所以私憂過慮。仰屋而長吁者也。伏願殿下急召大臣與之商確。焚積逋之券。罷私蓄之藏。凡苛政虐斂之民所不堪者。悉除去之。使貪官污吏。不得藉手侵虐。而又於御史之行。考講號牌。務從寬大。不至大拂民情。

則德音所暨。遠邇風動。變呻吟爲歌舞。只在一轉移之頃矣。朱子之告宋孝宗曰陛下者。我宋之盛主。而今日者。陛下之盛時。於此而不副其望焉。則祖宗之遺黎裔胄。不復有所歸心矣。殿下之今日。亦豈非大有爲之會而不可失之時耶。傳曰得其民有道。得其心斯得民矣。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四曰厲風俗。臣聞爲治之道。當以正風俗爲本。而欲正風俗。惟在乎使人皆知善之可慕而必爲。惡之可羞而必去也。夫四海之兆民至衆。人生之意欲各殊。苟非在上之人總攝而整齊之。教之以孝悌。導之以禮讓。使之各自務奮。更相勸勉。則舉一世靡然日入於苟偷卑陋之域。而不復知名節行檢之爲何事。可不念哉。我國素號禮義之邦。而自經廢朝昏亂之後。世道極於澆漓。冠裳變爲禽犢。因仍苟且。漸漬成風。終於天理熄而人倫絕。有識之寒心。固已久矣。殿下慨然有挽回世道之志。反正之初。擢用儒賢。抑浮靡之習。興廉讓之風。凡係彰善瘴惡之政。靡不用極。古聖王明倫善俗之治。庶幾復見於今日矣。然而風俗之不淳。由於道學之不明。道學之不明。由於教養之無素。教之無法。養之無度。而遽望其德化之成者。是猶不浚其源而欲澄其流。不端其表而欲正其影者也。臣竊以爲三代學校之法。雖不可盡復。略做程子熙寧之議。發遣近侍于諸路。與方伯守宰。悉心推訪。先擇學明德尊爲世矜式者。爲太學之師。次選篤志好學可進於善者。入于太學。而其教自孝悌忠信。至於周旋禮樂。其道自擇善修身至於化成天下。其學自經傳子史。以及於洛建諸君子之書。皆要循序漸進。講明義理。不爲外誘他技之所撓奪。而學官以時相接。察其賢否。考其勤慢。經明行修者。第其上下而薦之朝。業壞行虧者。從其輕重而黜之齋。外方則擇其罷散文官及生進中博聞躬行可堪師表者。爲列邑訓導。擇士之法。居齋之規。漸摩成就之方。一依太學之制。而皆以勵廉耻興禮讓爲本。道臣每於春秋行縣之日。親接諸生。以試其才學。詢問長老。以採其公議。歲薦其賢者能者於朝。自上又爲之親策發問。訪以治道。如兩漢選舉之法。以次升用。而或有不中其選。不稱其職者。道臣學官并施誤薦之律。則勸懲之道明於上。觀感之效行於下。不出十年。風淳而俗美。治化之隆。可坐而致也。孟子曰君子反經而已矣。經正則庶民興。庶民興則斯無邪慝矣。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臣竊觀呂氏藍田鄉約。既經朱子增損。近世先正臣李滉又爲之因時參酌。節目詳備。規模纖悉。夫有補於化民成俗之方。臣待罪全州時。以驗之一方之義。謀諸父老將欲舉而措之。條約已成而旋即罷歸。私心恒切慨恨。國家不以風教爲念則已。如欲激厲而振作之。其淑人心扶世教之道。莫要於是書。請令廟堂印頒中外。知委各官。擇定約正直月。而一依科條次第施行。則爲善者有所勸。爲惡者有所懲。不待刑賞黜陟之一一加於其身。而自有回淳反樸之效矣。伏乞聖照。

其五日納諫諍。臣聞濟美由乎納諫。虧德由乎自賢。蓋人君以一身而御兆民之衆。以一心而應萬機之煩。其聰明思慮。固不能徧察而周知。故設爲諫官。廣開言路。使之達上下之情。來天下之善。此大舜之好察邇言。成湯之從諫弗咈。所以爲帝王之盛德而萬世之師法也。苟或肆然有自聖之心。壓視羣下。喜同而惡異。則迎合苟容之輩。隨其喜怒。探其向背。同聲和附。莫之敢矯。馴致覆亡之禍而不自覺悟。不亦可哀之甚乎。殿下臨御之初。恭以接下。聽言如流。臺閣之臣。莫不欽仰歎服。知無所不言。言無所不盡矣。夫何比年以來。虛受之德日退。厭聞之病日深。凡於進戒之言正事之論。終未見翕受敷施之盛。而或有一言涉於忌諱者。輒下嚴峻之批。頃日之教。有曰循私苟充。有曰臺閣無人。甚至不從物議。特命遞去。今之居臺閣者。固未必皆是其人。而其所論列。亦豈無絲毫裨補哉。設使風聞不的。措語失當。惟當虛心平氣。開譬曲折。以示優容相可否之意。不宜震之以威怒。加之以聲色。摧折之沮抑之若是之甚也。嚴旨一下。人皆解體。惟懷立仗之戒。莫效犯顏之義。雖使危亡之禍迫在朝夕。莫肯有爲殿下開口盡言者。其爲聖德之累明政之失。當如何哉。伏願殿下克察自聖之失。痛絕好勝之念。

坦然開懷不憚自屈。諒言者嘉之。訐犯者義之。愚賤者怒之。狂誕者容之。有轉環之美。無逆鱗之患。則今日立殿下之廷者。孰敢不竭精畢思。樂告以善道乎。凡於臺臣論啓之際。或有槩於聖慮者。便當議于大臣。詢于百官反覆論難。務歸至當。使嘉猷罔伏。幽隱畢達。則天地交泰。上下同志。庶可以扶傾補破拯濟艱屯矣。伊尹之告太甲曰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有言遜于汝志。必求諸非道。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臣聞古之言官。各自論事。故人得以盡懷。今也不然。凡有所啓。府吏持簡通。徇問諸臺。必待歸一然後啓之。故動被拘礙。開端層生。朝著之不靖。未必不由於此。令臺臣除非大段舉措朝議僉同者。勿爲合啓。各自陳啓。得與侍從官陞殿口陳。反復詳盡。則言不矛盾。事無忌諱。讜論日聞於上而委靡之風乖激之習。一舉而可革矣。并乞財擇。

其六曰決壅蔽。臣聞血脉通而後榮衛和。天地交而後生物遂。爲治之道。何異於是。未有上下交孚而其國不治者也。亦未有上下否隔而其國不亡者也。臣不必遠引前代。試以廢朝時事觀之。朝廷之令。不行於州郡。閭閻之情。不通於廊廟。上澤不究。民志不入。而互相猜疑。禍不旋踵。此正今日之所當鑑戒也。殿下臨御以來。勤恤民隱。無微不燭。惟恐一夫之不得其情。一事之不得其理。而各司壅遏之弊。至近日而彌甚。原其所以爲弊。則專由於官員之數遞。胥吏之專擅也。方今大小之官。朝改夕遷。無異傳舍之過客。而吏胥得以根據於各司。傳子傳孫。世執文簿。故大而政令法制。小而體貌規例。皆出於吏胥之手。官於其間。不過聽其指揮。循例塞責而已。於是乎遠方呈訴之民。諸路上納之吏。莫不奔走先容於胥吏之家。而爲胥吏者。不問事理之曲直。不辨物品之精麤。濶狹操縱。一惟賄賂之多小。以言乎聽理則非理而得伸者有之。而厥或有既伸而復屈者。以言乎收布則準尺而點退者有之。而又有既退而還納者。折受關牒。橫行於諸路。免賤公文。堆積於民間。詭秘如鬼蜮。機巧如蜘蛛。甲令乙科。隨手高下。前比後例。任意據援。其秕政蠹民之害。無所不有。而長官未之察焉。郎廳莫之禁焉。各司成牟利之場。而國家作蓄怨之所。如是而法令安得無壅闕之患。民情安得無湮鬱之歎哉。伏願殿下深監于此弊。凡厥各司之官。必慎必簡。必久其任。灼知本司之緩急本末利害便否。而洞開衙門。逐日視事。使遠方之民。皆得自達。雖微細之事。一皆斷以己見。則吏不敢恣其瞞弄而弊源自塞。民志方通。沛然德教。溢于四海矣。書曰匹夫匹婦不獲自盡。民主罔與成厥功。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七曰慎庶獄。臣聞獄者民命之所繫也。死者不可復生。斷者不可復續。故古之聖王。必有法外之意。糾之以八刑。使惡者知所戒。宥之以五典。使犯者有所悔。仁愛一念。有足以壽國脉而綿歷年矣。後世則不然。一切陷於申商刻薄之術。而專以桎梏刀鋸。爲肆威濟惡之奇貨。故民無所措手足而國隨以亡。嗚呼可勝痛哉。廢主之所以促亡者非一。而其實由於嗜殺。探情於未然致疑於難明。先王骨肉。戕殺殆盡。前朝著舊。屠戮無遺。甘心快意。極其淫刑而後已。此我殿下之所目擊而心傷者也。改紀之初。以寬代虐。哀矜之意。形於辭旨。好生之德。洽於民心。四方之人。莫不感服我殿下仁心仁聞。而執法之官。猶不能將順聖意。惟務刻深。使其情節稍圓。文案粗備。則雖顛倒是非。出入死生。莫之察焉。故箠楚之下。不無橫罹之慘。囹圄之中。尚多冤枉之魂。且以近日大獄言之。蔑倫之元惡巨慝。既已伏誅矣。其餘始與同事而終爲立異者。本心不然而隨波參論者。館學儒生被脅陳疏之類。雖其罪目多端。負犯至重。而一言以蔽之曰脅從之徒耳。既誅渠魁則凡係連坐之屬。宜置勿問之科。而法府之推覈紛紜。臺官之論啓崢嶸。逮捕誅殺。殆無虛日。收財毀家。氣象愁慘。殊非王者好生惡殺之盛德也。又況昏朝時附托往來於羣兇者何限。或以名微而落漏。或以事久而遺忘。雖免誅戮於一時。固已不安於乃心。而查案未了。連累寔繁。處處屯結。皆懷疑懼。安知無不測之禍難救之患。潛伏於隱微之中。而卽國家不幸。有外寇之至。此輩之乘機煽亂。勢所必至。爲日後蕭牆之憂。庸有既乎。漢路溫舒之言曰秦

有十失。其一尚存。治獄之吏是也。夫以漢帝之寬仁。尚有亡秦之失者。舊習之卒難變也。伏願殿下痛懲前轍。務用寬典。明勅有司。必加審慎。俾無橫罹枉死之患。而至於鞠逆一事。尤宜及時裁斷。無少淹滯。凡在竄謫者。如非應死之罪。悉爲蕩滌。放歸田里。使人人皆得自安。而更勿以癸亥以前事。提起於彈章。則人孰不悅殿下包容之德而感殿下欽恤之意乎。臯陶之告舜曰與其殺不辜。寧失不經。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八曰省冗官。臣聞任官者。寧以事勝人。無以人勝事。蓋國家之有限者官。而其無窮者事也。以有限之官。處無窮之事。而專而行之則不足。兼而行之則有餘。三代以上。官簡而能治者。以其因官分職而事無不理也。三代以下。官多而不治者。以其職任繁瑣而無所統屬也。恭惟我朝官方。略倣唐宋之制。上自公卿。下至百執事。莫不各有所司。而中因國家多事。措置乖方。備局出而政府便成閑司。都監設而本署反歸剩官。提調總管爲兼帶之空銜。僉正郎廳爲苟充之虛位。其他不緊衙門。無益官員。歲增月加。重三疊四。政權分移而責無專歸。遞易頻數而事無成效。長才異能之士。自知不久而莫肯盡心。闖茸駑下之人。亦得備數而無所猷爲。恬嬉成習。苟度時日。才與不才。皆爲冗食於官而已。設使盈庭百僚。隨官盡職。猶有建置太繁之患。況於無大無小。舉皆無事而食之者乎。古之爲仕者。什居其一。今之爲仕者。什居其九。科舉之頻設。甚於曩時。蔭窠之積滯。極於今日。官員愈多而仕路愈狹。仕路愈狹而爭者碎額。士大夫爲子弟求祿。無異飢者之求食。廉耻由是而日喪。紀綱由是而日紊。經費由是而日縮。若不及時變通。斷無致治之望。臣意以爲閑司之可并者并之。冗官之可除者除之。各司只存長官一員郎廳二員。而郎廳則令長官自擇。雖不如虞朝之久其任。漢世之倉庫氏。而各專所司。不輕遷改。各治所掌。不相侵越。使當官者一於其職而以匪躬爲務。授任者久於所守而以成功爲限。則官有定制。祿無妄費。朝綱自立。而政無不舉矣。苟得其人。一夔足矣。何待乎十羊而九牧乎。且各司吏胥元無定額。故奸細之類。爭相投附。操弄刀鐙。殘虐生靈。無所不有。而外方殆有甚焉。近世贓賄之狼藉。皆吏胥之所助成也。亦宜簡其額數。嚴其法禁。使不得任情售奸。則民受一分之賜矣。魏蘇綽之言曰善官人者。必先省官。官省則事省。事省則民清。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九曰均貢賦。臣聞勤耕力穡。出粟米麻絲。以事其上者。民之職也。分田正界。定上下貢賦。以業其民者。上之政也。民不可食其無稅之田。上不可責其無田之稅。故古之聖王。爲之行什一之政。立萬世常行之規。孟子所謂多則桀寡則貉是也。我國田制。分等定稅。上上一結收米二十斗。下下一結收四斗。貢物則因乎土產。蓋亦三代什一之遺意。而不幸燕山荒淫。用度侈靡。毀先王之制而加賦於民。加以廢朝貪虐。大興土木。驅催科斂。取辦登足。貢物之多。至倍於元稅。民生之塗炭。於是而極矣。惟我殿下宵旰憂勤。念切惠鮮。深講拯救之策。屢下蠲除之令。殘氓之積年沈痼。至此少愈。而猶未能涵濡聖澤。遠脫水火者。非但因循踵謬之弊。終歸於文具。原初結役之法。不念經界之一定。惟患定賦之不均。故分等打量。地有所濶狹。逐歲踏驗。稅有所增減。中間許多操縱。都在踏驗書員之手。而豪右兼並之習。日滋月深。恣意偷脫。反無量田定結之意。況自兵火之後。朝家以民田多有隱漏。只據癸卯量案而責其還起。事目嚴峻。各邑恟於生事。不得已以還起之數。分排於民結見案之內。故依例收稅者。不免加徵。而容私見漏者。終無鉤覈。此民之所以不堪重困。而盼盼之怨。甚於曩時者也。臣愚以爲古者井田之法。既未能追復。則略倣周家百畝之制。董子限田之議。而加損益焉。經界則八域田制。皆從百畝。私田則一戶所領。無過五頃。均施尺量。以防其滲漏。嚴設科條。以絕其兼并。使貧者有以自立。富者不得專制。而計其百畝所出之數。用以均乎什一之稅。則恩意聯屬。姦宄不容。少而不散。多而不亂。雖不追復井田之制。井田之實。自寓於其中矣。今之議者。以本國水土不平。經界難成

爲辭。然嘗聞程子之言曰地形雖有寬狹尖斜。經界則不避山河之曲。其田則就得井處爲井。實無不可行者。苟用此法矣則設使置井於國中。固不妨於定界。况此百畝之制。比井田尤似便易。不過因地而計步。計步而定畝而已。何患水土之不平而經界之難成哉。此其事體至大。P而條目叢細。類非一言之可盡。然其制則合於先王之道。其事則易於今日之行。惟在我殿下斷然行之之如何耳。無已則宜令列邑守令。須及今年收穫之後。來歲耕作之前。親執量案。出入田間。逐庫查櫛。從實執結。俾無無田徵稅有田漏稅之弊。而罷書員踏驗之法。復大典灾傷之規。則民稅庶免偏重。吏奸或可少防。不至於如今白地勒斂。坐致民怨也。至於貢物之定。雖因土產而爲之。然京司分定於諸路。諸P路分定於州縣。州縣分徵於民戶。而物品不齊。分數無度。故貪胥猾隸夤緣作奸。稅外之徵科外之斂。有不可勝言。况其土產。與五穀有異。隨時變遷。有無無常。往往倍價轉貿於遠方者乎。又况上納之際。或被點退。貸用月利。更徵十倍之稅者乎。往在宣廟朝。相臣柳成龍深知其弊。建請罷貢作米。其言曰諸道方物之數。從田結均定作米。皆令輸到京倉。計物定價。如濟用監進獻苧布之例。使有司貿用。民力均平P而所出如一。此誠今日救民之良法也。宜命籌司先計諸路貢物及中外各項支用。而執其總數然後。凡民間田結所出者。分遠近多寡而差等作米。分俵諸色。詳加均節。因今大同事目而通行於國中。則邑不殊制。民無雜役。至公而正。至簡而要。庶可行之百世而無弊也。傳曰仁政必自經界始。又曰更化則可善理。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其十日修軍政。臣聞兵者。所以禁暴而止亂。P守國而固圉者也。御敵之道。在乎兵。御兵之道。在乎將。將失其人。兵雖衆不足恃也。兵失其制。將雖智不能用也。我國兵制。八道各官。皆有鎮管。謂之兵馬節制使。盖其立法本意。平時則鎮管之邑爲主鎮而檢勅屬邑。依法組鍊。有事則各率所屬之軍。鱗次整齊。以聽主將約束。一鎮雖或見潰。他鎮次第堅守。或扼其前。或躡其後。或撓左右。賊雖乘勝。不敢容易衝突。此乃宋時汪立信分閩御胡之遺議也。祖宗經遠P之圖。纖悉如此。而中世以後。一切廢隳。各邑守令。謾不知金鼓之爲何物。擊刺之爲何事。及夫徵發之日則別擇精銳。先爲自衛之謀。搜括老殘。苟充隊伍。領送於巡邊使防禦使助防將等處。夫以東西烏合之卒。分屬於遠來新差之帥。編伍之際。面目不熟。節制之間。情意未孚。了無殊死力戰之意。惟懷覘機脫身之計。賊騎漸迫。砲鼓相聞。則鳥驚獸駭。土崩瓦解。終於莫可收拾。此前亂已然之迹。而臨急必至之勢P也。又况邊軍留防。所以待緩急之用。而今之爲閩帥邊將者。執簿計名。放番收布。以爲奉權貴逞己私之資。其留鎮者則督以難堪之役。責以難辦之需。使之煎熬於膏火之中。人非木石。何以支保。及其後番則相繼逃散。及其逃散則侵及族隣。禍患蔓延。無有紀極。悲痛愁苦。冤呼徹天。噫平居而有怨上之心。臨亂而無死長之義。何足怪也。殿下與當事之臣。排羣議而行號牌者。豈非爲逃故族徵之弊耶。今若不擇P邊帥。不革其弊。而惟務充定。則只添將領之筐篋。而無益於備邊。今日充定而明日便成虛籍。眞所謂不揣其本而欲齊其末者也。方今內難甫靖。外寇方信。旄頭動耀。厥象尤懼。凡係備邊之策。不容少緩。而軍政之破綻踈濶。一至於此。是豈可不爲之寒心乎。臣愚以爲修復諸路鎮管之規則軍制可以定矣。勿收邊軍除番之布則民怨可以紓矣。惟騎兵步兵水軍外各色軍名之添設者。一切革罷。則軍額可以實矣。P勿論騎步兵水軍。優給保人。兵裝戰具使之并力措辦。則器械可以精矣。夫然後明敕執事。極擇武臣之可堪牧民者。文臣之可堪領衆者。分爲州縣之長。管內軍兵。皆令親自簡閱。輕其徭役。以厚資活之路。課其騎射。以養勇敢之氣。申之以約束。結之以信義。脫有警急。各自領軍赴戰。則恩威素立。將卒相孚。赴湯蹈火。死有不避。攻之則有百戰百勝之氣。守之則有撼山不拔之勢。子路所謂比及三年。可使有勇。且知方P也者。非斯之謂乎。至於束伍軍。皆是公私有役之人也。既有身役。而朔望試射。春秋操鍊之節。與元軍無異。其爲怨苦。宜倍於元軍矣。束伍如不革罷。依騎步例以號牌餘丁。亦給奉足。俾有所賴

。然後民心少可慰悅。警動奮發之機。亦在於此矣。書曰惟事事乃其有備。有備無患。惟聖明之留意焉則宗社幸甚。

臣歷數當今之務。大略有此十者。然若或規規於革一政之失。矯一事之弊。而不知^P大本之所在。則一時所爲。雖或偶合於道。而規模布置。紛紜舛錯。畢竟卑近而無足觀矣。臣既發端於前。請究其說而陳之。臣聞天下之事。千變萬化。其端無窮。而無一不本於人主之心。人主之心。正則天下之事無有不正。人主之心。不正則天下之事無有得正。孟子所謂一正君而國定者此也。雖然人心之所以常患於難正者。私欲害之也。而若夫人主之心。其受攻於物又萬倍焉。廣廈細氈。啓宴安之漸。姦聲亂色。^P導侈淫之端。左右便嬖。起讒諂之釁。四方珍怪。開驕佚之塗。凡可以蕩情而溺志者。紛然前進。膠擾於方寸之間。苟不防之於至微杜之於未然。則駸駸誘入。轉轉沈痼。穢德日聞。亂亡隨之。故古之聖王。莫不持守此心。雖在紛華波蕩之中。幽獨得肆之地。而未嘗小放於方寸之外。大舜之精一。成湯之建中。文王之翼翼。武王之無偏無黨。乃其傳授旨訣。而非窮理以擇之。主敬以守之。則無所攷據而指循也。故孔子首^P發格致誠正之論。子思孟子繼有明善誠身之說。而有宋朱子又爲之章句或問。推明孔孟之遺意。其告孝宗之言曰爲學之道。莫善於窮理。窮理之要。必在於讀書。讀書之法。莫貴於循序而致精。而致精之本則又在於居敬而持志。蓋其爲說。節目詳而地頭不遺。本末該而工夫有序。不離乎卑近淺小而實有高深遠大而無窮者存焉。其所謂不獨韋布之士所當從事。雖帝王之學。殆無以易之者。誠至言也。恭惟^P殿下爰自初潛。以至爲君。仁孝恭儉之德。聞於四方。奮發乾剛。迓續大命。扶彝倫於既斁。存廟社於垂亡。則殿下之立志。不可謂不篤矣。昧爽丕顯。對越上帝。內無聲色之娛。外絕遊田之樂。則殿下之居敬。不可謂不密矣。引接臣僚。講論經義。不以盛暑而或廢。不以微恙而暫輟。則殿下之好學。不可謂不勤矣。夫以我殿下仁孝之姿。篤實之志。居敬勤學之工又如此。則庶幾聖德日隆。至治可興。而自古^P人君常患於有始而無終。始勤而終怠者。其病皆在於心不能純一。不審淵涓蠖濩之中。體天謹獨之工。果能真實而無虛僞之雜。悠久而無間斷之時乎。此則殿下之所獨知。而非臣踈賤愚昧所得而妄測者也。然竊自退省於施爲運用之際。則求治之意雖切。而端本之工全疎。私意根柢。未盡芟刈。義理路脉。未盡恢拓。善惡邪正之幾。未盡判焉。是非得失之辨。未盡精焉。因循荏苒。苟度歲月。了無尺寸之效可以^P酬聖志而慰人望者。苟如是則非獨不足以致治。而或反足以召亂。非獨不可以謀人。而實不足以自守。此臣所以爲殿下惜之。而以殿下平日嚮道之心。亦必穆然深思。慨然長吁。不勝其憂懼者矣。臣愚不肖誠願殿下深留意於舜禹文武相傳之緒。孔曾思孟立言之旨。而於朱子之告宋孝宗者。尤加謹焉。先就六經之文。以究其精微之義。旁及歷代之史。以驗其得失之跡。且將洛建諸君子之書。朝夕遮^P眼。細心紬繹。以盡其旨義歸趣之所極。要使心地開明。義理昭著。而清閒燕逸之中。必存戒懼之心。思慮應接之際。益加省察之工。念念提撕。件件兢業。剛健而不已。誠實而無間。則自然行解相資。動靜交養。大本立而達道行。體用合而物我一。充積發越。薰蒸透徹。百度之貞風化之美。皆可因此而推之矣。此中和位育之極功。體信達順之成效。而臣之所陳十條。特其舉措之具耳。何患乎難行哉。臣素乏識務之才。又^P無適用之學。上下論列。膚淺支蔓。不足以裨補涓埃。然古聖王進德修業之要。出治行政之實。初不外此。殿下苟能深納臣言。得其要而盡其實焉。則天德王道體用俱全。不勞施爲不動聲色。而措一世於唐虞三代之隆。惟殿下念哉懋哉。臣無任瞻天望聖激切屏營之至。謹昧死以聞。

答曰省疏具悉。嘉爾愛君憂國之誠。條陳十事。無非至論。而末端所言。尤爲切實。予當體念而^P議焉

晩悟先生文集卷之三

疏

寇退後陳所懷疏 丁卯

伏以往日之事。尚忍言哉。以二百年禮義之邦。堂堂千乘之主。下從犬羊之約誓。此實宗社莫大之耻。臣民難雪之憤。凡今廟閣之臣。均有辱國之罪。而無狀小臣。待罪言地。不能奮忠效義碎首力爭。甘當世衆口之唾罵。貽後日公議之譏笑。滿心憤忸。歷日靡措。生固不如死。而死且不瞑於地下矣。臣今罪疊山積。何敢復玷臺端。開口論事。而方今國家淪亡之禍。迫在朝夕。大小臣隣。奔走竭力。臣於此際。拘於語嘿之常節。而終無一言以自效。則是重負我殿下於呼吸存亡之日。茲敢略陳懲前毖後之謀。及時自疆之策。仰瀆於絃纊之下。伏願殿下少垂察焉。臣竊料賊衆不過十萬。而上拒天朝。傍備西獫。來犯我境者纔數萬耳。以數萬之兵。不得連營於千里之外。雖三尺之童。亦知之矣。臣之愚意。以騎步一二萬。據塞臨津。令兩西兵糧盡入於窮山險僻之地。賊既深入之。後。連結毛兵。遮截清川。則賊前不得鬪。退無所歸。不過數旬。可使隻輪不返。而備邊諸宰。未能及時謀畫。竟使君父罹播遷之厄。生民遭虔劉之慘。此臣之所未解也。有兵而無糧。雖孫吳亦不能爲。西關既潰。海西之糧。不過爲資盜之物。而平山之積。不移於臨津。海州之待。不入於江都。趙琦之軍。千里運糧。皆有飢色。而惠廳所儲之米。不卽移饋。竟付於一炬之火。李曙之卒。朴瑞之兵。關東之軍。虛守漢津。而不使就食京倉。俾內地之民。疲於轉運。而京師所積。盡爲亂民之所蕩。此又臣之所未解也。兵務在精。不務在多。多聚無用之軍。徒費有限之糧。非所以持久之道也。狂寇猝發。勢若風雨。沮遏奔鯨。蓋亦難矣。然賊之所利。在於速戰。我之所利。在於堅守。堅守之要。在於督帥諸將。固守要害。而漢津非險阻之地。戍兵多老殘之人。以不擇之兵。守不急之地。奄過數月。糧儲已罄。賊若退據溟西。留屯不去。則欲罷而有乘虛之虞。不罷則無繼糧之道矣。不幾於多兵。適所以取敗者乎。此又臣之所未解也。嗚呼。既往之失。雖不可追。而將來之功。庶幾可收。今聞唐船十三隻。來住定州。十五隻又泊安州老江云。此天欲祚我東方。使賊自送死耳。前後挾擊。此正其機。臣以爲亟令兩西諸將。分據沿路險阨之地。使賊不得傍抄。又不得潛遁。而密通毛營。協勢追躡。相機而戰。又撤漢江之兵。進守臨津。而只留精兵一萬。設營置壘。以爲固守之計。至如諸道軍糧。嶺南則輸置於可興。兩湖則船運於臨津或豐德或碧瀾渡。以除陸運之弊。而抄出老殘軍數千。定一將領。監運諸處軍糧於都元帥及西北軍所。俾無匱乏之患。則今日事勢。雖極危迫。亦不至都沒措畫。寧有終不可振之理乎。大抵禦敵之道。莫重於關防。足食之方。莫要於屯田。故充國之於金城。孔明之於渭濱。深謀遠略。何所不及。而必以此爲先務者。蓋有以也。臣愚以爲必以安州爲監營。凌漢爲兵營。擇置精銳。預授方略。使之首尾相救。而申飭有司。別設一局。措畫穀種及農牛田器。使兩西之民。處處設屯。且耕且守。則始耕之日。民賴以生。登場之後。官受其利。一年之間。雖不至千倉萬箱。而得庾得斛。皆是料外之穀。其有補於調度。可坐而策也。嗚呼。兇醜匪茹。敢抗大邦。吞噬全遼。假氣自大。我雖窮蹙靡騁之日。其不可和也。義理明矣。況以我國積累之勢。兵甲非不多也。糧餉非不足也。器械非不精也。王綱未甚陵夷。民心未甚離散。君臣上下。苟能同心戮力。以死自誓。則縱不能奮揚威武。蕩滅醜類。猶足以堅壘高壁。遏窮寇驟突之勢。而計不出此。乃反墮其術中。賂以金繒。質以王弟。束手乞憐。苟冀朝夕之不亡。從古講和。皆是無遠慮者姑息一時之計。而其軟巽苟且。未有如今日之無謂也。方其與賊議和也。大小羣情。且喜且懼。喜者幸其無事。懼者慮有後患。而虜使纔退。憂者少喜者多。舒緩寬縱。略與平日無異。如此者。未必不

以羈縻爲一毫可恃之道。然此又不思之甚者也。此奴之與我和。本欲弭躡後之憂。專力於西向。而其投鞭鴨江之心。未嘗不切于中。苟有可乘之機。則豈牽於一時虛縻之舉而不爲之動也。且奴入我境。窺見我之底蘊。慣知我之虛實。恣行兇暴。惟其意之所欲。則有何憚畏於我而斂手繫足。隔水而不敢再窺乎。以臣策之。賊之敗盟更動。近則數年。遠不出五年。但未必今冬與明春耳。苟不於此時孜孜矻矻。不遑寢食。以爲自強之策。則廟社必至丘墟。民庶必至魚肉。臣妾必至奴虜。地坼天崩之慘。有不忍言。思之及此。豈不凜然寒心哉。宋臣朱熹之言曰彼以從容制和。而其操術常行乎和之外。是以利伸否蟠而進退皆得。我以汲汲欲和。而志慮常陷乎和之中。是以跋前疐後而進退皆失。又曰進無生死一決之計。而退有遷延可已之資。則人之情雖欲勉彊自力於進爲。而其氣固已渙然離沮而莫之應矣。其守之也必不堅。其發之也必不勇。旨哉言乎。此誠靖康以來敗事之通患。而尤爲今日之所當鑑戒也。伏願殿下斷以義理之公。參以利害之實。毅然奮發。幡然改圖。罷黜和議。獎率臣隣。積誠心以導之於上。立紀綱以振之於下使內外大小。曉然皆知聖上之心孜孜於酬惡刷耻。而了無一毫可恃以爲遷延中已之意。則凡有血氣者。孰不懽欣踊躍。作心殫誠。爲殿下致死力乎。奴賊聞之。未必不爲之氣挫。而目前侵陵之禍。異日摧陷之患。或可以少緩矣。夫如是則理得而勢全。名正而實利。其與姑恃必不可成之虛計而坐而待亡。不可同年而語也明矣。臣本腐儒。不學軍旅。縷縷所陳。率皆迂濶膚淺之論。然不但臣之愚見如此。廷臣之有心計者。所言蓋多如此。信乎大義不可易而公議不可掩也。伏願殿下下臣此疏于廟堂。其有可採者。亟令施行。無如今日之事過而後悔。千萬幸甚。臣無任激切祈懇之至。謹昧死以聞。

第二疏

臣嘗讀宋史。兀朮北歸。李綱進言曰願陛下勿以敵退爲喜。以仇敵未報爲耻。盖有耻而後能知憤。知憤而後能自強。自強而後仇敵可滅。社稷可保也。惟我國家。以一時權宜。雖緩目前之禍。而島棲之窘。脅盟之辱。已爲萬古難雪之耻。况虜情叵測。反復無常。一夕安寢。而秦兵又至者。安保其必無乎。此正君臣上下。臥薪嘗膽。改心易慮。奮不顧身之日。而虜退之後。恬嬉猶前。未聞有一事一政可以慰悅神人之望。激動忠義之氣者。未知如此委靡。將欲置國家於何地耶。臣愚前後所陳。都歸紙上之空言。何敢日事煩聒。以重瀆撓之罪。而第臣忠愛之心。根於天性。憂憤之情。倍於恒人。寧畢其說而受妄言之誅。不忍坐視國勢之阽於危亡。玆敢更陳瞽說而不知止焉。其所欲極陳者。今亦有所不暇及也。臣竊以爲天下之事。莫不有機。一失其機。悔不可追。殿下自臨御以來。事之失機者多矣。以致紀綱日紊。風俗日澆。百度解弛。莫可收拾。若於今日。又失其機。則竊恐危亡之禍。終不可救矣。今日事機之甚急。莫切於擇帥臣謹防守節財用收人心四者。而四者之要。又在於根本之先定。夫都城者。國家之根本。而政令之所出也。賊騎未至。旋即棄城。賊騎已退。迄未回鑾。天步久窘於泥露。汗號莫及於四方。使遐外之人。動於訛言而未定疑懼之心。畿輔之民。疲於轉輸。以漸失耕作之期。廟筭所在。誠未可曉。臣愚以爲車駕即日還都。擇遣帥臣。分據險要。撫諭百姓。專意農業。則賊知我有自強之謀。而不敢遲留境上。民知上有可恃之勢。而亦得奠保故居。一舉措之間。精采立異。重恢光復之業。因此可期矣。內殿東殿雖或姑徐。而車駕之還。不容暫緩。此機之不可失一也。近日國家用人之道。內重而外輕。勳臣名士布列清班。宿將驍帥偃息內地。西關一帶所選任者。一二元帥之外。舉皆茸鬮昏憤之類。一事莫措。一卒未鍊。虛守孤城。有同兒戲。纔見賊鋒。東西閃避。中開一條大路。縱賊乘勝長驅。直逼君父而莫之念焉。此輩之罪。萬戮猶輕。而原其所以致此。則亦由於朝廷之處置失宜也。臣聞天

下安注意相。天下危注意將。P國事至此。豈非注意將之日乎。伏願殿下勿拘清要近密之班。急擇文臣之器堪領衆者。武臣之才合牧民者。分爲兩西州郡之長。仍於大臣中揀出謀畫膽略爲中外所倚重者。爲都體察使。不以文法拘持。許令便宜從事。獎率諸將。撫綏邊情。積貯糧餉。分據險要。又開廣屯田。募民就農。無事則植戈而耕。寇至則悉出以戰。約束豫定。威信并著。則投之戰場。無不如志。進可以摧鋒陷陣。退可以堅壁固守。設有狂寇猝發之虞。豈至如嚮日之觸處糜碎。束手待亡者乎。P此機之不可失二也。海西之地。最近畿輔。實國家之門戶。賊路之咽喉也。臨津雖非天塹。亦足恃以爲固。而沿江上下。但有羸兵數千。器械破綻。糧餉罄竭。人無固志。皆懷潰散。賊若長驅深入。如粘罕兀朮之爲。則雖使頗牧爲將。良平爲佐。茫然不知所以爲計矣。臣愚以爲車駕還都之後。亟發內地精兵一二萬。以益臨津之守。申令近地守令。多設土城木柵。參錯相望。并力協守。則襟抱固密。人心有恃而不恐。彼雖莫強之敵。必當首尾牽掣。不敢飛渡江矣。此機之P不可失三也。國家經用。在平日尙患不足。況於戎興之日乎。西師餽餉之費。毛將接應之須。奴賊徵索之物。不知幾何。而八路蕩然。財力已竭。前頭責出。不啻童殺。況今春澇已極。夏旱必至。兵革之後。例有凶歲。此又臣之所大懼也。臣愚以爲亟命廟堂。反復裁量。上自祭享御供之需。下至百官廩祿百工稍食。悉皆節之又節。以省煩費。量入爲用。俾存贏餘。一意全力於固邊之策。各司貢物。不輸於版曹而付之體府。雜色價布。不入於騎省而歸之防戍。又如諸宮P家蘆田魚鹽等稅。一切入補軍餉。雖粒米斗粟。斷當及時收拾。善爲措處。然後可以濟日後無窮之費。此機之不可失四也。反正之初。蕩滌廢朝逋欠。蓋是仁政之大者。而令下四年。終不得行。各樣未收之散在民間者。次第催捧。大惠已壅。大信已失。民情之呼冤。勢所必至。況自號牌之後。貪官污吏夤緣作弊。哄嚇侵督。無所不至。富者納財而圖免。壯者駭散而之他。貧民之不能自免者。苟充其數。而未及出境。逃亡相續。怨讟朋興。氣象愁慘。嗚呼。國家之所恃而有P萬一之望者人心也。而人心之渙散如此。他復何望焉。臣愚以爲車駕還都之後。特降嚴旨。逋欠則或中分減一。或三分減二。斷然施行。俾無如前壅闕之患。號牌則使守令親自點閱。考齒分類。抄爲老壯弱三等。俾絕從中滲漏之弊。外此軍功爵賞及免賤免役等事。亦皆定爲畫一之規。有司卽日施行。不失古人賞不踰時之義。則人心胥悅。有親上死長之心。收拾之機。只在於此。此機之不可失五也。嗚呼。古人有言曰患到目前。始倉忙而失措。事纔過後。却弛慢P而因循。此正今日之所深戒也。伏願殿下勿以賊至而輕動。勿以賊退而苟安。勿以國小而自危。勿以勢屈而自沮。究觀前史興復之主所以處患者如何。所以自修者如何。何以使羣策畢集。何以使衆材畢進。堅立大志。期追前武。內修政事。外嚴武備。燕閒之所深思。朝晝之所猷爲。惟在於湔羞洩憤。而不以一毫宴安怙愒之心參錯於其間。則內外之臣。亦各自勵。舉措施爲。漸有條理。以之治兵。兵無不精。以之理財。財無不裕。而恢復之事。可以惟意所向。何患醜P虞之難制而國耻之未雪也。今之議者。每以兵少爲言。然都監砲手武弁出身不知幾何。而梟健之徒。盡役於私門。數百年養兵之意。果安在哉。臣愚以爲今日所謂精兵。無過於出身。雖除老殘。猶可萬餘。悉爲收入。以充禁旅。如唐太宗時皂衣玄甲分配麾下之例。厚其衣食之資。養其超距之氣。申之以約束。結之以威信。則彼當啣恩感義。忘身殉國。必不如凡軍之望風奔潰矣。不知廟筭安出。而捨此精兵。徒爲是玩寇耶。朱子曰沮國家恢復之大計。壞邊陲備禦P之常規者。皆講和之說也。若恃一和字而志不先立。計不素定。因循頹惰。不能自強。則大義不明。無以存天下之大防。而知日以昏。計日以絀。氣日以餒。治兵理財之政。皆如畫脂鏤冰。無着手處。其於酬怨刷耻之機。不浸近而逾遠矣。豈不大可懼哉。噫。難成者事也。易失者機也。苟失其機。噬臍無及。嗚呼。殿下懋哉懋哉。臣不勝爲國眷眷之誠。謹昧死以聞。

辭持平疏

伏以臣以至愚極陋。猥膺出疆之役。服勞無絲毫之細。而負罪有丘山之重。寤寐怵惕。靡所底綦。不意聖恩罔極。特除臣司憲府持平。臣在途拜命。驚駭惶惕。誠不自知何以得此於聖明也。仍竊伏念人臣事君。不擇夷險。東西南北。惟命之從。雖有不世之功。固是職分之所當爲。况臣於是行。承命而往。傳命而還。曾無一事少穉任使。其得這辱命之誅。已爲私分之幸。何可以堂堂言責。復加於屢試無用之身。有若酬勞紀績者然哉。且臣稟受虛弱。疾病侵尋。下血眩暈。是臣半生痼疾。而又於本月之初。添得嘔逆之證。眞元大脫。氣息艱通。自甌山抵京城纔七日程。而寸寸前進。尙嵇復命。臣之逋慢之罪。益無所逃矣。方今天步艱難。存亡一髮。大小臣隣。莫不奔走効力。臣雖無狀。豈不欲得佐下風。圖報萬一。而第臣所處。以公則有難冒之義。以私則無可強之勢。玆不得不冒昧號訴。伏乞天地父母。曲垂照察。憐臣憫蹙之情。非出於虛讓。特許鑄改。以便公私。不勝幸甚。臣無任激切懇款之至。

辭持平疏[再疏]

伏以狗馬之疾。洽已數十日。而下血嘔逆。日甚一日。頑痰塞膈。氣息難通。達曙依壁。不能成寐。竟日伏枕。欲臥不得。蓋緣臣稟賦虛弱。受傷有素。脾胃一敗。百證叢發。不可以旬月之調治而望其差效也。欲趁趨肅則病勢難強。欲專醫治則罪涉逋慢。玆將危懇。冒煩天聽。而調理察職之命。遽下於夢寐之外。臣誠感泣悶蹙。罔知攸措。夫風憲之官。爲國綱紀。雖使言議正直。風力康莊者當之。猶難稱職。如臣者以庸陋之姿。抱難醫之疾。進之既無所補。退之又無所損。留之只辱清朝。去之庶安私分。未知聖明何有於垂死無用之一微臣而靳許至此乎。臣今朝夕莫保之狀。非一時飾讓之辭。實同朝之所共明知也。伏願聖慈憐臣微懇。遞臣職名。俾得安意調治於田廬之中。則恩波所濡。死草回蘇。豈勝幸甚。

請賑西路饑民疏 戊辰

國運不幸。上天降割。兵戈甫定。饑饉荐臻。仰惟聖上宵旰之憂。俯念同胞顛連之患。未嘗不太息流涕也。臣今於德安陵奉命之行。尤有所目擊而心痛者。西路飢民之流入關北者。或八九爲羣。或十數作隊。扶老携幼。纏屬不絕。鶉衣菜色。已成鬼形。見臣遮途而泣曰歸報朝廷。活我百姓。其東顛西仆奄奄垂盡之狀。不多日必將盡於溝壑矣。又聞往來人言。則陽德孟山之路。餓殍遍野。烏鳶聚而食之。皆是西民之流離者云。以此推之則去年荒歉。雖是大同之患。而西路之尤酷可知也。臣仍伏念西土之民。新經大亂。瘡痍未起。而顛壑之憂。一至於此。朝廷若不及時措畫。涸轍餘氓。決無保命之望。殿下爲民父母。未知將何策以濟之耶。臣愚妄料。亟命廟堂商議。盡棄列邑倉實。不足則卽發見存軍儲以繼之。固無不可也。或者曰軍餉所以備不虞。不可輕許。臣獨以爲不然。國家之所恃者民。有事則民盡兵也。無事則兵亦民也。何可以兵民異視。而爲軍兵日後備。使斯民盡劉於目前而莫之恤也。宋建隆中。楊泗大饑。沈倫使吳越歸。請貸軍儲百餘萬斛以賑民。宋祖卽命發廩貸之。此可謂深知兵民一體之義。而後世人主之所當師法也。臣於此又有所懷焉。西北之地。素穰肥饒。而兵凶之餘。田功全廢。沿路所起墾。殆不能十之一。雖當豐年穰歲。便同無麵之餽。其有呼庚之歎一也。宜令道臣知委列邑。貧

民之不能資業者。隨便助力。無至失農。流民之無所依賴者。別於閒曠之地。大備農具。分屯勸農。如曹操許下屯田之法。使之自食其半。官取其半。則實爲安集拯濟之良策。而異日足兵足食之道。未必不肇於此矣。臣愚衷所激。不以越俎爲嫌。敢此陳達。倘蒙殿下恕其狂妄而另加採施焉。生民幸甚。國家幸^P甚。

辭文學疏

伏以臣以疾病沉漸。無路供仕之狀。不避瀆擾。重煩哀籲。非惟不蒙矜從。新除恩命。又出分外。惶恐悶縮。罔知攸措。夫爲官擇人。政體之所宜重。量而後進。臣分之所當勉。矧茲書筵出入之職。有輔導箴規之責。宜慎其掄選以授其人。豈如臣學識踈荒聞見固陋者。所可容易承當哉。加以犬馬之疾。閱月彌劇。精神昏昧。氣力委乏。方在絕食僵伏之中。時日之內。決無燕^P對納誨之望。伏願聖慈特加矜諒。亟賜遞免。以重官方。以便私分幸甚。

辭弼善疏

伏以微臣歸掃松楸之懇。已達孝理之聽。而所患吐血諸證。尙爾沈痼。僵伏旅次。未由登程。情私莫伸。祇自南望長慟。不意天恩罔極。又除臣本職。揣分度義。益增震懼。豈不欲勉策疲病。進參輪講之列。而惟是犬馬之疾。有加無減。精神內耗。氣力外凋。決無復起爲人之望。緣臣疾病沉漸之故。書筵重任。不宜久曠。伏惟^P聖明天地父母。曲垂矜愍。亟命鑄改。俾專調治。得遂前懇。以便公私。不勝幸甚。

辭掌令疏

伏以臣退伏田廬。疾病沉痼。方以蒙恩遞職爲幸。不意今者。伏覩承政院所奉聖旨。以臣爲司憲府掌令乘駟上來者。臣聞命震駭。無地措躬。嚴畏分義。不敢稽留。力病登途。寸寸前進。離家三日。纔到尙州地。而一番動作。宿病轉劇。下血眩暈呼吸喘促之證。色色侵苦。自量氣力。決無及時向差之望。設使大勢稍降。眞元已^P脫。形殼徒存。強意冒進。實有生行死歸之慮。茲敢不避猥越。疾聲呼籲於天地父母之下。伏惟聖慈諒臣之情。憐臣之病。亟收新授職名。使得安意調攝。則雖死之日。猶生之年也。

請遇災修省仍辭職疏

伏以臣滓穢賤質。遐陬寒蹤。幸際熙辰。過蒙恩寵。前後踐歷。無非諫諍論思之地。而才識淺薄。言議庸雜。上不能裨補袞闕。下不能糾遯官邪。如醉如寐。苟度時日。循省既往。愧惶徒切。又於千萬夢外。伏承栢府除命。促令臣乘^P駟上來。臣不敢知殿下則哲之明。何取於已試不效之愚臣。而復欲引置近密之地乎。感激之深。不知所以措躬也。臣竊伏念國運不幸。天心未豫。去年之歉。振古所無。而今年

之灾。甚於去年。尤旱於春。禾稼卒痒。大水於夏。田疇蕩析。仍之以雨雹之變。地霜之異。以臣沿路所聞見而言之。嶺南一路。五穀俱損。或苗而不穗。或穗而不穎。而晚種尤甚。旱田水田。頓無掛鎌之處。躡竹嶺而入洪清。則有甚於嶺外。及到畿甸。又有甚於洪清。流民丐乞。連絡道路。火賊殺越。亦頗有之。比及明春。人類將盡。驚心慘目。有不忍言。是何聖明在上。憂勤惕厲。而降灾之慘。若是酷耶。嗚呼。國家當此無前之變。極否之運。誠宜大加警動。大有振作。毋循平日常規。特爲別樣舉措。救民之飢。汲汲如救焚拯溺而後可以濟此屯艱。臣之愚意以爲。總計戶曹南漢江都見存米穀幾何。三南監兵營及統營所儲米布幾何。又總計一年經費及客使不時之需幾何。執其摠數。詳加分俵。如使見存米穀。足支此數。則今年收稅。盡爲蕩滌於民間。如或未準此數。收捧半稅於諸道中不至大失稔處。以支一年經費之用。則不必區區於貢物之全減量減。而八方之民。均蒙惠鮮之澤矣。至如賑恤之政。乃是次第事。而都城則賑廳所儲。自足爲用。外方則守令或捐私捧。或募空帖。多方措畫。必無不濟之理。是其一舉措之間。可以起死而回生。人心胥悅。天怒可回。而但恐朝廷愛民之情。不如惜財之心。不肯爲極力救民之事耳。嗚呼。天下之千變萬化。無一不本於人主之心。孟子所謂一正君而國定者此也。殿下苟能遇灾警省。嚴恭寅畏。敬天勤民。一出於至誠惻怛。則子思所謂天地位而萬物育。董子所謂陰陽交而風雨時者。庶幾可致。而今日之艱虞。乃至於此。臣有以窺殿下治心之工。猶有所未臻其極而然也。伏願殿下惕然愧懼。慨然奮發。責己如成湯。側身如周宣。而必先用力於根本之地。主敬以立其本。窮理以致其知。虛閒靜一之中。恒存戒懼之工。幾微萌動之際。益務省察之方。一念之發也。必先察之曰此果出於天理之公乎。一事之應也。必先思之曰此果合於義理之正乎。知其出於天理而擴之則擴之惟恐少闕。知其合於義理而行之則行之惟恐不力。勿爲私欲所汨蕩。亦勿爲外誘所擾奪。不敢有一毫放過。亦不敢有一刻間斷。今日如是。明日又如是。俛焉孜孜。至於積真之久。則方寸之地。廓然大公。儼然至正。洞然無有私邪之蔽。而措之事業。無所爲而不如其志。苟如是則何畏乎天灾。何有乎民怨哉。臣嘗聞先儒之言曰惟學可以養此心。惟親近君子。可以維持此心。夫經筵。人君講學之所而接賢士大夫之地。則其研究經義。輔導聖躬之工。固不可一日廢也。而近因玉候違豫。不接臣僚。凡幾日矣。臣固知聖德天成。無藉乎諸臣薰陶之力。而深宮獨處之中。親愛狎昵之際。安知無天理漸消。人欲漸長之慮乎。方今聖體未復故常。風日漸近寒冷。雖不得開筵進講一如平日。而時於燕閒之夕。靜寂之夜。引入侍從喉舌之臣。未須講書。只要從容相對。或討論經旨。或商確機務。則不惟於涵養本原之功。有些裨益。其於導宣壹鬱開納陽明之道。亦未必無補矣。伏願聖明留念焉。嗚呼。今日國事。岌岌甚矣。正當君臣上下改弦易轍。共趨時務之急。以答天人之望。而顧一時氣象。怠慢懈弛。無復有淬礪奮發向前擔當之意。臣言念及此。未嘗不仰屋而長吁也。然其警動振作之機。惟在於殿下之一心。故欲以修省之實。爲今日弭灾之方。誠以殿下之心。苟得其正。則上而天心悅豫。下而邦命鞏固。民愁可以紓。兵憂可以解。而羣賢彙征。績用咸熙。比如綱舉而目張。領挈而裘順。朱子所謂治其本者。雖若迂緩而實易爲力者。豈虛語也哉。顧今弭灾之道救飢之策。諸臣已多言之。繼此而至者。又將相續於公車之下。如臣驚下。有何忠言至論可以副殿下之望而動殿下之聽哉。目擊天變之慘。不勝憂懼之至。輒貢蕘說如此。倘蒙聖慈恕其狂僭而特賜採納焉。則非惟臣一人之幸。實國家生民之幸也。臣竊有所懷焉。臣之昏憤無庸供職不稱之狀。聖明之所嘗俯燭者。無容更事瀆擾。而第臣犬馬之疾。兼以驅馳之勞。元氣大陷。精爽全耗。頭疼如剖。膈痞如塞。種種危急之狀。疊發層出。僵伏旅次。轉側須人。如此而敢望束帶纓冠。出入周衛之中乎。是用不避猥越。仰煩扣籲。伏乞聖慈察臣無用之實。憐臣垂盡之狀。亟命遞改。以便公私。千萬幸甚。

請寢追崇仍辭職疏

伏以臣病伏田廬。與死爲隣。仙寢移奉而竟闕厥衛之儀。逆孽肆發而莫效鸚逐之誠。因灾求言。聖教懇惻。而又不能罄竭愚衷。少紓側席之憂。人臣分義。至此掃地。居常惶惕。恭俟嚴譴。不自意栢府華銜。遽降於奄奄垂絕之中。臣罪如山。聖恩如海。祇奉召旨。感涕自零。顧念私分。不敢一向撕捱。忍死登途。寸寸前進。凡歷九朝暮而始達都下。臣之違慢之罪。益無所逃矣。仍竊伏念今日亢陽之灾。尙忍言哉。累歲饑荒之餘。荐以數千里之旱。萬姓嗃嗃。若將莫保朝夕。民既不保。國將何依。殿下以藐然之身。寄於億兆之上。忍見無辜之日就於死地。兢畏憂勤之心。固當靡不用極。而乃以避殿減膳撤樂等數者。欲爲應天之盛節。殊非古聖王以實不以文之義也。臣又於途中。伏覩備忘記下者。玉堂多官。並命拿鞫定罪。噫。此何舉措也。殿下逢天之怒而莫之懼。遇民之怨而莫之省。反加譴責於論思之臣。臣恐君道日亢。國事日非。人心日離。而忠言讜論。不復聞於殿下之庭矣。夫殿下之欲爲追崇。發乎尊親之至情。而廷議之以爲不可者。欲殿下之止乎禮也。人臣事君。貴乎以禮。如使言無可否。事無是非。而惟殿下之從。則將安用玉堂爲哉。臣聞之。君子不以親親害尊尊。親親恩也。尊尊義也。義之所在。恩有所屈。今茲之舉。其於親親之道。固可謂至矣。而第未知十分無害於尊尊之大經大法乎。昔曹魏之制法也。有日後嗣有由諸侯入奉大統者。不得顧私親。朱子於綱目特書與之。蓋恐以恩掩義也。聖上卽以支孫入奉宣祖之統。所生之當爲私親。其義皦然。而誠孝所蔽。不自知其爲過。不問義理之如何。不待公議之歸一。必欲行曹魏所不爲之事。臣竊傷之。傳曰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今日人事之失。孰有大於此者乎。伏願殿下上念宗統之不可紊。俯循禮制之不敢違。翻然覺悟。勉抑至情。快從公議。痛謝前非。使後之論禮者。不敢爲異辭。則日月之更。萬目皆仰。人心所同。天心亦豫。收譴爲祥。民安物阜之效。可馴致矣。豈不盛哉。臣誠腐迂。無所肖似。言論風采。俱不足以上格君非。而冒熱驅馳之餘。宿疾重發。坐則喘促。食必思嘔。有時昏倒。不辨四到。以此病勢。實無陳力就列之望。伏乞聖慈特令遞斥臣職。以重公器。以安私分。不勝幸甚。

請寢追崇仍辭職疏[再疏]

伏以臣犬馬之疾。所不敢更溷天聽。而再呈辭單。見阻於喉司。纔入睿覽。又有出給之命。恩出分外。益增震悸。目今合同交章。方講莫重之禮。旱魃肆酷。將有親祀之舉。在廷臣僚。罔不肅恭奔走。而臣抱必死之疾。無生全之望。委頓旅邸。無計供職。臣之罪戾。至此大矣。臣雖至愚。粗知君臣分義。若非病勢已到十分地頭。何敢屢貢封章。瀝懇哀籲。自陷於欺慢之罪哉。臣之朝夕難保之狀。同朝之所共明知。伏願天地父母。憐臣切迫之懇。亟賜鑄改之命。使此瀆死之臣。免爲旅舍之鬼。則自今至死之日。皆殿下之賜也。臣無任屏營戰灼之至。

成歡驛復設時陳弊疏 甲子

宣教郎行成歡道察訪臣申達道。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伏以臣於上年十月。伏受本職除旨。閏月馳進成歡驛。館舍荒廢已久。靡所止泊。不得已姑就長命而莅任焉。蓋因前任已行之例。而職名成歡。身住長命。伏不勝萬萬惶惶之至。臣竊觀成歡爲驛。直接畿輔。實湖嶺往來之要衝也

。大小使命許多官行。其他貢膳文簿之因公去來者。皆由是路。而人馬有限。使役無窮。未及責應。鞭撻狼藉。P此阜隸之所以流亡而館宇之所以荒廢也。雖在平時。實有難支之勢。況今經亂之後。公私凡百。蕩析無紀者乎。以國家多事而言。則使命之繁劇。倍於平日。以本驛凋瘵而言。則物力之殘薄。甚於曩時。今若難於更張。仍循不復。則沿路列邑。替受驛役。而使客來往。其路易絕。脫有火速之命。飛傳之牒。未知將何以應之耶。臣自受任以來。不敢專以攻駒爲事。勉思所以仰副朝家特授之意。不揆愚拙。積竭心力。招集流亡。鳩聚材瓦。疏拓舊基。爲復設館舍之計。實非P殘郵薄力所可容易辦得。是庸惶悶。然設使館宇粗完。積年荒廢之餘。百弊成痼。民不堪命。如不及時矯揉。則已始之役。勢難垂畢。而不無如前渙散之慮。玆敢不避猥越。姑撮目前緊急之弊。開錄于後。伏乞下詢于廟堂。商度施行。俾傳命之地。不至中絕。復設之役。得免還廢幸甚。

一。本驛正當三路要衝。凋弊甚於稷山。而自稷山縣刷馬減下之後。大小使役。專責於殘驛。以有限之人馬。應無窮之使客。日不P暇給。勢難支保。自廟堂別加變通事。

一。本驛所屬如長命，金沙。皆小路也。丹坪，惟鳩。只當內浦之行。人馬雖不多。應役亦不難。而惟成歡，金蹄，廣程，敬天，平川等五路。上接京畿。下連湖南。自上而下者。騎馬於稷山。遞馬於礪山。自下而上者。騎馬於稷山。直達于京城。其相去皆七息程。而中無遞馬處。纔經一二使行。則人必疲憊。馬必顛蹶。此本驛所以難支而多年空廢者也。自今以後。依平時例。大小使行。使之交遞P於京畿初面佳川驛。而如有違法過站者。自朝廷從重勘處事。

一。驛卒復戶。八路通行之規。而稷山則以爲新移。驛卒必無自耕田畝。不欲施行。新集殘隸。長在道上。既有難堪之苦。而又有田結偏當之役。其何以安意奠接乎。臣謹按法典內驛卒私耕田十七事并五結復戶。而若自耕不滿五結則取隣近人所耕。充其五結之數。以此推之。則雖非自耕。不可不依裁省廳事目給復。而況本驛空P廢之後。流隸之移接他境者。不忍永棄祖業。或往來耕種。或許人半分。其身既居他境。則其勢不得不移錄於他戶。而縣官一切牢拒。雖其自耕。無意給復。大違朝家恤驛之本意。自廟堂各別查處事。

一。各驛之有公需位田。猶各官之有衙祿位也。大路則二十結。中路則十五結。小路則十結。而經亂以後。各官書員。諉以陳荒。頗以民結出稅。故如本驛大路位田。未滿七結。其何以內備攻駒之資。外給公行之需P乎。宜令各官公需位田畝。依法典分大小路。以起耕處一一劃給事。

一。大小使行。既有各官騶率。而羽笠丘從。雙雙其間。書者馬頭。又隨其後。雖在太平無事之時。不過盛使客之威儀而美閭里之觀瞻。眞所謂虛文而無益於實事者也。況今公私蕩竭之日。尤豈可以書者馬頭等不緊名色。一一責立。徒費列邑之供億。而益添殘驛之痼弊乎。自今以後。雖監兵使及奉命重臣。雙牽馬外。勿許濫帶。如有P濫帶者。與濫騎同勘事。

一。本驛近處有廢東宮農庄數百石之地。而盡爲陳棄。臣已於今年春。略具農牛田器穀種。令驛底人民漸次起墾。限十年許令免稅。俾新聚殘民。得有依賴事。

一。每式年別定差使員。點考各寺奴婢者。所以防公私賤落漏之弊。不可不嚴明。而至若各驛奴婢則察訪每於春秋巡驛之時。逐名查櫛。付之形案。如此而又有差員之點考。則農節聚會。貽弊頗多。凶年供

億。爲P費不貲。所點人口。比形案無加損。而只添殘驛擾民之一端。臣之所屬各驛奴婢。已於赴任之初。查點屬案。依此修送於差使員處。以除奴婢目前之弊事。

凡此七條。爲本驛眼前之瘡。而七者之中。復戶尤緊。驛卒保存之策。專在於此。而田畝之結。在民戶則雖一結之小。本官之所懲頗多。在驛卒則無與於本官。故貪污之輩。視同己物。不有國法。惟意低昂。從前察訪。置之無可奈何。低心屈首。苟度時月。此P不過除授之際。例以如臣孤陋庸下者備數差遣。以致要衝之地。凋弊至此。誠可寒心。大抵本官之於察訪。雖有主客之分。而奉公則一也。驛卒之於本官。雖無管攝之節。而邑民則同也。其在共濟一視之義。固當隨事商確。隨處顧恤。俾無阻隔乖離之患。而稷山則不然。不惟無意於相濟。仇視郵卒。謀戲館役。觸事生梗。必欲撓敗乃已。至如復戶一款。猶屬第二件事。如此而安有蘇殘起廢之望乎。臣之妄料。如臣罷P軟者。從速罷黜。使稷山縣監兼管。然後可免掣肘之患。不然則差遣曾經侍從爲守令所憚壓者。使之及時更張。保存殘驛宜矣。憂憤之極。唐突及此。惶恐死罪。

筭

伸救司諫尹煌筭 三司聯名

伏以古君子有言曰濟美由乎納諫。虧德由乎自賢。自古願治之君。未嘗不虛心而納諫。屈己而從人。故君非不聖而誹謗有木。世非不治而執藝有諫。以虞舜之德而察乎邇言。以晉文之P賢而聽乎輿誦。未有直士見斥。言路杜絕。而能保其國者也。在治世猶然。況此危急存亡之秋乎。殿下卽位以來。未嘗培養直節。而輒示弛弛之色。雖或下教求言。而未聞用一善策革一弊政。在廷之臣。悠泛度日。恬嬉成習。旅進旅退。各保其爵位而已。故其在平日。無牽裾折檻之直。及至危亂。無奮義效忠之人。虞以和之一字爲芳餌。而君臣上下曾不覺悟。謂降將不失臣節。謂虜使解紛釋亂。抗禮親接。貽辱殿陛。賂以金繒。質以王弟。含羞忍耻。乞哀犬羊。尹煌P所謂一國屈伏者。不亦宜乎。旣云屈伏則其所謂名和而實則降者。實非過激之論也。殿下不獎其直。反以凶慘等語斥之。未知殿下振勵奮發。期於滅賊。而煌之言乃敢如是耶。臣等竊恐正士結舌。直氣摧沮。含糊苟容之徒。彈冠相慶。節槩廉耻之士。將不願立於朝矣。殿下若以降字爲耻。則何不激勵一世。以討賊之義。曉諭三軍。以死綏之節。命將直前。以決勝負。而徒與醜虜守此小信。寄在海島。苟冀無事乎。伏願殿下改心易慮。斥絕主和之議。洞開言路。P以旋忠直之士。修明軍律。振舉綱維。蕩滅凶賊。永有辭於天下後世。不勝幸甚。

答曰尹煌之言。極爲可駭。而爾等如是稱譽。今日人心亦難知也。爾等俱以有識之人。臣事降虜之君。不亦羞辱乎。勿爲徒責寡躬。各自潔身退去。以爲後日之地可也。

晩悟先生文集卷之四

啓

請停奴營信使之行啓 丁卯

伏以臣竊聞督和胡書又到。至以拒絕天朝爲辭。其頑悍甚矣。悖逆極矣。而朝廷恬不知憤。將有遣使許款之議云。如此者蓋欲以羈縻之計。姑緩目前之禍。然目前之禍。未必能緩。而上違天理。下拂人心。日後之憂。將有不可勝言者。臣竊痛之。夫君臣大義。天之經地之緯人之彝也。况我國之於天朝。義則君臣。恩猶父子。P死生存亡。不敢有貳。雖此窮蹙靡騁之日。君臣上下。斷當奮不顧身。督帥精銳。分據江津。克壯天塹之勢。痛陳曲直。斥絕虜使。堅定誓死之忠。則彼雖莫強之敵。豈能提不萬之師。乘不習之艦。輕犯我島中乎。設或強弱異勢。危逼之禍。百倍於今日。吾於君臣之間。既已無憾。則其賢於屈辱而苟存。固已遠矣。夫以我殿下之英武明睿。豈不瞭然於是非得失之歸。而但爲兇鋒所迫。妖言所惑。其於守禦攻戰之策。了無一事措畫。日與羣臣從事於往復文字之間。惟恐P片言隻辭之觸犯彼怒。不知如此委靡。將欲稅駕於何地。此臣所以失聲長慟。不覺肝膽之墜地也。臣以無似。待罪言地。既不能直言極諫。感悟宸聰。又不能嚴辭正義。斥折奸議。隨衆碌碌。徒費廩祿。主辱臣死。義豈如此。其迷國溺職之罪大矣。請命遞斥臣職。

請完城君崔鳴吉依律再啓 初啓。與司諫尹煌聯名。載八松集。

完城君崔鳴吉僨國敗事之罪。臣等已陳其大略矣。乃以斗筭之才。敢擅軍法之務。其於守禦P之策攻戰之具。無一事着實措畫。而斂手安坐。惟以媚奴納款爲能事。竭一國之力。以充溪壑之慾。屈千乘之尊。親接犬豕之醜。凡今廟堂之臣。均有辱國之罪。而主其事者。乃鳴吉也。爲人臣而負此莫大之罪。豈可泛歸廟堂之論。而不思所以亟正其法乎。中外士民。莫不痛心憤骨。請亟斬鳴吉。以快輿情。

臣伏觀政院批旨下者。雷霆之威。不日收霽。日月之更。人孰不仰。而臣愚以爲遞差之P命。終不免拒諫之歸矣。夫尹煌之疏。出於憂憤之至情。設使措語過當。豈宜遽加威怒。摧折之挫抑之若是乎。既諒其忠貞而有悔悟之心。則尤當優容寬假。以養其直氣。又豈可遞其職而噤其口。拒塞忠諫之路乎。城門開言路塞。前宋之所以亡也。而今也則城門未開而言路已塞。其於聖德何如也。國事何如也。伏願殿下更加三思。亟收尹煌司諫遞差之命。

請收司諫尹煌遞差之命啓

臣伏觀政院批旨下者。雷霆之威。不日收霽。日月之更。人孰不仰。而臣愚以爲遞差之P命。終不免拒諫之歸矣。夫尹煌之疏。出於憂憤之至情。設使措語過當。豈宜遽加威怒。摧折之挫抑之若是乎。既諒其忠貞而有悔悟之心。則尤當優容寬假。以養其直氣。又豈可遞其職而噤其口。拒塞忠諫之路乎。城門開言路塞。前宋之所以亡也。而今也則城門未開而言路已塞。其於聖德何如也。國事何如也。伏願殿下更加三思。亟收尹煌司諫遞差之命。

請都元帥張晚遠竄啓

奴賊之窺邊境久矣。張晚之掌邊事亦久矣。不^P能前期謀畫。致令賊騎長驅。賊既深入之後。旋又竄身窮谷。遂使廟社播越於島嶼。生靈盡膏於原野。今日之事。誰任其咎。此而不重勘。日後籌邊之臣。必以晚爲辭。而自爲身計而已。將何以振國綱而正軍律乎。張晚決不可中道付處而止。請命遠竄。以快輿情。

請金摺，朴惟建等依律啓。

金摺，朴惟建等。守土嬰城。不能效死。剃頭降賊。苟活偷生。情無可恕。罪不容誅。聖明何惜於此兩降俘。而一向牢拒。曲恕至此乎。臣恐日後^P懦夫惜死之輩。將無所知戒而效死於危亂之際矣。金摺，朴惟建等。決不可充軍而止。請命依律定罪。

請甌山縣令李復匡罷職啓

甌山縣令李復匡貪縱不法之罪。前已備論之矣。今不必更煩。而復匡一日在官則貽一日之害。何待於監司之詳覈乎。請勿留難。亟命罷職不叙。以解倒懸之急。

請罷諸宮家魚鹽船稅蘆田啓

今日國事之急。已到十分地頭。公私蕩竭。着^P手無地。苟可以利於軍餉。則固當靡不用極。而餘皆不暇計也。迺者國家特設管餉賣爵納粟。其取怨於民何如。而猶且不得已而爲之。况此諸宮家魚鹽收稅蘆田設屯等事。存之只貽民弊。罷之庶補軍餉。而殿下堅執至此。夫至愚而神者民也。必將曰當此呼吸存亡之日。與國同休戚之宮家。依舊網利。不念軍食之重。何况我無知小民乎。又將曰小民則賦役之外。雖斗米粒粟。必使之罄竭以入。而諸宮厚祿之家。任其科外之斂。而莫之拮据。其爲宮家地則厚^P矣。而獨不念顛連之民。皆吾赤子乎。遠邇離心。互相惡誹。則雖謂之國家存亡攸係。實非過論。且此於諸宮家。不過爲豐衣美食之資。而罷之則裕民補軍。足以昭聖代無私之政。聖明何牽於區區一時之私恩。而不念軍國之大計乎。殿下誠孝出天。不忍輕改先朝已例。臣等亦知之矣。但今危亡之禍。剝牀而及膚。凡事之不便於民而有補於國者。不可拘常而置之也決矣。伏乞俯循輿論。亟降船稅蘆屯革罷之命。

請罷諸宮家魚鹽船稅蘆田啓[再啓]

臣等將魚鹽船稅蘆屯等事。逐日論啓。瀆擾之罪。在所難免。昨承聖批。其所設三不可者。委曲懇惻。

仁心藹然。臣等非不感誦欽歎。而第伏念孝有大小。事有輕重。以今日言之。則廓掃腥膻。重恢疆土。聖孝之大且重者也。先朝所賜。不忍變改。聖孝之小且輕者也。先其大而後其小。急其重而緩其輕。此非聖明之所當勉者乎。敦叙九族。帝王盛節。而敦睦之義。亦不在於薄物細利之予奪。設使堯舜當此日艱^P危之勢。必不牽於親愛之私恩。而忽於安危之大計也。諸宮家自有常祿。必不至窮乏。而顧今國家之勢。十去八九。民窮財匱。莫可收拾。一朝虞更長驅。則無兵無食。顛沛之虞。必百倍今日。當此之時。諸宮家獨能享有其富。而其所聚有不爲大盜積乎。臣等之意。不惟船稅蘆屯科外之斂。雖其常俸。罄竭以入。俾助軍食之萬一。則風聲所及。下民觀感。亦知軍餉之不得不補矣。軍餉既足則滅虜刷耻之機。實基於此。其於感發人心。鼓動義氣之道。爲益豈不大哉。請勿^P留難。亟命革罷。

避嫌啓

方今大賊壓境。猖然伺釁。當枕戈嘗膽之日。有偷安姑息之習。百隸失職。萬事不競。危亡之禍。迫在朝暮。而不能牽裾碎首。匡救闕失。凡今臺閣之臣。均有不諫之罪。而實由於聖明之不能虛受也。臣愚之請竄張晚。爲後日籌邊者戒也。請誅金搢，朴惟建等。爲偷生苟活者戒也。蘆屯之請罷。將以補軍餉也。船稅之請祛。欲以除民弊也。其區區憂愛之誠。自謂不後於人。而^P聖批一向牢拒。至於頃日所論甌山事。非惟不爲允從。至令監司行查。臣愚以爲言官不可信則監司獨可信乎。大官有忠君愛國之心。而小官獨無忠愛之心乎。一道之內。有此可駭可惡之事。而爲監司者不能察。至使臺臣煩達。監司之不明甚矣。勿欺而犯。聖人所訓。臣雖不肖。允蹈斯言。安忍雷同欺罔。自陷於不忠之罪哉。國家置諫諍之臣。所以繩愆糾繆。言事得失。而此時言官。殆爲虛設。君以虛授。臣以虛受。此豈國家之福哉。逐日爲無益之啓。徒費^P廩祿。臣實耻之。請命罷斥臣職。以便私分。以重公器。

論右贊成李貴詆斥言官之失。仍避嫌啓。

臣伏見右贊成李貴推考緘答。滿紙張皇。橫說豎說。所以詆斥言官者。無所不至。且驚且愕。莫測其指意之所在也。噫嘻痛矣。尹煌，趙綱之於李貴。未知有何私憾。而兩司多官。豈盡李貴之讎敵。煌綱之私人哉。臺諫是非。常隨一時公議。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綱之^P疏。皆因公議而出於忠憤。非所以陷人於逆也。聖批有侵辱臺官，嚴治之教。重臣有請下司敗面質之筭。豈意聖明之世。言路之塞。一至此哉。蓋其筭中所引上官桀，張商英夜開北門。善類魚肉等語。語無倫理。不足多辨。而至其所謂黨同伐異者何人歟。終始誦非者何人歟。君父之被誣者何事歟。重臣之見陷者何事歟。若以憂國忠憤之言而諉之被誣見陷。以伸救直言之人而歸之黨同誦非。則臣不知臺諫爲誣罔乎。重臣爲誣罔乎。聖明既已嚴譴尹^P煌矣。不報趙綱矣。其厭薄言官之意。固已見於色辭。而重臣今又折辱之至此。無寧革罷有害無益之臺諫。以祛冗食之徒乎。殿下爲宗社大計。撥亂而反之正。李貴諸人協贊神謀。可謂功存社稷。而謀國五載。了無一事報効。內則民情愁怨。餓殍相枕。外則賊勢驕橫。戰骨盈城。百度解弛。庶事隳弊。危兆敗證。式日斯生。臺閣之臣。不忍坐待必至之禍。憂憤所激。略有所論列。而今其言曰政在臺閣則亂。不亦妄且謬矣乎。宮中府中俱爲一體。而今之廟堂臺^P閣歧而爲二。言必矛盾。計必枘鑿。不知協和朝廷而只要和好虜賊。不能攻擊虜賊而惟務排擊臺閣。臣恐夷狄侵陵。非今日之憂

也。甲兵不足。非今日之憂也。朝廷不和。腹心受病。將至於不可救藥。此誠今日之所大憂也。臣既參於尹煌論列李貴之啓矣。又參於趙綱除出四大將軍官屬於體府之啓矣。臣之罪戾。殆有甚於尹煌，趙綱。而尚猶冒據言地。臣之廉耻喪矣。况臣沉痾之疾。近益添苦。已無供職祇事之望。而重臣詬辱之辭至此。以此情勢。何敢偃^P然仍冒。以重一世之譏笑乎。請命罷斥臣職。使妄言者不復作焉。

請罷諸宮家免稅啓 己巳

諸宮家免稅。乃先朝一時推恩之權宜。非祖宗三尺之法也。免稅之初。亦豈知其流之弊。至於此極哉。臣未敢知國家稅入之數爲幾何。而費於胡費於倭。每歲經用。常患不足。况砲手之糧。平時之所未有。軍官之料。近日之所創設。而其他冗食浮費。未有如今日之多。則臺臣之所以必欲罷免稅者。實出於補國用紓民力^P之意。非故欲強拂我殿下親親之政也。殿下獨不見昏朝時事乎。其所以致亡之道非一。而免稅殆居於一。其曰王子鎮也。淑儀鎮也。翁主鎮也。都監鎮也。處處相望。無邑無之。而所謂管鎮宮奴都監差官。勒脅守宰。橫占阡陌。桁楊狼藉。貽弊萬端。奸細之民。又從以投托諸鎮。夤緣作奸。人心憤鬱。自底滅亡。此殿下反政之初。所以洞燭民隱。卽命革罷者也。不意近日以來。禁網漸弛。各處諸鎮。次第復設。如或任其自爲。從而免役。則將至於國不爲國矣。昏朝之^P轍。其忍蹈之耶。殿下承大亂之後。凡苛征虐斂民所不堪者。悉罷去之。培養根本。感召和氣。然後庶幾上答天眷。下聳人望。可當虜賊前頭再噬之患。而今於免稅一事。堅執如此。民生困而莫之恤。國計縮而莫之念。實非羣下之平日所望於聖明者也。伏願特加三思。亟降免稅革罷之命。

請罷諸宮家免稅啓[再啓]

民之出粟米事上者田稅也。國之供一歲經費者田稅也。我國典章。元無宮家免稅之文。^P祖宗敦睦之義非不至也。誠以民之正供國之經用。不可輕施也。雖有數結許免之時。特豐亨時些少之恩。豈若今日之濫觴歟。宮奴憑爲囊橐。奸民投作淵藪。歲增月益。今至數千餘結。國計之欠縮。民生之偏苦。已到十分地頭。親愛之仁。雖曰至矣。獨不念舉國之顛連。皆吾同胞乎。目今強寇壓境。舉國騷繹。居無積倉。行無裹糧。庚癸之患。已迫燃眉。南牧之騎。無計式遏。則諸宮家獨能享有其富。而晏然坐視乎。臨御七年之內。再經變亂。憂虞之象。日以滋甚。此正毋^P忘在莒之時。苟或涉於疵政。則雖是祖宗朝流例。猶當勇革之不暇。况此數十年積弊苦瘼。其可因循而莫之恤乎。實係民生之利病國家之安危。臣等不得請則不退。請加睿思。亟降俞音。

請罷諸宮家免稅啓[三啓]

諸宮家免稅。爲今日莫大之弊。民生之困苦以此。國計之欠縮以此。諫臣諍之。大臣言之。而殿下堅執至此。臣等實未知聖意之所在也。臣等竊聞陰竹畿甸之小縣也。公田纔二百結。^P而諸宮家都監鎮免稅者并二百餘結。既無平時字號。又無公家收稅。許多田結之盈縮操縱。一任管鎮之所爲。而官不敢措手。民不能堪命。以之數間公廩。埋沒於草莽之中而不能成邑樣。小而一縣如此。大而列邑可推。且其秋

成之後。管鎮自食其八九。輸其一二於宮家。宮家之所入甚少。而國家之所損甚多。豈不大可寒心哉。殿下仁孝出天。每以不忍遽奪先王折受爲教。臣等非不欽仰攢歎。而第今國勢之危急。日甚一日。腥膻之污。塗炭之慘。雖謂^P之已亡可也。君臣上下。斷當夙夜憂勤。今日除一民瘼。明日改一弊政。一心孳孳於裕民足國之方。庶可使祖宗傳世舊物。不至墜失。公子公孫不失世祿。而殿下孝敬之道親親之仁。至此而至矣盡矣。何必膠守故常之見。曲徇親愛之情。而殘剝餘民。洗削遺利。以益濫占橫斂之弊而後方可爲聖朝繼述任恤之美事哉。伏願殿下深察公私緩急之分。大小輕重之勢。快從輿論。卽命革罷。

請罷諸宮家免稅啓[四啓]

^P臣等聞繼治世者其道同。繼亂世者其揀異。國家自經昏亂之後。田無定制。賦無恒式。斜科橫征。宿弊已痼。十年憔悴之民。尙在塗炭之中。非大振作。不可以安輯。非大變通。不能以整頓。况今之免稅處。卽曩時所謂諸鎮。而尤其是殘剝民命。斷喪邦本之大者。不可不汲汲革罷。而殿下特以事關先朝。尙靳兪音。不但有傷於轉圜之聖德。而決非立政改紀撥亂圖治之道也。殿下反正已過有成之年。而聖敬常歉於日躋。志氣漸流於宴安。一號之發。一令之^P施。皆襲秦故。未有奮發更始之意。如是而臣工之惰窳。庶務之隳廢。何足怪哉。伏願殿下毋忸於故常之見而忘更張之道。毋拘於文具之末而忽遠大之規。更加三思。亟賜一兪。

請罷諸宮家免稅啓[五啓]

國家置諫諍之臣。本欲以繩愆糾繆也。諫臣言之而人主納之。諫臣論之而人主拂之。存亡成敗。在古可見。臣等不必一一毛舉也。免稅之事。似非國家存亡所係。而今若因循不罷。則存亡之機。未必不由於此矣。天下之事。由微而至^P著。積小而成大。免稅之初。事若微小。而今則蔓及列邑。爲弊滋甚。或至於縣邑不能成樣。縣邑不成樣而國家獨能成樣乎。臣等誠意淺薄。言不見信。免稅之弊。聖明雖不能深知。亦未必不知。而猶且牢拒至此。况安危之未著。利害之不明。是非之難斷。聖明之所未能盡燭者乎。聖明之置諫臣。臣等之在言地。未免爲虛授虛受。無事而食人之食。行呼唱於道路。逐日爲無益之啓。臣等竊耻之竊悶之。伏願殿下深惟國家之大計。勿爲姑息之政。亟命^P革罷免稅。

請罷諸宮家免稅啓[六啓]

臣等將免稅事。丁寧反復。論列已盡。而殿下一向堅執。竊恐殿下猶未能洞知其弊而然。玆敢更陳其槩。伏願聖明深究其源而勇革焉。國家自壬亂以後。稅入之數。半於平時。而冗食之衆。倍於前日。恒賦之外。三手糧也。軍官料也。西邊米也。五結布也。橫斂於民者。不知幾何。而度支有蕩竭之憂。經用無可繼之道。年前暫時之旱。尙有賣官之舉。脫有飢饉之荐臻。師^P旅之繼起。未知將何以濟之耶。諸宮家免稅。既是常祿之外。而奸民又從以締結宮奴。免役者托焉。逃賦者投焉。田結多少。一任宮奴之操縱。而及其收穫。舉歸宮奴之私橐。今以畿甸民結稅入而言之。一結歲出米二斛。千結之出。當爲二千斛。而宮家之免稅。不知爲幾千結。宮奴之操弄。又不止宮家免稅之數。則國家之所失。將至於幾萬

斛耶。頃日自上令該曹查入陰竹縣田結。臣等意謂必有更張之舉。而到今寂無聞焉。豈臣等所論或失其實歟。臣等取考戶^P曹官案。則陰竹縣免稅處。殆與公田相半。推此而可知稅入之欠縮矣。古之帝王分田制祿。公子公孫。皆有常祿。而未聞割土裂地。任其收稅。不爲定限。有如今日者也。請深思經遠之計。勿爲姑息之政。亟命革罷。

請罷諸宮家免稅啓[七啓]

矯革弊瘼。爲治之先務。從諫如流。帝王之盛節。今此免稅之爲弊甚鉅。而殿下莫之革焉。臺臣之陳啓連月。而殿下莫之從焉。豈殿下未能深知其弊而然歟。抑知之而爲不足革^P歟。且以諫臣之言爲不足從歟。不知其弊則已。既知其弊。奈何不革。人之幼學也。不得爲宰相則願爲諫官。爭是非得失於人君。冀有以少行其道。今殿下毋論得失。不計是非。若出於臺諫之口。則一切拒而不納。臺諫之言。豈盡無所補哉。實非古聖王從諫如流之美也。日望庶幾之改。不避煩瀆之嫌。請賜俞音。以革積弊。

請罷諸宮家免稅啓[八啓]

當今國家之艱虞。由於稅入之欠縮。稅入之欠縮。由於免稅之濫觴。臣等既知其弊。不得不^P罄盡所懷。而殿下牢拒至此。雖謂之蔽於私情可也。苟蔽於私。則生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其事。辟親愛而憚繩檢。樂因循而任縱恣。馴致危亡之禍而不自覺悟。此又臣等之所大懼也。蓋此免稅。自廢朝始。而弊源一開。末流彌廣。冒占之弊日甚一日。民生之怨苦。國計之虛耗。殆與曩時無異。其爲聖朝之累。顧不大哉。使其罷此而諸宮家沾於窮乏。則殿下之靳持。猶之可也。今既萬無此理。而其於安民足國之道。大有關焉。不審聖明何憚而不肯^P革罷乎。請更加睿思。亟降俞音。

臣等昨因宮家免稅事。伏承嚴峻之批。相顧凜惕。不知所以措躬也。惟我殿下以上聖之姿。啓中興之運。百工仰德。四方承風。將何事之不可做。何弊之不可革哉。凡於政令之間。一以大公至正之道處之。庶可使朝廷尊重。邦本鞏固。而今乃區區委曲於私恩小惠之際。不計民生之疾苦。不念國計之虛耗。不顧衆論之紛紜。必欲使諸宮家任其所爲。充其所欲而後已。臣^P等所謂蔽於私情者。果是過激之論乎。既蔽於私。而不知所以裁之。則惟此一念。潛滋暗長。有如火之炎炎泉之涓涓。終於燎原而滔天。因此而馴致危亡之禍。亦理勢之必至也。殿下非惟不能虛受。發怒於蔽私危亡等語。前後聖教。愈往愈嚴。至有臣子所不忍聞者。不審聖明本源之地。有何偏滯之病。而辭氣之失平若是耶。豈以今之居臺閣者。皆非其人。而不顧分義。敢欲責難於君。斯爲僭妄可罪者耶。抑以爲一事之私。豈必至於亡國。而無難發口。強聒^P不捨。斯爲狂誕可責者耶。易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淪亡之兆。衰替之漸。人皆見之。而殿下少無憂懼之念。但思姑息之計。欲使羣下粉飾太平。務爲豐亨豫大之言。其於安危保存之道。不亦左乎。臣等俱以無狀。不復取信於君父。致有如此過舉。誠無顏面自立於諍臣之列。請命罷斥臣等之職。

避嫌啓

臣等昨因宮家免稅事。伏承嚴峻之批。相顧凜惕。不知所以措躬也。惟我殿下以上聖之姿。啓中興之運。百工仰德。四方承風。將何事之不可做。何弊之不可革哉。凡於政令之間。一以大公至正之道處之。庶可使朝廷尊重。邦本鞏固。而今乃區區委曲於私恩小惠之際。不計民生之疾苦。不念國計之虛耗。不顧衆論之紛紜。必欲使諸宮家任其所爲。充其所欲而後已。臣^P等所謂蔽於私情者。果是過激之論乎。既蔽於私。而不知所以裁之。則惟此一念。潛滋暗長。有如火之炎炎泉之涓涓。終於燎原而滔天。因此而馴致危亡之禍。亦理勢之必至也。殿下非惟不能虛受。發怒於蔽私危亡等語。前後聖教。愈往愈嚴。至有臣子所不忍聞者。不審聖明本源之地。有何偏滯之病。而辭氣之失平若是耶。豈以今之居臺閣者。皆非其人。而不顧分義。敢欲責難於君。斯爲僭妄可罪者耶。抑以爲一事之私。豈必至於亡國。而無難發口。強聒^P不捨。斯爲狂誕可責者耶。易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淪亡之兆。衰替之漸。人皆見之。而殿下少無憂懼之念。但思姑息之計。欲使羣下粉飾太平。務爲豐亨豫大之言。其於安危保存之道。不亦左乎。臣等俱以無狀。不復取信於君父。致有如此過舉。誠無顏面自立於諍臣之列。請命罷斥臣等之職。

請陽陵君許禱削官門黜啓

陽陵君許禱。前後投疏。敢論大禮。舉國之人。莫不深惡其所爲。而其時兩司之交章請罷。不過^P斥其妄言而已。今者彈墨未乾。復此擲揄。蓋其縱恣無忌之狀。已極痛惋。而臣等取見元疏。則滿紙張皇。無非詬辱君父。脅勒朝廷之語。臣子之所不忍正視者也。爲人臣者。負此悖慢之極罪。施以禦魅之典。亦云未減。請命極邊遠竄。

請陽陵君許禱削官門黜啓[再啓]

陽陵君許禱。敢以愚妄之見。頃論莫重之禮。倡發怪論。幸免邦憲。而不意今日復進妖疏。上以探試聖意。下以熒惑人聽。其逢迎之態。擲揄^P之狀。國人之所共憤也。人臣負此重罪。不可暫刻容貸。請亟命遠竄。以快輿情。

避嫌啓

臣之愚劣。最出人下。而沐浴恩榮。冒忝言地。袞職有闕而不能爲一言以補之。綱紀日紊而不能爲一言以振之。民生之凋瘵已極而不能進拯濟之嘉猷。南北之邊患方深而不能獻威敵之奇策。徒以許禱等事。逐日陳啓。上下相持。有若循例塞責者然。所失與同僚無異。而適有狗馬之疾。未得一時引避。臣罪至此而尤^P大。請命罷斥臣職。

請收羅萬甲遠竄之命啓

臣等伏覩昨日備忘記。深惡黨論。痛滌痼習之意。溢於辭表。在廷之臣。孰不竦然知警。第羅萬甲遠竄之命。臣等竊以爲過矣。王者用法。必須罪名彰著然後酌其輕重。以其罪罪之。故受之者無辭而人心服矣。如或罪名未著。用律過當。則人不服罪。疑懼轉甚。豈不大可慮哉。目今朝著之上。雖大官重臣。猶不得操弄朝政。萬甲以年少一小官。雖欲主張時論。進退人物。有何權柄之可擅而惟意所欲哉。使萬甲果有專擅之罪則削籍投荒。固無不可。既無其實。又無其迹。而勒定罪名。遽加重律。非但有駭於瞻聆。實爲聖朝之過舉。臣等區區之意。非敢一毫爲萬甲地也。只慮其用法之過當。而納吾君於無過之地而已。請收羅萬甲遠竄之命。

請收羅萬甲遠竄之命啓[再啓]

自古朋比之禍。未有不亡人之國滅人之社。不惟殿下惡之。臣等亦惡之。然殿下之於羅萬甲。既無罪名之可據。又無形迹之可著。而徒以色目疑之。遽施以遠竄之律。臣等恐國人有以窺殿下喜怒之偏。而乘時傾軋之風。將自此漸矣。大有乖於聖人明照平施之道。請收羅萬甲遠竄之命。

請收羅萬甲遠竄之命啓[三啓]

臣等將羅萬甲事。連日陳啓。瀆擾之罪。在所難免。殿下之於萬甲。處分過當。以致巖廊之上。鼎席不安。縉紳之間。物議相激。求以清朝著而適以擾之。此豈盛世之美事哉。大抵聖明之學。於中和極功。猶有所未至。故情之未發。既不能無所偏倚。其發也又不能無所乖戾。今日萬甲之事。亦其及躬猛省之地也。伏願殿下虛心於應物之際。用力於難制之機。亟收羅萬甲遠竄之命。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

人君之進退臣僚。一付之公議而已。國人皆曰賢。國人皆曰不可。然後從而用之斥之。張維之不可黜外。不惟臣等爭之。大臣亦言之。公議所在。斷可見矣。而殿下拂人之情。乃至於此。實非臣等所期望於平日者也。殿下之於張維。風雲之會。迥出千古。豈尋常君臣之比哉。使維若有可斥之罪。則固當嚴降明旨。詰其曲直。辨其情僞。然後有罪則罪之。無罪則赦之。非但事理明白。維必服罪之不暇。而在廷臣僚。亦得以相警矣。今者維之曲直未著也。情僞未分也。乃以一筭之故。遽施無前之罰。瞻聆所及。孰不驚駭。雖在庶官。不以罪罪之。人心尚且不服。況於經幄重臣。無罪之可名者乎。待維如此。其他可知。人心疑懼。轉益不安。此豈清時盛德事耶。請收張維羅州牧使除授之命。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再啓]

君臣猶父子也。子不容有隱於父。臣不容有隱於君。張維自以受知聖明。際遇不世。頃日陳啓。蓋出於念及遺闕。知無不言之意。寧有一毫孤恩濟私。自陷於欺罔之理哉。設使措語過於樸直而欠於委曲。亦不過忠憤所激。言不知裁之致。其在人君虛心聽言之道。決不當如是之挫折也。張維之本情無他。而殿下之施罰太重。臣等恐莊士卷舌。懦夫含嘿。務爲順旨之計。而無一人盡言於聖明之下。豈細憂也^P哉。請還收張維羅州牧使除授之命。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三啓]

人臣之進誠。不一其道。而人主之聽言。必原其情。周昌桀紂之喻。殆近彰君之惡。魏徵獻陵之對。亦涉慢君之歸。苟不深原其情。而徒以言辭罪之。則二臣者將不免於顯戮矣。然當時之君。知其愛君無他。曾莫之罪。書之史冊。以爲美談。臣等每讀史至此。未嘗不擊節而三復也。今此張維之筭。出於愛君憂國之衷。而言人之所難言。殿下苟能優容而翕受。克察用罰之失。痛^P絕偏係之私。則上下之間。情意流通。君仁臣直之效。庶幾得見於今日。而特以一二句語之過當。無難發怒於辭氣之間。至以欺蔽不直等語責之。原維本情。略相近似於此等題目乎。以此非情之教而施於下賤。尙且不可。而況於經樞重臣乎。況以我殿下之明聖聽納之美。反下於漢唐雜伯之主。此尤臣等之所共慨惜者也。且維昵侍近密。久沐恩寵。可謂殿下之親臣矣。一言忤旨。遽生疑阻。加以貶斥。棄之如遺。豈所謂使臣以禮之義哉。非但有傷於國體。^P人心因此不安。請賜俞音。亟收成命。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四啓]

臣等昨論張維事。聖批有曰罰貴大賞貴小。今此補外。未爲不可。臣等竊以爲不然。人君施罰。當從罪之輕重。豈係官之高下。使維爲欺蔽爲不直。則貶之可也。斥之可也。而維之無欺蔽無不直。大臣分疏之矣。三司陳啓之矣。下至廡賤。亦知其不然矣。臣等伏見殿下謀吞衆略。有過慎之防。明照羣情。有先事之察。疑人於不當疑之地。加罪於不當罪之人。維之抱冤。固^P不足言。而國家之刑章。竟何如也。此臣等之所以逐日論列而不能已者也。請還收成命。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五啓]

古人云人臣納說於君。因其既厭而止之則易爲力。迎其方銳而折之則難爲功。今殿下盛怒於張維。勢不可回。臣等非不知之。而逐日公車論列不已者。誠以聖度包容。卓越前古。不敢以衆人好勝之常心。有望於殿下。且恐國家形章。因此而失中。日望庶幾之改。不避瀆擾之嫌。伏願聖明平心察理。亟收張維羅州牧^P使除授之命。

論兵曹判書李貴詆辱大臣啓

卽日筵中。兵曹判書李貴。詆辱左議政金塗。無所不至。至以爾瞻比之。使塗果有爾瞻之罪則貴之言是也。塗安敢在相臣之位也。貴之言誣也。貴豈可免構誣大臣之罪也。誣辱大臣於殿下之前。而殿下無一可否語。臣未敢知殿下其以李貴爲是耶。其以金塗爲是耶。貴是則塗非。塗是則貴非。天下豈有兩是之理哉。貴之構誣罔極。而殿下不爲呵責。塗之陳筭^P自劾。而殿下優容以答。是殿下兩是之也。金塗，李貴俱有旋天浴日之勳。其再造宗社之功則一也。而殿下既以塗置之相位。則貴安敢挾勳驕恣。構誣相臣。凌蔑朝廷。至於此極也。昔哀公問政於孔子。孔子對以敬大臣。夫大臣者。百責之所萃也。處一人之下而位百僚之上。人主之所倚而爲治者也。朝野之所恃而得安者也。是以古之人君。得其人而置其位。信之篤也任之專也。小臣無得以間之。讒言無得以入之。故朝廷尊焉。治化成焉。自古及今。未^P有大臣見侮而能免於亂亡者也。今者李貴之詆辱甚矣。金塗之被侮極矣。朝廷之不尊。無大於此。其於敬大臣之道。果何如也。其蔑侮大臣毀壞體貌之罪。不可不懲。請兵曹判書李貴特命罷職。

論兵曹判書李貴詆辱大臣啓[再啓]

臣昨日論李貴詆辱相臣之罪。聖批有曰其時所陳。似涉無情。不必如是論罪。臣竊以爲不然。朝廷者祖宗之朝廷也。大臣尊則朝廷尊。大臣輕則朝廷輕。李貴安敢以一時之忿而詆^P辱相臣。殿下亦豈以元勳之故而曲恕至此乎。半日筵席說話。無非侵侮詆辱之語。則有情無情。非所論也。天下事非一家私。使貴設有不悅於塗者。當平其心氣。順其辭令。陳其是非曲直而已。豈可驕橫縱恣。略無顧忌。至於此極耶。李貴之詆辱狼藉則置而不問。金塗之自列丁寧則教以勿較。使彼此曲直相蒙而莫之別。有若解其私鬪者然。國人傳之。史筆書之。謂今日朝廷當如何也。其蔑侮大臣。貶辱朝廷之罪。不可不懲。請命罷職。

論兵曹判書李貴詆辱大臣啓[三啓]

敬大臣。乃是爲天下國家之第一義。惟我祖宗服膺聖訓。莫之或替。式至于今。若使人得以辱之。人得以間之。豈可以任棟樑之寄而展股肱之效哉。兼兵曹判書李貴。頃於登對之日。因其私忿。詆辱左議政金塗。極其狼藉。及其羣議喧騰。難掩其迹。則乃敢肆然陳筭。諉之以泛論。殊不知自陷於愚弄欺謾之歸。朝廷之不尊。孰有大於此者乎。請亟命罷職。使大臣重而朝廷尊焉。

請罷遣豐呈妓樂啓 庚午

今日國事之危。比先朝太平之時。爲何如也。此非調習妓樂。處以宴安之時。而該曹回啓必欲抄置。意見所在。臣實未曉也。况豐呈既行之後。到今仍留。亦甚無據。不論其成才與否。請并命罷遣。

伸救大司憲鄭蘊。仍避嫌啓。

逆珙之罪。邦人共誅。國是大定。而前大司憲鄭蘊。妄陳所懷。至於請復其爵。重臣之請罪。三司之論劾。宜矣。然而聖明既遇災求言。下教^P曰言雖不中。亦不爾罪云爾。則蘊之言雖或不中。諸臣之請罪。非所以將順聖明洞開言路之義也。臣自外而來。竊欲開陳不必然之意。而臣本嶺人也。蘊亦嶺人也。不知者必以臣爲護蘊。含默出仕矣。卽伏見兵曹判書李貴筍子。則以爲烏可以父子之大義。責之於今日臺諫云。臣亦臺諫之一也。顯被詆斥。乃至於此。安敢靦然仍冒。以貽清朝之羞辱乎。請命遞斥臣職。

伸救大司憲鄭蘊。仍避嫌啓。[再啓]

^P頃於本府齊坐時。臣與執義趙緯韓。所見頗異。各陳於避啓中。玉堂處置。似不當兩出。而既出之後。緯韓以此呈遞。則臣亦無晏然出仕之理。連上辭單。見阻於喉司。今纔入啓。又有出給之命。自顧義分。惶惶方切。卽伏見執義權濤避嫌之辭。則以前日女謁等八字抹去之故。至有窺測淺深俯仰之語。此則臣與緯韓所見矛盾之一款也。當緯韓議去八字之際。臣果再三力爭。而或恐有意外風浪。未免隨參於論啓之章。臣既知其非而不能堅守己見。墜落風^P采之失著矣。何敢靦顏仍冒乎。且臣疾病沉痾。歲月已多。道上添傷。視前尤劇。當聖明宵旰之時。蔑有絲毫之補。而徒以呈告爲事。臣之不職之罪。至此尤大。請命罷斥臣職。

請禁大君房折受啓

宮家折受之弊。及於海洋。黃海京畿沿海一帶。已爲痼弊。識者之憂久矣。今聞全羅道興陽縣去海岸三十里外。有所謂羅老島者。只有漁戶數三十。而湖南濱海七八邑漁採之一都會也。又爲大君房所折受云。此等弊端之及於遠^P方。亦曩時之所未聞。不但爲聖德之疵政而已。且念大君年幼。必無與知之理。此是內奴之泛濫奸猾者中間穢托。以致貽累於國家。究厥罪狀。尤爲痛駭。請命本道查覈啓聞。嚴加禁斷。

請兵曹堂郎推考啓

反政之初。臺諫請禁女人之出入闕門者。蓋有所深懲而痛革之也。自上快賜允俞之教矣。近來人心日偷。防禁隨弛。無籍女人之冒法出入者。罔有紀極。其流之弊。何所不至。兵曹之^P官。閤禁是察。而全不檢飭。難免怠職之責。請該曹堂上郎廳從重推考。

請查治竹山軍民搆誣地主之罪啓

守令之憑公營私。侵虐軍卒。在在皆然。有怨則訴。亦無足怪。而吏民之告其守令者。全家徙邊。昭載

法典。則其意豈偶然哉。內有臺諫之風聞。外有監司之詢問。別有御史之廉訪。守令賢否。民間疾苦。上聞于朝廷。不一其路。若使管下之人。任其告訴之習。則因嫌構捏之弊。亦安保其必無也。爲土主者將無以發一號施一令。終不得措其手足矣。上下統攝名分維持之義。至此而盡壞。豈非可虞之甚乎。臣等伏見御營廳前後啓辭。則竹山等數邑守令。皆因土民之訴。連有拿囚之命。臣等未見原狀。雖未知該倅所犯之如何。而其粘付一二官帖。以爲早晚陷害土主之用者。其所設計。誠可痛惡。本廳雖急於慰悅軍情。有此陳啓。然何其不思後弊之難防耶。被拿守令供招。若涉冤枉。則前後告訴軍人。請令有司更爲窮覈。亟施全家徙邊之律。

請禁公私賤投屬內需司之弊啓

曩日公私賤互相投屬之弊。罔有紀極。癸亥以後。大開伸理之門。遐方抱冤之民。莫不歡欣鼓舞矣。數年以來。漸不如初。非但已得伸理者。稍稍復舊。甚至曩時不能生心之類。亦皆公然投屬。如忠勳等府上司衙門。而其爲淵藪者。比比有之。其中內需司爲尤甚。窮閭愚悞之民。自生疑畏。莫敢裹足訴冤。而其得自達於輦轂之下。號訴於環衛之外者。皆向來鼓舞之民也。識者之深虞隱痛。不止於痛哭流涕而已。請內需司官員中主張作弊者。令攸司摘發治罪。外方愚民如有投訴稱冤者。切勿廢閣。一一啓聞。在處伸理之意。下諭于八道監司。

請禁公私賤投屬內需司之弊啓[再啓]

近來內需司投屬之弊。日滋而月長。深以濫觴之有漸爲憂。昨日論啓。實出於防微塞源之遠慮。而聖批至以抱冤曲折及作弊者姓名。一一詳論爲教。臣等之愚。不能無惑焉。臣等雖無狀。待罪言地。所職知無不言而已。殿下欲聞抱冤曲折則有司存焉。當以臣等所啓下詢該曹。如曰都無此事。臣等當伏妄言之罪。至於作弊者姓名則凡事既有其弊。便有主張爲之者。理勢之必至也。內需司官員如別坐輩瑣瑣冗賤者姓名。臣等非惟不知。亦非臣等之所當知也。殿下必欲懲此輩革此弊。則內司亦有次知提調。若以臣等之啓。嚴加詰問。必不敢有所欺隱。臣等之所謂攸司者。正措此也。請令攸司斯速摘發治罪。外方愚民如有投訴稱冤者。切勿廢閣。一一啓聞。在處伸理之意。下諭于八道監司。

避嫌啓

曩時昏亂之政。足以亡人之國者。不可毛舉。而其一尙存。卽內需司之弊也。反正在初。廷臣之請罷是司。其深憂遠慮。正在於此。近來人心不淑。廉隅都喪。士大夫之以贓得罪者項背相望。况此冗賤之輩。苟利於身。亦何所不至哉。遠方私賤之欲叛其主者。必販賣田宅。裝載入京。先求此輩之主其事者。做藏行賄。聽其指揮而俯仰焉。本司訴牒。外方行會。因緣付托。不一其狀。而皆出於其手矣。啓下公事既下外方。則守令之承望風旨。固不足怪。而藩臬之臣。往往亦不免有所左右於其間。此皆舊時之餘習。而熟處之難忘者也。愚下之氓。猝然遇之。怖怕救死之不暇。不敢出一聲自白。而其能得致於輦轂之下。訴冤於匭函之前者。亦必傾財破產。先致於厥輩之家。冀得伸理。則彼又取見所持文書。爲之

周旋指撝。以直其冤。而自以爲功。於甲於乙。前後反覆。坐享其利。而國家爲歸愆之所。臣等安得默然而已乎。昨承聖批。一則曰似爲無據。一則曰殊欠正直。未知臣等何負^P於殿下而言論之不能取信一至此哉。卽今本司公事之啓下該曹該院者無數。而皆經乙覽。則冤訴之實狀。殿下既已知之矣。臣等之言。果出於無據乎。彼狗鼠之輩。蝨處廝賤之地。竊弄操縱之柄。而其事則不出於朝報。其名則不掛於官案。無惑乎臣等之不知也。臣等無狀。雖不敢自處以正直。而若謂之知而不言。亦臣等之所不服也。殿下非不知此弊之濫觴。而既不能痛絕其根本。又曲爲之發難回護。以爲拒諫之資。此無非臣等愚戇固滯。言不知^P裁。以致殿下蔽於私意。摧折言者之失。臣等之罪至此尤大。請命遞斥臣等之職。

請考講儒生。勿拘額數。落講軍保。別立名目啓。

學校儒生之定額。非以多士而有限。廩養之道。不可以無其數也。若於考講之際。一從額數。則非但有歉於朝家待儒之道。亦不無遺才抱冤之患。豈可不十分裁量而善處之乎。事目中雖有御史臨時啓聞處置之意。而但念事日本意。既以額數爲主。則雖曰量數加定。終^P歸於定限之偏。而有乖於右文之意。且落講充軍。雖是不易之典。而此法不行於士族。其來已久。一朝遽行。必多怨苦難堪之患矣。大抵州縣校生未必皆士族。亦多良民之避役者。落講充保。渠亦自分。而至若三南凡在校案者。幾盡士族。國法鄉風。既以閥閥爲重。則其視充軍。無異就死地。雖曰收布。所惡者名也。臣等之意。無論額數多少。惟以入格與否。爲取舍之地。而雖未入格。查別分明士族之類。亦勿充保。設或充保。或名以落講收布。或別立名目。一以資軍實。一^P以慰人心。似合變通之道。請令本廳更加商確施行焉。

晩悟先生文集卷之五

啓

椴島奉使時間見啓 丁卯

臣與接伴使臣元鐸。前赴椴島。竣事回還。謹以道路見聞。逐日馳啓。而猶慮實情未盡得徹於冕旒之下。更構別段。惶恐敢啓。

[三月]

本年三月二十四日晴。臣辭朝後。帶驛官奇伯賢及軍官二人。日晚渡臨津。津乃伊安下流。峽束湍急。深不見底。下流淺灘。僅五十武。若嚴兵固守。則雖曹瞞之八十萬兵。苻堅之百萬勁卒。亦無如之何矣。日晚抵喬桐。地形局勢。自作天塹。其水勢之灣環。船路之逶迤。較驗於江都。蓋江都周回濶大。而喬桐遠不可過十五里。防守之道。似尤便易矣。

二十五日晴。臣早發渡北津。津廣幾七八里。水路之險。甚於臨津。日晡到延安。府使臣申得淵來見。府即壬辰破倭處也。城高不過四五尺。而間多頽圮。主山俯壓。局勢褊狹。決非固守之地。其時主將臣李廷菴守是府。有惠澤於民。民皆效死力戰。竟保殘堞。所謂地利不如人和者。誠不誣也。

二十六日晴。臣早發遞馬于青丹驛。夕到海州。州民失家屬者。見臣泣且言曰。將討賊而往乎。何不及時致討。使斯民罹此殃乎。聞甚惻然。牧使臣朴籓來見。言本月初五日曉。賊數百騎猝至。籓走馬出西門。馬躍而墜。轉入林藪中。僅以身免。城中居民盡被掠去。間有逃還者。而十室九空云矣。

二十七日晴。臣朝見牧使。牧使未即出夫馬。臣與管餉使從事官臣崔惠吉對坐空館。無趁期前進之勢。王程有限。惶憫殊切。日晡出宿神光寺。寺在首陽山中。元順帝所創云。蓋海之爲州。前據大海。後阻首陽。而山城在首陽之東。四圍削立。險固無比。真一夫敵萬之地也。若得精兵數千。進可以遮截方張。退足以堅壁自守。而不能及時措畫。使海之民酷被屠戮之禍。守土之官。惡得辭其責乎。臣以爲本州當兩西之交。山城得控扼之勢。此政法所謂地有所必守。城有所必據者也。諸處軍儲倉實。一切輸侍其中。而脫有警急。招集傍近人民。使之并力入守。則屹然爲國家保障。而緩急庶有所恃矣。無乃廟筭偶未之及耶。

二十八日陰或陽。臣發行抵信川。郡守臣尹命之來見。備說逢變之慘。夜馳向安岳。所帶驛隸新自平壤賊陣逃還者也。賊夜輒卸馬鞍鎖馬足。弛弓枕甲。濃睡如死。我人被擄者。多因此得脫。若乘夜掩襲。可勦盡無遺云。海州神堂居鄭進士名不知。妻及二女一婦。俱被執於賊。賊欲污之。鄭妻奮罵賊。賊以劍脊打終不屈。即寸斬之。又犯一女。女亦罵賊死。婦與一女皆自投於水。一室四烈。令人凜然起敬。

二十九日晴。接伴使臣元鐸先到本郡。待裝船有日。早朝來見。聞文化縣令慶信後避亂於九月山。其妻若妾俱被擄於賊。妾端川官婢也。即墜崖而死。曾謂娼女而能死於節耶。臣之歷路望見。九月山環亘西北。峯嶺蒼鬱。聞其中有城極險固可藏兵糧。如使安，文，長，殷，瓮，信等傍邑人民入而固守則可免

奴賊剽掠之患。而未有謨畫及此者。殊可歎也。唐守備金聲通，曾天成^P等避賊於瓮津。還向椴島。率其部下十餘人。請與同舟。

[四月]

四月初一日晴。聞賊已渡清川。副元帥入平壤。管餉使臣成俊考領軍糧來留北津。安岳人傳海州出身戊午渡遼者遺書其家曰。十載重來。未接一面。心焉如割。姑俟秋間再舉。可相見云。此等謊說。固不足信。而賊之更動。蓋無怪矣。若於冬月來搶。則兩西之民。難以舟楫避。預令道臣增修列邑山城。募民入守。一以避賊。一以清野。實爲保民禦敵之善策矣。

^P初二日晴。臣同伴臣馳往北津。見管餉使。促具舟楫。本郡間有兵鎬未及處。始耕作。而無牛者。代以人七八或十餘而耕。亦有以馬耕者。

初三日晴。管餉使以安岳郡守爲臣等護行差使員。郡守病未來。

初四日晴。舟楫未具。仍留北津。

初五日晴。午後管餉使發向龍岡。臣等移駐津頭。

初六日晴。伴使乘鳳山船。先向龍岡。

初七日風。午載寧船來泊。臣與唐差金聲通。曾^P天成等渡江狂飆猝起。波濤震盪。僅免傾覆之患。殷栗士人洪起明來言。三月初。賊兩個驅我民三十餘名。自豐川向殷栗。府民朴季男與鄉人梁慄。并力殺之。被擄者皆得脫。又言殷栗人姜一男者有膂力。真獠八名猝至。一男持弓矢逐之。近村二百餘戶。賴以獲全云。

初八日風。午臣追到龍岡。與伴臣留待糒船。聞平壤城中積屍如山。發軍掩瘞。數日而未盡云。人民多死可知矣。

初九日風。伴臣先向咸從。三和人皆言。都事黃^P瀨亂初到本縣。頗有收拾鎮安之功。及賊回之日。知委附近三四邑。收入人民牛畜於眞島及飛發島。令軍官白後天聚舟楫。輸侍糧餉。龍岡，三和二倅亦悉心協贊。人民入島者幾六七萬。流民行丐及被擄逃還者。并導之入島。定將分伍。計口而賑。島中無井泉。晝夜船運以繼之。又令判官慎得義領精兵五百。巡邏上下。以備水賊竊發之虞。賊到平壤。一枝自江西將轉入三和。聞邑里俱空。環縣不入而去。

初十日風。午後臣到咸從。遺民間始農作。而沿^P路所墾。不能十之一。

十一日晴。午伴臣先向甌山。管餉使來自安州。臣語之曰近日備邊之策。惟有屯堡一事。必擇其地勢險阻。土品肥饒。可耕可守之處。而收聚流民。經紀生事。資以農牛穀種。則彼救死不贍之徒。必將歸之如市。農時則勸課耕作。有隙則練習戎事。兵糧充物則設爲營柵。一處如此。他處亦然。使呼吸相通。聲勢相倚。則雖有外寇衝突之變。何憂之有。管餉使深以爲然。當極力措畫云矣。

^P十二日晴。臣曉發馳到甌山。與伴臣同舟宿洋中。

十三日晴無風。進泊雲從島。島素號木米。督府以其名龍。故改稱雲從云。

十四日晴。宣川進士白以忠來見臣等。言本鄉別監桂永建倡率境內男女七百餘人。入據蝶島。乏食濱死。臣等與之米五斛。宿洋中。

十五日雨。朝臣等泊椴島。都督已於本月初十日。領兵船十七隻向麟山界矣。龍川保人黃彥禮，鄉吏金愛澤，內奴張希進，閑良田士龍等。獻^P馘于督府。來見臣等曰。中軍李岄，品官張希範等。三月十八日。倡率龍川，鐵山號牌軍及鄉吏官屬內奴并七百餘名。將向龍骨山城。猝遇賊。希範等九十餘人僅得入城。李岄與士人張希俊等五百餘人。退據希範空舍。穿穴四壁。亂放砲射。終日殺賊五百餘名。賊皆焚屍而走。翌日岄移據西面民舍。賊千餘騎來圍。終日射殺八十餘名。斬真獠具甲冑者五名。本月初三日。又移入義州獅子島。設柵以守之。賊又來戰。連三日射殺一百二十餘名。斬具甲冑者四名。今方^P獻于督府。而李岄則進駐龍川。本島領將吳仲生，出身沈海達等領兵。時在獅子島。糧絕已久云。宣川校生桂宗老，閑良朴繼宗，軍士金三立，保人智仁好，龍川閑良朴士立，鐵山保人鄭馬龍等。獻獠馬八疋于督府。來見臣等。言宣川劍山有四窟。可容數萬人。二月初。禁軍智得男，鄉吏李宗吉等。率境內男女三千餘人入據。自四月賊兵過山下者。從窟中或射或砲。前後死傷甚多。今初九日。都督送軍七十名。分邊相戰。奪賊馬二十三匹。而二十匹還即見奪。是日賊使^P我國人詐稱宣傳官。來諭窟中曰。定州新使斬石景祐。方開倉賑民。而國家又已講和。爾等速還農作。愚民信之遂下山。多為賊所擄。十二日賊又過窟前。宗吉等出其不意。射殺賊二名。奪馬五匹。並前奪馬三匹。獻于督府。提督賜青布十二疋，帽子十一，火藥二十斤，火箭二十箇，鉛鐵半斤，甲冑四部，小米大豆各四十斗。又送天兵百名。使之協力討賊云。臣聞重賞之下。必有死士。兩西之地。猝遇賊變。閩帥藩宰。舉皆奔竄恐後。而其間忠義之士。或力捍孤城。勦殺流^P賊。或躬犯矢石。奮勇不回。義烈表表在人耳目者。亦不為不多。而登聞無路。褒賞不及。故人皆解體。無推鋒爭死之志。如是而其何能激勸人民。修復疆土乎。宜令兩西道臣隨聞見從實論啓。其遇賊敢戰者。優加爵賞。身死戰場者。別施褒恤。斷不可已也。

十六日雨。宣川別監桂永建來言。變初賊將王孫稱名者。來陷本府。仍留吳信男等三人守之。宣川一境。久為賊藪。前月中與進士白以忠，貢生李宗立及頭頭品官。率境內男女七百五十^P餘名。入據蝶島。往告于督府。都督大喜。以以忠為節度使。永建為太守。優給銀牌彩段。又送大米十五斛。以賑飢民云。

十七日晴。都督領兵船進泊千家庄。賊潛伏柳林中。以片箭亂射。唐軍被傷七十餘名。賊中丸死者亦多。都督令加抄精兵千餘。分載七船。是午發向義州。聞賊之初犯也。我民往往為賊前驅。殺掠天兵之留我境者。以此構怨於天兵。龜，朔，昌，義之民。為青龍留鎮兵所殺。宣，郭，嘉，鐵之民。為毛營哨探軍所殺。主客疑阻。互相吞噬。而^P中間又有我國引賊襲島之說。都督大駭。使鐵山品官鄭思讓等及其千摠一人。往探於安州。州人以為水賊。縛致于官。思讓等具陳厥由。得脫而還。千摠告其狀。都督愈疑怒。至欲移避他島。本月初。使思讓等更探于安州。始知我大兵追賊而下。乃釋然曰忠順之國。寧有附賊之理。既得本國實情。當即進兵勦賊。遂發向義州云。朝家聲息。不能早通於島中。致令都督疑而不肯動兵。清北之民。無所繫望。益堅投賊之心。而避亂人民盡為天兵所廝殺。可勝惜哉。通事^P張大秋來言中朝發送大兵。太監正提督胡副提督苗中軍俞邦二員出來。故督府有此進戰之舉。自三月晦。唐船出來者五十隻。穀可三萬包云。前龍川府使李希建。營繕龍骨山城為死守計。正月十三日。為見平安兵使。率數百騎。歷宿義州境。翌日間義州陷。趣騎還本府之際。猝遇賊大陣。希建令軍兵先行。自

爲殿。大張鼓吹。揮劍直前。賊見孤軍。放意而行。恐有伏。逡巡退縮。希建遂得入山城。賊使被擄人投書邀降。希建卽斬之。其後一日。賊三百騎自城北邊突^P進。希建騎白馬。帶軍官三四人。出北小門追之。賊皆退走。每稱山城有白馬飛將軍不敢近。及凌漢，安州陷。守卒一時潰散。希建登總陣臺。扣心痛哭。獨宿城中三日而出。竟無所濟。人皆嗟惜不已。龍川軍官金汝義。將賊首八級馬六匹。來獻督府。仍陳城中飢乏狀。都督給大米數十斛唐米五十包。而傍邑人民及賊中逃還者。雲集城中。并萬餘人。食者甚衆。不久當盡死云。

十八日晴。凌漢山城生還人言。城陷之日。宣川府使奇協倒豎劍欲自伏死。其家僮及通事張^P大秋奪之。請急踰城。協不去日出城罪已重矣。吾將安往。遂中矢而死。前府尹李莞爲平壤中軍時。愛私奴李應立爲旗牌官。及守義州。又差別營將。使掌軍務。應立恣意驕橫。侵虐班戶。一戶雖十丁。皆充別隊。軍器有關。輒杖主戶。以故人心騷然。皆願引賊以快怨。此其所以敗也。賊之還渡鴨江也。兩西人被擄者知不得脫。爭投水中。浮屍蔽江。賊圍籬於舟。猶不能禁止。或編縛以去。而渡江者十不一二云。

十九日晴。郭山仙槎浦避亂船三隻。二月初沒^P爲唐船。所掠年少美女三十餘人。被拘在島中。宣鐵沿海女人之被擄入島者亦無數。是日都事毛有厚回自安州。搶來大船三隻。而二隻我國物貨婦女。其一載軍糧。似是我管餉米也。有厚中丸矢大傷。所率唐兵死者亦多。想必力戰廝殺而然。而前日仙槎船搶來者。亦有厚也。兵餘子遺之民。又被有厚之屠戮。可勝痛哉。

二十日晴。早朝見唐兵驅女子數十過館前。擔負衣領物貨者纏屬不絕。俄而定州私婢生伊逃來泣訴日本月十四日。賊入定州。避亂人民^P乘船向老江。唐船四隻突至。或砲或射。盡殺丁壯老弱。將少女十八名童男五名及財物而來。本州座首林士忠三婦三女及二孫女亦在其中。而其仲婦前佐郎臣鄭思溫孫女也。心甚愕然。思欲呈文推還。而有生梗之慮。姑待都督之還。

二十一日雨。鐵山雲巖山城義將金礪器馳報。今十八日暮。賊百餘騎。自西來宿。車輦旋向宣川云。龍骨山城義將鄭鳳壽馳報內。自龜城至郭山。獫兵無處不滿。道路阻絕。前後狀啓及^P文報。并以水路轉達。而城中戍卒。除老殘。正兵爲六七千。糧絕日久。各哨餓死已至三十餘人。且被擄人乘夜逃還者殆近三千。別定哨官。留置城外。而萬無救活之路云。臣竊念清北之民。被賊尤酷。數百里內絕無人烟。其得保命於山藪間者。尙且累萬人。因飢而動。靡所底止。若過一兩月。勢將蕩無生類。且今農節已過。無一處耕作。前頭濟接。束手沒策。言念及此。誠可哀痛。今當公私蕩渴之日。荒政固難遽議。但於朝家仁恤之道。不可付之無奈而坐視其死。臣愚^P以爲須擇文臣中慈詳有名望者數人。稱爲賑恤使。下送於兩西。以鹽石，黃角，松皮，松葉等物。調和穀汁。以救目前之急。又於險阻肥饒之處。多設屯田。聚民勸農。則民免顛壑之患。國有積峙之效。公私俱資。利莫大於此者矣。

二十二日雨。雲巖義將金礪器來見曰。大賊壓境。撤還無期。巖穴偷生。其何能久。况身爲臣子。君父之讎。不忍共戴一天。日夜誓心勦滅。而軍無見糧。又乏戎器。恐不免抱恨而死也。其慷慨憂憤之意。見於辭色。臣以帶來兵曹弓二張矢^P四部給之。

二十三日晴或陰。臣等留待都督之還。劉通事愛公來自督府。傳言都督以舟師往來鴨江上下。勦殺流賊。還軍未易云。故臣等遂決進見之計。通事延安人本姓車。壬辰入劉提督陣。冒姓劉。今入毛營爲毛士吉。授把總之任。是日因來見臣等曰鐵山府使安景深。變初逃入雲巖。都督強請邀。解衣衣之。給帽子

五百，錦段四十疋，毛布二百餘疋。又送白米五十斛。使之分賑飢民。而景深皆私之。獨自竄伏窮谷。及夫金礪器^P之起兵討賊也。乃敢自爲己功。至有領兵千餘。多捕零賊之啓。其欺罔朝廷。莫此爲甚云。宣川人民等來言。別監桂永建納銀韓潤圖差鎮將。貪暴無所不至。賊回之日。與白以忠等。率家屬入據蝶島。殘虐遺民。鞭扑狼藉。督府給米十斛而亦不分賑云。前者臣等米斛之助。亦不免見瞞之歸。殊甚憤惋。

二十四日晴或陰。臣等擬向薪島。毛參將承祿以督府令來止之。

二十五日晴。別將李孝信自龍骨載飢民數百^P來過。因其行付上狀啓。

二十六日晴。朝都督自薪島還。臣與伴臣迎候於道左。日晚欲呈揭帖及咨文。詣營投刺。都督以爲被傷流矢。方始艾灸。明當邀見云。都督分賑增福島米豆各二十六包。雲巖山米豆各十包。增福島飢民一千五百三十名。雲巖山飢民三百名云。

二十七日晴。臣等午後詣督府呈揭帖。都督使軍官二人引入。行見官禮。伴臣先言自賊變之後。寡君不知老爺所駐。卽令陪臣進候。而水^P陸路梗。今始來待。俟罪俟罪。再三扣頭。都督止之。迎入就坐。臣繼陳寡君送伴臣之後。恐或未卽傳命。茲令從臣繼發。而中因干戈塞路。且值牙旆駐外。稽時至此。尤爲未安。仍與伴臣略陳遭變以來不相忘之意。都督頗有欣然之色。少頃掌文書者指咨文中貴鎮曾無一旅之師鳴鍾鼓出海滋。以爲弊邦聲援等語以示之。都督大怒。頓足揮手。厲聲大言曰。爾國反咎我不援乎。爾國之人。無故引賊。必欲甘心於我。我軍在陸者。盡爲屠戮。我何以出救爲耶。賊以殺我^P爲言。至逼義州外城。而李莞猶不出戰。畢竟殺盡爾國三萬精兵。此實不信吾言。不去奸臣之故也。且賊纔犯境。不思扞禦之策。卽與之誠心講和。忘恩悖理。莫此之甚。孰謂爾鮮禮義之邦。臣進前日小邦之從事大鎮。今幾年矣。憑藉威靈。殫竭心力。誓滅此虜而後已。老爺不能無動於往來流言。不卽馳報賊情。使自爲計。又不沮遏凶鋒。少紓其急。平日倚恃之意。果安在哉。小邦之臣事天朝餘二百年。太祖皇帝始定封號。神宗皇帝再造邦域。式至于今。回已殄^P之倫。延幾絕之祚。父父子子世世安業。皆聖天子賜也。卽使小邦君臣舉族而殉白刃。犁庭掃穴。馘奴大社。猶不足以報其萬一。忍反滅絕天常。潛與虜通。謀害我堂堂天朝之帥臣乎。方賊之再三脅和也。淪亡之禍。非朝伊暮。寡君猶守正不撓。峻斥虜使。至其遜辭請謝而後姑許羈縻。以緩目前之急。此固老爺之所明知也。以是而謂之誠心講和。有若納款之爲。則小邦情事。不亦冤甚矣乎。天地神明。實所鑑臨。非可誣也。都督乃笑曰忠順之國。豈真有此。爾^P國王事大之誠。亦非不知。而前日守邊之臣。萋斐中間。交亂彼此。使我抱不測之冤。我安得釋然無憾乎。伴臣對曰我老爺誠心相與之意。寡君知之熟矣。每對羣下。感誦不已。何許臣子。乃敢交構兩間。以干赤族之誅乎。古語曰流言止於智者。夫以老爺之智。而猶未能舒究其情實。惶凜之餘。竊不勝慨歎也。都督曰前日爾國回帖。以毋見小利指我。此等措語。乃廷臣所爲。國王亦豈能盡察耶。所送物貨。爾國官員皆自用之。公然收合民間。椎髓剝膚。無所不至。前^P者如此。後者亦然。而民猶不叛。爾國之民。可謂忠厚矣。爾國講和之爲羈縻。我亦知之。然決不可以此聞於天朝。以貽天下之譏也。臣又進曰老爺所以惓惓於小邦者。實出赤誠。感泣不知所達。然夫君臣父子也。子不容有隱於父。臣不容有隱於君。小邦既迫於事勢。有此萬不得已之舉。則斷當畢露情愫。備陳委折。以俟聖天子處分而已。安敢爲一時耳目。回互迷藏。自陷於欺天罔日之科哉。仍念我老爺以天朝重望。受任於危疑之日。雖微細之務。必須誠心^P做去。方克有濟。矧今小邦遭罹。實係天下事機之會。苟於登聞之際。有一毫漫漶之辭。則中外之情志未孚。前頭之事變難測。將何以暴小邦之冤而解天下之惑乎。都督遂默然。掌

文書者又指咨文中禁斷搶殺事數處以示之。都督曰我前以軍糧及農牛貿來事。出送物貨。盡爲麗民所掠。前後兵丁被殺。無慮六七萬。我軍之殺掠麗民。乃其報也。事在既往。言亦無益。彼此斷當付之東流。一意共濟。以圖方來可也。臣等答曰殺害漢人。宣民尤甚云。而老爺猶不介意。受其來而賑其飢。苟非視小邦如一家。安得曲念至此。寡君之移咨。亦請禁其將來也。都督曰兩西人民。雖云蕩殘。所餘皆忠義之人。况六道完全。悉力助我。則殲此小醜。有何難哉。秋間自有胡命不久之兆。爾國只當盡心罄儲。以助我軍餉可矣。臣等答曰自老爺來鎮小邦。凡係軍國之務。一以至誠從事。况今殘破之餘。所恃以圖存者。惟老爺而已。安敢不殫竭心力。死生以之乎。都督曰如此則奴賊不足平。不必言和。貽累於禮義之國。臣等遂辭退。都督即使張大秋出眎其題本草曰須謄此本。罔夜歸啓。以此爲奏文措辭。切勿誤了大事也。夕奏聞使行到泊。

二十八日雨。日晡奏聞使詣督府請見。都督稱疾不見。

二十九日晴。奏聞使詣督府都。督令與接伴使問安官。一時相見。臣與伴臣偕奏聞使入。行見官禮。都督所言。與前略同。而力沮奏聞之行。蓋其爲人輕佻浮誕。貪功樂利。便一貫豎。譽之則說。拂之則怒。不可責之以義理。而託以征虜。欺罔中朝。坐困天下之力。極可痛也。臣等辭退時。以本國人民船隻刷還事呈文。都督許之。盡還男女老弱并七百三十七人。都督送小錄言。爾國退守安州或湏江。借我清川以北。則秋來水盛。自有好道理云。伴臣以桂永建陰附賊陣。謀害漢人事。呈文請梟。而都督無所批。未曉其意。

[五月]

五月初一日晴。都督構奏聞草。使其子有壽來示。槩襲本國咨文。略加增損。而絕不及和事。盖都督已以退賊爲己功。啓聞中朝。故必欲釐改乃已。臣等以爲奏草既經寡君勘斷。今於出疆之後。不可任自逗遛。都督發怒。遂有叱退譯官之舉。有頃使張大秋來曰自此構送奏草。果未穩當。欲於回帖中。鑲入以送。臣等答曰如此似無妨矣。臣等以行糧連賑刷還飢民。而無柴水不得炊爨。人皆啼飢。不忍見矣。龍川人李忠傑率其子若孫等。持賊首獻軍門。都督大會諸將。出陳前後所獻首級于階上。受賀畢。賜銀兩綵段有差。忠傑受銀百五十兩。納于伴臣。以備軍餉。

初二日陰。朝蔣卽選來言。陳中軍以長連船隻刷還事發怒。欲率其管下。呼訴於督府。不如與陳中軍相議善處也。俄而陳中軍果使人捉致伴臣所帶長連小通事曰爾殺我軍二百名。我推我軍然後當給爾船隻也。臣等聞甚怪駭。即使譯官等往探督府。則陳繼盛以下諸將。滿庭齊訴曰麗人引賊。屠戮我軍。而反欲陷我罔測。是何道理。都督大怒。掙入長連通事。決棍割耳。仍罵譯官等曰爾國人皆無故叛我。實不可曉。前日我留置一鎮于青龍山。而南以興欲潛師以襲。我豈不知。長連人令小通事誘我哨探兵。射殺數十人。因攫其船隻而去。反謂我搶來麗人耶。顧問王萬才曰尹暄嘗語汝以都督陰引賊。欲圖本國云果否。萬才曰云然。又問蔣卽選。卽選曰小的未之間也。此必是中間傳說之誤。救之甚力。而因諸將相鬩。不能盡言。都督曰奸臣待我無狀。我以所聞。陳爾國王。而每爲羣下所沮。終至於宗社不安。是誰咎也。前者我再送玉帶。非怕爾國王也。亦非望回禮也。今來禮單。亦不欲受。但欲與之同心。期滅此賊。故受之耳。日將午。引入臣等于內堂。待之甚款。仍授揭帖曰問安官火速傳致于國王。勿誤大事。臣對曰謹當唯命。盖其前後舉措。反覆誘脅。期使奏文措語。惟意所欲而無違也。夕將辭督府。都督

又託灸創不見。諸軍門以麗女刷還事。皆懷不平。紛訴終日。都督之不見。似以是耳。臣等呈文請差官置安州。禁唐兵殺掠之弊。都督以守備金汝礪差送。而守備病未卽登船。

初三日晴。朝。臣離椴島登船。唐船數十餘隻來泊浦口。問之則副摠一員姓梁。參將二員。都司^P四員。軍兵或曰六千或曰九千。由山海關出來云。日暮乘風泊加次島。

初四日晴。曉島民彌滿津頭。向船泣訴日絕粒累朔。以草爲命。而一葉孤島。山茶又絕。願乞出陸。得延須臾之命。使之登船則爭先投入。有似戰場。人衆船窄。僅載二百餘人。其未及登者。環立海岸。哭聲如雷。臣慰諭之曰朝廷以百斛米付爾府使。朝夕且至。毛營續有賑濟。可保數旬之命。繼此而又豈無朝家軫念之道乎。咸曰府使出去累朔。回還無期。都督雖給米斛。無^P異斗水。若待數旬。必死無及。歸告朝廷。活我民命。聞之慘然。不能定情。行過蝶島。飢民之願乞出陸者。亦如加島。其顛倒瞻望。號呼乞憐之狀。難以形言。是夕無風。宿洋中。

初五日晴。無風留洋中。臣在椴島時。見李忠傑獻誠督府。以其賞銀付伴臣。以備軍餉。心竊壯其勇而嘉其義。是日龍川人自龍骨山城來者言。忠傑初爲山城都監官。賊犯義州之後。府使李希建入據龍骨。以忠傑爲守門將。忠傑陰誘軍民。開門逃匿于都龍島。使希建不得守城者。^P卽忠傑也。其後其二子潔，潤等。又入龍骨。謀殺鄭鳳壽。適鳳壽除龍川。故率家屬入椴島。圖免前罪。多斬我民逃還者。獻于毛營。受銀一百五十兩。一島人莫不憤心痛骨。以故不得已納于伴臣云。人之無良。一至此乎。

初六日晴。無風留洋中。糧盡且無水。一行不得炊。

初七日晴。泊舟于平壤石多山。下陸宿村家。卽去時主人也。頗識事理。語及民生艱苦。因歷數隣邑守令曰平壤柔而恤民。咸從廉而愛民。龍^P岡平平。江西亦清簡。而甌山則貪虐無比。惟以飭廚傳以娛使客。厚饋遺以結朝貴爲能事。賊至之日。邑民逐之。賴隣近諸宰之力護。近纔還官云。

初八日晴。臣病留甌山。

初九日晴。臣病留甌山。刷還人民絕食累日。開口望哺之狀。慘不忍觀。臣欲得管餉或縣倉米以恤之。該倅皆託以無儲。適因本道都事臣黃瀧請得赴京使行餘糧十斛。而本縣又爲牢塞。俄有流民數十輩來訴曰前此營賑屢矣。未見^P粒米。願飭縣官出給。濟此瀆死之命云。朝廷雖有恤民之政。而貪污所爲。至於此極。誠可痛也。

大槩兩西之地。一經兵燹。千里蕭然。清川以北。已成賊藪。海州以西。幾盡空虛。惟安州附近八九里稍似完全。而震盪之餘。公私赤立。雖欲調兵峙糧。以爲陰雨之備。若涉大水。浩無津涯。茫然不知所以爲計。言念及此。爲之食不下咽也。方今國家切急之務。惟在得人。而臣於今行得二人焉。龍骨之鄭鳳壽。雲巖之金礪器也。蓋^P龍骨直當賊路衝要。猶睢陽之於唐。襄樊之於宋。而鳳壽孤軍入守。斬獲頗多。雲巖介在賊窟。外絕虬蟄之援。而礪器出沒勤殺。爲賊所忌。兵興後第一功。惟此兩人而已。其仗義守城之舉。誓死殲賊之語。足令懦者有立。慙夫知勇。而鳳壽只授龍川。礪器則名位尙卑。殊欠朝家獎勸之道也。臣愚以爲假鳳壽以龍義府尹兼清川以北巡邊使之號。優給軍糧。仍守龍骨。假礪器以冥川府使兼助防將之號。屬宣，定，嘉，鐵之民。而凌漢，雲巖，劔山等處。就其便宜而守之。進^P退屈伸。惟其所意。鎮堡除拜。亦令權管。結之以信義。勸之以爵祿。則無危懼迫蹙之患。有同舟遇風之勢

。而清川以北。未必遽入於犬羊之手。湔羞圖恢之基。實在於此矣。臣竊觀國家外設義州。中設安州。內設黃州。棋布列邑。無山不城。所以備患之道至矣。然委寄失人。措畫後時。賊以數萬而攻一城。我以數千而抗方張。宜其勢之不相敵也。義州之陷。出於不意。安州之敗。由於自潰。兵之多少。固不足言。而若使賊兵持久則彼衆我寡。且無外援。其何能保其必守也。P 臣愚以爲關西則安州爲熙川，博川，嘉山三路之會。前據薩水。其險足恃。急聚關西丁壯。修葺城池器械。以爲固守之計。而慈母山城距安州不遠。城且險固。擇置將領。俾成輔車之勢。海西則一道所重。專在江陰。實豐川，白川，延安，海州等四邑之襟喉也。收拾近地兵丁。設營置將。以爲一雄藩。而又於豬灘東西兩峯。各立木柵。爲別屯以守之。則兩西形勢。比如重門複壁。賊不敢容易徑突內地。山城如瑞興首陽九月等處。預令傍近人民積粟峙糧於其中。按兵堅守。勿P與交鋒。賊既深入之後。連結毛營。斷其歸路。悉發國中之兵。以遏其前。則我勢自張。彼勢自挫。折北之期。可日月計矣。此所謂乘其疲而屈人之兵者也。且臣備審兩西民情。則喪父母失妻子之徒。痛入骨髓。在在奮勵。了無苟活之念。舉懷殊死之志。斬賊首奪賊馬。來獻督府者前後相續。眞所謂楚雖三戶。可以亡秦。况賊兵之留屯昌，義，龜，朔間者。其數不多。而全勝之餘。已作驕兵。恣意橫行。初不設備。民情之思奮如此。賊勢之必敗如彼。而守邊之臣。坐擁重兵。但以徐P觀賊勢爲言。未知賊將不備而不入不戰而自去乎。臣愚以爲亟發砲手一二千。軍糧數千斛。由海路分送于礪器，鳳壽處。使之夾勢効力。則蕩掃氛祲。實似無難。顧今制勝之策。莫急於此。如或少緩。悔無及矣。臣又聞龍義之人。不相能素矣。及夫賊至之日。龍川則倡義而討賊。義州則附賊而助虐。龍人以此擯斥義人。必欲甘心事刃。頃者別將李孝信見臣於椴島曰。義民皆附賊。欲於今行。與龍人廝殺乃已。臣大驚曰義之民。誠有罪矣。然附賊豈其本心哉。假令有罪。P寧忍盡殺。惟當曉以義理。諭以禍福。使之殺賊而自贖。則民有生道。國有勝算。國與民豈不兩利哉。若或妄殺一人。朝廷自有當律。續見龍川府使軍官。其言亦然。臣極陳其不可之義。且日歸語府使。視義民猶龍民。勿追既往。專意招納。方可賴以收勳。不然義民益堅附賊之心。而終無收拾之期矣。其後李孝信多率義人來。頗有向順之意。而龍人之待義民。猶夫前日云。國家蕭牆之憂。無大於此。必以鄭鳳壽兼龍義府尹。然後亦可一體撫綏。而無臨急掣肘之患P矣。臣仍伏念虜賊雖稱講和。而留屯境上。恰已四朔。壑欲無厭。必不遽然捲歸。而試觀中外人情及西邊將士之意。皆以羈縻爲十分可恃之道。悠泛放倒。甚於平日。夫所謂羈縻者。不過一時緩禍之權宜。若但恃羈縻而不爲之備。則適足爲促亡之術也。假使此虜幸而渡江。乘我國殘破之餘。無難再來。况元不渡江。而隳突之禍。迫在朝夕者乎。古人曰不恃敵之不來。而恃吾有以待之。苟不以此時振勵奮發。殫精竭慮。汲汲爲自強之策。則日月易過。事機愈遠。君臣P上下。終不免於淪胥以亡。豈不大可懼哉。臣於職分之外。既陳沿路聞見。而目擊時艱。憂憤欲狂。兼附一得之愚。仰瀆四聰之下。惶恐死罪謹啓。

公緘

憲府推考公緘

矣身孤蹤特起。誤恩屢加。感激殊遇。冒昧輕進。不量其智能謀力不可以有爲。苟有利於國家補於生民。則志要必行。強聒不捨。前後論列。了無尺寸之效。而動觸忌諱。反速不測之P禍。莫非矣身狂踈愚戇庸陋迷劣之致。撫躬自悼。更何言哉。試以今日國事言之。流離傾覆之餘。苟緩目前之禍。而賊情日益驕橫。國勢日益危急。民生困而兵不可調矣。財力竭而糧不可峙矣。當此之時。雖使上下同心。大小

協力。相須相倚。如頭目手足之爲。尙恐無救於淪亡。况今朝著之間。無奮發振作之意。有震撼擊撞之漸。寅協之義。或歉於具瞻之位。猜疑之形。已兆於振綱之地。秦越并馳。冰炭難容。交傾互軋。紛紜度日。至使君父孤立於上。無一事可恃爲經遠之謀。若此不已。終亦必亡而已。豈不爲之大可寒心哉。矣身雖極昏憤。旣任言責。寧畢其說而受妄言之誅。不忍隨衆泯默。欲說不說。負吾君於將亡之日。適因避嫌之章。略陳愚滯之見。而言辭拙直。不能酌淺深之宜。遂致相臣引避。聖批嚴峻。終使愛君之忱。反歸虛地。憂國之誠。轉成禍階。惶恐竄越。覓死無路。然以此謂愚弄朝廷。侮辱大臣。而爲矣身之罪。則千萬曖昧。

呈文

呈毛都督 文龍 文

謹呈爲查懲大鎮搶殺麗民之徒。永戢奸宄。推還小邦人民舟楫等物。曲施仁恤事。卑職等竊伏念。小邦之於天朝。父子也。寡君之於老爺。兄弟也。自老爺來鎮弊邦。我寡君同心敵愾。誓滅奴賊。而不幸豕突乘我不備。邊城失守。列邑瓦解。廟社播越。號令不通。彼遐土無知之民。或爲賊所驅。或自附於賊。任其助虐。害及漢人。宜官軍之仇視麗民。搶掠戮殺之不己也。然而害漢人者。附賊之亂民也。受屠戮者。避寇之良民也。亂民作孽。良民受殃。使兵燹之餘子遺之命。屠盡於我上國人之手。揆以事理。冤莫甚焉。卑職等來過蝶島。備聞老爺爲麗民賜船濟渡給米救活而痛禁各鎮搶掠之弊。及到本島。又聞老爺於龍骨，雲巖，增福，獅子，劍山等處。連有送軍官賑飢民之惠。苟非視小邦如一家。恤麗民如赤子。安得軫念至此。今而後益痛彼此不逞之徒。不念老爺同仁之盛德。寡君事大之至誠。而互相吞噬於一室之中。以助兇賊也。禁暴戢掠之請。已具於寡君移咨中。卑職等更不必煩冒。而近日連得龍骨，雲巖等處馳報。則賊兵雖退而唐軍在陸者處處屠戮。故麗民不敢下山。青龍軍肆虐尤甚云。然則陸地之搶掠。今猶不止也。續見增福島領將馳報。則本月十六日。唐官搶麗船二隻。自南而來。聞卑職等到此。盡將所載女人投海云。十九日見唐人將官穉名者。自言中丸於安州。而本州軍糧及民家物貨。滿載二隻而來。二十日又見唐人驅脅麗女數十而去。擔負衣服物貨者纏屬不絕。探問其根因則皆定州人也。乘船避賊之際。唐兵突至。殺盡男丁老弱二百餘人。搶來少女二十八人。而戶部郎中鄭思溫孫女亦在其中云。噫大鎮之鈐束旣嚴。小邦之冠蓋相續。而猶且恬不知戢。恣行無忌。一至於此。老爺所以董諸軍恤麗民之意。果安在哉。仍竊念小邦之於大鎮。休戚與同。唇齒相資。誠心從事者七年于茲。而一朝賊至。反加相殘。有若爲賊驅除者然。伊賊聞之。豈不竊笑而相賀乎。卑職等亟欲具由陳懇。而重瀆威尊。越趨未敢。昨伏承彼此俱忘既往。同心滅賊之諭。自奉是教。益感我老爺包荒之德委曲之慈。蓋靡所不逮也。死者不可復起。而生者猶可還之。以解其冤。往者不必深推。而來者猶可懲之。以戢其奸。老爺倘能俯賜哀矜。嚴加搜括小邦人物之搶在諸島者。付之卑職等。使之各還本土。而覈治不遵禁令之徒。永杜水陸搶掠之弊。則豈但大老爺博濟之仁。照耀無窮。我聖天子子視之澤。得以下究。而藩籬永固。同舟勢合。蕩滅兇賊之機。實在於是矣。理合呈稟。須至呈者。

[公緘]

再推公緘 當在憲府公緘下

○ 矣身嘗聞誠之不至未善也。辭之不達未善也。言之不足以取信於君未善也。行之不足以取重於君未善也。矣身不自知誠不至辭不達。言行之不足取信取重。而徒以犬馬愛君之性憂國之誠。不覺入罪之深。厥罪大矣。遲晚。

晩悟先生文集卷之六

書

上月川先生 乙巳

春寒尙峭。不審道體頤養何如。向來下部愆度。雖是尊年例患。區區慮仰。未嘗食息暫弛。達道質本庸下。性又昏懦。尋常書冊之工。猶不能自力做去。矧可望收拾本源。展拓地步。從事於古人所謂爲己之學耶。先生不知愚陋不足以進取。屢煩書牘。曲賜獎勵。其惓惓引誘之意。有足感動人者。達道雖鈍根。敢不惕然警悟。慨然奮發。以竭吾才力之所至。而家貧親老。未免塲屋之累。近又澆汨憂冗。未能以時趨候。穩承誘掖之誨。無非立志之不篤嚮道之不誠。有以致之也。祇增惶覩之至。

上旅軒先生 戊申

拜違以來。日月倏已多矣。懷想風範德儀之盛與夫巖齋水石之勝。未嘗不南望太息也。春序向暖。伏惟先生道體起居神相萬福。達道自遭山頹之痛。些少佔畢之工。不敢便自放下。以負當日責勉之遺意。而惟是昏憤之質。久絕講習之助。悠悠泛泛。虛度歲月。終至於無根以培養。無地以安頓。恒自反躬愍然。繼之以浩歎也。年前鄙縣翼舍之會。達道以故人子。獲蒙先生容接之恩。因此而出入門屏。卒受鑪鞴之化。則庶可飭躬寡過。不遂爲小人之歸。而親憂連仍。道里稍間。荏苒因循。尙未供一日灑掃之役。慕德不誠之罪。益無所逃矣。嚮於進見之日。略已導達微愠。伏乞先生勿以僭妄而拒絕之。收置門生諸子之列。昭示古人爲學之方。則達道雖至愚極陋。謹當服膺勿失。用力不怠。其爲激厲啓發之效。有非言語所能形容者。曷任懇祝之至。近間方謀進候。未前更乞爲道保重。慰此瞻慕之忱。

上旅軒先生 癸亥

招旌連降。聖心日向虛佇。天將一試真儒。以行吾道之兆耶。然古之君子。量而後入。不入而後量。今日處義。亦有不得以自輕者。不審出處之間。定筭何居。此實區區所願聞也。達道賤疾近幸收復。而世故多端。不能措意經史。茲甚瞿然耳。嚮者理氣說。援引廣博。開曉明切。實發前人所未發。後生末學斷當篤信謹守而已。何敢措一辭於其間哉。第其立言主意。未見盡合於退陶定論。此必鈍滯之甚。見得未透。不惟未曉先生剖示之義。蓋於退陶之說。猶有所未盡領會而然也。試就閒寂處。潛心積慮。反復究索有日矣。而弟子之惑愈往愈甚。如是而強其所不知。不思所以明辨而深覈之。則前面義理。卒未透得。而亦非所以奉承前後諄誘之盛意也。茲因舍弟行。略先書稟。屬謀更進奉質於函丈之間。伏乞叩其兩端而見教焉。使此蒙蔽之見。終有剝皮覩真之效。千萬幸甚。

上旅軒先生 甲子

天日高懸。陰翳自消。宗社之慶。臣民之幸。伏聞軒車辰洛。不審道塗之餘。道體動止何如。京邑初復。萬事權輿。上之所以倚重於先生。下之所以顯望於先生。不啻飢渴之於飲食。未知初筵奏對。以何事爲第一義。而天意殷勤。已有感通響合之勢否。盛德大業。前定不窮。其於物情時變。必已了然於胷中。竊觀今日之勢。譬如潰癰之人。大命幾危而復蘇。固宜安靜以保^P護。不可動作以生變。朝廷好動而惡靜。好離而惡合。非細憂也。十年塗炭之民。仍之以饑饉。繼之以師旅。憔悴困頓。甚於曩時。而仁民之政。寂然無聞。豈國家多故。莫之及耶。撥亂之初。人心未定。譏察之舉。實出防患之遠慮。然若久而不罷。則是蓄疑而待民。家不藏甲。古人所戒。而近日功臣帶兵甲馳騁城內。亦非盛世美事。久於朝固知非先生本意。而業已趨召。不可不爲一言以慰時人之望也。達道欲歸未歸。尙此濡滯。日月逾邁。志業隨壞。環顧初心。曷勝^P悼歎之至。

答鄭愚伏 丁卯

忽承台下問。伏慰且感。草茅微臣。敢言時事。遂致朝著之不靖。惶恐隕越。尙何言哉。昨已屢呈公緘。聖教一向嚴峻。窘蹙之極。罔知所以措躬。然臺諫處義。與凡官有異。遣辭之際。不得不略陳所懷。未知如何。供辭草呈。裁擇詳教幸甚。

附愚伏書 初書逸不傳

承書審安慰荷。別紙語甚截直。而病在支蔓。故抹去兩段各五六行。必以刪沒太甚爲歉。^P然避嫌之語。既以多觸忤。今推其罪而又以多應之。恐無益而有害故耳。末端當書遲晚字。幸并照諒。適在登對初還。困乏不能悉。

上鄭愚伏

有懷輒控。酬答如響。仰認德意。罔知攸謝。下諭縷縷。實荷見念之切。達道嘗聞之。人臣事君。有官守則盡其職。有言責則盡其言。區區所論。全昧時宜。誠有唐突不遜之罪。然憂憤所激。竊自附於盡言不諱之義。因此而削籍投荒。固所自分。若以鼎席之引避。聖批之嚴峻。而不能固^P守己見。張皇失措。爲俯仰可憐之態。則罷軟極矣。且於貽累臺閣何哉。古今未有臺諫遲晚。實不忍以身啓此弊。爲後世嗤笑。伏未知如何。

附愚伏書

一日兩書。深荷存眷。進來啓請。在廿六朝。下吏持來。曾已見之。而朝日作報時。頓然忘却。精神衰毫如此。甚可歎也。三抗已過於直。豈爲罷軟。三抗之後。卽以進來啓請。又是公事場常例。臺諫豈能獨異。其謂古今未有此事云者。恐或未深察耳。臺諫不可遲晚云^P者。必是大論議大是非。不可有前後異辭者。故向年有改供招臺諫之誚。今左右所爭。與此不類。而既遞之後則便是凡官。進來而不服。則

其上更有一節。何可一切抗拒。有若立節者然哉。千萬不然矣。初二之坐。明日當定。定則當教該吏使之預告矣。

上鄭愚伏 己巳

嶺上拜違。居然歲暮。不審撼頓餘台體動止何如。區區戀德。日夕徒勤。達道過不自揆。冒昧輕進。未有一事報効。徒惹人無限唇吻。雖欲悔之^P而厥路無繇矣。前日之懇。實出衷曲。未知台監有以哀矜而垂念之否耶。倘得置之散地。優游自放於山野之間。不使累及於當世之賢人君子。其幸當如何。今日世道之墊溺。非一葦之可抗。台監亦宜自謀。苟可以挽回世道。則不但專意於甄拔。須先格君心之非。使所進之賢才。有以展其所蘊。如其不然則後將有悔而無及者。與其顛沛於末流而未知所濟。曷若熟計於其始而審所以自處之哉。妄恃眷恤之義。冒瀆狂僭之語。埃罪埃罪。

答鄭愚伏 庚午

頃因舍季行。修候一書。未及登覽。而府吏來傳台初六日俯賜書。伏審台還朝後動止萬福。區區不任攢喜之忱。達道千里歸來。百疾交作。委頓床第。已無更入脩門之望。而意外恩除。荐降於一朔之內。驚惶震惕。無地自容。揆以義分。焉敢一直逡巡。以重違慢之罪。而沉痾之疾。實難自力。不免上章祈免。悚縮之極。不知所以爲心也。仍竊自念臺諫之職。爲人主耳目。國家綱紀。雖使正直方剛盡言不諱者當之。猶難^P禰塞。况鈍滯空疎庸庸碌碌如達道者。何足備數於其間。而台諭反加推借。所以慰勉之意。丁寧懇惻。豈以達道之才能學識。因此際會。或可效尺寸。以佐下風乎。達道自少愚駘懦弱。無所肖似。祇以父兄師友之教。粗知有志於學。而墮落科臼。不能刻意讀書。十許年來。借得閑界日月。思所以溫理舊業。而一味頹闕。家計未成。既出世路。茅塞轉甚。前後歷試。都無絲毫補效。尋常應接。覺得許多凹凸。每中夜以思。悚懼慚作。爲之發汗沾衣也。達道之於台。雖未嘗執經問^P難。而出入門屏。受知日久。達道之學不通方。才不適用。台之所已知也。性本迂滯。爲世嗤點。台之所已驗也。至如疾病潦倒。昏憤轉甚。不堪供職之狀。又是台之所嘗矜憐者。台以三朝宿德。入掌銓衡。誠宜廣求賢雋之士。使之更進迭入。匡輔闕失。而今此甄拔之舉。首及於病廢無用之物。達道之被人笑罵。姑置勿論。獨不有損於大君子任官擇人之義。而乖聖朝慎簡之規。缺四方拭目之望乎。抑恐澆薄之徒。謂台有私於達道也。以公則無用。以私則有妨。台之於^P公私。可謂兩失之矣。伏乞台以平日眷愛之深。切勿更相掇拾。置之散地。俾畢餘生於丘園。其恩輕重。當如何也。伏惟憐而察焉。

上李五峯 癸亥

惟我國家受命中興。撥亂而反之正。行權而合於道。日未移晷。欵器復整。其規摹固已宏遠矣。然當時同德之臣。見其易而不知其難。謀其始而不惟其終。思以爲改紀之後。太平萬世。可運之掌。剷除兇穢。鞭撻戎醜。殊不難也。曾不料大勢已傾。大本已搖。委靡渙散。殆至於莫可^P收拾。此中外有識之士。所共慄然失圖。慨然長吁者也。愚嘗聞天下之事。有緩有急。當緩而急則顛倒促迫。朝廷之氣。爲之

不舒。當急而緩則怠慢廢弛。天下之事。日入於壞。竊觀今日之事。當急而不可緩者有二焉。當緩而不可急者有一焉。達道請一罄其愚。惟閣下試幸聽之。國家之所賴以維持者。專在於紀綱。而紀綱之頹敗。未有甚於曩時。號令黜陟。不復出於朝廷而出於一二權奸之門。遂使五常淪九法斲。子焉而不親其親。臣焉而不君其君。馴致覆亡之禍而不自覺悟。此實殷鑑之不遠者也。今之任世道之責者。率多樂因循而重改作。厭新奇而悅尋常。不察安危大勢。惟懷姑息無事。大小學措。皆襲秦故。了無奮發更始之意。一此做去則雖使堯舜爲君。伊呂爲佐。將何以整棼綱而挽頹俗哉。昔諸葛武侯承劉璋闇弱之後。治尚嚴峻。此政所謂善繼亂者其揅異也。今於撥亂之初。專以振紀綱爲主。政令之頹廢者舉之。風俗之澆漓者整之。抑僥倖以重國體。禁奢侈以正士趨。痛革曩時之狃習。丕新一代之耳目。茲豈非當急而不可緩者乎。此一事也。廢朝昏愚。羣凶耑政。招權勢以作威福。一時嗜利無耻之徒。歸之如市。惟恐或後。見今束帶纓冠布列中外者。誰則非曩時染跡之流乎。蔑倫敗常之魁。固難容貸。承風迎合之徒。何可勝誅。而廟堂以是爲匡復之良圖。臺諫以是爲彈覈之能事。株連太繁。疑眩轉深。遂致有罪者尚保首領。無罪者舉懷危懼。是豈鎮人心固邦本之道哉。昔漢光武焚諸將交關之章。以安反側。此政所謂推赤心置人腹中也。今於斷獄之際。惟以收人心爲務。先明首從之別。次定科罪之律。勿以鉤覈爲主。勿以淹滯爲事。克恢欽恤之典。俾盡安輯之方。茲豈非當急而不可緩者乎。此二事也。蠢茲戎醜。敢讎大邦。廢朝與之交通。使价相續。賂遺不絕。忘天朝再造之恩。貽吾東萬世之耻。此實天地之所不容。神人之所共憤。屬當中興之會。首舉正名之師。鳴鍾鼓建旗麾。爲唾手燕雲之計。則縱不能犁庭掃穴。馘奴大社。亦足有辭於天下後世。而第念量敵而進。聖經所禱。師言勿洩。兵家攸戒。奴賊雖甚桀驁。姑無向我危逼之機。我今內亂甫定。國威未振。民生未復。凡百措畫。曾不足以窺虜之左足。而不勝一時忠憤之心。直欲輕舉深入。爲僥倖萬一之計。其不自量甚矣。况大軍之集。邈無其期。而親征之說。先播遠邇。非惟不可以聲討而反足以招寇。非惟不能以自強而適所以促禍。亦豈兵家勿洩之道哉。昔周之文武。以天保以上五詩。爲自治之本。采薇以下六詩。爲禦戎之策。此政所謂內修外攘。譬如直內方外也。今於詰戎之日。先思所以自強之道。選將任以訓章法。省冗費以裕國用。減積逋以紓民力。行吾所當行。爲吾所當爲。則數年之外。兵不得不鍊。糧不得不峙。器械不得不精。於是策虛實之勢。量輕重之形。協贊王師。徐起而圖之。實爲萬全之道。茲豈非當緩而不可急者乎。此又一事也。凡此三者。誠爲國家之大計。當世之要務。而以是爲中興致治之本則未也。惟閣下須先留意於端本清源之地。以格君心爲今日第一義。而通議善類。規恢遠圖。廣求賢雋。開張公道。使四方之心。翕然聚於朝廷之上。則本末俱舉。緩急適宜。政事修理而國勢尊安。夫焉有顛倒促迫怠慢廢弛之患哉。閣下以三朝侍從元老。忠勞著於板蕩。節義暢於昏亂。默計當今威望德器爲上下所信服者。誰如吾閣下者。閣下不以此時竭精覃思。爲國家建立久大之規。顧欲袖手岸視。謝繁就閒。爲偃仰自適之計。則不惟愚生爲閣下惜之。後世忠志之士。亦不能無慨於今日明良之會矣。惟閣下深思而熟慮之。

上李五峯 甲子

宗社非常之變。出於意外。臣民之憤。如何可喻。葛爾小醜。自當一舉就殄。而朝廷不能及時措畫。中間又有遷幸之說。使假息遊魂之徒。漸肆跳踉。遠外新附之民。舉懷疑懼。可勝歎哉。兩西形勢。所重在於山城。賊若先我入據。則我軍前不得鬪。退無所食。易有不戰自潰之慮。官軍從大路西下。則賊必取路江東。由麻田直逼京師矣。亟遣一二梟將。擇精銳以截險要。且令沿路列邑入據山城。堅壁以待

之。則不過旬日。賊勢自蹙。我勢自張。逆适之頭。可致闕下。何必紛紛擾擾。至召八方之兵耶。師旅之後。必有 P 大亂。愚生之憂。不在逆适。而在於誅适之後也。惟願廣收羣議。亟濟艱危。以副朝野之望。

答李五峯

迺者南還之日。路由黔川。未克拜辭。瞻望台躔。第切悵慕之懷。不自意伏蒙遠惠教墨。存問加厚。仰感盛眷。不知攸謝。信后月改。秋氣益清。伏未審台體動止若何。國運不幸。天灾荐臻。亢旱於春。兩麥不熟。大水於夏。五穀俱損。饑饉將迫。民天永絕。困頓垂死之狀。滿目傷慘。而重以簽丁之令。過於嚴峻。編伍之外。更加搜括。閭井 P 罄罄。皆懷離散之心。自古國家傾覆之患。盜賊竊發之憂。何嘗不由於饑餓乎。西塞之釁。雖不可測。目前之憂。無大於此。惟閣下深察內外緩急之勢。以民惟邦本本固邦寧之義。試爲上明言之。渙發德音。布告諸路。給陳灾以慰其心。緩賦稅以紓其力。使同胞顛連。得免流離失所之患。則豈非社稷生靈之幸耶。達道疾伏衡茅。冗務連仍。恐不復讀書檢身。以副勉諭之盛眷也。

答尹相國 昉

P 前月中伏蒙俯惠手書。曲垂仁恤。自量卑賤。何以獲此於門下哉。中心感戢。迨不能忘。秋序向深。伏惟勾節宣神相萬福。竊惟相公閣下。器度宏遠。識慮淵深。其於歷代治亂之蹟。當世損益之宜。固已講之有素。今當王猷更始之日。以平日所蘊。舉而措之。則庶乎其沛然有裕矣。然位愈尊則望愈隆。任愈重則責愈大。上而朝政之得失。下而民生之休戚。內而紀綱之修廢。外而謠俗之美惡。靡一不係於巖廊之地。則其可不深思久大之規。克盡輔相之責。副聖 P 上側席之思而慰蒼生加額之望哉。試以今日國事言之。新經昏亂。百度解弛。朝綱日壞。民風日偷。國計日縮。邊備日紊。如欲規規於事爲之末。而求所以更張之。則亦將惟日不足。而紛紜擾攘。茫無收復之效矣。嘗觀朱夫子以王通所謂正身以統天下者。爲梁丞相誦之。其言雖近。其指則遠。達道亦願相公先思所以正身之道。綜理庶務之暇。不廢存省之工。篤志講學。以濬其源。求賢攻闕。以嚴其守。使清明本然之體。不爲私欲外誘之所擾奪。而推之以正君上之 P 心。又推之以正朝廷四方之心。則朝廷正而無傾軋乖離之憂。四方正而無分崩離析之患矣。苟如是則相公功名德業之盛。將無愧於古人。有辭於來世。向所云王仲淹，梁叔子輩。又豈足道哉。達道受知之久。不敢自外。竊效古人奏記之義。略貢蕘說如此。狂僭極矣。亦惟相公有以寬之。

上宰相書

愚嘗讀柳子厚梓人傳。以爲子厚之才。舉而措諸事業則未知竟何如。而其言則深得宰相之 P 道也。如使宰相侵衆官親庶事。斤斤於簿書期會之間。屑屑於事務叢脞之中。則雖盡知人之所知。盡能人之所能。日亦不足矣。愚竊以爲宰相之統百官。如梓人之役衆工。能者進之。不能者退之。專於器使而不求全備。時復檢攝而明試能否。嚴其黜陟。寬其成效。則自然百僚盡心。衆職畢舉。處躬不勞而收功甚大。今

爲閣下計。莫若清心靜慮。虛己下士。明揚俊乂。布列庶位。如周公之待士握髮。傳說之暨僚同心。則內而卿宰。外而藩臬。下至百執事。無不稱其職。卽閣下之稱其職也。閣下際新政清明之日。處朝野具瞻之地。聖上之所眷注。舉國之所倚重。顧今甄拔輔相之責。不專在於閣下耶。至於興學教以正士趣。減田賦以紓民力。修軍政以鞏國勢。嚴防守以備邊圉。亦皆今日之不容少緩者。而抑閣下之先務不在此也。不欲以迂滯之見。仰塵崇聽。而既蒙書示之命。竊效古人奏記之義。略陳其槩如左。伏惟試垂覽焉。

一。興學教。致治之道。莫切於興學。其培養導率之方。不可以不講也。我國家學校之設。實做三代之制。而教法寢弛。專尚科目。其所獎勸之具。不出記誦詞章之間。故世之以儒爲名者。棄本而逐末。循華而忘實。誦習句讀。寄託聲律。低心沒頭於聲名進取之塗。而不知禮義之爲何物。講究之爲何事。人才之委靡。治化之衰替。勢固然也。今當王猷更始之日。祖宗朝學制之廢閣不行者。一依定式漸次修復。而中外學官。必擇經明行修者。日與諸生講論五經四子及心近朱書等書。澆灌義理。培植本源。使知科目之外。有吾儒向上事業。則人才風俗可得以丕變。其視記誦製述之無補於實用者。不有間乎。然科目取人。雖失古制。而行之已久。亦難猝變。略做朱夫子貢舉議。酌古參今。稍加損益。專以絕浮華趨本實爲務。則僥倖躁競之習。因此可革。而庶不失三代敦倫善俗之遺制。國朝右文興化之本意矣。

二。減田賦。保民之道。莫切於薄斂。其斟酌裁量之義。不可以不知也。我國田制。蓋出於三代什一之遺意。而燕山荒淫。用度侈張。毀先王之制而加賦於民。加以廢朝昏亂。田無定制。賦無定式。惟以剝割徵斂爲事。民生之塗炭。至此而極矣。國家自改紀以來。特軫惠鮮之澤。屢下蠲除之令。而實惠未究。積弊依舊。官吏夤緣藉手。凡逋欠之散在民間者。皆以應捧懸錄。必欲徵責於逃故無族之處。此猶解其倒懸而未脫桎梏。民之缺望號怨。安得不甚於曩時乎。今與其徒擁空簿。坐召民怨。無寧一切蕩滌。如馮驩之會約燒券。使民有親君之心也。或者以經用不足爲言。然廢朝私帑賊臣孳籍。足支國家一年之用。何不體周家反政之意。行漢世減租之典。轉怨咨爲謳歌也。至於師旅之興。設有加賦於民。而待其兵休事已。卽還古制。則倉卒軍糧之徵。行於一時。應行田賦之制。永世無革。豈非生民之幸耶。

三。修軍政。剋敵之道。莫切於養兵。其簡閱撫摩之節。不可以不審也。我國兵制。實依古者寓兵於農之意。而所以補養之道甚厚。步兵之保有二。騎兵之保有三。資裝器械。皆出於保。故民免流離之苦。軍得精銳之實矣。自經壬亂之後。騎步有兵而無保。自具弓馬。自資衣糧。而軍門又從而侵漁萬端。流亡相續。害及隣族。隣族不堪而闔境空虛。軍政之破綻踈漏。一至此哉。愚意步兵騎兵一依國初。父子兄弟各戶者完聚團結。而久遠虛名。一切蠲除。則軍額雖縮。見存者實。復豈有失所之民闕額之丁也。大抵禦戎之策。不過戰與守耳。顧今軍國俱弊。戰固不可以輕議。如欲守以爲固。見存騎步。自足爲用。統計一國軍額。猶未足也。則分遣勤幹人于諸道。募得自願從者。私奴則以各寺婢子換。公賤則并子孫從良。庶孳之未許通者通之。胥吏官奴驛子才人之類。并復其身。年老納粟及不學校生。亦依出身例分防。而使之各自募保。以應齎送之費。則修繕保養。兩盡其道。民孰不欣然而從之也。

四。嚴防守。固國之道。莫切於關防。其設施守禦之策。不可以不嚴也。我國關防。惟關西爲重。而義州，龍川，昌城。正當賊路要衝。實國之西門也。大江天限。其固足恃。而冰合之後。防之實難。愚意以爲平安監司兼都元帥。設營于龍川。義州府尹兼副元帥。昌城府使兵使兼之。滿浦僉使別將兼之。沿江列鎮。控制形勝。如李牧之據鴈門。寇準之鎮天雄。自春而秋。守卒不過數千而足。而諸鎮所領不下數千。不必添防而有餘。秋冬則例入精兵二萬。分留龍義各五千。昌城三千。五千則選武勇士給良

馬。三千則選砲手精銳者。擇驍將將之。騎與砲互相經緯。巡江上下。則邊舖截然有所復。豈有胡馬南牧之憂也。自三月至八月不爲添防則減二萬數月之糧。九月至二月只防六朔則省二萬久戍之苦。是皆便於軍而利於國者也。如平壤安州等城。令該守各自爲守。不必更置將領。蓋西路之凋弊。未必不由於冗官之太多。西路凋弊^P而焉有防守之可畫耶。此四者無非今日之急務。而四者之修舉。要在得人而任之。惟閣下財擇焉。

上宰相書

春序向深。伏惟勻候起居萬福。達道孤露餘喘。無所肖似。杜門斂跡。不敢有意當世。適值昌辰。濫竊科第。釋褐未幾。誤恩輒加。既立於朝則不敢不竭駑頓以圖報稱。惟是迂滯之性。全昧時宜。承上接下。卒無尺寸之放。衆怨羣責。紛然四至。祇自拊躬悼歎。况十載沉痾之疾。近添簿^P牒之擾。僵伏官次。決無復起爲人之望。頃嘗哀籲於巡使而未蒙矜許。亟欲投紱經歸。而於義終有所未安。去留兩難。蹲仍至今。此又病上之病也。向者除命。實出台慈甄拔之力。今若灼知已試不驗之實。而任其顛沛。不思扶全之道。則恐傷明公知人之明。而亦非君子愛人以德之義。倘蒙貽書方伯。以病遞去。使得優游自放於林野之間。自今至死之日。皆閣下賜也。惟閣下諒之。

答李尚書 貴

^P嚮者辱賜書。副以藥種。病中銘感。迨不能忘。仍竊惟念今之公卿。竭誠憂國。無如相公。擔當世務。亦無如相公。迺自相公入掌西銓。愚意振淹揚陋。分布邊徼者。當是頗牧之儔。而閱月經時。佇乎有聞而卒未也。以相公藻鑑之明。所以甄別於平日者。豈少其人。而直爲此悠悠也。近觀國事之危急。難以毛舉。姑就其最切者言之。營將。軍國之蠹賊也。束伍。鄉里之農民也。以蠹國之賊。領業農之民。簽丁於羸瘠之戶而一境盡蕩。講武於耕穫之日而三農全廢。非理徵求。無^P名聚斂。色色侵虐。無所不有。舉懷刻骨之怨。莫有死長之意。前頭不有魏博殺將之變。必有潢池嘯聚之患矣。前日相公之請罷營將。有見於此。而聖上堅執不允。豈睿筭偶未之及耶。清川以北。地則祖宗之疆土也。民是祖宗之遺黎也。無故而蹙祖宗之地。棄祖宗之民。寇退已久。了無收復之期。哀我北民。何所繫望。老弱顛于溝壑。壯者聚而爲盜。或折而入奴。或陰結於毛。互相殘害。靡有子遺。是豈王者撫綏邊情之道。而日後之憂。亦豈止於夷狄侵凌^P之禍哉。內而營將之弊不祛。則民皆怨畔。有臨陣自潰之患。外而邊圉之備不修。則脫有警急。有以國與敵之憂。此皆今日之所當急急講究。不容少緩者也。連見邸報。相公之於兵務。竭誠殫慮。筭無遺策。所謂專事烏銃。廢却片箭長劍等語。無非切要之論。然天下之事。有本有末。舍其本而論其末。鮮有能濟者矣。相公誠以當世之務爲己任。則須先用力於大人之學。收拾身心。淬勵精神。謀所以清化原革流弊者。而博延賢士大夫暨武弁閑良之有識慮氣節者。日夕^P相與講磨治規。明知其器局之深淺。才藝之高下。可以爲將領。可以爲闔任。可以爲守令邊將者。錄其姓名。待闕填補。俾之各盡其職。各展其能。則相公於此。得人之多致君之效。其將無愧於古人矣。仰惟相公求才之急。近以朴忠謙等數人薦之。其已招見而與之語。以叩其所存否。之人也習弓馬多膽略。忘身殉國。其素所蓄積也。如蒙收錄。以充邊窠。庶可爲一面緩急之用。幸留念而進退之。

上李尙書

P 達道妄陳愚見。仰瀆威尊。恭埃譴責之至。乃蒙台慈還賜手教。禮意勤厚。伏讀三歎。有以見明公位愈高而心愈下也。昨得邸報。自上有伸理冤獄之教。此正相公將順聖美之時。茲敢略貢所懷。少答盛眷。伏惟垂諒焉。頃於治獄之日。悉用曠蕩之典。歡聲霆震。遠近風動。而不幸逆孽繼起。連累寔繁。自經孝立之變。有司奏讞。專事刻深。逮捕誅竄。殆無虛日。恐非朝家欽恤包容之本意也。相公因此審理。明查罪案。其情跡之疑似不明者。竄配之。已經勘斷者。勿P復鉤覈。務從寬貸。俾無輕罪重律無罪橫罹之患。則豈徒聖上好生之德。洽于民心。相公輔理之道。亦庶乎有得矣。至於前監司崔暉事。論之以迹。原之以情。冤莫甚焉。古之有功者。宥及十世。十世猶且宥之。況以功臣之父。處橫罹之地者乎。今者會盟之日已迫。勳府獻啓。枚舉新舊功臣子孫之在罪籍者。而未聞一言及於崔暉。毋乃拘於體面。不敢任自舉論耶。崔山輝之參勳也。相公亦嘗抗章而力扶之矣。今因聖教而并爲論啓疏放。實是審理之所當先。P未知如何。煩溷至此。埃罪埃罪。

答崔訥齋 暉○甲寅

日昨仄聞命駕金溪。伏承崇价下書。伏審旅候動止衛重。日與諸名勝有文集編摩之役。伏想丁乙際。多費精力。然爲斯文深庸慶賀。如達道者何所知識。而下諭辱令廁跡於會席之末。極令人悚縮不自安。然長者既有命矣。主人丈勤教又如此。敢不一鞭馳進。少伸後學景慕之誠。兼謝諸長老不遺之盛眷乎。

與崔訥齋

P 自蒙朝家霽典。嚮風馳慕。殆無虛日。金生來伏聞令駕利度重關。儘所謂嶺海風霜不能病元城者。爲之慶賀千萬。信后有日。不審御者方到何處。幾日當抵都下。而一行大小安穩。無他擾否。達道賤疾近益沈痼。未得前進攀候於路左。瞻望行塵。罪恨徒積。古語云行百里者半九十里。伏願益加衛重。副此遠誠。

與李寬甫 民宷○癸亥

中夏毒熱。伏惟還朝後起居珍衛。猗我聖上以上聖之姿。啓中興之運。登崇俊良。野無遺P賢。以足下之賢。宜居經幄近密之地。朝夕論思。以盡獻替之誠。而顧乃奔走銜命於重溟萬里之外者何哉。粵在廢朝。不擇使价。前後行人。非庸憤則貪冗。其不爲中朝士大夫之鄙夷者無幾矣。況今聖上改紀之初。首遣禮聘。下之注擬。豈不揀擇而薦之。上之除授。豈不難慎而任之乎。然則其爲任之重。又非論思經幄獻替可否之比也。足下之朝於京也。忠信是仗。清謹自持。臨事而極其敬。投幾而善其辭。丕揚我聖上繼體之孝。事大之誠。則中朝P士大夫之目之者。其將愛敬之無已日。鮮之有人也如此。盡使乎之責而

爲邦家之光。顧不偉歟。足下之行。浮于西海。達于皇都。風濤之掀盪。舟楫之傾危。必多備嘗艱險。而不爲足下道者。以足下之平日持守定力視之。猶康莊之坦齋閣之間。而曾不足以動一髮也。從事獨賢。何介于懷耶。路阻千里。不能奮飛。略裁一書。以抒別懷。

與趙日章 綱○戊辰

歲律將窮。伏惟兄仕履珍崱。南還之日。路拜愚^P老。語及於兄。其間想已入城。兄果與之相接。而朝廷所以待之者。亦無厭薄之態否。治道之污隆。係於人才之賢否。而自士論携貳之後。賢不肖相混。甄別甚難。苟不公着心明着眼。曷足以副四方拭目之望哉。夫以愚老之藻鑑。何有於揀別人物。而半世林泉。耳目齟齬。注擬之際。必須有資於善信之人。庶可恢張公道。無遺賢債事之患矣。時事多艱。有識寒心。竊計當今志氣宏遠。材負超軼。可任轉移斡旋之責如吾日章者。有幾人哉。望兄頻見愚老。商確機務。苟可^P以挽回世道。則盡誠以導之。如其不然。明告其不可爲之勢。圖所以遞免。此實吾儕愛人以德之意也。達道閒居吟病之暇。不無尋溫之樂。而傍無疆輔。一任孤陋。追想往日遊從。益爲之發於夢寐也。

答趙日章

至日惠書。臘日始至。日月雖久。感慰則深。天寒歲暮。伏惟兄侍奉節宣。順序加裕。達道蟄伏窮廬。頽然作一病翁。其亦終焉而已奈何。時事稍有可望。第未知後來舉措。果能的當與否。朱夫^P子所謂今日之事。未足爲喜者。盖慮此也。望兄通議善類。盡心國事。不使一毫偏係之私。參錯於其間。則達也雖枯死溝壑。萬無餘憾。至祝至祝。多少書不能悉。惟冀迓新茂慶。

答崔重吉 詰○壬寅

昔者辱致情問。教告諄悉。苟非知之深愛之厚。何以及此。嗟乎。友道之缺絕也久矣。惟吾子能慨然自拔於流俗。以善責人。以道勉人。如僕無似。幸孰大焉。盖其所論。辭高語壯。縱橫奇偉。令人起望洋之歎。然頭緒太多。無端的可據之地。^P不幾於大軍之遊騎出太遠而無所歸乎。愚聞之。下學人事。便是上達天理。非人事之外。別有所謂天理。須從日用彝倫上講求探討。自然心地開明。義理昭著。日見其高深遠大而不可窮矣。今於大本切要處。不自實下工夫。厭常而喜新。舍正而求捷。溺心於無用之地。則縱使馳騁性理之窟。出入造化之原。畢竟無益於身心。而誤了一生家計矣。此與南越王黃屋左纛以自娛者。何以異哉。僕之爲此說者。非直謂吾子之有是失。今因盛諭之及。略質愚見如此。未知如^P何。如僕何足道哉。少從父師之間。略有所感發興起於心者。而鞭策不嚴。頽懶常勝。迄未能高着眼硬着力。窺得前人用心處。到得前人立脚地。苟非吾子之優游善誘。幾乎枉過了歲月矣。繼自今吾子有以見教。而僕有以求教。相與講磨切磋。不遂爲君子之棄而小人之歸。則僕之幸也。吾子之賜也。

與黃大進 宗海○甲子

伏聞竹林院宇已成。將以濯纓，寒岡兩先生。從世代追配云。未知貴鄉僉君子所據之如何。而^P惜乎吾兄高明之見。亦未免爛熳同歸也。昔朱子之爲南康軍也。建濂溪祠。以兩程配之。又別立五賢堂。以奉陶靖節，陳了翁，李公擇，劉西澗父子。彼八賢者。皆有遺蹟於南康。則同堂列享。固無不可。朱子特別其廟以奉之。近世盧公慶麟宰星州時。爲文烈公李兆年，文忠公李仁復勸建書院。欲追享寒暄先生於其下。稟于退溪先生。先生答書曰寒暄先生。乃道學儒宗。其視二李之只取一節者。尊崇之道。不能不殊歸矣。不記原書。其大意如此。其後寒岡先生更稟于^P退溪先生。遂祠程朱兩夫子而以寒暄配之。既又立祠其傍。以奉二李。蓋自古書院之設。以道學爲重。而不以世代爲主故也。金濯纓文章節義。世所欽慕。而鄭先生乃異日陞廡之大賢。其尊奉之道。固不當乃爾。後日若有斯文公論。則主事者之咎責。當如何也。蓋此追配。實有極難處者。若以道學爲重。奉寒岡於濯纓之上。則有違鄭先生謙虛讓長之意。若以世代爲主。奉濯纓於寒岡之上。則實非後生崇奉大賢之道。雖分奉寒岡濯纓於朱子之左右。而酌獻則當先^P左而後右。亦如上下之難便。抑緣此而不祀濯纓。獨奉鄭先生。則又非鄭先生當日講定之遺意。未知如何可以得當也。鄙意則具此措語。稟質於旅軒先生而處之。然後方爲穩當而無後議矣。事係斯文。不容泯默。若非吾兄。亦何敢妄言及此耶。幸有以諒之也。

答金伯厚 堉○戊辰

山野伉拙。衰病日甚。無足備數於人。不意尊兄遠惠長牋。所以責勉之意。既勤且厚。三復以還。極令人踟躕不自安也。達道之愚妄。嘗留意於^P當世之務。適會遭逢聖世。首霑科第。中間諸公頗有收拾引進之意。豈不願及明時。佐下風得效尺寸之愚哉。惟是狷狹之性。與世齟齬。迂滯之學。全昧機宜。頃嘗薄試小縣。猶不盡職。乃以希濶可笑之事。見忤於上司。既又忝居言地。不無一二論列。而亦皆迂於事情。過於戇愚。纔一開口。拳踢四起。嚮非主上寬仁曲加矜恕。則達道之得免顛隕。保有今日。庸可冀乎。愚也嘗聞之。陳力就列。不能者止。區區雖不敢自附於士君子出處之義。然環顧己分。既不能進爲^P而撫世。則杜門斂跡。追省前愆。以其暇日。求古人所樂而潛心焉。粗收下士拙修之功。亦是一事。况今犬馬之齒。五十有三。屢經大病。氣力耗盡。凡百情禮。一切放倒。猶且變心從俗。強所不能。爲僥倖俸祿之計。則其與鍾鳴漏盡夜行而不息者。何以異哉。來諭之云。誠荷見念之切。然猶恨其有不相悉者。茲敢略暴所懷如此。兄若舒究其情。將不暇責我而悲我也。昔朱夫子嘗讀崔德符觀魚詩。惕然有動於懷。不謂今日達道亦踐斯境。而爲俗纏縛。終身不能擺去。則行^P將爲德符之罪人矣。惟尊兄諒之。

與金以志 光繼

春和。伏惟兄道履冲裕。地非甚遠。而未能一進對討。以釋滿腔滯吝。爲之悵悵不已。達道南還未幾。今又挈累西上。途塗之間。枉費許多光陰。祇自凜然憂歎。聖明在上。羣賢彙征。此豈兄高臥林泉時耶。亟回遐心。益加淬礪。毋負世道之責如何。

答柳季華 軫

新年一書。足抵千金。仍審舊病今已脫然。春早^P江干。日有翫物適情之趣。世間清福。此外復何求耶。令人欽尙。達道病裏添齒。頹弊轉甚。前去光陰。能復幾何。玆庸瞿然耳。想足下閒居味道。見得日益精密。時惠德音。使此孤陋無聞者。得有所警發。則庶可因此而得免大過矣。未知如何。

附修巖書

獻歲發春。伏想兄道履若時神相。慕戀日增。軫新年抱舊病。近又以先隴石役及一家葬事。奔走添傷。痛苦十餘日。今始粗安。心境汨^P沒。尤不足言。湖上新正。陽德漸舒。每到日午風靜。與小溪剖竹引泉。操錘裁松。以爲送日之資。亦足自樂。而獨恨不與僉兄同之耳。

與金道源 世濂

積歲違誨。第切瞻悵。肇夏伏惟兄履起居增重。達道山野踈蹤。妄出世路。莅任半載。未有一分可見之效。而宿患風眩。日甚一日。僵伏職次。與死爲隣。祇自拊躬悼歎。盖此沉痾之疾。受傷有素。實無貪戀斗祿。蹲仍時月之望。今已屢控辭單。而使家終靳許施。去留兩難。情勢窘蹙。茫然^P不知所以自處。望兄以平日見愛之深。轉及一言之重。俾得脫去樊籠。安意調息於畎畝之中。達道之受賜也大矣。未知如何。

答趙飛卿 翼○辛未

踰伏田廬。久闕書牘之儀。尋常戀德。不能自己。忽紆台問字。備審台體神相。感慰無量。達道悲悴之餘。疾病連仍。宛轉床褥。不復知世間爻象久矣。忽聞縣官抄兵入西。未知西邊有何事機而然也。提兵深入。掃穴犁庭。決知其不能也。如欲分據要害。設營置屯。亦何至徵戍於遠方耶。^P愚嘗謂胡兵捲歸之後。龍骨未罷之前。監司設營於安州。兵使留鎮於凌漢。而申飭列邑。多設屯田。一以制毛兵之殺掠。一以救飢民之顛連。則不過數年。兵糧俱足。清川以北。未必遽至於空虛矣。曾將此意屢陳於朝著之間。而論議矛盾。坐失事機。可勝惜哉。今之當事之臣。欲移鎮於宣川者。似爲得矣。而收拾後時。措畫失宜。披蒿荻創營柵。其爲役鉅而所費不貲。其勢必抽內民以添防。虛內務外。昔人所戒。况以倉卒新設之營。添羸瘁遠來之兵。其能抗胡寇而制^P椴島。雖婦孺亦知其難矣。且椴島之勢。大異曩日。磨牙厲吻。潛鋒埃鬣。非復文龍之比。則國家肘腋之患。無大於此。此豈主將輕移營鎮。虛內務外之時哉。以愚策之。莫如極擇清北守令。俾之完聚遺民。或入居山城。或出屯平原。而老弱服事田畝。丁壯扞禦剽竊。且耕且守。蓄力待時。以防意外之患。似爲萬全之計。若或輕舉移鎮。抄兵遠戍。則無乃廟筭失宜耶。固知成事之不說。而前頭備禦之策。亦不過此。玆敢略布所懷。惟執事裁擇去取也。

與洪副學 瑞鳳

春和。伏惟令體動止萬福。達道疾病連仍。事務繁劇。形苦心勞。卒無善狀。切欲棄去。而遽去無說。乾沒至此。良可悶歎。似聞西警稍緩。而早晚用兵。勢所必至。湖嶺爲國家之根柢。本府爲湖嶺之巨鎮。而民窮財匱。凋弊日甚。前頭責應。著手無地。自餘殘邑。可以類推。又况號牌之法。甚拂民情。渙散之形。已在目前。民是邦本。而邦本如此。寧不凜然以寒心哉。伏惟令佩國安危。憂傷之念。必倍常情。輒貢所見如此。倘於筵^P上。以是爲贊揚之一助否。

答金孝仲 奉祖

頃拜伯丈於路左。備悉動靜。今承耑翰垂問。續審調養益裕。尤慰尤慰。達道滯都下未幾。遽爾呈告而還。固知議者之紛然。而強疾供職。實非初心所期。只當任之而已。吾兄進退。亦有云云者。而吾輩惟以低一頭退一步爲安身地。外至者似不能爲患矣。不審高明以爲如何也。

答李監司 命俊○甲子

國運不幸。逆豎直逼。神人之憤。如何可喻。賊适^P爲人。未知何如。而明璉鷲勇。聞之熟矣。長於弓劍。老於兵革。兩西諸將。無可與敵者。嚮使人密誘明璉親屬。俾明璉圖适。否則令明璉部下圖明璉。必不至如是鴟張。而畢竟處置失宜。不滿一句。聲勢已大。前頭之患。有不可勝言。今爲閣下計。急令道內各官。廣募有義氣有勇力武藝者。而三四邑或四五邑。置一將領。嚴其約束。及時聚待。自營抵京。連置擺撥。而又送慎密軍官于京。朝廷處置。賊兵動靜。使之逐旋馳報。脫有警急。不待徵發。卽點兵以赴之。則臨急無後^P時之慮。應卒有先事之備。而藩臣衛國之體得矣。且念自古用兵。皆以地利爲重。營底之雙樹山城。控扼兩湖。天險當中。實國家之保障也。亦令牧使收拾老殘餘丁。繕修以待。則安知異日不爲緩急之備耶。識時務在俊傑。顧此書生迂滯之見。何敢與論於制勝之策。而特感閣下詢冀之盛意。略貢所懷如此。埃罪埃罪。

答李監司 溟

卽承令問札。謹審旬宣有相。仰慰仰慰。本道自經壬亂之後。事無頭端。難以毛舉。姑撮其大且^P急者而言之。禦侮之策。無過於舟師。而萊之釜山濟之蜆島。左右相對。控扼要衝。此政法所謂地有所必守者也。自羅麗以來。分置水營。意非偶然。而中因措置乖方。移入右營於內地。且右兵營遠在晉陽。與左兵營勢甚遙絕。呼吸不通。是豈輔車相資。緩急相須之道哉。東萊國之南門。而不設城池。營將兵之大蠹而不卽革罷。左右道田結不均。民生之苦歇懸殊。而供倭饌物。不度土產。不計遠近。濫爲卜定。以致凋瘵日甚。此皆今日之所當汲汲更張。不容暫緩者也。至^P於明道藝以正士趨。專教養以厲民俗。尤是觀風者之所當勉。而近日方伯視作文具。其所勸獎作成之方。不過詞章製述之業。伎倆愈精而心術愈壞。誠可寒心。以令高明之見。其於勸勵本末之序。施措先後之分。必有所講熟者。而如是煩冒者。

盖以按轡之初。未及洞悉。既悉之後。居然瓜熟。竟未得措一事而去。前者如此。後者亦然。豈不大可惜哉。朱夫子嘗曰會做事底人。必先度事勢有必可做之理。方去做。惟令深思而亟圖之。

與洪龍宮 靈

二日梅樽。聊瀉十年阻懷。醉德歸來。充然若有得也。近世大夫士逐逐於聲名進取之塗。鮮有以名節自勵。繩墨自持者。吾儕今日惟當痛絕躁競之念。務盡探索之工。相與切磋琢磨。刮浮華以趨本實。然後方可拔出流俗。粗塞受中以生之責耳。吾兄以敦厚近仁之姿。有勇邁直前之志。實非今世所易得。異日扶持世道之責。不能無望於吾兄。而竊覩日昨多少酬酢。似不能盡祛世俗之累。此無他。不肯留心於向上事。如^P窮理治心之節。一切放過之致。試於撫字之暇。日取孔孟程朱之書。究得緊用心緊着力處。反復體認。勉焉孳孳。使吾之心地開明。義理昭著。則自不失內外輕重之分。而病將日去。德將日昭。一朝進而需世。功名事業之盛。又烏可量哉。自己膏肓。亦且奈何不下。其何暇論人之症。發人之藥。而相愛之深。不以僭妄爲嫌。盡暴胷臆。兄必笑且諒之。

寄弟晉甫

前後兩度書。俱得見否。吾久在呈告中。不敢出^P仕矣。西征自上牢定。兵判以請停見罷。李曙方出宿京營庫。鄭忠信亦於今日領舟師而去。但舉朝皆以爲不可。姑未知前頭究竟如何耳。兵端一開。日後之禍。有不可測。都下人心。莫不危之。憂慮可言。

答晉甫

戀中得書。忻悉近況。且有探經講道之益。不任嘉尚。吾欲歸未歸。尙此淹滯。接應日煩。收拾實難。其亦終焉而已。浩歎奈何。西師已出。而劉興治在椴島。逐日練軍兵繕器械。使其兄興良襲^P廣鹿島爲守將。所繫真獫百餘皆死云。又見關西伯狀啓。唐船多出來。蛇浦沿邑。急聚兵待變云。前頭必有大兵革。不知稅駕於何地也。

答晉甫

歧望政苦。書至審憂中有憂。驚慮難狀。吾雖處閑地。酸苦轉甚。欲於開旬發還。而日熱殊可悶也。西征事廟堂令舟師留椴島近地。欲待興治還舉事。未知何時出場。胡差方留境上。恐嚇無所不至。是慮。

與晉甫

Ⓟ 近來何以支過耶。得見冬至使狀啓。則五月初五日。天朝大破奴賊。驅出關外。使劉興治仍領其衆云。令人差強。皇太子冊封詔勅。付之書狀行。延勅在來十一矣。西師進退兩難。廟堂方以爲憂耳。方赴秋享習儀。草此不一。

與晉甫

凡人數百里之別。尙有戚戚可憐之態。况我天倫間。重溟累萬里之行乎。寤寐一念。長懸於燕齊海岱之間。卽因啓使便。得聞一行無事渡海。古人所謂謾卷詩書喜欲狂者。政瀉出吾今Ⓟ日情事也。此間一室大少俱依前。君又還鄉有期。世間何樂。可以易此。惟願加意飧飯。益謹寢興。無負乃兄區區之望。甚善甚善。

晩悟先生文集卷之七

雜著

南山問目

己未五月。與弟悅道。詣南山。先生命駕于一善之元堂有日。遂轉拜焉。先生出眎所著易學圖說。因教曰今人開口便說理氣。諸賢知理氣分合之妙乎。達道對曰理非別件物事。只爲此氣之中而在此氣之所以然。合便混淪。而自不相雜。亦不相離。既知其不相離。又知其不相雜。庶不悖於分合之義乎。先生曰古之聖賢。既罕言^P理氣。又未嘗分言理氣。蓋析以分之者。名目之設也。合爲一體者。理氣之常也。若因其名目之分。而遂以爲界別相對之物。則理氣便各自爲本。雙立并行於宇宙之間耳。理豈得爲氣之理。氣何得爲理之氣哉。悅道曰誠如所教。天下無無氣之理。亦無無理之氣。直所謂二而一一而二者也。先生曰然。

壬戌十一月。拜先生于南山。悅道偕。留侍三日。講心經。悅道問曰朱子以四端爲理之發。七情爲氣之發。其所爲說。各有地頭。不可混而同之。^P比而合之否。先生答曰四端自是性觸便感。不犯私僞。故以理爲所發之主。七情或涉私僞。不能純善。故以氣爲所發之主。然七情固莫非四德之用。而四端亦非外七情而別自爲端者也。以四端言之。惻隱卽七情之愛與哀也。羞惡卽七情之怒與惡也。辭讓施於喜怒哀樂愛惡之際。是非別於順逆輕重之境。則其於七情之外。別有所謂四端乎。以七情言之。哀愛欲是仁之發也。怒與惡是義之發也。喜與樂是禮之發也。七者隨事隨物。感應各當。是智之發也。其於四^P端之外。又有所謂七情乎。達道進曰四端之發。非不資於氣。而理有以主張。七情之發。非無與於理。而氣有以用事。就其所重而分別言之者。以其所從來。各有根柢苗脉。故朱子曰七情不可分配四端。恐不必牽引配合而強爲一說也。先生曰朱子不可分配之說。蓋以四端感出純善。七情或涉私僞而言之。然其釋中和之義曰喜怒哀樂情也。其未發則性也。性之發爲情則孟子豈外七情而言四端乎。特就七情中舉其直從本然之性者而名之曰四端。苟能精究而^P熟察之。則四端實不外乎七情之中矣。

庚申春。與悅道往哭寒岡先生喪次。歸路謁先生于南山。達道稟問聖人不制師服。但使申心喪之制。近世退溪先生之喪。禹秋淵諸賢。但以布笠縞帶終三年。今日寒岡門下之服似過重。未知如何。先生答曰孔門弟子吊服加麻。乃是師服。門下執弟子之禮者。固當如是。至於遠方未及門之人。亦爲白巾者。非禮矣。

壬戌春。與悅道謁先生于南山。是夕偕往不^P知巖留二日。講近思錄。達道稟問南秋江達可親經二姓王之句何如。先生答曰吾東文獻無徵。秋江想未詳而云爾。豈可以此而疑圃隱乎。仍問世傳退齋先生與吉冶隱先生。携手同歸云有諸。達道對曰先祖與冶隱先生爲道義契。見麗季政亂。并轡南下。先祖居尚州。冶隱居善山。世代已邈。今無所攷證。然以勝覽所載皎潔其身。能得行藏之道等語觀之。傳來之言。恐不虛矣。先生再三歎賞焉。右二條。又出懶齋拜門錄。

榜諭境內文 乙丑○判全州時

夫勸善懲惡。古之道也。人或有善而上不之勸。有惡而上不之懲。則善者以怠。惡者以肆。風俗不美。職由於斯。竊觀本府衣冠文物之盛。黎庶邑居之繁。甲于南方。其間豈無忠信孝悌之人。亦豈無悖德亂常之類哉。古者教人之方。雖未能盡復於今。而略依藍田遺制。開錄于後。每月朔各面約正。以各里人善惡。報于都約正。都約正受之。於四孟朔會。詢其虛實。各籍善惡。告于官司。以爲勉勵之地。則庶幾相勸相規。偷風可轉爲厚風。今人何讓於古人哉。都約正以下各自飭勵。盡心舉行。

告諭諸生文 乙丑○判全州時

古者明倫善俗成就人才之方。專在於鄉里之糾察。學校之導迪。而自夫世教衰。民不興行。以儒爲名者。無復探索根原敦勵行檢之志。屑屑較計於聲名得失之場。所以破壞其心術者。不一而足。彼蚩氓賤隸。何所觀感而知善之當爲而必爲。惡之不當爲而不爲哉。當職猥忝民社之寄。竊有慕古之意。謹依呂氏藍田鄉約及溪門所定罰目而略加增損。以通于今。第此件物事。必有本原工夫學問節度。然後庶幾體用兼備。規模益廣。遂取朱子白鹿洞規附其下。又各爲節目十餘條。以補未盡之意。蓋鄉約非洞規。無以資講習之益。洞規非鄉約。無以致體驗之實。二者相待而成。不可闕一。而如干條列。亦皆綴拾前輩緒論。非朮置己見也。惟我諸生。於前四條。勅厲而勸戒之。於後五教。講明而力行之。直以無古今之異者。未始不可行爲心。則以諸生天質之美。本府素厚之俗。何難於一變而至道哉。惟諸生勉之哉勉之哉。

鄉約節目

一。衆推年位德業俱尊者一人爲都約正。才學兼備者一人爲直月。又於四面擇置副約正及直月各一人。各里庶民中擇謹厚者一人爲里正。勤幹者一人爲色掌。專管勸諭糾檢之事。

一。都副約所。設于鄉射堂及四面書塾。都會以四孟朔。面會以每月朔爲之。

一。鄉堂置都籍。四塾置面籍。列書約中人姓名。又各別置德業過失二籍。直月掌之。以爲講約時考據勸懲之地。

一。每月朔日。副約正各於其所管面內行月朔會。士人在籍者咸集。庶民則里正色掌外不必盡會。直月讀約條一遍訖。凡善惡記籍。約正詢于衆。僉可然後乃行。

一。每四孟朔日。都約正引四副正以下大小諸員于鄉射堂。爲都約會。坐定行禮訖。直月中坐。抗聲讀約條一遍。副正推說其義。使人人皆得通曉。遂取四面記籍。其有善者衆推之。有過者直月糾之。以進于都約正。都約正受之。詢其實狀于衆。無異辭然後令直月書于籍。乃論獎罰。既畢。因做鄉飲酒儀。陞降獻酬。盡歡而罷。

一。四孟都會時。士人在籍者。各出白米五升。自官亦出若干物。付之鄉堂。以備當日需用之資。月朔則赴會者各齋點心。務從簡略。

一。鄉約之法。已經諸先輩增損。其節目之纖悉。規樞之謹嚴如此。倘或有因緣憑藉。擅^P作威福。或持官府得失。馴成倒置者。其擾小民害國政。誠如前輩之言。約中寧有是耶。有則切勿饒貸。

一。庶民之與士大夫。名分雖不同。而秉彝之天一也。豈可誘以蚩蠢。而不思所以同歸於至善之域乎。其中有孝友實行人所共知者。自約所上其事于官。以爲闡發激勸之地。

一。男女嫁娶。爲正倫之始。雖至愚下賤。不可任情恣行。或有不待父母之命而私自相^P從者。特施重罰。

一。士庶家婚喪踰制。自有朝家禁令。若有過度者。糾戒論罰。

一。凡罰大者報官。笞二十以下。約正自斷。論人不宜已甚。過失之在法前者。并勿追。以開自新之路。

一。凡事必正己而後正人。都約正以下。各宜飭厲。以表率鄉里。

學規節目

一。極擇德義學業衆所推服者一人爲都學^P究。若都約正乏人。兼帶亦可。經明行修者四人爲副學究。例兼副約正。分置鄉校及四面書塾。以勸導抄選儒生。

一。廣選境內士夫子弟及凡民俊秀者。年十五以上已冠者六十人。擇其中飭行力學者二十人。陞付鄉校。餘四十人分屬四塾。使之居齋肄業。抄外願人者許。○自齋糧。

一。五所養士之費。不可專委於育英齋。自校院各所。隨力添補。俾免齋供不贍。學業中輟之患。

^P一。各於齋生中。擇定直月有司各一人。糾檢儒生。收拾書冊等事。直月掌之。出納財穀。檢飭供饋之節。有司主之。皆有記籍。遞代時。都副學究親檢傳與。

一。五所有司。先計育英齋及校院一年所出財穀幾何。次計都副學究及齋生一年供饋所入幾何。紙筆燈油雜用所費幾何。計朔分俵。務從簡略。稍存贏餘。以備會講及鄉飲時需用之資。

一。諸生入齋之始。都副學究列書所管儒生^P姓名年齒。各名下註以某日始某書。讀至某篇某章。逐朔報官。考檢勤慢。俾絕因循懈弛之漸。

一。各所皆置善惡二籍。其立志益篤勤學不怠者。書于善籍。敦獎之。如有向學不誠。違規作過者。學究戒諭之。同業規警之。亦書于籍。以俟自悔。其終不能改者。小則笞罰。大則報官黜齋。

一。學究躬行正道。以表率多士。諸生所讀書。日課以督之。間五日通讀。其聽講之際。不^P惟正其音釋句讀。以融貫文義。曉達一篇綱領爲主。

一。每月朔望。府官詣黌堂。與都副學究。引諸生謁先聖。讀學規訖。相與通讀講義。第其上中下三等而賞罰焉。融貫文義。曉達綱領者爲上。句讀分明。音響琅璫者次之。不通文義。懸空說過者爲下。

一。八歲入學。自是先王遺制。而今於設施之初。猝難畢舉。自四塾須先各抄附近子弟八歲以上。別修一籍。每月朔。隨所讀考講。不通則略施笞罰。能通者報官論賞。俾存三代養蒙之本意。已上居齋規模

一。每日昧爽而興。掃室堂整几案。盥櫛衣冠。環立讀學規一遍。待師長起寢。齊進參拜。仍行相揖禮。各就坐課業。

一。聖賢論學。必主於敬。窮理非敬則不能。踐履非敬則不行。苟不主敬。百行萬善。皆無由以立。

一。古人讀書之法。以大學爲先。語孟中庸次之。不可踰越。諸生先讀四子。次及六經諸史。補之以心經近思錄朱子書節要等書。而小學一書。實大學之基本。亦須時時誦習。毋失朱夫子兼補之意。

一。學者讀書。須要斂身正坐。專心致志。字逆句探。期於通貫精熟而後已。又於日課之外。尋溫前所讀書。毋至遺忘。

一。讀書之際。非因文義講究。切勿相顧閒談。以致彼此妨課。

一。讀書之暇。或習寫或抄錄。皆要楷正。時或游泳園阜。暢發神氣。夜間亦必有所事。不可暫刻放過。

一。師嚴然後道尊。朝夕必參拜。朔望必禮見。有事必稟。有疑必質。出入必告。其警勉之辭。雖沒緊要處。且當一意遵奉。決不可道聽塗說。

一。同學有兄弟之義。以德相勸。有過必規。務盡切偲之道。決不可騁辭逞氣。交相戲謔。爭長競短。任加訾謗。

一。學業雖不可廢。固非儒者所急。况今聚士講學。非爲學業設也。須知內外輕重之分。不患妨工而惟患奪志。得如程子之言然後方可謂明體適用之學。而庶免爲乾沒利穽中人。

一。聖希天賢希聖。學者未到此境界。不可便謂事業已了。已上爲學節度

江都日錄

[正月]

丁卯正月十七日。關西伯尹暄馳啓。奴賊本月十三日犯義州。十四日到定州。

十八日。聞賊已到嘉山。上引二品以上議守禦之策。李貴以爲臨津多淺灘。必不可守。不如專意江都。李曙以爲南漢亦險阻可守。三南軍兵及都監砲手分二軍。或守南漢。或入江都爲宜。議頗矛盾。未決而罷。○擢張晚爲都元帥兼都體使出征。李景奭以從事官。偕京忠全慶都兼察使李元翼，兼三道巡檢使沈器遠，贊恩使金起宗。

十九日。聞義州陷。十三日。奴賊由水門殺守吏。開門突入。府尹李莞殊死戰。死者相當。賊執判官崔夢寬斬首西門外。仍向定州。四散焚掠。執美女脫老弱衣服。收丁壯剃頭充伍。所^P過無不空虛。巡邊使南以興領三千兵馬。赴援定州凌漢城。以軍少駐博川。○兩司啓請以李曙領兵距塞臨津不允。

二十日雨終日。尹暄馳啓。賊七百騎向嘉山。餘屯定州。縮倉穀携妓作樂。南以興與別將金完入守安州城。軍勢頗盛。但薩水冰合。無以遮絕云。○上引二品以上及三司多官議。上曰賊逼矣。爲之奈何。昔紅巾賊三日入松都矣。李貴起伏日上教然矣。失今不避。不及必矣。莫如直入江都。羣臣皆曰貴言^P是也。余進啓曰大駕離都城一步則民皆散矣。無可爲矣。願殿下亟抄精銳。分據江津。親御六轡。進駐坡州。以示先人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且賊勢甚急。凡有啓筭。令勿書入。皆面陳焉。上顧問曰此爲誰。翰林曰正言申達道也。大司諫李穡曰達道之言。固知不可從。然姑徐之何如。上默然。余仍伏御榻下久之。教曰第當更議處焉。○水原軍四百名入衛。○輔德尹知敬疏請固守臨津。卽差知敬臨津督戰^P御史。只給砲手若干名。

二十一日。尹暄馳啓凌漢山城陷。守將定州牧使金摺也。賊還屯定州。休兵一日。將直向京路云。○上決策向江都。從李貴之言也。命金尙容留都。李曙守南漢。大臣勳臣請世子分朝。上不許。累累陳達皆拒之。承旨李植因入侍啓曰。殿下率三宮百官。一入江都。而賊兵塞江口。則上下凡百支供。非區區小島所可辦出。且諸道無所稟令。不無姦宄乘時竊發之患。尤可慮也。自上^P既不欲出離世子。宜依魏晉行臺之制。令大臣率不緊百官。分住南漢。凡扈從散班并付之行臺。得專號令。東西策應。則江都省力而有掎角。四方有所繫心矣。上沉吟良久答曰。此言卻有所見。出言於大臣。於是諸大臣請對曰自有大臣分住南漢之教。臣等願得世子分朝陪衛以行甚善。上曰行臺之制亦善。何必分朝也。卿等勉爲之。李元翼進曰行臺之制。不行於我國。臣等安敢當此任乎。撫軍監國。古或有之。請命^P世子出鎮兩湖或嶺南。以繫人心。上曰卿言至此。敢不勉從。但世子齒尙少。非卿無可托者。恐筋力有不堪耳。元翼曰殿下既命臣。臣雖毫矣。敢不効死以報。上曰卿許之以死。社稷之幸也。予暫入內宮。卿等退俟於閣門之外。元翼曰今左右者皆殿下之股肱心膂。當與此屬謀國。而欲入內宮。豈與婦人謀之耶。上曰非然也。慈殿方動駕。駕發後當更議焉。日將午。上再御收羣臣議。以全州爲東宮駐筭之地。李元翼仍^P啓曰分朝之初。當以收拾人心爲主。使之簡其陪從。約其騶率。以除沿路供億之弊。上曰政予意也。元翼卽請春坊衛司減半而行。上從之。親點單子。春坊衛司只各四員。吏兵曹堂上各一員。大將中軍各一員及砲射手一百名。當上入宮時。有人傳東宮同慈殿發向江都。余謂延平君李貴曰東宮若已發向江都。分朝之計。必不諧矣。亟令兵曹發民遮道。俾不失機會宜矣。貴顧兵判李廷龜曰此言是也。○夕慈殿中^P殿出次黔川。廟社直向江都。○朝廷以參判張顯光，副提學鄭經世。差嶺南左右道號召使。

二十二日。賊五六十騎。已到控江越邊。都民避亂者彌滿江頭。無船可渡。哭聲震野。○教諭中外。○賊致書于我。有五種說。因眎求和之意。

二十三日。尹暄馳啓。賊十九日進犯安州。大砲之聲。終日不絕。二十一日城陷。○賊請和書又至。略曰己未年出兵攻我誰負也。上天^P有知。令我有今日矣。兩國重整和好。速差好人來講。我亦速快回去我兵馬。原不爲要得爾國城也。原不爲要殺爾人民也。兩國和好。共享太平云云。朝廷欲許之。郡守姜鶴年上疏曰方今虜賊孔熾。有長驅之勢。遽爾中止。用一介使以和爲言。彼之欲和者。愛我耶畏我耶。其心不在於畏我愛我。則其求和之意。灼然可見。欲朝貢我也割地我也臣僕我也。抑却背天朝。并力射日之兇計耳。嗚呼。此豈二百年禮義之邦所忍言哉。况天朝^P父母乎我東。有再造藩邦之盛恩。我國家

自祖宗以來。至誠事大。貽厥孫謀。其在今日。豈忍輕棄而不顧哉。况醜虜情狀。以和爲名。而終必以和誤我國家。至大勢已去之後。惟意所欲。此必然之理也。賊若有一毫藉和之名。而遽示肆兇之意。則寧以國斃。不可含垢忍耻求哀乞憐於無厭之犬豕。而猶且終不得免也。伏願殿下勿爲羣議所動。斷自聖衷。一於義而不苟。則保邦戡亂之機。不外乎此矣。○賊已渡清川。

㉑二十四日。聞平壤自潰。尹暄退住中和。元帥張晚住開城。○世子南幸。都體使李元翼，左相申欽，韓浚謙，李植，李明俊，李聖求，李景憲，尹墀，金高等陪行。體府從事官金世濂，睦性善，崔有海。

二十五日。賊到平壤。黃州自潰。○司諫尹煌以列聖陵寢皆在臨津之內。啓請固守臨津。○朝廷答書虜營。

二十六日卯時。大駕向江都至楊花津。令百官及軍兵先渡。未時大駕渡江。夕駐陽川。㉑○留都大將金尙容，林琳，李尙吉。巡邊使申景瑗。漢江把守將李曙。○賊屯安州。

二十七日卯時。大駕發行。午駐金浦。夕抵通津。○合啓論延平君李貴首唱去邪之罪不允。

二十八日。白氣繞日。大駕在通津。○胡差到平山。使姜瑋 弘立子，朴靈 蘭英子 等請見國王講和。廷議紛紜。或云當留此接待。或云入江都盛陳軍容邀見。校理姜碩期進言曰外議皆言江都虛實。不可使賊窺覘。接待於㉑通津無妨。此言似有理矣。聞甲申戰船隻數三隻云。天塹雖可恃。豈可以數三船隻。張我軍容。能使賊畏懼而不敢近哉。必將謂我窮蹙孤島。益肆長驅矣。自古夷狄之要和者何限。而未有如今日之無據。一自義州之陷。如入無人之境。而今忽送差請和。其計正如金人之愚宋。豈不痛哉。朝廷不自覺悟。無意戰守。甘心講和。苟冀目前之無事。臣恐難從之請日至。而廟筭將不能善其後矣。○午後大駕發至江上。舟楫不具。推護涉大將㉑金慶徵。人馬駢闐。至昏不能盡渡。或有宿江頭者。

二十九日。夜風雨大作。大駕在江都。

[二月]

二月初一日。大風雨雪。避亂舟艦多敗沒。大駕在江都。○督和胡差又到平山。廟堂請先送姜瑋於賊中。蓋恐胡差見阻風濤。和事不成也。○張晚投書姜弘立。略曰聖上以宗室之胄。承王大妃命。繼承寶位。人倫復明。太平可期。而不圖今日致此兵革。天意亦未可知也。兩國各守封疆。自來無纖毫讐怨。㉑無故加兵。恐非隣國之義。若尋舊好。我何辭焉。

初二日大風。大駕在江都。○胡差到甲申。其書以永絕南朝。兄渠弟我爲辭。辭極兇悖。訓練大將申景慎，大司成張維，李景稷等出待。○上章陳所懷。仍乞遞職不允。○張晚馳啓。胡千摠稱名者到開城府。言賊大陣由中和還向平壤。

初三日風。朝廷以晉昌君姜綰爲回答使。持贈物送虜營。國書略曰兩國相好。必須誠㉑心相接。真實無僞。然後方爲可久之道。如有一毫未安于心。而徒以口語。外爲應諾。則不但不穀有自欺之愧。天地神明實所共臨。茲敢盡吐所懷。我國臣事皇朝二百餘年。名分已定。敢有異意。我國雖弱小。素稱禮義之邦。如使一朝而負皇朝。則貴國亦將以我國爲何如哉。事大交隣。自有其道。今我和貴國者。所以交隣

也。事皇朝者。所以事大也。斯二者并行而不相悖。唯當各守封疆。各盡道理。相守相樂。世世不絕。此固不穀之至願。而上天之所喜也。唯貴國圖之。

初四日。上行拜廟禮。百官扈駕。○關西伯金起宗馳啓。賊兵號四萬。實一萬四五千。而半是我民剃頭者。義安之戰。人馬死者甚衆。自義至平壤。各城守卒不滿數百。勢甚零星。可以邀擊。朝廷以觀勢勦滅知委。然實無戰守之意。日以和好爲事。中外莫不憤惋。○黃州兵使丁好恕拿囚。

初五日啓請抄諸宰臣軍官。入備儀衛蒙允。

初六日張晚馳啓。賈上胡咨及弘立答書。胡咨曰大金國二王府。傳諭張尙書。爾願講和。可差官速來。若不願講和。將我二次發去金人。速發回來。我在野外下營。百里以內。糧草已盡。且無房屋。如此艱難辛苦。爾仔細思想。看爾打發兩還人來。甚麼不著我一介人來。我心甚疑特諭。二月初三日。○弘立書略曰。兵既深入。軍情甚銳。不可徒以口舌爭辨。特講真實好意。厚遺禮物及賞軍之資。速退其師。計之上也。至於吊慶一節。隨後講之未遲。事機至急。想高見有以諒之。差人期於御前親傳文書。欲知彼此一樣相好。此事至緊。亦宜熟講善處。賊到祥原。掠牛馬運倉儲云。

初七日聞賊已到黃州。先鋒犯鳳山。上視舟師于燕尾亭。仍御松岳山。○金起宗馳啓。騰上弘立平壤榜文。其文曰兼五道都元帥姜。曉諭平壤官民等各人。遵照大金國二王子。明示各還巢穴。耕種如舊。以聽分付。如有懷疑在外。違期不農者。難免勦殺。火速通知。急急還集。信使臣於葵英定將。本城品官及將官等還現者。爲先召募將差定。隨其多少。成冊上送。各別論賞事知委。

初八日。聞賊到平山。○尹暄拿囚。

初九日。姜綱書啓。賊自寶山坪進住平山。宣言糧草俱乏。不得已移陣。誓不更前。其言雖不可信。可保數日無事。因封上弘立所陳別紙。一。國書中義不可背皇朝事。彼將終日詰責。臣以死爭之曰我國之事皇朝數百年。非自今日始之云。則彼將稍解怒氣。一。國書中用天啓年號事。亦爲詰責。臣極力開諭。又解其怒。一。彼將曰吾自中和深入此地者。貴國蔑待差人。信使之來。亦爲過期。恐爲中間所欺。不得不前進。以定和好。一。國書中天地神明實所共臨等語。彼將喜之曰貴國若果如此言。自此相好言不違天。吾亦各守封疆。世世修好云。仍爲指天爲誓。一。彼將曰貴國實欲和好。必是誠信。王子王弟中一人偕送我國。則不過一句。以禮還送。信勿疑訝。己未攻我之將。和好若成。當爲盡送。更勿遲難。快送王子。如或自我違盟。天必降罰。仍指天爲誓。一。彼將曰切欲兩國相好。共享太平。吾不要金帛物產。然以禮送之。吾何辭焉。一。彼將曰今見貴國重臣。謂定和會矣。欲進則恐擾王京。欲退則和事未定。勢將留此以待定事。而暴露中野。糧草不繼。願得近邑糧草。以濟窘乏云云。而辭意甚順。弘立，蘭英及胡差九人。以和事到豐德。兵判李廷龜，戶判金蒼國，大將申景禎，大司成張維等出接于燕尾亭。○上引見大臣諸宰。領相尹昉請斬弘立等。

初十日早朝。自闕內盛儀仗。禁雜人出入。午時弘立蘭英等至。弘立著草笠衣綿布天翼。率二從胡。跨馬而入。觀者堵立。有靦面目。弘立等引見時。依筵臣例。上謂弘立曰卿爲國之誠良嘉。弘立對曰臣苟保頑命。得瞻天日。不勝悲感。上問彼賊兵數幾何。弘立曰凡八營營各二千。又問和事可成。和成可退兵否。弘立曰若許王子爲質。可以成和。當卽退駐平壤。待草長回軍矣。上曰賊無故動兵何也。弘立曰往歲奴酋之死。本朝不致慰。賊頗銜之。適毛文龍憎李莞。必欲致死。詐爲中朝檄文。以與朝鮮合勢

勦滅等語激之。以故賊雖動兵。然臣等到鳳凰城。始知向我國矣。顧今賊勢方張。先鋒五千。進陷義州。而彼兵死傷僅五六名。凌漢則一胡持旗而登。不戰自潰。安州則纔接刃隨即潰散。所向無前。決不可抵當矣。噫弘立全師投降之罪姑勿論。今既冒死登對。詢問之下。當直陳賊兵情實。少爲本朝地也。而猶且變幻爲P說。甘心挾虜。以自免其忘君負國。如是而朝著之間。或有以忠信可尙禰之。人心之陷溺。一至於此哉。日暮弘立等還燕尾亭。

十一日。胡差劉海至。欲抗禮不從。大怒而去。○本朝移咨毛營報虜情。

十二日雨。胡差留。○司諫尹煌，執義嚴惺等。啓陳諸大臣主和辱國之罪。因請斬弘立，蘭英等。

十三日大風雨。劉海見上。又欲抗禮。給銀千兩。喜而從。○朝廷以宗室原城令陞原昌P君。禰王弟爲質。賊初以親弟爲請。廷議難之。劉海於掌中書假字以示之。盖虜意本在和。海居其間。以和事爲己任者也。原昌年纔二十三。而頗有膽氣。進言曰臣死不足惜。惟願國家亟勦仇虜焉。○賊留平山。抄掠傍邑。

十四日。金起宗馳啓。龍川府使李希建斬虜使之招降者。獨守孤城。及安州陷。軍遂潰。不得已來住營下。泰川縣監李東龍，嘉山郡守陳誠一等。安州之戰。潰圍突出。鐵山府使安景深。竄入海中。不知所在云。○副元帥鄭忠P信馳啓。與巡邊使申景璵時住兔山。南兵使邊滄亦自陽德領兵來會云。○李廷龜，張維等書啓。備陳胡差問答。略曰原昌君與李弘望。來見劉差。行茶禮罷出後。臣等設宴相接。觀其顏色。頗有歡洽之意。酒半。臣等出示約條。覽過答曰王弟今當往彼。可與金國王子成約誓。吾非主盟之人。約條須詳語王弟以送也。見犯境後被虜人還送之語曰姜元帥諸人。自可還送。如朴通官韓姓人兄弟。既已剃頭。不願還歸奈何。臣等答曰韓乃逆P臣之子。天下之惡一也。爲逆於此者。何信於彼也。兩國既定和好。可卽綁送云。則答曰非以其人爲可信。既以逃命來歸。一日二日。自不能送。且曰犯境二字。似不安帖。須改之。且曰朴仲男今行多有勞。其兄在此。幸差該國可當之職。且曰今來多有失禮。屢蒙國王厚恩。明日去時。欲叩謝於闕門外。諸大人以爲可往則往。不可則止。臣等曰國王在憂中。自有禮制。前日待大人。亦非輕忽。而未免見訝。至今未安。不敢重勞大人云。則答曰然P則諸大人幸爲我代口以謝。以表感戀之意。且曰金人以快活爲好男子。王弟見金王子時。雖有所問。勿爲羞澁。與侍郎相議。快爲酬酢。則吾等當就其中好語而爲之。臣等答曰王弟生長深宮。不接外人。應對之際。必不嫺習。故有陪行侍郎矣。蒙大人留念至此。多謝多謝。臣等又以王弟見金王子後。速爲還送事屢言之。則答曰吾當周旋。而但必見汗然後還來爲好云云。酒五行。極其歡洽而罷。送至外進而入矣。敢啓。

P十五日。原昌君與李弘望等。隨胡差往牙山。弘望仍留焉。贈物木一萬五千匹，紬苧千段，虎豹皮一百領。用刷馬輸送。鞍具馬一匹，環刀八柄。贈劉海以送。○啓論究城君崔鳴吉債國敗事之罪不允。○尹暄行刑。丁好恕白衣從軍。

十六日。金塗，李貴以營救尹暄推考。禁府堂上沈誦，都事安廷燮。以昏夜行刑拿囚。○海西伯馳啓。賊數百騎。乘夜掩襲。我軍皆棄甲而走。賊執兵使李楹以歸云。

P十七日。賊時屯平山。○崔鳴吉事再啓不允。

十八日。傳曰尹暄雖犯軍律。其子順之。曾經侍從。特爲助哀。棺槨題給。○司諫尹煌上疏曰。今日之事。名爲和而實則降也。殿下惑於奸臣僥倖之計。力排公議。甘心屈伏。乃以千乘之尊。親接虜差。受辱備至。而上下恬然。曾不知耻。臣不勝痛哭焉。嗚呼。殿下以此虜爲愛我而求和耶。其勢然也。百里趨利。兵家所忌。况懸軍深入。已踰千里。軍無後繼。卒^P疲馬倦。此所謂強弩末勢。而我國勤王之師方集。或拒守江津。清野以待。或據險設伏。勦殺遊騎。則彼前不得鬪。退無所掠。不過十日而有自敗之形矣。狡虜知其然也。乃以和事愚我。噫。和事成則有必亡之道焉。急則數月。緩則數年也。與其等亡。無寧決戰於今日乎。幸而得捷則國勢堂堂。戎虜自遁矣。設令不幸。亦無入犯江都之患矣。方今舟師大集。舳艫相接。彼何能捨鐵馬之長技。乘不習之舟艦。來犯我水兵乎。目今大小將士。中外^P士民。莫不扼腕思奮。而殿下不知勤王之師暴露風雨。凍餒俱迫。而殿下不恤。惟以和事爲務。竭一國之力。以餉仇讎之虜。人情痛惋。怨聲載路。臣竊恐外賊未至。而內有涇原叛卒之變也。伏願殿下赫然發憤。廓揮乾斷。亟斬虜使。以慰羣情。斬主和誤國之臣。以絕邪說。斬逗留奔潰之將。以振軍律。回賂胡之物。以犒三軍。則人心激勵。士氣自倍。而此賊不足破也。上下教曰尹煌之疏。極爲凶慘。陷君不測。政院問啓。尹煌啓曰和者^P兩國相好之謂也。降者一國屈伏之謂也。臣未知今日之事。可謂和乎。可謂降乎。昔宋人以和自愚。先斬陳東等。沮抑士氣。臣請伏鈇鉞之誅。以快主和者之心。三司進筭仲救。上答曰尹煌之言。極爲可駭。而爾等如是稱譽。今日人心亦難知也。爾等俱以有識之人。臣事降虜之君。不亦羞辱乎。勿爲徒責寡躬。各自潔身退去。以爲後日之地可也。仍傳曰尹煌削奪官職。中道付處。政院封還。答曰予實過矣。爾等之言是矣。但尹煌似難在^P職遞差。余以遞差未安陳啓。答曰依啓。

十九日。大雨終日。余得差赴京書狀官旋遞。

二十日。原昌君及李弘望馳啓。賊以國書中書天啓二字發怒。將更送劉海等力爭云。

二十一日。劉海等十五人。持胡書到豐德。李廷龜，金蕃國等。出接于燕尾亭。胡書略曰來札內天啓年號極難用。若我汗皇家今日勉強。原爲貴國同心於南朝。今見來書。貴國不真心講和也。况爾爲朝鮮。我爲女真。各書^P各國號禮也。今貴國擎天啓來壓我。我非天啓所屬之國。如今我兩國。既請心和。要爲兄弟之國。若無國號。就當寫我天聰年號。結爲唇齒之邦。若還書天啓字樣。卽將令弟送回。我兩國永不相好。請尊裁之。

二十二日。上引諸大臣議之。領相尹昉及昇平君金瑬以爲。姑從胡差之言。不書年號。只爲揭帖。許和爲宜。右相吳允謙曰若不書天啓年號則不可許和。上默然久之曰依領相言以揭帖例爲之。噫。我國既是天朝^P藩臣。而不用天朝年號。則天理存亡人心向背之機。於是決矣。右揆既發端於前。聖上示靳持之意。而引對諸宰無一人繼發陳啓。據理力諍。納吾君於大義截然之域。烏得免天下後世之譏乎。○金起宗馳啓。義州凌漢屯賊。進逼青龍山城。爲唐兵所敗。餘不滿數百騎云。○摠戎使馳啓。奴賊雖稱講和。而留屯平壤。愈肆擄掠。與其虛守江邊。枉費糧餉。無寧決死一戰。及時勦滅云。

二十三日。李廷龜，張維，李景稷等。與胡差劉海^P講定和議。依揭帖例只書年月日。多給禮物。胡差喜而從之。○金起宗馳啓。袁經略直擣賊巢。義州屯賊。稍稍撤還。

二十四日。胡差三人來辭。請弘立偕與奴將叙別。朝廷許之。

二十五日。胡差劉海發還。

二十七日。劉海行到金郊。遇胡差還豐德。盖爲與主上相對莅盟也。廷議引唐太宗渭橋故事欲許之。張維啓曰海前有此請。臣等以上在憂服爲解。第更力爭。彼或回聽矣。上然之。

二十九日。劉海及胡差泊燕尾亭。請國王親莅盟壇。李廷龜，張維等據禮力辨其不可。海等相顧默然。

[三月]

三月初一日。劉海密言于廷龜等曰爾國王在疚不可歃血。則只於殿上焚香爲誓。退與爾國大臣刑白馬黑牛。別於山谷隱僻處。設壇誓天宜矣。屬有行部別勅。不可便許。新差所見處。爾等再三強之。吾當勉從云。

初三日。我及胡差設壇同盟。劉海等發還。祭天誓文略曰朝鮮國以今丁卯年甲辰月庚午日。與金國立誓云云。○朝鮮國三國老六尙書。與大金國八大臣等。宰白馬烏牛立誓云云。

初五日。都體使馳啓。劉海還後。賊分給本國贈物于八營。卽日退向鳳山。

初六日。都元帥馳啓。副元帥軍官自陣上逃還言。賊自遂安路不意掩襲。副元帥鄭忠信，北兵使尹璠，南兵使邊滄，黃海兵使李攢，別將李繼先，趙時俊，金大器，柳瑚，安健，朴德健等并陷賊中。南北大軍。已盡潰散。到此地頭。罔知攸措。只自撫膺長慟云。○姜綱書啓。臣等固請王弟還。胡差言當到平壤。八將各設餞慰宴。五月間當送云。

初十日。陳疏請抄兵追賊。

十一日。設廷試于南門外。擢許穡鄭維城南振溟尹榮四人。○都元帥馳啓。賊大陣會黃州。四散搶掠。

十三日。上親臨視師于燕尾亭。仍水操。

十五日。陳疏請還都。兼附急務四事。

二十日。持平趙綱上疏。

二十三日。東殿來會。

晩悟先生文集卷之八

序

送金孝仲 榮祖 赴北幕序

崇禎二年十月日。余友金君孝仲。以侍講院左弼善。出爲北評事。評事佐貳之官也。孝仲以儒林雅望。策名清朝。歷歟三司。學足以輔導聖躬。才足以賁飾皇猷。強足以糾遯官邪。合置經幄近密之地。以紆晉接而備顧問。豈宜屈於青油幢間耶。夫鏡。虜之衝也。國之北門也。六鎮健兒素獷悍。諸將多驕橫。不循元戎節度。于時握中籌鎮殊俗。使腥氛廓淨。鎖鑰鞏固。非孝仲而誰哉。然則宰相之所薦聞。聖明之所擢用。非疎之也。極一時之選也。况人臣事君。隨遇盡職。豈以棲遲外僚。有介於懷耶。雖然學如孝仲而區區佐貳於窮荒絕徼之外。亦孝仲之不幸也。於其行也。洛中相識。莫不嗟惜。余故道願留者之情。作歌以贈之曰。朔雲橫兮寒風積。歲既暮兮邊雪皓。驪駒鳴兮僕夫催。慘將別兮愁欲老。我衣華兮我佩光。子之去兮誰與翱翔。我作詩兮歌于途。君且召爾兮毋疾其驅。

送金孝徵 應祖 遊清涼山序

山至嶺之南。蟠而爲太白之磅礴。繚而爲八公之瑰麗。結而爲伽倻之尖紆。灑而爲頭流之嶮澗。嶺之山莫尙於四者。然其專擅一世之美則四者不與焉。詩曰維岳降神。生甫及申。必鍾靈非常。降人非常。然後得專擅美譽於一世。則彰靈異而擅美譽者。其惟清涼山乎。惟我退陶先生稟茲山清秀之精。挺茲山厚重之氣。道巍而德尊。業廣而功崇。所以撐柱乎聖道。鎮服乎儒林者。無異泰岱之於衆峙。而環清涼六六諸峯。得被七十年昭回之光。亘萬古而彌高。則天其鄒嶧我海東而武夷我山南者。顧不在於茲山乎。金君孝徵慨然有志於學。蓋於先生之道。沒身鑽仰。優遊詠歌之不足。又欲躡清涼之頂上。以求其想像髣髴於百年山頽之後。孝徵其往矣哉。今其往也。指其山曰先生杖履所選也。指其臺曰先生咳唾所墜也。指其菴曰先生所棲息也嘯咏也。以至佳處獨領。妙意難言。眞如老先生當日入山句語。則其得風範神采於躋攀顧眄之間者。不啻從容於天淵壠雲之側。親承音旨圖書岑寂之界。此先生之函丈雖遠。而正大之訓存焉者也。孝徵其勉之哉。余十年前嘗一入茲山。而齒尙少。干戈滿地。未能恣意窮探。以寓景行之思。至今有餘恨焉。曩余之所未盡者。今以孝徵之行期之。遂書以爲送。

送許仲開 啓 之任蓬萊郡序

史氏稱蓬萊在東海上。銀臺金闕。望之如雲。所謂蓬萊。蓋指金剛山也。高城爲郡。在金剛山下。守是郡者名曰蓬萊主人。蓬萊天下之靈眞窟宅也。自開闢來。守是郡者幾人。遊茲山者幾人。羅麗數千年間。未聞一人因官悟道。如葉令鳧鳥異焉。又未聞一人乘紫虬入玄圃。見所謂安期生者。豈神仙之說誠荒唐。抑金剛之外。別有所謂蓬萊歟。往年一沙門過余言。金剛萬二千峯。惟毗盧玉立天表。恍惚不可狀。羽客韻釋或有攀磴者。輒風雨作。不敢窺山門一步地。此銀臺金闕。非烟火人所可容易得到也否。今得賢太守爲之主。秋來尙免疾病。當策款段躡芳塵。陟毗盧攀九井。徜徉三日四仙而歸。子既先我着

鞭。幸於搜勝之際。遇山益幽水益清處。刻留^P余姓名於石壁上。使蓬萊山靈。知余一生夢魂。未嘗不在於元化洞中也。

送弟晉甫朝天序

崇禎元年秋。余季晉甫。以冬至書狀。浮海朝天。余與之別而爲之戒曰。中天地而貴乎人者。孝與忠也。溫清以時。葬祭以禮。余季之事親始終可謂孝矣。而移孝於忠。余季之素所蓄積也。夷險得喪。無以易其守。死生欣憾。無以撓其中。惟竭吾誠而盡吾分。則彼波濤之蕩瀟。魚龍之出沒。舟楫之傾摧。不啻猶齋閣康莊。而以之治^P行事。以之應辭命。將無往而不自得。精白一心。鞠躬盡瘁。達吾君事大之誠。荷聖皇字小之恩。使中朝士大夫。知吾東方之有人。此乃兄之所望於余季者也。躡齊魯而想聖賢之風。達皇都而盡天下之觀。寓之目而得之心。助其氣而形諸文者。未知與司馬子長之遊。孰爲壯也。聞其樂而知其德。後季子千有餘年。亦能解耳於熙熙颯颯之樂否耶。盡使乎之職而無忝我先人之教。則斯可謂忠於國孝於親而不負中天地爲人之責矣。余季其勉之哉。

贈別金伯承序

伯承於吾。戚之疎而友之切者也。年雖後我。學實先吾。始吾與伯承遇也。面焉而已。後乃知其胷中所存。識解超詣。眞閱覽博雅君子也。甲辰春。余與伯承。會于冰院。一盞青燈。話十年之舊情。忽忽告別。更無幾於好會。余不勝黯然而懷。告于伯承曰夫人之聚也散也。是數也。今日之散者既有數。則他日之聚者。獨無其數歟。以其數而言之則其聚也散也。固不爲悲歡。而由人情言之則有不得不爲之悲歡。噫。人之情其無^P窮也歟。

記

懶齋記

余季晉甫。以懶名齋而居者有年。余謂晉甫曰夫名齋者。取於觀省而以爲自警之地也。獨余季之名齋以懶者。其義安在。晉甫曰有說焉。爭一毫之利。圖萬金之富。爲子孫謀衣食。周利者之所勉。而吾則否焉。盜竊經史。標掠章句。舍其所學而徇匹夫之好惡。爭名者之所勉。而吾則否焉。修飾其邊幅。變幻其言語。察強弱安危之^P勢而爲其去就。好黨者之所勉。而吾則否焉。低聲隱跡。暗行而明休。曳裾貴人之門。僥倖於萬一。患得者之所勉。而吾則否焉。夫如是則齋以懶名。顧不宜於吾歟。余聞是言而知余季之所不懶者存焉。夫義慾不兩立。善惡不并行。孳孳於彼者。必不能自強於此。故有所不爲然後能有所爲。今余季不爲富則能安貧矣。不曲學則能不徙其業矣。不好黨而患得則心公而身不陷於不義矣。余季之所不懶者其在此乎。苟或不然。頽然其無立也。泛然其無執也。無取舍於^P彼此。而惟安佚之是便。則余季之所謂懶者。終亦懶而已矣。果奚取於齋之名。辛酉端陽後二日。兄晩悟書。

成歡郵館重創記

國家置郵於歡。蓋爲兩湖之衝。而館之設自設郵始。丁酉秋。火于賊。因而不復。丞之處於長命且三十年。余於天啓三年冬十月。以成均典籍赴是任。僦稷之民舍而處焉。招集散隸。恢滌遺址。謀所以復之。不幸今年春。翠華南遷。寢其事幾數月。深懼夫因仍遷就。無以副朝家委寄之意也。鳩材燒瓦。乃更始役。閱五十日而工告訖。衙舍凡十間。視舊制有增無減。益之以廊廡。繚之以墻垣。丞之居。於是乎苟有矣。但是役也。出於時詘。正夾二門。受椽而止。庖廚諸廡。未及瓦焉。是可慨已。然後者嗣之。何患輪奐之無其日也。雖然丞之職。在撫摩不在輪奐。其必恩以恤之。威以鎮之。廉以將之。信以令之。使馬畜蕃而人卒盛。則郵存而館亦完矣。天啓四年五月下澣。韶州歸客記。

跋

敬書西厓先生手簡帖後

帖卽西厓先生手簡。梓于錦山者也。余從權友季明得之。其字體謹嚴有法度。雖尋常筆牘之間。亦可見妙道精義之所形也。達道亦嘗一再登門。以未及卒業爲恨。今見是帖。宛然若更承警咳。不覺感涕隨之。略書數語于卷端。以爲餘生日夕觀省之資云爾。歲庚戌五月端陽日。門人申達道敬書。

箴

力學箴 九歲作

皇天賦予。初無賢不肖之異。雖聖賢亦非兩口而四目。彼丈夫我丈夫。有爲者亦若是。期追前脩之徽躅。

元朝自警箴

乾元資始。萬品載新。物既然矣。矧伊吾人。而齒歲添。而學日退。而反而躬。而獨不媿。及此歲新。盍思自力。滌而舊污。懋而新德。勝重以弘。致遠維毅。無然玩愒。歲不而貸。勿忘勿助。俛焉孜孜。睨彼寒藥。勸而晚期。

表箋

本朝請由海路入貢表

遼陽非漢槎可上。譯路久斷於腥塵。滄海利禹貢全歸。藩幣宜通於木道。皇靈是仗。侯度以修。欽惟中國聖人。少年天子。梯山航海。德教遠暨於八埏。戢戈囊弓。威聲已振於四裔。何圖小醜之梗化。敢與大邦而爲讎。貔豸磨牙。開元鐵嶺之失守。封豕荐食。撫順清河之被圍。祖宗三百年山河。已矣半漏於版籍。幽薊數千里疆域。痛哉全沒於腥羶。而藩蔽有恪修之儀。奈陸行無轉達之路。豺狼患深於當道。貢獻路迷。干戈禍^P結於彌年。會同禮絕。堯封何處覓。仰天日而彷徨。越裳盍往朝。奉玉帛而踟躕。顧重溟縱限於東土。而微誠庶通於北辰。海不波揚。可免舟楫之失墜。山有盜梗。寧憂車徒之陷摧。萬里洪濤。縱有魚龍出沒之患。一葉輕帆。保無豺虎竊發之虞。伏望俯察向日之誠。特軫獻琛之懇。許開天東之鷁路。俾避關北之狼烟。則小聘大朝。衣冠獲列於萬國。浮海達濟。筐篚不滯於三韓。臣謹當恪守屏藩。式遵典憲。深仁普洽。已感字小之恩。常貢祗修。庶殫事大之禮。

本朝訓練都監進金應河忠烈錄箋

見危授命。貞忠無媿於古人。立傳垂名。壯烈不朽於來世。肆進記實之錄。庸備褒節之資。竊惟一介偏裨。百夫英特。薄試邊鎮。玉塞之韜鈴已恢。載贊總戎。金城之鎖鑰自國。一身都是膽。雄武無讓於子龍。萬甲自在胷。壯圖庶迫於小范。屬小醜七旬梗化。值中朝六月興師。隸符虎於左營。自幸舍生有所。授銅魚於故吏。已知必死無還。奉天討而誓心。擬掃胸鞞之穴。仗皇靈而唾手。期清醫閭之墟。何圖輿尸之有凶。遂致元^P戎之爲虜。裹瘡冒白刃。已矣殘甲三千。飲血指蒼天。其如強弩八萬。隻手持蚌鷁之勢。一劍一弓。狂寇肆豺虎之威。三退三進。竟以憤罵之許遠。遽作戰死之延年。中行之深讎未渝。目不瞑於身後。先軫之至痛莫紓。面如生於陣前。氣節凌霜。猶驚醜虜之心膽。忠精貫日。爭聳華夏之聽聞。肆惟聖朝勸勵之規。合有卓烈褒崇之舉。扶綱常於一代。奚啻有國之耿光。樹風聲於萬年。抑亦爲臣之柯則。圖畫厥像。竊願家家而相傳。哀輯爲文。庶令人人而自勵。恭惟誕敷文^P德。載纘武功。無忠不褒。盛德允合於周武。有死悉錄。殊恩遠邁於唐宗。維茲編摩之書。實係旋節之典。矧當板蕩之日。寧緩勸忠之方。伏念臣紆籌匪人。獎節有義。適值聖明之世。獲覩卞壺之死綏。縱乏揄揚之才。竊附李翰之作傳。

賀大殿准封箋

無往不復。方賀黃河之清。有隕自天。忽覩紫牒之降。神人協慶。動植均歡。恭惟武烈文謨。堯仁舜哲。欵器整頓。天意之眷顧斯存。會朝清明。人心之歸向舉切。茲當寵錫之日。益切欣抃之情。^P伏念臣白首南藩。丹心北闕。蓬萊雲繞。雖阻鷺班之趨。嵩岳日高。竊效華封之祝。

賀大妃殿箋

克配前聖。既著儀壺之徽音。垂裕後昆。忽覩錫封之盛舉。乾坤協慶。朝野交歡。恭惟海外曹高。女中堯舜。遭世多難。往事忍提於當時。受祿無疆。哲命載新於今日。茲惟准封嘉號。猗歟永世洪休。伏念臣叨受國恩。謬膺藩守。黃污比陋。河清幸遇於千年。塵壤均微。山呼願同於萬歲。

賀王世子冊封箋

中興業懋。方仰乾五之時乘。小海波清。忽覩震一之正位。權均朝野。慶溢臣隣。恭惟睿德日新。英猷天授。克濟艱屯之業。功著光先。繼昭重離之明。謨顯裕後。茲當胄筵之初設。誕膺寵錫之新頒。伏念臣跡滯南藩。心懸北闕。祝岡陵萬年之壽。縱未隨於漢班。歌本支百世之詩。竊自慕於周雅。

正朝賀箋

攝提貞孟。方屆夏正之朝。長樂稱觴。復覩漢殿之禮。三韓再造。百度一新。恭惟德合經綸。道臻位育。謹春秋之五始。撫馭八方。命羲和之二官。調燮四序。茂迓景貺。益闡洪圖。伏念臣久違宸闈。遽更年籥。南山獻祝。莫廁鵷鷺之班。北極懸情。第切犬馬之戀。

哀辭

金而和 中清 哀辭

嗟吾生之苦晚兮。謾好古以嚶嚶。粵負笈於川上兮。得我公與之交。余既顛蒙而寡識兮。望餘光而優遊。相與切切而惓惓兮。導余武乎前脩。臺天淵兮潭濯纓。叩柩中宵兮俯仰宇宙。起鳶魚飛躍之興兮。詠雲鳥相管之句。陶院晝永兮易齋夜靜。穿床幾日兮得聞緒餘。淵源遠溯於伊洛兮。絲毛細究於朱書。磨礪兮上下。砭我愚兮警我躁。雖迷復而罔成兮。逝其無替乎此好。自夫嚮哭而歸兮。悵吾生之踽踽。世故兮多端。苦一別兮難再聚。公青雲兮我泥塗。我通籍兮公解組。閱星霜兮幾何。夢明月兮屋梁。位不滿德兮。年未及耄。理難詰於彼蒼。適來適去兮有命存。公何尤兮我何傷。魂飄飄兮遠逝。頽濁世兮堪一笑。墮塵臼兮不能自拔。撫余躬兮增悼。歿不及吊兮葬未執紼。媿古人以覩然。挽歌遠寄於千里兮。哀淚一灑於風前。

告辭

先祖退齋府君墓豎碑告辭

恭惟先祖。挺生麗季。格天至孝。凌霜高致。撐巨宇宙。輝映簡策。至于今三百年之久。而墓道無顯刻

。不肖諸孫。有虞于圮。謹具麗牲之石。且請於外裔副提學鄭經世。略記行蹟一二于後。以鑿以豎。以圖不朽。嗚呼。香火之奉。庶無替於永世。霜露之感。曷有窮於遺裔。謹以清酌庶羞。用^P伸虔告。

焚黃告辭

恭惟先祖。挺生麗季。格天至孝。凌霜高致。撐巨宇宙。輝暎簡策。至于今三百年之久。而墓道無顯刻。不肖諸孫。有虞于圮。謹具麗牲之石。且請於外裔副提學鄭經世。略記行蹟一二于後。以鑿以豎。以圖不朽。嗚呼。香火之奉。庶無替於永世。霜露之感。曷有窮於遺裔。謹以清酌庶羞。用^P伸虔告。

祭文

祭月川先生文 丁未

天眷我東。篤生陶翁。祖孔禰朱。爲百世宗。猗我先生。見而知之。曾唯一貫。顏勿四非。函丈從容。有契無疑。陶翁既歿。文不在茲。是以吾黨。以所事事。君子所歸。小人所畏。縱不運動。曷量功利。小子顛蒙。蚤被薰沐。珍重詩篇。俾開心目。余敬拜受。恐或失墜。河飲未果。山仰逾至。胡天不憇。遽摧梁木。適我遠遊。未及執燭。迨我來號。倏爾踰朔。我思古人。心焉愧忸。孰啓我昏。孰警我魯。道喪陶山。慟均庚午。世道悠悠。俾我心灰。凡今^P之人。莫知我哀。

祭外舅中壘先生墓文

嗚呼。春雨秋霜。日往月來。二十五月之期。忽焉已至。音容逾邈。悲慕罔涯。泰山喬嶽。見先生之氣像。光風霽月。想先生之襟懷。孝可範於爲子。忠可法於爲臣。逝將幽翳。而莫之徵。矧乎學識之超卓。易理之高明。造詣之精深。其孰得以測而孰得以承耶。茲與一二同志。懼夫盛德懿行之終於泯沒也。今始千里來會。粗成行錄一通。而文詞荒拙。不能發揮其萬一。嶺路阻脩。疾病^P支離。日後省掃。又安可期。秋草蕭疎。一抔荒原。臨風長慟。天地無言。

祭尹遠卿文

榘楠可材。狂飆摧折。亦越騏驎。中塗而蹶。吁嗟遠卿。不幸類是。純粹之資。豪邁之氣。名門生長。孺染有得。識貫古今。學窮幽蹟。舒翹揚英。雅論冰生。掉鞅文囿。藉蔚名聲。將明將昌。遠大是期。不長其年。胡至於斯。幼稚失怙。孤鳳靡托。執友垂涕。遠近嗟惜。惟公與我。分義世篤。一言定交。膠漆莫逆。中年雲樹。分散南北。眼中吾老。幾許^P阻濶。歲在甲子。重逢刮目。半壁青燈。十年情懷。痛飲一觴。玉山兩頰。勛以征邁。義敦悃切。自後浮沉。乍離乍合。金蘭夙心。愈久愈密。孰云此來。泉路永隔。淒涼几案。寂寞簾幃。依稀疇昔。彷徨刑儀。撫孤長痛。其知不知。海內雖廣。知音者幾

。已乎已乎。良覲無因。單盃哭奠。有淚沾巾。

祭鄭比安 復亨 文 庚午

惟靈。頤容偉姿。展也丈夫。俯視一世。謂莫知吾。往在昏朝。彝倫不明。公時抗疏。大義日星。擯黜何辱。身誦道伸。直前不避。無愧古人。聖主龍興。首加獎擢。歷典二邑。治聲藹蔚。長途未聘。大限何促。偶感末疾。遂至奄忽。千里松楸。旅櫬將歸。鶴髮在堂。嫠婦何依。行路尙涕。矧余親知。逞歲仲秋。余自西還。臨門握手。情意彌勤。那知此別。便成永訣。奔走喪威。荐苦薪疾。病未診問。歿未奔赴。攀輦酌觴。亦借人手。分義掃如。余懷之悲。形留神往。哀寓于詞。

祭從祖兄鼎峯公文

惟靈。降奎壁精。鍾清淑氣。爰自蚤歲。已辨賓主。潛心講學。不得不措。餘事文章。煥然滂沛。薄遊藝苑。鉅匠喘走。戰輒鑿壘。竟債公車。人爲公惜。公獨晏如。原貧何傷。顏樂自全。蕭然茅屋。坐客無甑。獨抱遺經。惟日孜孜。講道軒爺。許心樂齋。有來樞衣。虛往實歸。縱不世用。黼黻皇猷。庶鎮一方。矜式士流。達也庸陋。蚤襲蘭薰。諄諄誨誘。實篤實勤。矧余小塾。密邇軒屏。風朝月夕。幾荷提醒。公之寢疾。余常診候。公輒語余。爾莫放了。爾勤爾學。毋余來問。眷眷之意。實出底蘊。噫彼巨慝。逼誣先賢。惟家大人。抱章叫閭。人皆惴惴。公獨爲然。余時陪往。歷月未還。曾未幾何。奄至易簣。歿未面訣。斂不躬執。罪負生平。愧恨實極。德音在耳。德容在目。不聞不見。奈何冥漠。祖車就引。挽歌先路。迅風凄其。頽景欲暮。撫膺長慟。長慟曷已。物愧菲薄。文未盡意。

墓誌

伯考司憲府監察興溪府君墓誌

聞韶縣東仙巖壬坐之麓。卽我伯父宣務郎司憲府監察府君衣冠之藏也。葬後十二年戊辰。從子侍講院左弼善知製教達道。泣而誌之曰。吾申之系鵝洲者。世居尙州丹密縣。自版圖判書諱允濡。碩德名紳。譜不絕書。歷按廉使諱祐，內府令諱光富，縣監諱士廉。至成均生員諱錫命。移卜于聞韶之元興洞。生諱俊禎承仕郎教授。生諱壽隱居樂道。前後徵辟皆不就。生諱元祿號悔堂。孝友學問。矜式後進。卒贈戶部侍郎。又旌表門閭。於公爲曾祖祖考考也。妣星山李氏。耕隱先生諱孟專之曾孫。秉節校尉諱智源之女。以嘉靖丁未。生公于元興里第。諱仙字喜之。蚤襲庭訓。孝友純至。丙子悔堂公棄世。哀毀踰制。比葬廬墓終三年。壬辰島夷發難。公與吾先君慷慨揮涕。倡起義旅。爲前進節度。議者曰強寇未易輕犯。姑且避入山谷。相機乘釁而發未晚也。公笑曰吾已決一死。勿復言。與柳正字宗介，金翰林垓。鄭進士世雅。約會于一直縣亭。分左右衛。遮截賊北來之路。賊不敢恣意剽掠。傍郡咸賴之。癸巳遭內艱。喪葬祭奠。一於禮無違。時值兵荒。人至相食。公雖在哀疚中。以捐財濟飢爲事。或至并日而炊。曠然不以爲意。仁愛之蘊。多此類也。丁酉有薦者。直授司憲府監察不赴。放閒丘園。優游自得餘十年

。P 萬曆乙卯。以疾終于正寢。享年六十有九。配宜人牙山蔣氏。判書諱成吉之後。司猛崙之女。柔嘉貞淑。得婦道甚。後公七年卒。合祔于公墓。有五男一女。男長尚道蔭判官。次泳道，次志道有文行。次敏道次師道。女適察訪李挺南。尚道有五男一女。男長塾，次壘，次埠，次埴，次墀。女適士人張用五。泳道有一男垆。志道有一男一女。男垆。女適士人朴宗獻。敏道有二男。長坤，次坳。師道有三男。長坳，次垆，次堅。李挺南有三男一女。男長慶培，次德培，次義培。女適士人蔡之湖。內P 外孫曾男女并五十餘人。嗚呼。積善餘慶。天理豈可誣耶。諸從氏請於余曰先君之墓木已拱矣。碣固未易圖。願先誌焉。余曰諾。謹次其世系來歷行蹟梗槩。納諸幽堂。至如銘。小子所不敢。以俟夫當世立言之君子云。

行狀

先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城隱府君遺事

府君諱乞字懼之。自號城隱。其先鵝洲人。鵝洲之申。自高麗始著。版圖判書諱允濡。當忠烈世。P 遇事敢言。人比之唐介。按廉使諱祐。見王氏運訖。與吉冶隱先生携歸鄉里。以至孝蒙棹楔之典。兩世事蹟。載國乘及勝覽諸書。按廉公有子曰光富。仕本朝歷敷臺省。以直諫貶爵內府令。卞春亭季良爲文以祭之曰。惟公有志如玉之潔。惟公有行如川之達。提綱栢臺。按轡南方。何忤巨奸。黜爲鐵府。蓋公實錄也。是生諱士廉彥陽縣監。是生諱錫命成均生員。有能詩聲。今月中桂詩傳于世。於府君間四世。曾祖諱俊禎承仕郎教授。祖諱壽倜儻有大節。前後徵辟皆P 不就。周慎齋先生實銘其墓。考諱元祿。孝友學問。矜式後學。世稱悔堂先生。卒贈戶曹參議。又旌表門閭。妣淑夫人星山李氏。司諫院正言耕隱先生諱孟專之曾孫。秉節校尉諱智源之女。以嘉靖庚戌九月九日生府君。賦性仁厚愷悌。自幼服習弟子之職。餘力學文。而不煩提督。自底于成。丙子參議公棄世。府君啜粥寢苦。執禮過苦。既葬廬墓終三年。構草屋數架於墓下。扁以永慕。爲終身哀省之所。時值壬辰之艱。奉淑夫人入黃鶴山中。雖當干戈搶攘中。凡P 所以便身養志之方。靡不用極。俄而聞三京失守。大駕西遷。與伯氏監察公。慷慨流涕。倡起義旅。人有不應募者。必以忠義激之。旬日之間。衆至累百人。於是推監察公爲盟主。以書約柳公宗介，鄭公世雅，金公垆。會于一直縣亭。遂分左右衛。合勢以抗賊。義聲一出。人知死所。懦者有立。恟者知勇。雖無臨陣斬馘之功。而傍近四五邑。賴以得全。實我府君贊畫之力也。翌年春。淑夫人寢疾。府君日夜禱天。願以身代。及喪哀毀幾絕。時值大亂。士大夫遭喪之家。鮮有如儀P 者。而喪葬祭奠。一於禮無違。鄉里莫不感歎。服既闋。歎曰吾所以勞心役志。爭名於得失之場者。將以爲父母榮也。今二親皆已下世。復誰爲乎。自是廢舉子業。日取洛建諸書。潛心研究。至忘寢食。癸卯因朝令。與崔訥齋撰輯亂中事蹟。完平李相公見府君所錄。斂衽推歎曰考據精博。辭理典雅。深得記事之體。真古之良史才也。辛亥賊臣仁弘秉國政。以退溪先生嘗於曹南溟，成大谷。指其病而不許以中道。乃於陞配之初。肆發誣逼之語。府君聞之憤然曰。學者於P 是非之源。毫釐有差則害流生民。禍及後世。於是推原兩先生相與之義。而攻破其說。詣闕陳疏。略曰李滉之於曹植，成運。謂之傲物輕世。老莊爲崇。難要以中道云者。非指其不仕而言。特論這箇氣像。而惜其有偏處。則其欲引而同歸於大中至正之道。亦可想見於言外矣。今仁弘妄認高尚爲中庸。謂植運受誣於李滉。而乃以科目發身。謂之依違諸世。臣聞曹植廢舉之年。是李滉已登顯秩之後。若使植早登科第。則亦可謂依違諸世乎。至以嘉靖乙巳年間。爲P 不可仕之時。若以周旋於危疑之際爲失道。則甯武子何以見稱於聖人也。李滉天資純粹。踐履篤實。其

立言著書。實有以明先聖之遺旨。示來學之模範。誠如菽粟裘葛之不可廢也。而今仁弘指以爲文學謂有陷溺淪胥之患。吁此朱子所以見誣於陽明者也。豈意今日復有此說。况曹植嘗與李滉書曰先生身到上面。又曰平生景仰。有若星斗于天。又曰無路承教於懿文之地。其爲敬慕也至矣。曹植之言。百世傳信。而親炙如仁弘。反倡異論。是非但不識李滉。且不識其師矣。噫彼仁弘。山林養望。自許太過。出一言語。思易天下。而矧今聖眷之下。心有所恃。饒筆騁辭。惑亂視聽。其流之弊。將至於滅民彝害天理。而殿下不卽辨斥。反加優許。臣等恐邪說橫流之禍。將自此漸矣。疏入廢主降旨溫諭。時羣兇滿朝。以構禍土類爲事。亦不敢以此加害。府君見時象乖亂。未嘗不扼腕長歎。令諸子不習程文曰此非士子進取之日。惟當杜門晦跡。謹言飭行。不至貽累先德可也。甲寅六月二十七日。以疾終于正寢。享年六十五。嗚呼。不肖孤尙忍言哉。府君平居莊敬自持。無疾言遽色。雖處幽獨。不設惰慢之容。追慕之心。終始不懈。每值諱辰。先期齋沐。祭需稱有無務精潔。以致如在之誠。事伯兄愛敬備至。教諸子必以義方。使之游學於先生長者之門。以冀其成立。嘗以詩勸之曰持身如履薄。操心若奉盈。毋惰又毋荒。毋忝爾所生。處於鄉黨。謙恭自牧。凡民有喪。莫不匍匐。未嘗言人之不善。未嘗與人較是非曲直。然其好惡取舍。一斷以義。不肯枉道苟合。家貧有時蔬糲不繼。而怡然自處。嘗曰吾見世人勤苦營產。以遺子孫。而有不能自守者。不知命也。遂吟一詩曰皇天皆賦命。世人不自知。安危利其灾。營營無不爲。君子知天命。修身順受之。蓋以是遺安也。蚤有經濟之志。而半世林泉。落拓不遇。杜門却掃。左圖右書。悠然有獨得之趣。晚除永嘉教授不赴。爲文取辭達。不尚鉤棘。有遺文若干篇及南亂搜聞二卷藏于家。妣順天朴氏。平陽府院君諱天祥之後。展力副尉諱倫之女。天性仁孝。事君子無違德。訓子女皆有法。與府君同年生。歿亦同年。卽四月十六日也。是歲十二月二十八日。合窆于義城縣南五土山兌向之原。子女各三人。男長曰適道。次曰達道。次曰悅道。適道。悅道聯中丙午司馬。達道中庚戌司馬。女長適士人金有燁。次適奉事任乃重。次適僉正朴宗敬。內外孫摠二十一人。嗚呼。府君之棄諸孤。今已八年。而幽堂之文尙闕焉。不肖孤等。深懼夫因此遷就。使府君盛德至行。無以顯揚於世。以重不孝之罪。乃敢撰次行業梗槩如右。將乞銘於當世之立言君子。以表墓道。以圖永久。嗚呼。昊天罔極。不肖男達道泣血謹書。

從祖兄鼎峯公行狀

公諱弘道字大中。自號鼎峯。其先鵝洲人。遠世有諱允濡。以清直顯高麗忠烈王時。官至版圖判書。有子諱祐應孝廉。官至全羅道按廉使。判書公卒。廬墓三年。其朝夕號哭處。有竹雙生。人以爲至孝攸感。事聞表其宅。今尙之丹密縣有小石刻曰孝子里者。是其遺墟也。是生諱光富。仕本朝出入臺省。遇事敢言。忤權奸貶內府令。事載卞春亭祭文中。是生諱士廉。彥陽縣監。是生諱錫命。國子上庠。以能詩名。自尙州移居于義城之元興洞。子孫因居焉。是生諱俊禎從仕郎教授。有士林重望。於公間四世。曾祖諱壽。值世昏濁。不肯就仕。丙寅後除寢郎又不赴。慎齋周先生實銘其墓。祖諱元福號靜隱。卽我王考悔堂先生伯氏也。以孝薦除獻陵參奉不赴。考諱儼。博學能文。知名當世。妣宜人一善金氏。籠巖先生澍之後。忠順衛潤德之女。以嘉靖戊午十二月庚申。生公于元興里第。始金夫人夢。有人自空下告曰今夜當生異男。背上有黑痣。其驗之。及分娩果然。見者異之。自幼澄然如玉。端嚴齊慎。不喜爲羣兒戲。五歲始受句讀。讀數篇文理自通。七歲能綴文。遇題放墨。神思川湧。往往有驚人句語。十三讀論語至顏淵問仁章。輒忻然曰學者作聖工夫。其在是矣。因作勿字旗銘以自警曰。聖言十六。一字其

機。機牙既幹。勻石必隨。夫子論仁。顏淵請事。惟此一旗。聖學赤幟。非禮之視。非禮之聽。爾其却之。非禮之言。非禮之動。爾其絕之。旗乎一麾。三軍退聽。既克進步而廝殺。旗乎一動。百體從令。亦^P能清野而堅壁。欽欽然如在行陣。惟爾之績。整整焉內守愈安。惟爾之力。旗乎爲我。使內姦外宄不得窺覷於赤城。則庶與爾翱翔乎安宅也。靜隱公見而喜之曰。他日大吾門者。必此兒也。弱冠從惟一齋金公彥璣學。甚見敬重。家東五里許有仙巖寺。公貯書數百卷。日處其中。俯讀仰思。至忘寢食。如是者四五年。學業大就。旁通學業。每試居魁。雖省闈報罷。一時儕類。自以爲不及。甲寅靜隱公棄世。公躬親殮襲。戚易備至。庚寅處士公有疾。公憂惶嘗藥。晨夜不交睫。及^P喪拚辦幾不能支。母夫人因寢疾繼歿。公號哭兩殯。哀動隣里。居喪儀節。一遵朱文公家禮。壬辰島夷發難。州鎮瓦解。我先人兄弟首先倡義。公喜曰此吾意也。卽往從之。句管軍務。如芻欄之具。餽餼之需。無不竭力贊畫。時僉使裴慶男擁大衆。竄伏山谷間。無意進戰。公書陳慶男罪狀于巡察使。請以張士珍代之。時論快之。癸巳天兵南下。供億調度。無所從出。公爲巡察使作收糧文。辭甚懇惻。於是遠近競勸。輸入軍國。賴以不乏。戊戌天將葉遊擊自醴泉移鎮于^P義城。士卒縱暴。吏民皆逃匿。公卽具狀投遊擊。其略曰大軍于役。今幾年矣。蕭條旅裝。備嘗艱苦。勞者欲騎。飢者欲食。杠夫刷馬。皆當責之於我。而蕩竭餘生。辦應無路。加以言語不達。情有所碍。暴怒既加。歐朴或及。於是老弱惶恟。婦子駭散。荷擔東西。莫顧舊業。此豈主客相安。軍民兩便之道哉。生以爲惟將官然後責立杠夫則民力可紓。惟擺撥然後許騎刷馬則田牛得全。其他糧饌容費芟藁雜物。計數分俵。節約詳定。則庶幾規撫有定。策應有經。官無騷擾之患。民^P有奠安之望矣。遊擊見書大喜。卽邀見謝曰微公安得聞此箇節拍。令部下列書將官軍兵騶從馬匹幾何。一日所需糧饌芟藁雜費幾何。成貼以付之。至如杠夫刷馬。皆有定式。自是唐軍莫之敢違。一境遂得晏然。於是公與縣人立碑頌葉公公德。公雖在干戈搶攘中。不廢存省之工。與張旅軒。徐樂齋兩先生結道義交。以資麗澤之益。樂齋嘗贈詩一絕曰聖謨賢訓日星陳。此意何須讓別人。高躅小齋淹住幸。沿洄伊洛可通津。其傾心推許如此。庚子巡察使以遺逸^P薦公于朝。公聞之感然曰是豈汨沒場屋白首無成者所可堪哉。可耻之甚也。既而有不樂于心。移卜于仙巖先隴下。杜門謝絕人事。日與諸生講學不怠。儵然有自得之意。辛亥賊臣仁弘當國柄用。將嫁禍士林。先人爲道儒倡。將抗疏請討。子弟皆危之。公獨曰斯文之變極矣。何暇顧一身禍福耶。遂力贊之。其衛斯道終始眷眷類此。公患風脾有年。至是冬疾既革。命侍者正席中堂。恬然而終。乃十二月十三日也。明年二月。葬于縣南五土山先隴下。公天資溫粹。識^P解精睿。爰自蚤歲。已知內外輕重之別。而家庭詩禮之傳。師友講劄之益。能薰陶助發。日用常行之間。非有甚高難行之事。然動靜有常。氣象安閒。自然有人不可及者。其事親也。覲省之禮。菽水之供。必誠必慎。未嘗或惰。雖細事必稟而不敢自專。其律己也。每朝整衣冠謁祠廟。端坐一室。終日對案。未嘗有疲倦之色。尤謹祭祀之禮。必前期沐浴致齋。肅然起敬。盡其如在之誠。學者衆。至誠教誨。欲其成立。如有過失。諄諄戒誘。必使遷改後已。於書無所不讀。而尤好朱子^P書。讀書之暇。手抄濂洛諸賢格言。名之曰性理彙言。以便考覽。嘗病近世喪制弊壞。遂取朱子家禮及東方諸賢答問。條分彙類。爲喪禮考證。以備家間倉卒之用。蒐輯先世狀碣諸文字。作永慕錄。又與族從梧峯之悌。議修譜牒事而未克就焉。爲文章若不經意而溫雅委備。自成一體。平生所爲文甚多。輒不用藁。只有詩文若干篇藏于家。配孫氏。月城君仲暉之後。察訪鳴世之女。柔嘉貞淑。克配君子。生子男二人女二人。男長摠克紹家聲。次墳。女長適李亨遵。次適林以^P準。嗚乎。公才足以需世。文足以贊猷。學足以矜式後進。而公既不求知於世。世無推挽之者。竟未免畸苦坎壈。齋志以沒。云亡之痛。豈特爲一家一鄉之不幸而已。梧峯嘗曰大中文學識。可作後生模範。李敬亭民成語人曰鼎翁有蘊莫售。畢命窮巷。吾輩之羞也。二公於公。爲莫逆交。相與欽慕傷惜如此。亦可因此而得公之大略矣。達道自齟齬受

鉗鎚于公。過蒙愛與。提誨之勤。至今不昧所向。實公之賜也。迺者長胤君以余承學之久。能說公餘馥。屬以序次公遺事。P義有所不敢辭者。聊据平日耳目所及。第錄如右。以俟當世之立言君子云。

梅園司空公實記

公姓司空諱精字聖執號梅園。孝靈人。遠祖諱圖。仕中朝官至諫議大夫。始東來新羅八學士之一也。及麗朝。有奉翊大夫判義寺事封孝靈君諱仲常。翰林博士號紫霞諱實。門下侍中諱敏。代出顯官。入本朝開城留守諱達。於公爲高祖。曾祖成均館事諱周。祖軍資主簿諱發。考宣務郎開城府直長諱棐。公生于中宗庚午。P而天賦純粹。貌範奇偉。年纔六歲。事親以孝。甘旨之供。晨昏之節。卓絕於人。及稍長。遭母喪。廬居遵禮。泣血盡哀。閭巷庶民。咸嘖舌而嘆曰孝哉司空某。自東國肇判以後。有若許者幾何人哉。噫誠孝之悅人心。果若是其大也。丁考直長公喪。廬墓居三年。上聞公之孝行。特除箕子殿參奉。公以學不優謝仕。退臥赤羅東老梅私第。慨然有求道之心。四字缺 踐履篤實。退陶李先生曰研精覃思。反覆熟爛。要以會諸心而見之行事。此實公之得力處也。配宜人進士P朴世胤之女。繼配宜人通德郎孫思文之女。育四男。長角通政大夫。聘金參奉琦女。次心聘李回回女。次奎聘鄭林女。次軫參奉聘尹希福女。長孫誨奉直郎司宰監僉正。聘玉山張氏。卽進士竹亭公潛之孫女也。高峯奇先生撰碑銘曰養性存心。行又恭遜。是非不說。長短何論。噫斯實錄也。余何刪潤。以備立言者採擇云爾。通訓大夫弘文館修撰。鵝洲申達道叙。

晩悟先生文集卷之九

年譜

皇明神宗萬曆四年 宣祖大王九年 丙子八月二十日庚辰。辰時 先生生于義城縣東陶巖里第。先生之先世。居尙州丹密縣。至生員公。始移居義城縣南元興洞。悔堂先生再卜于陶巖下。

五年丁丑。先生二歲

六年戊寅。先生三歲

七年己卯。先生四歲

八年庚辰。先生五歲 始受十九史於從祖兄鼎峯公。鼎峯公諱弘道字大中。以文學爲世所推重。○先生自幼俊穎特達。於羣兒中屹如也。及^P就學課讀。必先於人。坐立有常處。鼎峯公異之曰是必爲當世之大人君子矣。

九年辛巳。先生六歲

十年壬午。先生七歲 受小學。時皇考城隱公教子弟有法度。先生每早起省重闈訖。淨掃室堂。篤志向學。一言一動。皆做小學而行之。

十一年癸未。先生八歲

十二年甲申。先生九歲 讀孟子。讀至舜何人予何人。輒竦身奮然曰大丈夫立志。固不當乃爾耶。遂自述四十言。書諸手板曰皇天賦予。初無賢不肖之異。雖聖賢亦非兩口而四目。彼丈夫我丈夫有爲者亦若是。期追前脩之微躅。

十三年乙酉。先生十歲

十四年丙戌。先生十一歲

^P十五年丁亥。先生十二歲

十六年戊子。先生十三歲

十七年己丑。先生十四歲 手書程子四勿箴揭之座隅。始悔堂先生出入諸先正之門。以孝友成德。城隱公又能因其緒餘。不墜前烈。家庭授受之際。皆是古人爲己勉學之意。先生自幼已知有內外輕重之分。日取聖賢格言。潛心玩索。靡不極其歸趣。於程子四勿箴。尤反復而有契焉。

十八年庚寅。先生十五歲

十九年辛卯。先生十六歲 讀書于長川書院。先生嘗以爲士生斯世。抱負甚大。豈可以一善成名而自以爲足乎。經旨講究之暇。又嘗究知前代興亡之蹟。當世治亂之故。以措諸事業爲務。

^P二十年壬辰 先生十七歲 四月。倭寇至。陪城隱公入黃鶴山。在縣東三十里 六月間賊犯沙村。轉向清涼山 時宗丈梧峯公之悌爲宣城倅。暫往依之。 入白雲洞。在豐基郡。卽今竹溪書院。 九月還城洞。在黃鶴山中。有城洞卽事五十韻。見元集。○時城隱公倡義在外。先生能出入死生。相幾發慮。一門百餘口。賴而獲濟。 訶齋崔公 睨 來會。崔公於城隱公兩姨兄弟也。至是挈家而來。先生雖當顛沛之際。未嘗暫時廢業。人或譏之者。輒曰昔許魯齋於兵戈搶攘中。不廢學業。終成大儒。男子合做底事。豈可以世亂而遽廢乎。遂從崔公質疑問難。多所啓發。

二十一年癸巳 先生十八歲 三月。祖妣淑夫人李氏卒。祔葬于八智悔堂先生墓左。斂襲之具。葬祭之儀。先生^P躬自營辦。不貽憂於城隱公。見者莫不感歎。

二十二年甲午 先生十九歲 二月。陪城隱公還八智墓下。時賊勢稍退。城隱公奉几筵居廬焉。

二十三年乙未。先生二十歲

二十四年丙申 先生二十一歲 七月。拜月川趙先生于陶山書院。先生嘗以未及摳衣於溪門爲恨。至是聞月川先生講學于陶山。卽往拜之。月川先生一見敬重。告以溪門心學之訣。因贈詩曰千聖相傳只一心。微言尙可卷中尋。要收已放歸腔裡。誠敬關頭著力深。先生遂卽和呈。見元集。與金苟全 中清 仍留讀朱書。○月夜泛舟濯纓潭。與金溪巖冷諸公偕 與金苟全講禮書于易東書院。

二十五丁酉 先生二十二歲 七月。陪城隱公復入城洞。時賊再剽。學家奔避。弟悅道年纔九歲。脚弱不能行。先生晝夜擔負。越涉險阻。猶恐其或相遺失。爲親旨負米於桐華寺。時饑饉荐臻。人至相食。先生不憚險遠。日以負米爲業。晝則渾於行商。夜輒呶唔不輟。嘗於河陽店上誦西銘。德信正鸞壽適奉命而南。聞夜半讀書聲。邀與相見。講問經義。靡不迎刃縷解。德信正大異之。及亂定。遂以女妻之。往拜旅軒張先生于青松之涑谷。歷拜朴大菴 惺于松生。

二十六年戊戌。先生二十三歲

二十七年己亥 先生二十四歲 二月。聘夫人李氏于京師。德信正鸞壽女也。德信正號中壘。以經術見重當世。○尹相國防，黃參判致誠，李延平貴諸公。皆聘門姻戚也。見先生容貌俊偉。言行有度。無不敬服。許以國器。七月往拜德信正。德信正明於禮學。先生朝夕講質。以盡諸家同異得失之辨。十月和呈月川先生詩。月川先生寄詩曰別來消息今安否。離恨朝朝未易裁。目送歸雲天遠大。芙蓉山下首頻回。○先生和詩見元集。

二十八年庚子 先生二十五歲 二月。受詩誠于城隱公。城隱公嘗作詩誠諸子曰。持身如履薄。操心若奉盈。母惰又母荒。母忝爾所生。先生日輒莊誦耳。上月川先生書。略曰某質本庸下。性又昏懦。尋常書冊之工。猶不能自力做去。矧可望收拾本原。展拓地步。從事於古人所謂爲己之學耶。先生不知愚陋不足以進取。屢煩章牘。曲賜獎勵。其惓惓引誘之意。有足感動人者。某雖鈍根。敢不惕然警悟。慨然奮發。以竭吾才力之所至云云。

二十九年辛丑 先生二十六歲 春。築書塾于仙巖。在縣東十里先壠下。先生常病城市闐闐。且愛其水石幽絕。築小齋爲蓄書之所。扁之曰無忝。蓋取城隱公詩中義也。○有詩一律。

三十年壬寅 先生二十七歲 三月。答崔峯前詰書。崔公持論太高。先生以下學上達等語警之。

三十一年癸卯 先生二十八歲 七月。旅軒先生臨訪。時旅軒先生宰本縣 十月參鄉校朔望講。旅軒先生聚士設講。先生執經問難。屢蒙推詡。

三十二年甲辰 先生二十九歲 三月。往拜西厓柳先生。先生於途中有詩曰。何處春風座。河南花柳村。後生誠意薄。三十始登門。九月登月波亭。爲重陽會。與朴公敦復崔公詰朴公愧偕。爲晦齋先生辨誣。治疏上京。時高敬履等論五賢相傳之統。而詆誣晦齋先生。

三十三年乙巳。先生三十歲 八月中鄉解。

三十四年丙午。先生三十一歲 二月往拜梧里李相國。因省試入都 十一月月川先生訃至。爲位哭之。先生時留京。與李石潭潤雨諸公。會哭于三清洞。

三十五年丁未。先生三十二歲 正月會葬月川先生。有祭文 二月魁別試初試。○三月拜寒岡鄭先生于花山府館。○五月西厓先生訃至。爲位哭之。○七月會葬西厓先生。有挽詩 ○十月以城隱公命贊拜旅軒先生于不知巖。旅軒先生答城隱公書曰。賢胤委來請益。所謂借視聽於聾瞽者。然若因此論量。得有所警發。則亦鄙人之幸也。

三十六年戊申。先生三十三歲 二月宣廟昇遐。○上旅軒先生書。略曰年前鄙縣覺舍之會。某以故人子。獲蒙先生容接之恩。因此而出入門屏。卒受鐘籛之化。則庶可飭躬寡過。不遂爲小人之歸。而親憂連仍。道里稍間。苒苒因循。尙未供一日灑掃之役。慕德不誠之罪。無所逃矣。嚮於進見之日。略已導達微愆。伏乞先生勿以僭妄而拒絕之。收置門生諸子之列。昭示古人爲學之方。則某雖至愚極陋。謹當服膺勿失。用力不怠。其爲激厲啓發之效。有非言語所能形容者云云。

三十七年 光海元年 己酉。先生三十四歲 四月男在生。○八月中鄉解。

三十八年庚戌。先生三十五歲 三月中增廣鄉解兩試。○閏三月中生員會試。○同柳修巖 衫 拜五峯李相公。庭有晚梅未開。五峯令各賦呈。先生有詩曰晚托芳園裡。清姿迥出塵。含情未肯吐。羞與柳爭春。 四月設聞喜宴。城隱公於是日。口號小詩以警之曰。禍是福所倚。福是禍所伏。是以賢遠士。一視榮與辱。君子貴自勉。其要在勤學。又曰力學以致知。持敬以養德。尋常日用間。事事存檢飭。須先克己私。庶可無愧怍。先生佩服終身焉。 五月書西厓先生手簡後。

三十九年辛亥。先生三十六歲 正月男圭生。○七月陪城隱公上京。時賊臣仁弘當國柄用。誣逼退溪先生。城隱公爲道儒倡。抗疏^P請討之。 拜五峯李相國。○十二月哭鼎峯公。有祭文

四十年壬子。先生三十七歲 五月拜寒岡先生于蘆谷。鄭先生出示心經發揮景賢等書。○八月拜旅軒先生。

四十一年癸丑。先生三十八歲 四月拜訥齋崔公。時崔公爲鄭造所誣。被削南還。 九月送李石潭 潤雨 赴龍庭。有送別詩

四十二年甲寅。先生三十九歲 正月校正鶴峯先生文集。崔訥齋留金溪。與金洗馬滌書請焉。 四月丁母夫人憂。母夫人寢疾二年。先生晝夜扶持。嘗冀驗差劇。及喪哀號不已。 六月丁城隱公憂。^P先生荐遭巨創。哀毀幾至滅性。喪葬之禮。一遵朱文公家禮。稟于旅軒而行之。 十二月丙午。合窆于縣南五土山兌向原。既葬廬于墓側。不釋衰絰。家事一無所問。

四十三年乙卯。先生四十歲 四月伯父監察公卒。公諱仙字喜之。有士友望。壬辰倡義師。○先生躬親斂襲。無間親喪。

四十四年丙辰。先生四十一歲 八月服闋。

四十五年丁巳。先生四十二歲 二月移寓于縣南蔚馬里。在金城山下。先生見時象乖亂。將欲携家深入。爲李敬亭民戎，紫巖民寅二公所邀暫寓焉。 八月往拜德信正。○九月榜會于三清洞。會者三十餘人 十一月拜旅軒先生于不知巖。舟^P行泊吳山。謁吉治隱影幀。有次旅軒先生五絕詩。

四十六年戊午。先生四十三歲 三月薇山精舍成。先生在京時。見爾瞻等謀廢國母。歎曰人道滅矣。卽日束裝南還。入黃鶴山中。披草斬木。構茅屋三間。日處其中。以讀書窮理爲事。有時蔬糲不繼。曠然不以爲意。旅軒先生以書賀之曰近聞賢契舉家深入。此人人所願欲而未能者。殊切歆尙。耄嘗有詩云大道難容世路分。此身端合臥山雲。山雲寂寞塵寰遠。人是人非摠不聞。正合賢契所處。因謾及此。可供閑中一哂也。○有薇山諸咏見元集。

四十七年己未。先生四十四歲 五月拜旅軒先生。論理氣分合。旅軒先生出示易學圖說。仍教曰今人開口便說理氣。諸賢知理氣分合之妙乎。先生對曰理非別件物事。爲此氣之中而在此氣之所以然。自不相雜而亦不相^P離。既知其不相雜。又知其不相離。庶不悖於分合之義乎。旅軒先生曰古之聖賢。既罕言理氣。又未嘗分言理氣。析而分之者。名目之設也。合爲一體者。理氣之常也。若因其名目之分而遂以爲界別相對之物。則理氣便各自爲本。雙立并行於宇宙之間耳。理豈得爲氣之理。氣何得爲理之氣哉云云。 九月聞德信正訃。有祭文

光宗泰昌元年庚申。先生四十五歲 正月寒岡先生訃至。爲位哭之。○三月會葬寒岡先生。有祭文 歷拜旅軒先生。先生稟問聖人不制師服。但使中心喪之制。近世退溪先生之喪。禹秋淵諸賢但以布笠縞帶終三年。今日寒岡門下之服似過重。未知如何。旅軒先生答曰孔門弟子。吊服加麻。乃是師服。門下執弟子之禮者。固當如是。至於遠方未及門之人。亦爲白巾者非禮矣。 勘定鶴峯先生言行錄。錄卽崔訥齋所^P編也。屬先生磨勘。積數月卒業。 冬酬弟悅道詠懷詩。倣陳子昂感遇詩以和之。所言皆傷時憂道之意。

憲宗天啓元年辛酉。先生四十六歲 七月赴救伯氏虎溪公 適道 於龜山縣獄。時虎溪公以冰溪洞主。削方伯鄭道名於院錄。移囚被刑。禍將不測。先生涕泣奔走。情極懇惻。查官感悟。論報得釋。 九月赴哭德信正大墓。仍撰行狀。有祭墓文 十月撰城隱公遺事。○往陶山謁尚德祠。有詩一絕 歷月川書堂。有詩一絕 訪金梅園 光繼 金溪巖 玲 而還。有唱酬詩 十二月男至生。

二年壬戌。先生四十七歲 二月拜旅軒先生。先生稟問南秋江達^P可親經二姓王之句如何。旅軒先生答曰吾東文獻無徵。秋江想未詳而云爾。豈可以此而疑固隱乎。仍問曰世傳按廉使公與冶隱携手同歸云有諸。先生對曰先祖與冶隱爲道義契。見麗季政亂。并轡南下。先祖居尙州。冶隱居善山。世代已邈。今無所考證。然以勝覽所載皎潔其身。能得行藏等語觀之。傳來之言。恐不虛矣。旅軒先生再三歎賞焉。 十月送金忘窩 榮祖 赴北幕。有送別序 十一月拜旅軒先生。講質四七理氣辨。時講心經。悅道進前曰朱子以四端爲理之發。七情爲氣之發。其所爲說各有地頭。不可混而同之。比而合之否。旅軒先生答曰四端自是性觸便感。不犯私爲。故以理爲所發之主。七情或涉私僞。不能純善。故以氣爲所發之主。然七情固莫非四德之用。而四端亦非外七情而別自爲端者也。以四端言之。惻隱卽七情之愛與哀也。羞惡卽七情之怒與惡也。辭讓施於喜怒哀樂愛惡之際。是^P非別於順逆輕重之境。則其於七情之外。別有所謂四端乎。以七情言之。哀愛欲是仁之發也。怒與惡是義之發也。喜與樂是禮之發也。七者隨事隨物。感應各當。是智之發也。其於四端之外。又有所謂七情乎。先生對曰四端之發。非不資於氣。而理有以主張。七情之發。非無與於理。而氣有以用事。就其所重而分別言之者。以其所從來。各有根柢苗脉。故朱子曰七情不可分配四端。恐不必牽引配合而強爲一說也云云。

三年 仁廟元年 癸亥。先生四十八歲 元朝作自警箴。見元集 四月上旅軒先生書。略曰嚮者理氣說。援引廣博。開曉明切。實發前人所未發。後生末學。但當篤信謹守而已。何敢措一辭於其間哉。第其立言主意。未見盡合於退陶定論。此必鈍滯之甚。見得未透。不惟未曉先生剖示之義。蓋於退陶之說。猶有所未盡領會而然也。試就閒寂處。潛心積慮。反覆究索有日矣。而弟子之惑。愈往愈甚。如^P是而強其所不知。不思所以明辨而深覈之。則前面義理。卒未透得。而亦非所以奉承前後諄誘之盛意也。 送李敬亭 民戎 朝天。以書贈言 六月擢明政殿廷試第一人及第。例授成均館典籍。○七月南還。○上五峯李相公書。論時務三事 九月拜旅軒先生。時旅軒先生有持平召命。先生陪行至善山而還。 十月除成歡道察訪。驛當兩湖要衝。經亂凋弊。大臣欲先歷試白遣之。 辛丑赴任。先生夙宵料度。一以撫瘡起廢爲事。流亡四集。人畜俱盛。

四年甲子。先生四十九歲 正月哭梧峯公。之梯 ○二月答忠清監司李公 命俊 書。論點兵築城事。時逆^P适與明璉合謀反。進據慈山。李公以書問策於先生。書見元集。 上五峯李相公書。論禦賊之策 甲午大駕南幸公州。領夫馬祇迎於境上。變生倉卒。百官皆徒步從之。先生以差員臨機設策。指顧之間。聚得夫馬五百。以備儀衛。人以是益知有應卒之才。 四月上旅軒先生書。論筵中奏對 與黃朽淺 宗海 書論竹林祠追配事。初寒岡先生之寓木川也。本邑章甫稟建竹林祠。將祀朱子及濯纓矣。未及奉安而寒岡易簣。黃公仍欲追奉寒岡於濯纓之下。先生以爲儒林事體。當以道學爲主。援引朱子南康故事。退溪川谷近例。而貽書辨之。黃公竟從先生議。以寒岡配朱子。別立廟以奉濯纓。書見元集。 五月疏陳驛弊六事。一使行濫帶之弊。二人馬越站之弊。三位田陳荒之弊。四復戶遺失之弊。五奴婢點考之弊。六縣官侵擾之弊。事下該曹。^P令本道查實矯革。 重建成歡郵館。郵館荒廢多年。先生至之日。招集散隸。恢滌遺址。鳩材買瓦。始役五十日而成。○有記文。 七月棄官歸。先生宦情如寄。呈病不待報而歸。驛民鑄石以寓思。 十月除全州府判官。金溪巖寄詩曰明時宵旰軫南方。宣牧當如漢吏良。巨鎮元來湯沐邑。幕僚曾是壯元郎。平生學道君今試。疇昔論交我豈忘。殘雪暮城情思苦。病中辜負別知觴。 十一月赴任。本府素稱難治。先生撫民以惠。馭吏以嚴。凡所施設。務從便宜。一境晏然。

五年乙丑。先生五十歲 正月頒鄉約學規于境內。作文以諭之。先生嘗謂風俗之頹敗。鄉約之不行也。士習之偷薄。學規之不講也。爲守宰者。苟不留心於二者。則終無激厲作成之效矣。於是做古家塾之制。設書塾於四

面。擇定都學究一人，副學究四人。又選大夫士子弟及凡民俊秀者年十五歲以上。分置^P鄉校及四書塾。都學究以都約正兼之。副學究以副約正兼之。里有月朔之會。面有四孟之會。鄉有春秋之會。課督之方。勸懲之道。一舉并行。燦然備具。每月朔詣覺堂謁先聖。與諸生講論小學家禮等書。反復譬曉。以明體適用爲主。又置善惡二籍。勸懲如約。期月之間。一境風動。論文見元集。五月棄官歸京第。府尹李公命俊見先生屢言鄉約之難行。先生笑曰惟患不行耳。豈有難行之理哉。但此事甚重。苟非在上者至誠以措之。則徒致紛擾而無益於事。今上司之言如此。未見其可行也。卽日引疾呈辭。方伯李公溟固挽不得。至令府尹催謝而終不撓。府民大小無不遮道掩泣。儒生或有追至數百里者。先生以詩謝之曰民病未醫身病深。無端濡滯半年今。攀轅父老休勞苦。分付和扁兩副心。○先是德信正爲先生置小第於社稷洞。至是暫住留之。撰定冠禮儀節。先生以冠禮爲成人之始。遂就溫公所定儀節而參酌成書。令子孫世襲行之。

^P六年丙寅。先生五十一歲 正月付忠武衛副司勇。○四月拜旅軒先生于倉谷。時有啓運宮喪。旅軒先生因召命入都。六月陪送旅軒先生于麻田浦。歷訪李石潭金荷潭 時讓 而還。○閏六月拜刑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九月移禮曹正郎。○十月差文烈公高敬命倡義使金千鎰賜祭官。○十一月拜司諫院正言。上疏論時弊十條。兼陳修省之道。一用賢良。二擇守令。三收人心。四厲風俗。五納諫諍。六決壅蔽。七慎庶獄。八省冗官。九均貢賦。十修軍政。其末略曰殿下爰自初潛。以至爲君。仁孝恭儉之德。聞於四方。奮發乾剛。迓續大命。扶彝倫於既斁。存廟社於垂^P亡。則殿下之立志不可謂不篤矣。味爽丕顯。對越上帝。內無聲色之娛。外絕遊田之樂。則殿下之居敬。不可謂不密矣。引接臣僚。講論經義。不以盛暑而或廢。不以微恙而暫輟。則殿下之好學。不可謂不勤矣。而自古人君常患有始而無終者。其病皆在於心不能純一。不審淵涓蠖濩之中。體天謹獨之工。果能真實而無虛僞之雜。悠久而無間斷之時乎。此則殿下之所獨知。而非臣愚昧所以妄測者也。然竊自反省於施爲運用之際。則求治之意雖切而端本之工全踈。私意根柢未盡芟刈。義理路脉未盡恢拓。因循荏苒。苟度歲月。了無尺寸之效可以仰酬聖志。下慰人望者。此臣愚所以爲殿下惜之。而以殿下平日嚮道之心。亦必慨然長吁。不勝其憂懼者矣。伏願殿下先就六經之文。以究其事理之當。旁及歷代之史。以驗其得失之跡。且將洛建諸君子之書。朝夕遮眼。細心紬繹。以盡其旨義歸趣之所極。要使吾之心地開明。義理昭著。而清閑燕逸之中。必^P存戒懼之心。思慮應接之際。益加省察之功。剛健而不已。誠實而無間。則自然行解相資。動靜交養。大本立而達道行。體用合而物我一。此中和位育之極功。體信達順之成效。而臣之所陳十條。特其舉措之具耳。何患乎難行哉。疏入批曰條陳十事。無非至論。末端所言。尤爲切實。予當體念而議處焉。十二月遞正言。特旨還授。○行子在冠禮。請愚伏鄭先生行三加禮。時先生以嶺人行古禮於洛中。李梧里，李五峯及全沙西湜，趙龍洲綱，洪東洛鎬，吳竹南竣，尹公知敬，黃公辰諸賢來會。見者皆稱當時人物之盛。

七年丁卯。先生五十二歲 正月藩奴入寇。首陳親征之策。上引百官會議。教曰賊騎長驅。爲之奈何。昔紅巾賊三日入松都矣。左右皆點然。李貴對曰上教然矣。今明間若不出避。決不及矣。羣臣皆曰貴言良是。先生進曰大^P駕離都城一步。則民皆散矣。無可爲矣。亟選精銳。分據江津。親御六轡。進駐坡州。以示先人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且賊勢甚急。凡干啓筭。請勿書入。皆令臺諫面陳焉。上改容問曰此人爲誰。記事官對曰正言申某也。大司諫李蔡日申某之言。決知其不可從也。姑徐出避之計何如。上徐曰當與廟堂更議焉。甲午扈駕發都城駐通津。賊勢日急。卿宰以下爭謀自避。先生不爲動。及駕發後。始送家屬于黔川德信正別墅。合啓論延平君李貴首唱去邠。請遠竄事。大北罪人南省身等不可輕故事。并不允。○二月送弟悅道赴關東巡使幕。有贈別詩 送李石潭朴正郎 瑄 赴嶺南號召使幕。有贈別詩 合啓請諸宰臣軍官抄出防^P守事依允。○己亥陳啓請停奴營信使之行。時奴差劉海到平山。投書督和。以拒絕天朝爲辭。朝廷議遣申景禎，張維等出待。先生挺身陳啓。略曰君臣大義。天之經地之緯人之彝也。況我國之於天朝。義則君臣。恩猶父子。死生存亡。不敢有貳。雖此窮蹙靡聘之日。君臣上下。斷當慎不顧身。分據江津。克壯天塹之勢。拒絕奴使。堅定誓死之志。則彼雖莫強之敵。豈能提不萬之師。乘不習之艦。輕犯我島中乎。設或強弱異勢。危逼之禍。百倍今日。吾於君臣之間。既已無憾。則其賢於屈辱而苟存。固已遠矣。以我殿下之英武明睿。豈不瞭然於安危之分得失之機。而但爲兇鋒所迫。妖言所惑。其於守禦攻戰之策。無一事措畫。日與君臣從事於往復文字之

間。惟恐片言隻辭之觸犯彼怒。未知如此委靡。將欲稅駕何地。此臣所以失聲長慟。不覺肝膽之墜地也云云。

合啓論完城君崔鳴吉主^P和誤國請依律事不允。○再啓不允。略曰崔鳴吉債國敗事之罪。臣等已陳其大略矣。其於守禦之備。攻戰之策。無一事措畫。而斂手安坐。惟以媚奴納款爲能事。竭一國之力。以充溪壑之欲。屈千乘之尊。親接犬豕之醜。凡今廟堂之臣。均有辱國之罪。而主其事者乃鳴吉也。凡有血氣者。莫不痛心憤骨。請亟斬鳴吉。以快輿情。批曰凡事廟堂講定而行之。爾等皆歸咎於鳴吉。未曉其意也。少無可罪之事。亟停勿煩。○初啓載八松集。同三司筭救司諫尹煌。時尹公煌斥和忤上旨。有削職付處之命。三司進筭伸救。批曰尹煌之言。極爲可駭。而爾等如是稱譽。今日人心。亦難知也。爾等俱以有識之人。臣事降虜之言。不亦羞辱乎。勿爲徒責寡躬。各自潔身退去。以爲後日之地可也。○筭見元集。啓請還收司諫尹煌遞差之命依允。政院封還尹煌削職傳旨。自^P上又有遞差之命。先生陳啓。略曰尹煌之疏。出於憂憤之至情。設使措語過當。豈宜遽加威怒。摧折之挫抑之若是乎。既諒其忠貞而有悔悟之心。則尤當優容寬假。以養其直氣。又豈可遞其職而噤其口。拒塞忠諫之路乎。城門開言路塞。前宋之所以亡也。而今也則城門未開而言路猶塞。其於聖德何如。國事何如也云云。三月疏陳懲前毖後之策。及賊退。先生以不能自強。乞憐於犬羊。爲極天之憤。遂陳疏屢千言。其略曰兇醜匪茹。敢抗大邦。吞噬全遼。假氣自大。我雖危急存亡之日。其不可和也義理明矣。况以我國積累之勢。君臣上下。苟能同心戮力。以死自誓。則縱不能奮揚威武。蕩滅醜類。猶足以堅壘高壁。遏窮寇隳突之勢。而計不出此。乃反墮其術中。賂以金繒。質以王弟。束手乞憐。苟冀朝夕之不亡。從古講和。皆是無遠慮者姑息一時之計。而其軟巽苟且。未有如今日之甚者也。伏願殿下罷黜和議。獎率臣隣。積誠心以導之。立紀^P綱以振之。使中外士庶。曉然皆知聖上之心。惟在於酬怨刷耻。而了無遷延前却之態。則凡有血氣者。孰不歡欣踊躍。作心振氣。爲殿下致死力乎。奴賊聞之。未必不爲之氣挫。而目前侵凌之禍。異日摧陷之患。或可以少緩矣。夫如是則理得勢全。名正實利。其與姑息必不可成之虛計。而坐而待亡。不可同年而語也決矣云云。再疏陳急務五事。一回鑿輿。二擇帥臣。三謹防守。四節財用。五收人心。其末略曰殿下勿以賊至而輕動。勿以賊退而苟安。勿以國小而自危。勿以勢屈而自沮。究觀前史興復之主。所以處患者如何。所以自修者如何。何以使群策畢集。何以使衆才畢進。燕閒之所深思。朝晝之所猷爲。惟在於湔羞洩憤而不以宴安玩愒之心。參錯於其間。則內外之臣。亦各自勵。舉措施爲。漸有條理。何患國耻之未雪也。朱子曰沮國家恢復之大計。壞邊陲備禦之常規者。皆講和之說也。若恃一和字而志不先立。計不素定。因循頹惰。不能自強。^P則義理漸晦。人心益壞。無以存天下之大防。而治兵理財之政。皆如畫脂鏤冰。無着手處。其於酬怨刷耻之機。不浸近而逾遠矣云云。作江都即事十八詠。見元集 己丑差檄島辨誣使。時天將毛文龍駐筭檄島。構誣我國。至以交虜襲島等語。傳播遠邇。事機叵測。朝廷議遣使曉諭而難其人。兵判李公廷龜以先生啓差。辛卯辭朝。先生卽日登程。於馬上有詩日擊虜滔天計。宰臣誤國謀。東牕當日事。誰雪聖朝羞。到海州宿神光寺。與管餉使從事官崔惠吉偕。有詩見元集。四月壬寅登船。與唐差金聲通。曾天成同舟。到洋中狂風大作。人皆號哭。先生獨端坐看書。略無怖色。及風定。唐差問日公居嶺南乎。先生曰然。何以知之。唐差曰吾聞嶺南多儒者。公臨危無怖色。似有素養而然。是以知之。與接伴使元鐸同舟抵檄島。有詩見元集 龍骨^P義兵將鄭鳳壽。雲巖義兵將金礪器來見。鄭鳳壽等聞先生至來見。先生與語大奇之。謂之日將軍冒死守孤城。屢有斬獲之功。苟非忠憤積中。何以至此。惟願終始激勵。亟勦凶賊。因解所帶弓矢以給之。復命之日。具陳鳳壽等功績。又貽書松留趙公翼。關東伯崔公峴。俾助軍需。癸亥詣督府行見官禮。毛帥自薪島還。見本國咨文發怒。至有無故引賊誠心講和等語。先生進曰小邦之從事大鎮。今幾年矣。憑藉威靈。殫竭心力。誓滅此虜而後已。老爺不能無動於往來流言。不卽馳報賊情。使自爲計。又不沮遏兇鋒。少舒其急。平日倚恃之意。果安在哉。小邦之臣事天朝。已餘二百年。太祖皇帝始定封號。神宗皇帝再造邦域。式至于今。回已殄之倫。延幾絕之祚。父父子子。世世安業。皆聖天子賜。則即使小邦君臣。舉族而殉白刃。犁庭掃穴。滅虜大社。猶不足以報其萬一。忍反滅絕天常。潛與虜通謀。害我堂^P堂天朝之帥臣乎。方賊之再三脅和也。淪亡之禍。非朝伊暮。寡己猶守正不撓。峻斥虜使。至其遜辭請謝而後。姑許羈縻。以緩目前之急。此固老爺之所明知也。以是而謂之誠心講和。有若納款之爲。則小邦情事。不亦冤甚矣乎。都督乃笑曰忠順之國。豈真有此。講和之爲羈縻。我亦知之。但不可以此聞於中朝。以貽天下之譏也。

先生對曰君臣父子也。子不容有隱於父。臣不容有隱於君。小邦既迫於事勢。有此不得已之舉。則斷當畢露情愴。備陳委折。以俟聖天子處分而已。安敢爲一時耳目。回互迷藏。自陷於欺天罔日之科哉。矧今小邦遭罹。實係天下事機之會。苟於登聞之際。有一毫漫漶之辭。則中外之情志未孚。前頭之事變難測。將何以暴小邦之寃而解天下之惑乎。先是毛帥以退賊爲己功。聞于天朝。故牢諱講和之說。及奏聞使至。必欲改構奏草。先生與奏使力辨不置。辭嚴義正。毛帥知不可強。遣人稱謝。呈文督府。請送差官禁戢天兵殺掠之弊。因請刷還本國人被擄在島中者。賊之初犯也。我民多附於賊。謀害漢人。天兵因此激怒。殺戮我民。甚於虜賊。先生具陳事狀。辭極懇惻。毛帥感悟。卽差送守備金汝礪。盡還被擄在島者七百餘人。戊辰離發椴島。先生與刷還人同舟。搜聚餘餉。計口分賑。所過諸島飢民之願乞出陞者。使之登船。一體救恤。朝夕設粥。上下共之。如是者五六日。壬申泊平壤石多山下陸。○留甌山。往見都事黃瀧。得使行儲米以賑刷還人。刷還人。累日絕食。羸悴不能行。先生欲得管餉米。或本縣倉米以賑之。該倅皆托以無諸。先生正色曰此獨非我聖上赤子耶。公爲朝家命吏。忍使數千生靈。纔脫虎狼之口。又爲烏鳶之食耶。適值都事行。得米十斛以賑焉。○時賊尙留溟西。戰骨盈城。餓殍相枕。先生念國事至此。爲之慷慨流涕。其對邊鎮守領。輒以設保障置屯田數事。屢言不已。甲戌修聞見啓馳驛以聞。先生於是行。歷盡兩西。備審山川形勢。虜賊情狀。遂以逐日所見聞者。別具啓聞。甲申到海州。拜司憲府持平。先生既竣事而還。愚伏鄭先生嘗於筵中。又請調用斥和諸臣。故有是除。乙酉上疏辭。疏見元集 壬辰到坡州。再疏辭蒙允。○甲午復命。上命入侍。詢問毛營事情。仍降別諭曰申達道今行。能盡專對之職。且其縷縷所陳。無非爲國憂愛之語。特賜豹皮一領。以示嘉獎之意。六月復拜持平。○啓請都元帥張晚遠竄事。金摺朴惟建等依律事。諸宮家魚鹽船事。蘆田革罷事。甌山李復匡罷職事。并不允。啓見元集 再啓三啓並不允。因詣闕避嫌。其略曰臣愚之請竄張晚。爲後日籌邊者戒也。請誅金摺。朴惟建等。爲偷生苟活者戒也。蘆田之請罷。欲以補軍餉也。船稅之請祛。欲以除民弊也。區區憂愛之誠。自謂不後於人。而聖批一向牢拒。至於頃日所論甌山事。非惟不爲允從。至令監司行查。臣愚以爲言官不可信。則監司獨可信乎。大官有忠君愛國之心。而小官獨無忠愛之心乎。一道之內。有此可駭可惡之事。而監司不能察。其不明甚矣。臣安忍雷同欺罔。自陷於不忠之罪哉云云。○玉堂陳筭請出仕。庚戌啓論右贊成李貴詆斥言官之失。仍避嫌。時尹煌。趙綱等論勳宰驕橫之失。李貴上章詆斥。自上有臺官嚴治之教。先生卽詣臺自列曰。臺諫是非。常隨公議。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綱之疏。皆因公議而出於忠憤。非構捏陷人之論也。殿下詆斥之折辱之如此。臣恐直氣摧折。公議泯滅。危亡之禍。將不旋踵矣。且廟堂臺閣。歧而爲貳。言必矛盾。計必枘鑿。不知協和朝廷。而只要和好胡虜。不知攻擊胡虜。而惟務排擊臺諫。夷狄侵凌。甲兵不多。非今日之憂也。朝廷不和。腹心受病。將至於不可救藥。此誠今日之所大憂也。臣既參於尹煌論列勳臣之啓矣。又參於趙綱除出四大將軍官屬於體府之疏矣。臣之罪戾。殆有甚於尹煌。趙綱。請命罷斥臣職。因左右相引避。有先罷後推之命。時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啓辭中廟堂臺閣歧貳語。一時引避。上大怒。下備忘記日副司直申達道以悖妄之言。愚弄朝廷。侮辱相臣。使大臣不安厥位。此誠前古所無之事也。極爲駭惡。姑爲先罷後推。憲府及左右相陳筭請收成命。並不允。大司憲鄭經世。執義鄭弘溟等筭曰臣等伏見申某避嫌之辭。多有過當之語。而原其情則不過書生憂國之餘。不暇擇言而已。豈有愚弄朝廷之意哉。既罷其職。又下嚴旨。至有推問之命。甚非聖明優容臺諫之道也。臺諫之以言遞去者。非止一二。臣僚之間。已有以言爲戒之憂。今日之教。摧折又甚。言路所關。恐傷聖德。請還收申某先罷後推之命。答曰申達道侮辱相臣。厥罪非細。爾等如是救護。殊甚不當矣。此習不懲。國不國矣。更勿煩擾。左右相聯名筭曰臣等尸居難冒之狀。已悉於前筭。而臣等於此又有所大懼者。申某縷縷所陳。無非憤世之懇言。救時之至論。而今因臣等引避之故。遽降無前之教。不但有損於聖上容諫之義。拒塞言路。實自臣等啓之也。伏乞還收成命。以便公私焉。答曰大臣如是失體。朝廷之不尊無足恠也。推考之命。不必還收。陳推考公緘。有奪告身之命。其略曰以今日國事言之。流離傾覆之餘。苟緩目前之禍。而賊情日益驕橫。國勢日益岌岌。民生困而兵不可調。財力竭而糧不可峙矣。雖使上下同心。大小協力。相須相倚。如頭目手足之爲。尙恐無救於淪亡。况今朝著之間。無奮發振作之意。有震撼擊撞之漸。寅協

之義。或歎於具瞻之位。猜疑之形。已兆於振綱之地。秦越交馳。冰炭難容。交傾互軋。紛紜度日。至使君父孤立於上。無一可恃爲經遠之謀。豈不爲之大可寒心哉。矣身雖極譴劣。旣任言責。不忍負吾君於將亡之日。適因避嫌之章。略陳愚滯之見。而言辭拙直。不能酌淺深之宜。遂致相臣引避。聖批嚴峻。終使愛君之忱。反歸虛地。憂國之誠。轉成禍階。惶恐實越。覓死無路。然以此謂愚弄朝廷侮辱大臣而爲矣身之罪則千萬曖昧云云。己未陳再推公緘。上命更推。先生秉直不撓。再供與初無異。愚伏鄭先生貽書曉諭。先生答書略曰下諭縷縷。誠荷見念之切。然區區所論。竊自附於盡言不諱之義。因此而削籍投荒。固所自分。若以鼎席之引避。聖批之嚴峻。而不能固守己見。張皇失措。爲俯仰可憐之態則罷軟極矣。壬戌因玉堂陳筭。始收奪告身之命。筭略曰臣等伏見前持平申某頃日避嫌之啓。蔓引不當引之言。自不覺其侵及廟堂。引避之辭。固不宜如是。言之失中。果有之矣。然其本心出於憂時憤激。言不知裁。若謂之愚戇則可也。謂之有心而發則似涉深文。而推考照律之際。憲府以私罪照啓。使殿下終未免罪言者之歸。豈不惜哉。臣等此言。非爲一申某也。實欲啓將來忠諫之路耳。伏願殿下還收申某奪告身之命。答曰令憲府更爲照律可也。○先生直聲振朝野。嘗與尹趙二公。共斥和議之非。至是又交章力爭。終始不撓。世以三學士稱焉。七月挈家南還。作歸去來曲以見志。詩見元集。○先生之歸也。沙西全公湜與先生書曰。日昨鳳鳴。令人增氣。但南歸殆急。不幾於悻悻歟。雖遲三數日。何害於義也。惟在自反縮不縮如何耳。愚伏先生與悅道書曰賢仲氏大言時弊。忤時相意。竟以此卷懷而歸。中心慨然。不但爲蕙歎之私也。其爲一時諸賢所推重如此。○築晚悟齋於禾谷。在縣西十里。有水石之勝。先生嘗愛其幽曠。疏蒼蔚樹花卉。爲早晚棲息之所。至是營立數間屋子。扁之曰晚悟齋。因有詩曰閱盡驚波與險山。晚來方覺世途難。堪憐五十年間業。拋却安排放浪間。十二月拜旅軒先生于不知巖。先生以前後疏草。奉進旅軒先生。覽訖歎曰士君子一生事業。盡在是矣。撰先祖按廉使公遺事。

毅宗崇禎元年戊辰 先生五十三歲 正月。叙拜禮曹正郎。○二月差德安二陵奉審使。○癸丑辭朝。○丁巳躡鐵山關。歷安邊到咸興。各有詩見元集 辛酉奉審陵寢。轉拜崔訥齋于會寧匪所。時崔公遭仁居變謫居焉。三月回咸興。遊樂民樓。有詩見元集 到安邊遊駕鶴樓。有詩見元集 丙子復命。疏陳西路飢氓流入關北狀。請發軍儲以賑之。其略曰西土之民。新經大亂。瘡痍未起。而轉壑之憂。一至於此。亟發列邑軍實以賑之。固無不可也。或者曰軍餉所以備不虞。不可輕施。臣以爲不然。國家之所恃者民。有事則民盡兵也。無事則兵皆民也。何可以兵民異視。而爲軍兵日後備。使斯民盡劉於目前而莫之恤也。且西北之地。素稱肥饒。而兵凶之餘。田功全廢。沿路所起墾殆不能十之一。雖當豐年穰歲。其有呼庚之歎一也。宜令道臣。貧民之不能資業者。隨便助力。流民之無所依賴者。大備農具。分屯勸農。如曹操許下屯田之法。則實爲及時拯濟之策。而異日足食足兵之道。未必不基於此矣。上嘉之。令廟堂議處。議竟不行。丁丑拜世子侍講院文學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自是凡除拜。皆兼三字銜。四月拜鄭愚伏。託子在從學。○七月移拜持平。以兩司通避遞免。時悅道以冬至使書狀官兼監察赴京。因此辭遞。尋還拜文學。上疏再辭。不允。疏見元集 辛未送冬至正使宋公克訥朝天。有送別詩 壬申送弟悅道朝天之行於弘濟院。有送別序 八月三度呈辭蒙遞。以病未卽南還 甲寅請按廉使公碣文於鄭愚伏。○乙卯拜侍講院弼善。上疏辭不允。疏見元集 九月丁卯入侍書筵。○戊辰入侍書筵。講義伏不傳 參會盟宴。策寧社原從勳一等。推恩贈考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贈妣淑夫人。○十月乞暇焚黃南還。○十一月行子圭冠禮。請柳修巖行三加禮 十二月陞拜司諫院獻納旋遞。時愚伏先生新掌銓軸。首以先生薦進。答金潛谷 堉 書。金公知先生有難進之意。貽書勸起。答書見元集。尋拜司憲府掌令。在道辭。○答鄭愚伏書。其略曰台鑑新掌銓衡。誠宜廣求賢俊之士。使之更進迭入。匡輔闕失。而今此甄拔之舉。首及於病廢無用之物。某之被人笑罵。姑置勿論。獨不有損於大君子任官擇人之義。而乖聖朝慎簡之規。缺四方拭目之望乎。伏乞台鑑以平日眷愛之深。切勿更相掇拾。置之散地。俾畢餘生於丘園。則其恩輕重當如何也。答趙龍洲 綱 書。見元集 撰伯父監察公墓誌。

二年己巳。先生五十四歲 正月行焚黃祭。有告辭 二月拜旅軒先生。時旅軒先生有召命。拜成均館直講不赴。○五月拜獻納不赴。○六月拜掌令。被召還朝。敬亭李公贈詩曰清時言路爲難選。公論終歸草野賢。噴玉驂騮來月窟。嘶雲鸚鵡上秋天。激昂人物須端本。振肅朝綱有糾愆。白首自憐多病久。愁心一倍向秦川。 七月啓請諸宮家免稅革罷事。陽陵君許禧遠竄事。并不允。啓見元集 丙申啓請還收羅萬甲付處張維補外之命事。并不允。啓見元集 啓請前慶源府使金大乾拿推事。捕盜大將李守一罷職事。依允。啓見元集 啓請鐵山府^P使金得振遞差事。依允。啓見元集 八月諸宮家免稅事。連啓不允。因避嫌。先生以宮家免稅。爲民國巨瘼。陳啓至十八度。辭益剴切。其略曰惟我殿下以上聖之姿。啓中興之運。百工仰德。四方承風。將何事之不可做。何弊之不可革哉。凡於政令之間。一以大公至正之道處之。庶可使朝廷尊重。邦本鞏固。而今乃區區委曲於私恩小惠之際。不計民生之疾苦。不念國計之虛耗。不顧衆論之紛紜。必欲使諸宮家任其所爲。充其所欲而後已。臣等所謂蔽於私情者。果是過激之論乎。既蔽於私。而不知所以裁之。則惟此一念。潛滋暗長。有如火之炎炎。泉之涓涓。終於燎原而滔天。因此而馴致危亡之禍。亦理勢之必至也。殿下非惟不能虛受。發怒於蔽私危亡等語。前後聖教。愈往愈嚴。至有臣子所不忍聞者。不審聖明本源地。有何偏滯之病。而辭氣之失平若是也。豈以今日居臺閣者。皆非其人。而^P不顧分義。敢欲責難於君。斯爲僭妄可罪者耶。抑以爲一事之私。豈必至於亡國。而無難發口。強聒不舍。斯爲狂誕可責者耶。易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淪亡之兆。衰替之漸。人皆見之。而殿下少無憂懼之念。但思姑息之計。欲使群下粉飾太平。務爲豐亨豫大之言。其於安危保存之道。不亦左乎云云。 癸亥入侍。啓請兵曹判書李貴罷職事。不允。其略曰日日筵中。兵曹判書李貴詬辱左議政金塗。至以爾瞻比之。使塗果有爾瞻之罪則貴之言是也。塗安敢在相臣之位也。貴之言誣也。貴豈可免搆誣大臣之罪也。誣辱大臣於殿下之前。而殿下無一可否語。臣未敢知其以李貴爲是耶。其以金塗爲是邪。貴是則塗非。塗是則貴非。天下豈有兩是之理哉。貴之搆誣而殿下不爲呵責。塗之陳箴而殿下優容以答。是殿下兩是之也。金塗，李貴俱有旋天浴日之勳。其再造宗社之功則一也。而殿下既^P以塗置之相位。則貴安敢挾勳驕恣。搆誣相臣。凌蔑朝廷。至於此極也云云。 哭李敬亭。有挽詩 丁丑呈辭還鄉。○十月拜獻納。被召還朝。上疏陳遇災修省之道。因辭職不允。疏略曰願殿下主敬以立其基。窮理以致其知。一念之發也。必先察之曰此果出於天理之公乎。一事之應也。必先思之曰此果合於義理之正乎。勿爲私欲所汨蕩。勿爲外誘所擾奪。不敢有一毫放過。不敢有一刻間斷。勉焉孜孜。至於積真之久。則方寸之地。廓然大公。儼然至正。措之事業。無所爲而不如其志。何畏乎天災。何有乎民怨哉。又曰臣聞先儒之說曰惟學可以養此心。惟親近君子。可以維持此心。近因玉候違豫。不接臣僚凡幾日矣。臣固知聖德天成。無藉乎諸臣薰陶之力。而深宮獨處之中。親愛狎昵之際。安知無天理漸消。人欲漸長之慮乎。方今聖體尙欠康復。風日漸迫寒冷。雖不^P能開筵進講一如平日。而時於靜攝之暇。引入侍從喉舌之臣。未須講書。只要從容相對。或討論經旨。或商確機務。不惟於涵養本原之工。有些裨益。其於導宣壹鬱開納陽明之道。亦未必無補矣。上賜批優納焉。 十一月。呈辭南還。歷拜蒼石李公 垞。李公贈詩曰昨君纔向西。今君還向南。方圓不相入。利祿非所貪。但學孤鳳鳴。寧作秋蟬啞。上不明主負。下不吾心慙。風塵萬轍奔。丘壑一瓢甘。眼看一世間。惟君獨奇男。 十二月撰鼎峯公行狀。

三年庚午 先生五十五歲 正月。與道伯李龜厓 溟 書。有正士趨厲民俗等語。 二月哭金鶴湖。奉祖。有挽詩。 拜旅軒先生于南山。時旅軒先生遭夫人喪。 三月拜掌令。被召還朝。○四月啓請罷遣豐呈妓樂事。依^P允。其略曰今日國事之危急。比先朝太平之時。爲何如也。此非調習妓樂處以宴安之時。而該曹回啓必欲抄置意見所在。臣實未曉也。况豐呈既行之後。到今仍留。亦甚無據。無論成才與否。請并命罷遣。參弘文館錄。先生以直道見忤於世。至是始參瀛選。公論稱快。 伸救桐溪鄭公。蘊 仍避嫌。時鄭公因求言。請復仁城官爵。兵判李貴以臺論之不卽峻發。詆斥言官。先生以爲因求言抗疏。固無不可。獨啓伸救。因避嫌。答曰勿辭。退待物議。○玉堂處置命出仕。○啓見元集。 五月丁未。詣臺又避嫌。初以鄭公事。諸臺齊會。執義趙緯韓欲請加罪於鄭公。先生曰因求言抗疏。本無可罪之事。亟停請罷之啓宜矣。趙又言鄭疏中宮闈不嚴女

謁盛行八字。不當言之於盛時矣。先生曰女謁盛行。成湯所以自責也。憂明之戒。自是無妨。與趙不合而罷。至是陳啓避嫌。答曰勿辭。○啓見元集。戊申鄭桐溪罷職事。合辭停啓。從先生議也。辛亥入侍朝講。講說命 壬子入侍晝講。○癸丑入侍晝講。○啓請宮家折受查禁事。尙州牧使宋碩祚罷職事。并依允。啓見元集 癸丑啓請竹山軍民徙邊事。依允。啓見元集 甲寅啓請禁斷公私賤投屬內需司之弊事。嚴批不允。○乙卯再啓。又承嚴批。○丙辰詣臺避嫌。前後啓見元集。諫院啓請出仕。丁巳啓請兵曹堂郎推考事。依允。其略曰反正之初。臺諫請禁女人之出入關門者。盖有所懲創而痛革之也。自上快賜允俞之教。近日防禁隨弛。無籍女人之冒禁出入者罔有紀極。其流之弊。何所不至。兵曹之官。閤禁是察。而專不檢飭。難免惰職之責。請該曹堂郎從重推考。移拜掌樂院正。○七月呈由。由水路南還。與裴都事尙益，洪撚龔同舟。有詩一絕曰千里長江片帆開。終南山色碧崔嵬。沙鷗自是忘機物。應笑斯翁謾去來。九月參都堂錄。○十一月膺灣尹薦。時北憂日急。備堂齊會。議薦灣尹可堪才。月沙李相公薦先生。

四年辛未。先生五十六歲。二月拜獻納不赴。○答趙渚浦翼書。論關西移鎮事。三月拜掌令。被召還朝。先生自頃遭罹。益切難進之意。且宿患漸痼。將欲杜門靜攝。至是除旨連降。先生愀然曰吾既出身事主。豈以病勢之難強。偃臥田廬。以重違慢之罪乎。遂力疾登道。歷九日而始達都下。上疏論追崇事。仍辭疾不允。時玉堂請寢追崇。上震怒。并命拿鞠定罪。先生因陳疏。略曰殿下之欲爲追崇。發乎尊親之至情。而公議之以爲不可者。欲殿下之止於禮也。人臣事君。貴乎以禮。如使言無可否。事無是非。而惟殿下之從。則將安用玉堂爲哉。臣聞之。君子不以親親害尊尊。親親恩也。尊尊義也。義之所在。恩有所屈。今茲之舉。其於親親之道。固可謂至矣。而第未知十分無害於尊尊之大經大法乎。昔曹魏之制法也。有日後嗣有由諸侯入奉大統者。不得顧私親。朱子於綱目特書與之。盖恐以恩掩義也。聖上既以支孫入奉宣祖之統。所生之當爲私親。其義皦然。而誠孝所蔽。不自知其爲過。必欲行曹魏所不爲之事。臣竊傷之。答曰已悉於諸臣之批矣。爾其勿辭。調理察職。四月己酉呈辭蒙遞。○五月丁亥。拜軍資監正。尋拜弘文館修撰。上疏辭不允。時先生調病休暇。而聞命卽起曰。吾起自寒門。歷敷清顯。揆分度義。感淚自零。遂引疾呈辭不允。○疏逸不傳。丙申疾革。移寓城西阿峴。○六月甲寅。金荷潭，趙龍洲諸公來問。時賊犯清州。先生聞之憂嘆。遂力疾微視曰。北憂孔棘。願諸公同心協輔。弘濟艱難。則某雖死。與有榮矣。荷潭退語人曰傳云忠臣死不忘君。其申君之謂乎。有夢中詩。次示諸子。先生雖氣息凜綴之中。存省惕厲之意。不容少弛。嘗於晝夢。吟成一絕曰。殤短彭脩只一間。不須忻憾死生間。朝聞夕可宣尼訓。惟在熊魚取舍間。覺後命子在。口號書之。仍次其韻以勉之曰。道非虛寄寤冥間。不出吾人日用間。却向平平蕩蕩去。分明至理在那間。實屬續前一日也。十四日丙辰。卯時考終于寓舍。變生倉卒。時無尺布斗粟。李五峯，趙龍洲，金東溟世濂，沈晴峯東龜，俞公省曾，韓公汝漫，尹公煌，洪公瑞鳳，李公燾，尹公新之，尹公燾諸公。各發文出力。實主斂襲。終始無憾。○訃聞上震悼。令該曹別致賻物。上下教日修撰申某正直方剛。有古諍臣之風。未克大施。凶聞遽至。曷勝驚悼。特命該曹優給喪需。仍令沿路出給擔軍。甲子奉柩還鄉。卿宰以下奔走來問。其哭甚哀。江頭護送者三百餘人。七月初四日壬申。永窆于縣西梧桐山卯坐之原。校院儒生操文致祭會葬者數百人。孝廟戊戌。以淑夫人李氏附。丙戌八月。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

識[申悅道]

余狀先生行累千言。惟立朝言議之見於章奏者外。平日治心制行之節。並未及詳焉。乃敢收召散精。別爲年譜一通以附之。先生五十年出處首末。於是乎大略備具矣。然其氣宇冲澹。風度凝遠。於和樂中有毅然不可犯之象。於嚴正中有薰然可親近之意。則終不能形容其萬一。是爲重可憫已。丙申南至節。弟悅道投淚謹識。

晩悟先生文集卷之十

附錄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通訓大夫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晩悟先生行狀。[申悅道]

公諱達道字亨甫。自號晩悟。鵝洲人。高麗時有版圖判書諱允濡。以直諫著稱。生諱祐。全羅道按廉使。父卒廬墓泣血。有雙竹抽于墓前。事聞旋閭。生諱光富。仕本朝。出入臺省。遇事敢言。忤權姦貶爵內府令。於公間七世。自是代有聞人。曾祖諱壽。隱居求志。前後徵辟皆不就。慎齋先生實銘其墓。祖諱元祿。出入諸先正之門。以孝友成德。世稱悔堂先生。卒贈戶部侍郎。又旋表門閭。考諱乞號城隱。有士林重望。嘗抗疏論鄭仁弘誣賢之罪。以公參寧社勳贈左承宣。妣順天朴氏。贈淑夫人。展力副尉倫之女。參判安命后。實有令德。克配君子。以萬曆四年丙子八月二十日庚辰。生公于縣東陶巖里第。自幼岐嶷異凡兒。五歲從從祖兄鼎峯公弘道始受句讀。坐立有常處。不以寒暑違尺寸。鼎峯公心偉之。七八歲通孝經四子。不待強教。日漸開益。嘗自述四十言曰皇天賦予。初無賢不肖之異。雖聖賢亦非兩口而四目。彼丈夫我丈夫。有爲者亦若是。期追前脩之徽躅。又手書程子四勿箴。揭之座壁。出入觀省。蓋其發軔之初。立志之分已如此。壬辰島夷發難。公年纔十七。躬自負米於數百里之外。以資菽水。有時出入死生。相機發慮。一門百餘口。賴而獲濟。丁酉賊再獠。舉家奔避。弟悅道年纔九歲。脚弱不能行。公晝夜擔負。越涉險阻。猶恐其或相遺失。行路爲之感歎。時南土剝於兵。饑疫仍之。人皆救死不暇。不知讀書之爲何事。公能發憤自勵。雖行商逆旅間。輒以書籍自隨。未嘗暫刻放過。自經傳子史。以至洛建諸書。無不淹貫而有自得之妙。發而爲文。汪洋自肆。無敢禦者。嘗赴宣城。聞月川趙先生講學于陶院。負笈從之。趙先生嘉其年少篤志。告以溪門心學之訣。因爲詩勸之。公自是慨然以求道爲己任。轉拜西厓柳先生。往來質疑。亦幾數歲。及二先生歿。復遊旅軒張先生之門。講論四七理氣分合等說。張先生深敬重之。庚戌陞上庠。甲寅夏荐丁內外艱。哀毀幾至滅性。居喪節度。悉用文公家禮。服既闋。見時象乖亂。入黃鶴山中。構數間矮屋。杜門却掃。一以讀書求志爲事。有時蔬糲不繼。曠然不以爲意。天啓癸亥。聖主龍興。公於是起應廷對。擢第一。卽補成均館典籍。朝中大夫士爭來賀之。許以國器。是冬成歡郵丞缺。大臣欲先歷試公才。白遣之。歡當兩湖要衝。凋弊甚。至則校講利害。廢置得宜。上下責應有緒。不數月而郵卒大蘇。明年正月。李适反。直逼京師。上夜出崇禮門。南幸公州。變生倉卒。百官多徒步從之。公以差員。指顧之間。聚得夫馬五百。以備儀衛。人以是益知有應卒之才。及上還都。投印南歸。冬除全州判官。州大而劇。素稱難治。公才長於治繁。性又公廉平恕。不繩而吏戢。不怒而民戒。不規規於簿書期會之末。而事自辦集。一境晏然。至是歎曰有國一日。不可一日無教化。而今之爲守宰者。漫不加之意。何怪乎民俗之日壞。士趨之日渝乎。於是就藍田呂氏鄉約，朱子白鹿洞規而酌古參今。諭告鄉井。使之次第舉行。每月朔。詣黌堂。與諸生講論小學，家禮等書。行之半年。庶幾有風動之漸。旋有不樂于心。引疾棄歸。州民大小遮道掩泣。或有追至數百里者。丙寅除刑曹正郎。遷禮曹。冬拜司諫院正言。上疏陳時務十條。曰用賢良。曰擇守令。曰收人心。曰厚風俗。曰開諫諍。曰決壅蔽。曰慎庶獄。曰省冗官。曰均貢賦。曰修軍政。又以修省之說。申告

于終日。殿下爰自初潛。以至爲君。仁孝恭儉之德。聞於四方。奮發乾剛。迓續大命。扶彝倫於既斃。存廟社於垂亡。則殿下之立志不可謂不篤矣。昧爽丕顯。對越上帝。內無聲色之娛。外絕遊田之樂。則殿下之居敬不可謂不密矣。引接臣僚。講論經義。不以盛暑而或廢。不以微恙而暫輟。則殿下之好學 P 不可謂不勤矣。夫以我殿下仁孝之姿。篤實之志。居敬勤學之工又如此。則庶幾聖德日隆。至治可興。而自古人君。常患有始而無終者。其病皆在於心不能純一。不審淵涓蠖濩之中。體天謹獨之工。果能真實而無虛僞之雜。悠久而無間斷之時乎。此則殿下之所獨知。而非臣愚昧疎遜所得而妄測者也。然竊自退省於施爲運用之際。則求治之意雖切而端本之工漸弛。善惡邪正之幾。未盡判焉。是非得失之辨。未盡精焉。因循荏苒。苟 P 度歲月。了無尺寸之效。可以仰酬聖志。下慰人望者。此臣愚所以爲殿下惜之。而以殿下平日嚮道之心。亦必穆然深思。慨然長吁。不勝其憂懼者矣。伏願殿下先就六經之文。以究其事理之當。旁及歷代之史。以驗其得失之跡。且將洛建諸君子之書。朝夕遮眼。細心紬繹。以盡其旨義歸趣之所極。要使吾之心地開明。義理昭著。而清閑燕逸之中。必存戒懼之心。思慮應接之際。益加省察之工。剛健而不已。誠實而無間。則自然行解相 P 資。動靜交養。大本立而達道行。體用合而物我一。此中和位育之極功。體信達順之成效。而臣之所陳十條。特其舉措之具耳。何患乎難行哉。疏入。上答曰條陳十事。無非至論。末端所言。尤爲切實。予當體念而議處焉。既遞特旨還授。丁卯正月。奴賊陷義州。都城洶懼。上引二品以上及三司多官會議。有一勳宰首唱幸蜀之策。公進言曰大駕離都城一步。則民皆散矣。無可爲矣。亟選精銳。分據江津。親御六轡。進駐坡州。以示先人 P 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上爲之改容。徐曰當與廟堂更議焉。未幾扈駕入江都。時胡差劉海到平山。貽書督和。以拒絕天朝爲辭。廷議欲許之。公挺身力爭曰君臣大義。天之經地之緯人之彝也。況我國之於天朝。義則君臣。恩猶父子。死生存亡。不敢有貳。雖此窮蹙靡騁之日。君臣上下。斷當憤不顧身。拒守江津。克壯天塹之勢。斥絕虜使。堅定誓死之志。則彼雖天下莫強之敵。豈能提不萬之師。乘不習之艦。輕犯我 P 島中乎。設或衆寡異形。強弱殊勢。危逼之禍。百倍今日。吾於君臣之間。既已無憾。則其賢於屈辱而苟存。固已遠矣。以我殿下之英武明睿。豈不瞭然於安危之分得失之機。而但爲兇鋒所迫。妖言所惑。其於攻戰守禦之策。無一事措畫。日與羣臣從事於往復文字之間。惟恐片言隻辭之觸犯彼怒。不知如此委靡。將欲稅駕何地。此臣所以失聲長慟。不覺肝膽之墜地也。又與司諫尹煌。極言完城君崔鳴吉主和誤國之罪。朝著爲之悚然。及賊 P 退。以不能自強乞憐於犬羊。爲極天之憤。遂陳經國撥亂之策累千言。其略曰兇醜匪茹。敢抗大邦。吞噬全遼。假氣自大。我雖危急存亡之日。其不可和也義理明矣。況以我國積累之勢。君臣上下。苟能同心戮力。以死自誓。則縱不能奮揚威武。蕩滅醜類。猶足以堅壘高壁。遏窮寇隳突之勢。而計不出此。乃反墮其術中。賂以金繒。質以王弟。束手乞憐。苟冀朝夕之不亡。從古講和。皆是無遠慮者姑息一時之計。而軟巽苟且。未有如今日之甚 P 者也。方其與賊議和也。大小羣情。且喜且懼。喜者幸其無事。懼者慮有後患。而虜使纔退。憂者少喜者多。舒緩寬縱。略與平日無異。如此者未必不以羈縻爲一毫可恃之道。然以臣策之。賊之敗盟再動。近則數年。遠不過五年。但未必今冬與明春耳。苟不於此時。孜孜矻矻。不遑寢食。以爲自強之策。則廟社必至丘墟。民庶必至魚肉。臣妾必至奴虜。地坼天崩之慘。有不忍言。思之及此。寧不凜然寒心也哉。伏願殿下罷黜和議。獎率臣隣。積 P 誠心以導之。立紀綱以振之。使中外士庶曉然皆知聖上之心惟在於酬怨刷耻。而了無遷延前却之態。則凡有血氣者。孰不歡欣踴躍。作心殫誠。爲殿下致死力乎。奴賊聞之。未必不爲之氣挫。而目前侵凌之禍。異日摧陷之患。或可以少緩矣。夫如是則理得勢全。名正實利。其與姑恃必不可成之虛計。而坐而待亡。不可同年而語也決矣。又陳急務五事。一回鑾輿。二擇帥臣。三謹防守。四節財用。五收人心。其末略曰殿下勿以賊至 P 而驚動。勿以賊退而苟安。勿以國小而自危。勿以勢屈

而自沮。究觀前史興復之主。所以處患者如何。所以自修者如何。何以使羣策畢集。何以使衆材畢進。燕聞之所深思。朝晝之所猷爲。惟在於湔羞洩憤。而不以宴安玩愒之心。參錯於其間。則內外之臣。亦各自勵。舉措施爲。漸有條理。何患國耻之未雪也。朱子曰沮國家恢復之大計。壞邊陲備禦之常規者。皆講和之說也。若恃一和字。而志不先立。計不素定。因循頽墮。不能自強。則義理漸晦。人心益壞。無以存天下之大防。而治兵理財之政。皆如畫脂鏤冰。無著手處。其於酬怨刷耻之機。不浸近而逾遠矣。豈不大可懼哉。公之前後疏語。切中時務。而一未見施。識者恨之。時蝦島帥毛文龍構誣我國。至以交通北虜。合勢襲島等語。播告軍門。事將不測。朝廷議遣使諭之。月沙李相國以公啓差。蓋極一時之選也。公承命入蝦島。毛帥就見本國咨文。發怒曰爾國反咎我不援乎。爾國人欲甘心於我。無故引賊。賊纔犯境。卽與之誠心講和。亡恩悖理。莫此之甚。孰謂爾鮮禮義之邦。公進言曰小邦之從事大鎮。今幾年矣。憑藉威靈。殫竭心力。誓滅此虜而後已。老爺不能無動於往來流言。不卽馳報賊情。使自爲計。又不沮遏凶鋒。少紓其急。平日倚恃之意。果安在哉。小邦之臣事天朝。餘二百年。太祖皇帝始定封號。神宗皇帝再造邦域。式至于今。回已殄之倫。延幾絕之祚。父父子子世世安業。皆聖天子賜也。卽使小邦君臣舉族而殉白刃。犁庭掃穴。馘奴大社。猶不足以報其萬一。忍反滅絕天常。潛與虜通謀。害我堂堂天朝之帥臣乎。方賊之再三脅和也。淪亡之禍。非朝伊暮。寡君猶守正不撓。峻斥虜使。至其遜辭請謝而後姑許羈縻。以緩目前之急。此固老爺之所明知也。以是而謂之誠心講和。有若納款之爲。則小邦情事。不亦冤甚矣乎。天地神明。實所鑑臨。非可誣也。都督乃笑曰忠順之國。豈真有此。講和之爲羈縻。我亦知之。但不可以此聞於中朝。以貽天下之譏也。公對曰君臣父子也。子不容有隱於父。臣不容有隱於君。小邦既迫於事勢。有此不得已之舉。則斷當畢露情愫。備陳委折。以俟聖天子處分而已。安敢爲一時耳目回互迷藏。自陷於欺天罔日之科哉。先是毛帥以退賊自爲己功。聞于天朝。故牢諱講和之說。及奏聞使至。必欲改構奏草。公與奏使力辯不置。辭嚴義正。毛帥知不可強。遣人稱謝。辭退時。呈文陳本國人民被擄入島狀。辭甚懇惻。毛帥感悟。盡還男女老弱七百餘人。公於是搜聚餘餉。計口分賑。所過諸島飢民之願乞出陸者。并使之登船。朝夕設粥。一體救恤。如是者五六日。既到甌山。使本縣供之。太守不肯。公正色曰此獨非我聖上赤子耶。公爲朝家命吏。忍使數千生靈。纔脫虎狼之口。反爲烏鳶之食耶。卽日馳見都事黃瀧。請得使行儲米十斛以賑之。時賊尙留湏西。戰骨盈城。餓殍相枕。公念國事至此。爲之慷慨流涕。其對邊鎮守領。輒以設保障置屯田數事。力言不已。嘗見鄭鳳壽。金礪器於島中大奇之。爲之語曰將軍冒死守孤城。屢有斬獲之功。苟非忠憤積中。何以至此。惟願益自激勵。亟樹奇勳。因解所帶弓矢以給之。又悶其兵匱食乏。思所以措畫。而力不可及。則痛詆備邊諸宰之不能及時建策。坐待必至之禍。不自知其言之過也。公於是行。歷盡兩西備審山川形勢奴賊情狀。遂以逐日所見聞者。別具啓聞。所言皆固邦保民勦亂刷耻之策。上嘉之。以持平召還。既復命。又降別諭以獎之。公自是愈益感激傾倒。知無不言。言無不盡。其論張晚。李復匡。金摺。朴惟建事及諸宮家魚鹽船稅蘆田之弊。皆是時所陳啓者也。會尹煌。趙綱等論勦宰驕橫之失。上怒有臺官嚴治之教。公卽詣臺自列曰臺諫是非。常隨公議。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綱之疏。皆因公議而出於忠憤。非構捏陷人之論也。殿下詆斥之折辱之如此。臣恐直氣摧折。公議泯滅。危亡之禍。將不旋踵矣。且廟堂臺閣。歧而爲二。言必矛盾。計必柄鑿。不知協和朝廷而只要和好胡虜。不知攻擊胡虜而惟務排擊臺諫。夷狄侵凌。甲兵不多。非今日之憂也。朝廷不和。腹心受病。將至於不可救藥。此誠今日之所大憂也。臣既參於尹煌論列勦臣之啓。又參於趙綱請罷四大將軍官之章。則臣之罪戾。有甚於尹煌。趙綱。請命先斥臣職。於是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啓辭中有廟堂臺閣歧二語。一時引避。上大怒。特命公先罷後推。大臣兩司請收成命而不允。玉堂進筭然後還收奪告身之命。公嘗與尹趙二

公。共斥和議之非。至是^P又交章力諍。言甚截直。世以三學士稱焉。七月引疾南還。作歸去來曲以見志。崇禎戊辰。拜禮曹正郎。承命赴咸興。奉審德安二陵。還朝之日。疏陳西路飢氓流入關北慘不忍見之狀。其略曰西土之民。新經大亂。瘡痍未起。而顛壑之憂。一至於此。朝廷若不及時拯濟。則涸轍餘氓。決無保命之望。令廟堂亟發列邑軍實以賑之。固無不可也。或者曰軍餉所以備不虞。不可輕施。臣以爲不然。國家之所恃者民。有事則民盡兵也。無事^P則兵皆民也。何可以兵民異視。而爲軍兵日後備。使斯民盡劉於目前而莫之恤也。宋建隆中。楊泗大饑。沈倫使吳越。歸請貸軍儲百餘萬斛以賑民。宋祖卽命發廩貸之。此可謂深知兵民一體之義。而今日荒政之所當師法也。又曰西北之地。素稱肥饒。而兵凶之餘。田功全廢。沿路所起墾。殆不能十之一。雖當豐年穰歲。便同無麵之餽飪。其有呼庚之歎一也。宜令道臣知委列邑。貧民之不能資業者。隨便助力。無至失農。流民之無所依賴者。^P別於閒曠之地。大備田具。分界勸農。如曹操許下屯田之法。使之自食其半。官取其半。則實爲安集拯濟之良策。而異日足兵足食之道。未必不肇於此矣。上嘉之。令廟堂議處。議竟不行。未幾拜世子侍講院文學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秋移拜持平。以兩司通避遞免。還拜文學。因陞弼善。兼三字緘如故。以病辭免。冬拜司憲府掌令。病未赴召。己巳春。拜成均館直講。又拜司諫院獻納。尋移掌令。公以恩數重沓。黽勉趨召。嘗入^P侍。有一勳宰侵侮大臣於筵中。辭甚倨。公以爲大臣見侮則朝廷不尊。朝廷不尊則國非其國。發論劾之。同僚莫不縮頸汗下。遂引疾遞歸。冬又以掌令還朝。上疏陳沿路飢荒之狀。遇災修省之道。其略曰人主一心。與天地流通。善惡吉凶之符。甚於影響。而今日災異之酷。饑饉之慘。至於如此。臣有以窺殿下端本之工。猶有所未臻其極而然也。願殿下裁決庶務之暇。不廢講學之工。主敬以立其基。窮理以致其知。一念之發也。必先察之曰^P此果出於天理之公乎。一事之應也。必先思之曰此果合於義理之正乎。勿爲私欲所汨蕩。勿爲外誘所擾奪。勉焉孳孳。至於積真之久。則方寸之地。廓然大公。儼然至正。無有私邪之蔽。而措之事業。無所爲而不如其志。何畏乎天災。何有乎民怨哉。又曰經筵人君講學之所。接賢士大夫之地。則固不可一日廢也。而近因玉候違豫。不接臣僚凡幾日矣。臣固知聖德天成。無藉乎諸臣薰陶之力。而深宮獨處之地。親愛狎昵之際。安知無^P天理漸消。人欲漸長之慮乎。方今聖體尙欠康復。風氣漸迫寒冷。雖不能開筵進講一如平日。而時於靜攝之暇。引入侍從喉舌之臣。未須講書。只要從容相對。或討論經旨。或商確機務。則不惟於涵養本原之工。大有裨益。其於導宣壹鬱。開納陽明之道。亦未必無補矣。上賜批優納焉。庚午春。以掌令被召還朝。夏參弘文館錄。時前大司憲鄭公蘊因求言請復仁城官爵。三司交章彈劾。重臣或有請施重律者。公以爲因求言抗疏。實無可論之罪。通于同僚。遂^P爲停啓。公論謹之。嘗論內需寺公私賤投屬之弊。自上有未安之教。公遂陳自劾之章曰殿下非不知內寺濫觴之弊。而既不能痛絕其根本。又曲爲之發難回護。以爲拒諫之資。無非臣等愚戇固滯。言不知裁。以致殿下蔽於私意。摧折言者之失。請命遞斥臺諫。未幾移掌樂院正。公知世之不可有爲。因疾南還。溫理舊業。悠然有終老之意。然每聞孽虜驕橫。廟謨顛倒。輒爲之深憂永歎。或至當食廢箸也。辛未又拜掌令。有旨促召。公強疾趨朝。時^P玉堂陳筭。請寢追崇。上震怒。并命拿鞠。公陳疏曰殿下逢天之怒而莫之懼。遇民之怨而莫之省。及加嚴譴於論思之臣。夫殿下之欲爲追崇。發乎尊親之至情。而公議之以爲不可者。欲殿下之止乎禮也。人臣事君。貴乎以禮。如使言無可否。事無是非。而惟殿下之從。則將安用玉堂爲哉。臣聞之。君子不以親親害尊尊。親親恩也。尊尊義也。義之所在。恩有所屈。今茲之舉。其於親親之道。固可謂至矣。而第未知一毫不背於尊尊之^P大經大法乎。昔曹魏之制法也。有日後嗣有由諸侯入奉大統者。不得顧私親。朱子於綱目特書與之。蓋恐以恩掩義也。聖上既以支孫入奉宣祖之統。所生之當爲私親。其義皦然。而誠孝所蔽。不自知其爲過。必欲行曹魏所不爲之事。臣竊傷之。遂遞爲軍資監正。未幾拜弘文館修撰。公以直道見忤於世。被堂選屢年。

始得調拜。輿論稱快。以病滿三十日辭。至是症勢日篤。卿宰踵相來問。公力疾微視曰北憂孔棘。願諸公同心夾輔。弘濟^P艱難。則某雖死。與有榮矣。金尙書時讓退語人曰傳云忠臣死不忘君。其申君之謂乎。六月十四日丙辰。考終于城西客館。享年五十六。嗚呼哀哉。公器度宏遠。拔出等夷。操履謹嚴。動遵繩墨。雖倉卒擾攘之際。未嘗爲疾言遽色。雖燕居閒處之中。亦未有惰容戲言。光明俊偉。屹如嶠嶽。一見可知其爲碩德君子也。蚤有大志。不肯隨俗取功名。從事乎古人近裏着己之學。每鷄鳴而起。盥櫛衣冠。省兩親訖。退處一室。危坐讀書。日有課程。嘗曰學^P問之道無他。只在日用彝倫之間。就其大者言之。忠與孝是也。人能於此勉焉。則思過半矣。凡係事親之道。靡不用其極。及居憂。終三年日再省墓。哭必隕絕。不以風雨凍暑或廢。晚年嘔血之疾。實媒於此。每值諱辰。先期齋沐。雖滌濯烹飪之節。親自看檢。不委之人。將事之際。哀慕號痛如始喪之日。先考嘗有詩誡公。泣語兄弟曰吾等不孝無狀。蚤失庭訓。願今所當自勉者。其不在於茲詩乎。終身佩服而謹守之。伯氏長於公二歲。事之如父。每^P從外還。先省然後始就私室。伯氏嘗任冰溪洞主。見方伯鄭造題名院錄。既去卽墨削之。造大怒。移囚將窮治。公涕泣奔走請以身代。辭甚懇惻。造亦感動。不能加害。人謂伯氏嫉惡之風。仲氏急難之義。可謂兩得之矣。弟悅道少愚駘。公諄諄誨誘。先近小以及遠大。嘗曰做事須先立志。志苟不立。小事不可做。况大事乎。又曰居敬窮理。不可偏廢。若徒知講學而無居敬工夫。則所講終非己有矣。教諸子。重晨昏定省之禮。謹男女內外之別。以至^P飲食衣服步趨唯諾之際。亦必使之恪謹有矩度。而尤以立志向學。求古聖賢爲事。居鄉接物。謙厚信順。不以親疎有間。恤人之窮。急人之困。惟恐不及。然見其有邪佞鄙瑣之態者。心非而面斥之。以故鄉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亦憚畏焉。平居沉默自持。不露圭角。至其論大事決大疑。高着眼目。剖辨如流。聽之者不覺斂衽推服。性恬介。於勢利。一切斂避。及贅德信公子之門。左右媼戚。多貴顯長者。無不傾心推誦。而公絕不交遊。彼若有問。^P裁謝而已。於書無所不讀。而尤篤信朱子書。非甚病。未嘗一日去手。一生所受用。盖多朱書之力也。自少留心經濟之業。講學明理之暇。喜看歷代史志。上下數千年間。政教風俗理亂興喪之蹟。兵民財用強弱虛實之勢。靡不淹貫揣摩。參驗考據。要以發之事業。施之當今而後已。及夫聖明革蠱。首霽科第。則尤以經略自負。其在州郵。以革弊善俗爲務。其在臺閣。以格非繩違爲主。建策於危急之日則當宁爲之動色。專對於憂疑之際則^P妖帥爲之愧屈。謂大義不可不明而忠憤堂堂於斥和之章。謂民生不可不恤而誠意懇懇於賑饑之疏。至其論勳宰驕橫之失。斥宮家折受之弊。則不爲威惕。不爲利屈。謇謇諤諤。堅執不撓。或章數十上而不已。公可謂隨。遇盡職。而毋負臣人之義矣。夫以公雄偉之識。正大之學。亢棘之操。匪躬之誠。上可以佐明主致太平。下足以範末俗牖後學。而纔通清顯。衆怒叢集。未及卷懷。大限旋促。使公平日大有爲之志。曾不能少試其萬一。時耶命^P耶。將安所歸咎哉。仍竊念公自丁卯以來。慨然有爲國家酬怨雪耻之意。前後獻言。無慮數十餘篇。率皆明白剴切。有以質幽鬼而暴天下。且其規畫施設。密而不踈。信而有徵。政合折衝樽俎之規。而當時宰相。狃於和議。無一人白用公策。如魏相之於趙營平者。馴致丙丁城下之變。豈不哀哉。今讀一二遺疏。其至言格論。直與唐之陸敬輿。宋之李伯紀。異世而同符。後之尚論之士。必有掩卷流涕者。而亦可因此而識公德業經術之大略矣。嗚^P呼痛哉。公之歿也。上下教曰修撰申某。正直方剛。有古諍臣之風。未克大施。凶聞遽至。曷勝驚悼。特命該曹別致賻儀。仍給沿路擔軍。洛中大夫士無論識與不識。皆曰正士亡矣。奔走出力以斂之。及柩還。江頭護送者三百餘人。公娶宗室女爲夫人。世祖大王玄孫德信正諱鸞壽之女。生三男二女。男長垚。後改名日在。以薦授司憲府監察。次圭文科禮曹佐郎。次堊未仕。女長適士人尹以觀。次適參奉朴忠基。諸孤遵公之志。克紹家聲。^P俱以文學知名當世。意者天之福善之道。其有待於後日也。以沒之年十二月二十四日。葬于義城縣南梧桐山兌向之原。後以公嘗錄寧社功。追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嗚呼。余之生後公十四歲。公不以不肖。常加提獎。雖頑愚無所成就。而所以濡染鞭策。不迷於所嚮者。皆公之賜也。今則公不在世。余亦老白首。追念昔日墳篋之樂。未嘗不潸焉出涕也。迺者諸孤請以紀德之狀。顧此昏弊。何足以形容得盡。但朝夕審識之餘。實有他人所未及知者。且恐因此遷就。遂成長逝之恨。聊記平日耳目所及出處行業之梗槩如此。以俟夫立言君子之採擇云。崇禎癸巳仲春。弟前行司凜寺正知製教悅道泣書。

墓碣銘[李玄逸]

公諱達道字亨甫。鵝洲人。嘗自號晚悟。其上世有諱祐。當高麗王氏時。爲湖南按廉使。是於公間八世。曾祖諱壽。屢除陵署郎不起。祖諱元祿。贈通政大夫戶曹參議。考諱乞。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家世以清直孝友稱於鄉里。妣順天朴氏。展力副尉倫之女。以萬曆丙子八月某甲生公。自幼岐嶷異凡兒。及知讀書。不待強教。日漸開益。自底于成。年才十七。屬壬辰之變。饑饉荐臻。人相食。公躬親商販之役。使舉家得免捐瘠之患。丁酉賊復肆毒。南土震擾。人皆蒼黃奔避。公弟掌令公時在穉齡。脚弱不能行。公扶携擔負。經涉險阻。猶恐其或相遺失。其友愛之篤如此。時寇盜充斥首尾七八年。經生學子莫不解體。無意親書冊。公性勤有識慮。雖當造次顛沛之際。暫有餘閒。未嘗去書不觀。發爲文章。汪洋滂沛。渾渾無涯涘。庚戌入太學補上舍生。甲寅夏。荐罹荼毒。居喪儀節。一以禮無憾。服闋值世昏亂。杜門從所好。天啓癸亥。仁祖改玉。公於是對廷試策。擢爲第一。冬由成均典籍。出爲湖西成歡丞。郵當孔道凋弊甚。公至則校講利害。施罷得宜。征賦就簡。民力以蘇。明年甲子。李适反。車駕出幸公州。公當倉卒之際。策立夫馬。捷應機會。人益知公有應卒之才。适敗死。大駕還都。公於是解印綬歸。是冬拜全州判官。州爲湖南劇邑。素稱難治。公既才長於治繁。性又公廉平恕。吏民畏而愛之。未幾以病辭免。丙寅轉刑禮二曹正郎。俄遷司諫院正言。上疏陳時弊。上嘉納焉。丁卯正月。狄人來侵。上召大臣諸宰三司多官。問控御之策。有一勳宰首發幸蜀之議。公進言曰願殿下駐節坡州。奮揚威武。以示先人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上曰當與廟堂商度爲之。及車駕幸江都。公扈從之。每有論啓。直斥和議之非。又陳經國撥亂之策累千言。時毛帥文龍爲椴島守將。聲言朝鮮交通北虜。將欲襲取椴島。傳播遠邇。事機叵測。朝廷議遣使曉諭。難其人。公適膺是選。承命入毛營。乃謂朝鮮事大國。如子事父。不宜有此。辭情懇款。毛將感悟。疑盡釋。於是刷還本國人在島中者累百人。既又歷陳關西守令賢否及清川以北形勢便宜。使僉從馳驛以聞。上嘉之。以持平召還。會臺諫論勳臣驕橫不法狀。上怒甚。有嚴治臺諫之命。公挺身獨啓。其略曰臺諫常持公議。爲人主耳目。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綱之疏。皆出公議。非構捏陷人之論也。殿下詆斥之折辱之如此。臣恐直氣摧折。公論泯滅。危亡之禍。將不旋踵矣。且廟堂臺閣。歧而爲二。言必矛盾。計必柄鑿。夷狄侵凌。甲兵不多。非今日之憂。腹心受病。將致危亡之禍。此誠今日之憂也。於是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其有廟堂臺閣歧二語。連章辭避。上怒特先罷公職。大臣三司交章陳劄。還收成命。於是公直聲振朝野。崇禎戊辰。由禮曹正郎爲侍講院文學兼知製教。遷司憲府持平。轉弼善。以病免。尋拜掌令。辭不就。明年春。由成均直講爲司諫院獻納。仍移掌令。承召還朝。有一勳臣侵侮大臣於筵中。辭甚倨。公以爲凌蔑大臣則朝廷不尊。論劾不置。一時權貴莫不側目。冬復拜獻納。疏陳遇災修省之道。言甚切直。上皆嘉納。遂移疾遞職還鄉里。庚午又拜掌令。力疾還朝。前大司憲鄭公蘊。因求言請復仁城官職。三司交章彈劾。重臣或有請置極典者。公以爲因求言盡所懷。實無可論之罪。遂發論停啓。公論

躋之。仍遞掌令。旋拜掌樂正。謁告還鄉。益無意仕進。辛未三月。又以掌令趣召。公黽勉造朝。時玉堂以請寢元宗大王祔廟事忤上意。并命致重究。朝著震懾。公乃啓曰殿下之欲追崇本親。雖出至情。廷臣據法以爲不可者。欲殿下止乎禮義也。如使不問可否。惟君之所欲爲。則將安用論思之職爲哉。遂遞爲軍資正。俄遷弘文館修撰。病不得謝恩。以六月丙辰。遽啓手足。享年五十六。上聞之悼歎。令該司致賻如儀。朝之大夫士。莫不奔走來吊。其哭皆甚哀。於是上令沿道各邑給輿卒歸其家。以卒之年十二月壬申。葬義城縣南梧桐山兌向之原。公娶宗室女爲夫人。世祖大王五世孫德信正諱鸞壽之女。在家習聞詩禮之教。及笄歸于公。奉公姑事君子。既孝且敬。有事賓祭。必誠必慎。壺彝闈範。罔或不虔。宗族稱其賢。鄉里服其德。後公二十八年。卒于其第二子圭高靈任所。戊戌正月七日也。享年七十三。以某月某日。穿公墓而合葬焉。以公嘗錄聖功。追贈公承政院都承旨。夫人亦封淑夫人。有子男三人女二人。男長曰堽。後改名曰在。司憲府監察。次曰圭司諫院正言。季曰整。女長適士人尹以觀。季適參奉朴忠基。監察生三男四女。男曰夏錫，晉錫，殷錫。女長適士人朴世輝。次適士人李公翼。次適都承旨李東老。次適府使成碩夔。正言無子。以兄子晉錫后。有一女適士人李碩觀。整生四男二女。男休錫，泰錫，賁錫，禮錫。女長適士人李洙。次適兵使張漢相。夏錫生一男曰濂生員。晉錫生二男曰浣，淑。殷錫無子。只有二女。休錫生二男一女。男長曰德涵進士。次德泳。泰錫生一男一女。男曰德漢。賁錫生四男二女。男曰德演，德養，德澄，季幼。禮錫生三男一女皆幼。玄孫男女凡十六人。公弟悅道亦登文科。官至掌令。以文行知名當世。公天資甚高。充養有道。不以世俗利害得喪爲忻戚。自在童孺時。便以忠孝大節自期待。其讀書爲學。必以講明義理。砥行立名。見諸行事爲務。旁及前古興亡之蹟。當世治亂之故。將欲斟酌古今。舉而措之。及筮仕以來。職思其憂。其在郵丞州佐。去害興利。果辦傲絕。其在栢府薇垣。遇事盡言。有犯無隱。至於臨危建大策則論議堂堂。正合折衝禦侮之規。至論國家本根安危之計。則既信且徵。有若燭照而數計。雖位不通顯。未盡展布。亦可謂毋負臣人之義矣。蓋公嘗遊趙月川，張旅軒兩先生之門。得聞君子立身行己之要。其淵源來歷。實亦有所自云。公之曾孫上舍生濂。將欲刻銘墓石。具著聲蹟。以其曾叔祖掌令公之狀。授玄逸曰請爲銘。玄逸謝非其人。上舍君要責不置。遂序而銘之曰。

君子所貴。惟剛與直。陰柔巽懦。乃德之賊。有偉申公。抗志勵節。爰初歷試。牛刀鷄割。擢列霜臺。弗媚而悅。當宁動色。貴彊氣奪。及贊征謀。奇偉卓絕。羣疑衆猜。左牽右掣。計雖不用。人仰壯烈。晚節陳謨。憂深語切。位不滿德。莫究厥施。在公奚憾。後人之悲。桐山之原。宰如其宅。刻文茲石。嗣慶是篤。

墓誌[申悅道]

公諱達道字亨甫號晩悟。鵝洲人。上世有版圖判書諱允濡。按廉使諱祐以忠孝著稱。自是世有聞人。曾祖諱壽。實有隱德。前後徵辟皆不就。祖諱元祿。以至孝篤學贈戶部侍郎。世稱悔堂先生。考諱乞。有士林望。贈左承宣。妣順天朴氏贈淑夫人。參判諱安命后。展力校尉諱倫女。公幼岐嶷嗜學不待勸。嘗自述四十言以見志。十餘歲已通經傳子史。爲文辭蔚然有古作者口氣。及長歷拜月川趙先生，西厓柳先生。得聞陶山心學之訣。又從旅軒張先生講質理氣分合等說。萬曆庚戌陞上庠。甲寅荐遭內外艱。廬墓終制。服既闋。見時象乖亂。携家入黃鶴山中。一以讀書求志爲事。天啓癸亥。聖主改玉。起應廷對擢第一。卽補成均館典籍。冬有大臣言。出爲成歡郵丞。施罷得宜。人畜俱盛。明年賊適反。大駕南

遷。公以差員。立辦夫馬五百。捷應機會。人皆多之。冬拜全州判官。設鄉約立學規。慨然有挽回世道之志。未幾引疾棄歸。丙寅除刑禮曹正郎。冬拜司諫院正言。疏陳時弊十事。未復推言修省之實。上皆嘉納。丁卯春。又拜正言。時清兵猝至。上會臣僚議去邠。公請固守都城。進兵親征。上爲之改容。及扈駕入江都。力爭講和之非。仍陳酬惡雪耻之策累千言。計雖不用。識者韙之。時毛帥文龍守蝦島。以引賊襲島^P等語。構誣我國。公奉命入毛營。善辭應對。毛帥遂感悟。盡還本國人擄在島中者。既又歷陳兩西形勢。奴賊情狀。馳驛以聞。上嘉之。以持平召還。及登對。又降別諭以獎之。時臺諫論勳宰驕橫之失。忤旨見罷。公卽詣臺自列。極陳其失。以語逼廟堂。左右揆一時引避。上大怒。特命拿推。於是直聲振朝野。世稱三學士。蓋指尹公煌，趙公綱及公也。翌年春。拜禮曹正郎。往審德安二陵。既復命。仍疏陳西土飢民流入關北狀。請依宋祖楊^P泗故事。發軍儲以賑之。仍拜侍講院文學兼知製教。秋移持平。尋還文學陞弼善。冬拜司憲府掌令不赴。己巳歷成均館直講，司諫院獻納。復拜掌令。承召還朝。有一勳宰侵侮相臣於筵中。公以相臣不尊則朝廷不尊。上章彈之。人爲之竦然。冬又以掌令召還。因求言上疏。陳弭灾恤民之道。上優批答之。庚午又拜掌令。停大司憲鄭公蘊合啓。參弘文館錄。旋拜掌樂正。因疾還鄉。辛未復拜掌命。上章論追崇之失。言甚切直。未幾^P移軍資正。又拜弘文館修撰。以病再疏辭。卒於京師。上聞之悼歎。別致賻儀。且令沿路護喪。反葬于本縣梧桐山西麓乙坐之原。公生於萬曆丙子。至卒之歲崇禎辛未。享年五十有六。娶宗室德信正鸞壽女。生三男二女。曰在徵衛率。曰圭文科佐郎。曰整未仕。女適士人尹以觀，參奉朴忠基。嗚呼。公學可以牖後。德可以範俗。仁足以尊主庇民。而既斬其位。又厄其年。使大有爲之志。萬不一施。天之所爲。謂之何哉。諸孤請余誌幽堂。余非其人。略記其世系子女履^P歷大槩如右。嗚呼。余尙忍誌公之墓耶。余之誌。曷足以不朽吾公耶。痛哉痛哉。崇禎丙子後二十一年丙申二月日。弟前行司導寺正知製教悅道泣而謹誌。

祭文[鄉校儒生金尙琦等]

惟靈。經濟之姿。天人之學。夙承庭訓。知所用力。及登師門。承受有的。該知與行。由博以約。亦豈忘世。時值昏濁。斂迹窮山。永矢不告。聖人中興。射策第一。公視欷然。衆望愈蔚。薄試州郵。旋登臺閣。官無大小。隨遇盡職。遄歲^P丁卯。瀋奴豕突。人皆姑息。公獨憤骨。前後獻策。字字腔血。于時毛帥。誣我罔測。公乃飲冰。一言昭析。在道陳啓。憂深語切。王庸嘉乃。寵以華秩。公益感遇。有懷必達。危言竭論。凜凜斧鉞。謂大厥施。俾惠邦國。晉塗纔關。大限旋促。壽未徵仁。位不滿德。厥理茫茫。誰因誰極。吾黨末學。得被容接。有事先稟。有疑必質。公今已矣。誰復啓發。典刑漸邈。景慕彌篤。敢將輿誠。式薦菲薄。惟靈不昧。尙冀昭格。

祭文[冰溪書院儒生李德遵等]

^P嗚呼公乎。胡至此境。公之趨召而行也。人皆舉手相慶。公之舛櫬而返也。人皆失聲長慟。豈非公一身存歿。關國家之安危時運之陞降者耶。嗚呼公乎。天其喪斯。國勢之艱危。誰將扶之。夷狄之侵凌。誰復憂之。士論之或是或非。後學之有昏有愚。亦將於何就正而質疑耶。嗚呼。風松雪竹。宛然當日清齋。玉質金姿。已矣此生更陪。萬古長辭。一哭單盃。

祭文[崔暉]

嗚呼。世有行之方德之厚守之固。而事親以孝。事君以忠。處兄弟以友。交朋友以信者。斯不謂善人乎。孔子曰善人。吾不得以見之矣。善人之難得也如此。幸得見於亨甫。而今也則亡。吾安得不悲乎。同余悲者。世復有幾人。而我則老矣。永不得復見如亨甫。白首同居。死生相託之約。何先負之遽耶。吾生險巇。濱死者幾許。而貽君之憂。又復有幾。朔雪咸關。君爲我行。慘然相別。以笑代哭。春寒京洛。非君有意於宦情。而黽勉扶病。遠涉危途。君雖不言。我知君爲我而作行。促君之病。我實使君之。君病日劇。我不能在君之側救君之病。而一脫危機。棄君南還。君誠以父視我。而我不能視君猶子。遺恨無窮。而慟亦無窮也。茫茫乎得罪於天。而壽且福者何限。何君之三世爲善。孝友傳家。不襲天畀。而反不祐於天耶。以君兄弟。聯芳并美。羽儀清時。人皆謂積善降祥。可必乎天。而今也不幸。才不大施。壽斬五十。人將謂可必之天。竟不可必。而怠爲善之心。無振作之氣。噫天將何以勸人之爲善也。嗚呼。吾聞君子死而爲星辰爲雲霓。衆人則不然。安知世間之樂。特一夢幻。而乘白雲入帝鄉。游乎大空之上。與我悔堂叔城隱兄侍側洋洋。俯視濛濛之人世。是誠真樂也。若然則爲亨甫而不幸者。誠惑矣。而我之悲。亦可以少洩矣。靈其有知。入我夢而相告。以解我悲惑也。

祭文[李民奐]

嗚呼哀哉。端重之容。剛方之氣。吾不得而復見矣。正直之言。慷慨之論。吾不得而復聞矣。天乎天乎。既賦公如此之才之美。而胡嗇公以黃耇期頤之壽乎。哀然舉首。聲振文闈。屈跡置郵。剗弊蘇繭。貳棘雄州。游刃恢恢。翱翔臺府。一鶚秋天。有犯勿欺之志。難進易退之風。不惕於威。不吐於剛。人皆信其大有展布。那知一疾。遽至於此。茲豈非命耶。民奐年相若也。居相近也。又有葭莩之親。公不以不如己而見遺。平生過從之樂。塤唱而箎和。蘭臭而金斷。豈料今日。棄余而先逝。公嘗謂曰朴拙之性。仕宦非樂。早謝簪笏。誅茅於金城之麓。與吾子杖履相從。此吾之志。方鳩材營造。何人事之不如意。一至此哉。嗚呼哀哉。家兄之喪。未踰數暮。公又繼逝。踽踽此生。尙寐無覺。疾病侵尋。吾能有幾。倘相從於地下。庶不負於初約。公其知耶。執爵一痛。萬事已矣。嗚呼哀哉。

祭文[俞省曾]

嗚呼我友。南士之特。其德謙謙。其儀抑抑。夷考言行。疇非可則。我友檢身。表裏無間。親炙巖齋。私淑溪門。以直而養。其立如山。我友處家。敦百行源。鄉隣服義。宗鄙穉仁。制行之篤。古罕其倫。我友莅民。不負所學。庠揭鹿規。鄉修藍約。來歌去思。令聞采赫。我友事君。堯舜其志。首陳大本。次及要務。前後所言。字字肝肺。靖康之和。濮廟之議。出自廟堂。牢不可破。我友一言。衆皆動魄。嗚呼我友。古之遺直。不爲利疚。寧爲勢怵。道與世違。名升已屈。我友今來。謂多裨益。尺疏纒投。宿疾遽革。大廈去樑。長城掃堞。胡不百年。以重王國聖上惻怛。善類啜泣。嗚呼我友。與我同庚。臭味雖殊。形骸兩忘。如膠在漆。若塤和箎。我友亡矣。我將疇依。孰勸我善。而責我非。白髮殘年

。嗚呼曷歸。憑屍長慟。其知不知。一酌告訣。天地悠悠。

祭文[黃以亨]

嗚呼。天之何爲使仁者不得其壽乎。貪夫狼子皆得其老。而正人賢士不長其年。則寧爲愚狼而長生乎。其將抱道以夭折乎。噫君子之死。不朽者名。命雖云短。其存者長。彼衆人之名隨身歿。不終歲而無孺者。何足與議。然則吾於公之沒。似無恨焉。嶺之南七十州。固士君子之冀北也。而公於其間。粹然拔出。如^P玉之潔。如金之剛。長途馳騁。孰與敢衡。晚際昌辰。首擢崑第。栢府薇垣。春坊玉署。靡清不踐。靡要不歷。公之志不可謂不遇矣。屹立朝端。遇事敢言。使時人後輩。知朝廷有人。公之道不可謂不試矣。訃聞而聖心斯惻。贈賻有加。柩還而卿宰奔走。挽誄相屬。亡論識與不識。莫不咨嗟嘆惜曰正士亡矣。公之哀榮。至此而極矣。然而猶爲公慟惜者。以其曾藏天人之學。腹蘊經綸之具。而年虧大耋。位厄卿相。卒使頹綱不得整其紐。後學不得蒙其^P惠。此豈但一方一時之不幸而已。况今邦國多難。醜虜橫肆。吞噬邊鄙。潛懷荐食。噫丁卯議和。公實斥之。駐駕式遏。是公所畫。而筭與時違。終莫之售。若聽公計一二。豈復有今日之侵凌乎。嗚呼。使天假公數年。委以籌邊毖後之策。則庶幾漠北無王庭。而不幸今也則亡。此所以重爲國家痛惜者也。亨以庸陋。猥廁姻親之列。慕公德義之日久矣。魁偉之容。正大之論。常欲不違乎心目。而千里落落。勢有所不能。有時夤緣承誨。自不覺斂衽起^P敬。非僻之心。不敢萌焉。是豈以聲音笑貌而強勉一時者之所能及哉。迺者公之被召還朝也。宿疾已革矣。而病蟄鄉廬。事不從心。竟不能躬執湯爐。少酬平日眷義之萬一。悠悠天地。此恨曷極。丹旌素纓。泛彼中流。碩德頎姿。何由更接。文不盡意。哭不盡哀。臨江大號。萬古長辭。靈其知耶其不知耶。嗚呼哀哉。

祭文[兄適道]

嗟嗟余弟。棄我而先。莊重之容。純粹之姿。正直之氣。超邁之論。吾不可復得而見而復得^P而聞矣。昔我兄弟。獲戾于天。歲甲寅。疊遭終天之痛。子子餘生。形單影隻。白首相托。惟我三人。奈何奇禍荐臻。喪威連仍。季嫂之喪。鄭壻之歿。任妹之逝。俱在於去年之內。至今年又哭君焉。嗚呼。吾未耋期而一二年來。哭弟妹嫂壻。于人世何如也。此吾所以撫膺長吁。號彼蒼而痛哭者也。嗚呼。今歲仲春。余自嶺東來省墳墓。鵠原久別。一場團圓。其樂如何。而君方臥病。顏色之悴。形容之瘦。異於前日。不得聯枕共被。穩叙積阻之懷。然而稟質完^P厚。必享其期頤。未始以爲憂也。嗚呼。其竟以此而遽至不淑耶。抑自天有命。強疾趨朝。驅馳道路。撼頓添劇而然耶。天乎天乎。不知吾家有何積慶。而奪我賢弟若是之速耶。嗚呼。君以卓越之才。加之以確實之工。浸灌乎道義。淬礪乎名節。始於庭闈。養志無違。左右無方。恭爲職分之當爲。終於事君。匪躬不懈。直言讜論。有以感至尊而震奸佞。此孝之至忠之大者也。以余弟之忠孝經學。上可以黼黻皇猷。下可以嘉惠來學。而天不假年。^P竟未得展其所蘊。所謂天者誠難明而理者亦不可推矣。嗚呼。余弟少老兄纔三歲。自離膝下。食則同餐。衣則更衣。學則連床。出則并駕。友于之樂。不啻塤唱而箴和。今焉已矣。白首相失。哀哀此生。何托何依。今吾毛血日益衰。志氣日益微。左車齒牙。皆動搖脫落。又可以圖於久長哉。思將投紼南歸。自放於荒閒寂

寞之濱。更叙天倫之樂事。孰謂余弟遽棄我而先逝乎。誠知其如此。豈肯一日相離而抱此無涯之痛耶。嗚呼。一在天之南。一在地^P之東。病而吾不能分其痛。歿而吾不能知其日。既不得握手而永訣。又不得憑棺而盡哀。幽明之間。此恨如何。念君永歸。無復來期。憑穴一痛。是吾之至願。而入冬來宿病轉劇。又拘職役。跂余天南。不能奮飛。呼天之慟。曷有其極。自今以來。吾其無意於人世矣。緘辭千里。以寓至慟。靈其知耶否耶。嗚呼哀哉。

祭文[弟悅道]

嗚呼。天之降割于我家。何其偏且酷耶。往年既喪我伯姊。仲氏今又棄我而先。子余人世。^P白首何托。此余所以號天長痛。淚盡而繼血者也。粵我先考先妣實有令德懿範。歸成于我公。而公之生也。稟此純美。在髫而竭力孝友。式追先訓。稍長而專心經學。動遵繩墨。嘗謂士生斯世。抱負甚大。寧學聖人而未至。不可以一善成名。宇宙間萬事萬物。靡不究其所當然及所以然之故。反復推究。思所以措諸事業。壬癸兵荒。饘粥不給。公能躬自負米。不憚險遠。使甘旨無闕。弟年九歲。脚弱不能行。公晝夜擔負。不知勞勩。惟恐其或相遺失。^P此雖細行疏節。而亦可見孝友之彌篤。時丁尙武。士廢摛文。而公於顛沛。手不釋卷。聰明知思。日益超卓。而於洛建諸書。尤大肆力焉。發而爲文。汪洋滂沛。俯視科第。不啻如拾芥。念家貧而親老。庶立揚而報德。奈之何昊天不吊。荐降酷罰。永抱風樹之大戚。草土三年。哀毀踰禮。氣血俱耗。因成骨髓之疾。琴祥纔闋。而值世昏亂。杜門求志。不求聞達。迨夫聖作而物覩。應廷對而擢第一。立于朝者。舉笏而相慶。譬猶鵬背青天而騏足白日。薄^P試殘郵。旋貳雄府。蘇殘興廢。眷眷於敦倫善俗。峨冠正笏。屹立乎臺端。幾多鳳鳴而鶻擊。語涉時政則相臣爲之引避。事關朝綱則權勳爲之氣奪。力沮幸蜀之論。痛斥講和之非。而遇事敢言。言無不盡。綽有古諍臣之風節。以至生民之利病。邊圉之得失。有若燭照而龜卜。忠君愛國之念。常切於中。憂時悶俗之語。不絕於口。茲盖出於平素之蓄積。非以憤世而矯激。若夫以雄渾之識而養之以莊敬之工。以魁梧之器而持之以謙虛之德。學^P貫天人而自視猶欲然。行質神明而不自以爲足。光明俊偉。不肯貶道以苟容。難進易退之節。無讓於古人。迥出於流俗。縉紳擬之以柱石。士林望之以山斗。而天不憖遺。竟不得展布所蘊。官纔止於三品。壽又不滿六十。所謂神者誠難明而天者誠難測矣。此豈徒衰門之寡祐。實是斯文之不幸而生民之無祿。公之歿也。自上震悼。別致賻物。又命沿路護喪。而公卿大夫士無不奔走來哭。公之哀榮。至此而極矣。嗚呼痛哉。余之生後公十^P四歲。公既成立。而余尙編髮。公常擊余之蒙警余之情。提而又撕。誘而且掖。薇山肥遯之日。蕭寺靜寂之夕。余未嘗頃刻而離側。立身行己之要。應事接物之方。以至天人性命文章體裁之類。無不得於公而略涉其糟粕。一則嚴師之指引。一則良友之切偈。顧余無似。縱未能少變狂踈之質。而其撫育成就之恩。固已銘心而浹骨。既分家室。又出世路。別日常多而會日常少。每當臨歧。不覺悽然作惡。昔我萬里槎行。幸而生還故國。握手相對。悲^P喜兩至。連被對床。達宵竟夕。公嘗厭薄浮榮。志在卷懷。謂我兄弟三人。自今共專一壑。收拾殘編。粗效晚聞。拙修之工。庶不歸悠泛暴棄之域。言猶在耳宛其如昨。而公之棄我。何若是之促也。嗚呼痛哉。邈在仲春。伯氏還自關東。千里睽離之餘。得成數日之樂。伯氏深以公漸敗爲憂。而我以公精力可恃爲慰。豈知我之所恃者歸虛。而伯氏之所憂者驗於今日耶。豈草土積毀之疾。愈久愈深。而竟至此極耶。公之寢疾也。奉丘嫂奔走入洛。一室團^P聚。而公已疾革。不得開顏而慰悅。方其易簣之夕。分司虞館。經宿而來診。已無及矣。天倫之間。死生之際。未承一言之托。而旅櫬之南也。邊憂尙棘。職務鞅掌。又未得護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還千里。以酬生平恩義之萬一。嗚呼痛哉。瞻彼梧山。是公眞宅。永歸之期。迫在明晨。哀哀此生。永與公相隔矣。金玉之相。鸞鵠之姿。不可得以復見矣。正直之言。莊重之論。不可得以復聞矣。則我孔懷之慟安得不號天而隕絕耶。余自今年。毛血日以凋。志氣日以摧。人間此別。亦^P能幾何濶耶。言可以盡。情不可縮。一聲長慟。萬古永訣。嗚呼痛哉。

挽章[旅軒先生]

溫容曾所愛。恭行久彌親。正是粢盛器。堪爲班席珍。清朝方戴獬。長道忽摧輪。此慟非私慟。邦家失吉人。

挽章[李五峯好閔]

嗟哉申學士。中道奄長辭。蕭灑山林趣。剛方社稷姿。斯文從此喪。吾黨更誰依。諫草登青史。徒增志士悲。

挽章[全湜]

如君蘭玉出羣姿。廊廟山林孰不宜。謾使令名留諫草。公哀私痛涕自洟。

挽章[金堉]

危言戇論立朝初。史策書之不一書。人物于今蕭索盡。茫茫天意竟何如。
君我相從二十年。中興一策不謀然。向來珍重十條疏。制產良規在賦田。

挽章[尹昉]

時危慘愴悲風急。才傑中朝問幾人。天不偶^P生廊廟器。君惟無命聖明辰。尊周大義皦如日。戀闕深誠悅隔晨。啼盡衰翁萬行淚。一哀寧獨爲情親。

挽章[李景奭]

向來南北馬牛風。一見懽然罄素衷。早識壯元榮進定。誰知志士命途窮。烏臺寂寞曾峨豸。驛路蕭條舊

遞驄。惟有寸心猶未死。至今留在諫書中。

挽章[崔鳴吉]

驄馬還朝日。丹旌返葬時。去來俱不見。存沒^P有餘悲。樸直忠言在。蒼黃世事危。半生投分地。南望淚雙垂。

挽章[李俊]

寬甫當年說雋才。兩君標格雪中梅。月川密付丁寧在。雲谷餘徽默契來。正氣每看霜簡肅。迥遊今向玉京催。聞韶三哭斯文喪。天道如何善類猜。往年順夫，寬甫二令已作故。

挽章[金世濂]

今世誰知己。情親獨有公。明廷儀漢鳳。當路避桓驄。大節艱危際。高標進退中。歸舟不^P可望。哭返禁城東

挽章[金時讓]

直道雄文衆所欽。明時雅望聳儒林。春秋大義扶持重。朝夕嘉猷啓沃深。憶昨權疆俱側目。至今狡虜敢生心。西征當日相規語。更哭吾私淚滿襟。

挽章[趙綱]

九閭朝叫夕沉綿。正色朝端未十年。原始久聞夫子學。撫孤還有故人憐。扁舟草草靈輜去。歸路遙遙竹嶺懸。呼出試看塵世事。無生^P樂足覺前賢。

挽章[李貴]

昔從中壘日。已識東床賢。出入天人際。是非殿陛前。仙綸纔見降。凶耗奈隨傳。不盡公私痛。空吟殄瘁篇。

挽章[崔峴]

青氈惟孝友。舊物非籟金。根深葉自茂。鬱鬱三槐陰。惟君振家聲。弟兄聯朝簪。行誼孚一國。豈獨鄉隣欽。南州頌遺惠。栢府聆鳳音。將期驥展足。庶盡君民忱。中途忽摧折。天意誠難諶。搢紳惜云亡。士友共霑襟。孰不哀痛極。老我尤不禁。追思亂離瘼。携我城洞林。姨母子視我。姨兄同枕衾。新池又同室。對榻同苦吟。在世有幾親。寧不雙淚淫。知君誠意到。托此平生心。嗚呼誰復仗。四顧雲沈沈。

挽章[柳袞]

小少遊公伯仲間。德音偏荷砭踈頑。瑰姿政合巖廊器。直舌爭稱鐵石肝。蚤得賢師探奧蹟。晚營幽墅任優閑。斯文運氣今如此。病塾南衙涕一漣。

挽章[金光繼]

申子當年第一流。文章經學孰能儔。冰溪夜永曾聯榻。烏渚秋清共泛舟。理氣說時專主退。綱常扶處力尊周。斯文已矣吾安仗。獨立乾坤淚不收。

挽章[韓汝澂]

蟾桂曾攀第一枝。聲名早已振遐陲。東山共許巖廊器。北闕咸稱諫諍姿。命矣斯人天不憖。仁而無壽理難推。松楸幾日靈車返。瞻望南雲灑涕洟。

挽章[吳翹]

嶺士如林各自奇。清朝望實似君誰。聯名祇幸登庠日。掌試還慚射策時。持論激仰關世務。宅心平夷盡交期。行藏轉眄隨江漢。造物機緘萬古疑。

挽章[尹煌]

龍御千年會。鰲頭一俊人。文章江海潤。忠義日星陳。直道如君少。交情莫我親。被襟叫閤日。揮涕執鞿辰。夷險惟知國。粉糜肯顧身。峨冠方濶步。脩道奄摧輪。聖代亡賢士。危時失蓋臣。法言從此絕。頽俗更誰振。往事渾如夢。清儀怳隔晨。輶車嶺外路。臨風獨傷神。

挽章[李敏求]

不見堂堂在。空深昧昧思。青蒲餘諫草。玉樹殞連枝。慘愴匡君略。蕭條濟代期。沉吟賈傅策。流涕重成悲。

鐵峽橫千嶂。南逾嶺水昏。生行應叱馭。死去孰招魂。旅櫬懷鄉路。歸旌見主恩。何堪舊交淚。風雨望秋原。

挽章[鄭斗卿]

素幔歸鄉土。悲哉此大夫。路無驄馬避。原有鶴鴿孤。報主心空在。憂時病不蘇。漢宮丹檻裏。誰更伏青蒲。

旅櫬載歸船。家山路杳然。落帆江雨外。飛旆嶺雲前。慷慨匡君略。騫騰射策年。曩時俱逆旅。沾灑向秋天。

挽章[金光炫]

堂堂忠義斥和臣。曾是朝端第一人。吾輩幸逢千載會。君如可贖百其身。丹旌溯峽風儀遠。白首登瀛寵渥新。桂籍聯名如昨日。滿江踈雨淚盈巾。

挽章[李溟]

幕府相從恨太遲。非緣爪葛許心知。澹菴尺紙人爭慕。司隸風稜獨自持。可惜平生經濟業。忍看埋沒亂離時。繡衣來路丹旌返。淚灑南雲月一眉。

挽章[金壽賢]

[I]ITKMOXML I복사 URL복사

嶺外親朋日漸凋。白頭心事益無聊。原明家學淵源正。叔度風姿鄙吝消。大義粗伸危急日。素期虛負聖明朝。可憐驄馬來時路。一片丹旌嶺外遙。

挽章[李穡]

小島干戈日。同襟似子稀。守城非禦給。迷國是羈縻。尺疏方傳誦。靈車忽遠歸。百年絃斷淚。今夕不勝揮。

挽章[李昭漢]

聖代賓賢士。巍科獨擅場。一心思補袞。隻手欲扶綱。乍喜徵還洛。俄驚病在床。冥途馳典備。生死摠恩光。

挽章[朴東善]

P 白簡曾同命。青蒲幾並爭。君姿超薄俗。吾道貴常經。偶值求和日。空留沽直名。百年公議在。猶足樹風聲。

挽章[沈東龜]

賈子傷時策。齊賢擢第名。直聲留諫草。忠節證神明。報國平生苦。憂時一死輕。南江來去路。忍見獨歸旌。

挽章[鄭廣成]

騫騰金榜首。俊逸玉堂英。薰德令人醉。封緘舉世驚。方期陶盛代。何遽覓佳城。不盡公私 **P** 慟。風塵朱老成。

挽章[鄭世規]

清儀初接錦城隈。幸忝聞韶更把盃。深閉衡門探聖學。晚登烏府凜風裁。仁而無壽天猶憾。嗟爾令名地不埋。問氣東南蕭索盡。不知何日更胚胎。

挽章[李基祚]

儒林雅望壯元郎。直筆堂堂諫諍場。一世幸逢青眼契。幾年同直紫宸傍。纔看玉署趨新命。忍送銘旌返

故鄉。何處佳城埋正士。P 夢尋南路嶺雲長。

挽章[洪霧]

歷數朝中士。如公復幾人。經綸非俗學。忠愛出天真。慷慨和親日。從容進退辰。衰年失知己。題挽涕沾巾。

挽章[李民奐]

去歲哭兄淚。今朝爲子揮。天高鬼神惡。霜重蕙芝腓。白簡垂青史。玄堂托翠微。九原難可作。吾適與誰歸。

挽章[尹毅立]

P 夙昔鄉廬始識荊。聲華籍甚冠羣英。紅雲映日人爭賀。白簡凝霜世共驚。楹櫨何曾違素志。盖棺猶自保完名。孤舟此夜溯江漢。題罷哀詞老淚傾。

挽章[宋克訥]

命矣斯人疾。云亡痛悴邦。儒林名第一。朝著直無雙。堪作中流楫。幾驚空谷磬。交期泉路隔。哀淚灑東江。

挽章[洪靈]

親策天人獨擅場。手持風憲振頽綱。危時遽 P 作中流柱。聖世旋摧大廈樑。鳥道更兼江路遠。櫓聲應共薤歌長。悠悠此日公私慟。哭盡簪紳又一鄉。

挽章[尹墀]

栢府封章動搢紳。愛君憂國見天真。沾沾自喜知何筭。不復朝端有此人。

若論家世爲尊屬。蚤托門屏卽我師。舉目乾坤人物渺。傷心非但哭吾私。

挽章[趙纘韓]

今代無雙士。南州第一人。擢魁猶待價。探奧^P自任眞。鳳棘興絃誦。烏臺聳摺紳。艱危知節義。盤錯見經綸。國瘁天催奪。賢亡道益貧。終孤哭歸櫬。病伏涕沾巾。

挽章[尹榮]

如公才德幾人存。執紼今朝暗斷魂。盛代長垂賈傅涕。忠言酷似陸宣論。來時白簡霜威肅。去日丹旌雨氣昏。欲寫哀詞長歎息。此生無復躡龍門。

挽章[俞省曾]

申子生南紀。堂堂間世英。師門衣鉢正。家閥^P玉壺清。抱德才兼備。窮經業蚤成。龍飛際盛代。驥步展長程。遐府挽流俗。危城抗直聲。請纓存大義。借劔折奸萌。正氣山河壯。精忠日月明。頻頻多白眼。眷眷濟蒼生。擬庇千間廈。誰壞萬里城。人方悲殄瘁。天未欲昇平。惻怛親朋淚。咨嗟聖主情。况吾忝一榜。與子幸同庚。自爾襟期合。欣然意氣傾。百年期白首。千里送丹旌。斯文嗟已喪。法語向誰聽。餘生獨踽踽。樑月夢頻驚。

挽章[柳碩]

^P吾生不無友。得子始論心。直舌冰人屢。玄機鑑物深。遽悲摧鄭棟。誰復作商霖。泉裏應無憾。君恩返葬今。

挽章[許徽]

一見欣然托歲寒。幾年南北照心肝。傷時我已千莖白。許國君猶一片丹。嶺外馳神思耿結。客中傳訃涕洟瀾。眞純氣度溫良玉。磊落風姿儼泰山。踐履眞工超俗遠。掛冠高蹈避時昏。姓名始達中興際。出處先明進退間。湖棘鳳棲扶世道。霜臺鵠立靖朝端。凌霜直^P筆猶知義。瀝血深誠足立頑。五載嘉猷光竹帛。一家餘慶滿芝蘭。驛亭肯說輓車慟。蕭寺難忘握手歡。大廈樑摧誰復撐。孤桐絃絕不容彈。他年倘過韶州路。臨水柴扉不忍看。

挽章[崔惠吉]

蕭寺曾同榻。交情二十年。進塗方大闢。宿病竟難痊。旅櫬經重嶺。君恩及九泉。賢朋日零落。題挽倍

澗然。

挽章[李大圭]

維岳當年間氣鍾。儒林聲價重黃琮。如今後 **P** 學將安倣。從此清朝小匪躬。盛際瑞儀亡一鳳。德門餘慶有三龍。雪山何處埋玉樹。應向青霄射彩虹。

挽章[許啓]

挺生鍾山岳。遺落任風塵。諫諍公餘事。文章古絕倫。憂深去國日。病亟入朝辰。摠爲公私慟。非關分義親。

挽章[李景義]

黃公墟下幾人存。孝伯云亡又哭君。始擢龍頭推宿德。晚登烏府挹清芬。誰知新墅前秋 **P** 別。遽作佳城此日分。遠寄哀詞仍歲暮。不堪歸鴈獨呼羣。

挽章[尹暉]

驥足懷千里。蜚英際盛時。詩書元世業。忠孝本天資。學得賢師聞。恩紆聖主知。高才嗟未試。宿疾竟難醫。奄隔平生面。寧堪後死悲。憑將知己淚。灑向嶺雲垂。

挽章[李惟達]

早抱曾中不世才。河清千載擢科魁。剛方嫉惡由天賦。慷慨論時有直裁。玉署承綸聞日 **P** 者。蟠蛇看鏡豈天哉。孤舟歸櫂東湖月。哭望紅旌無限哀。

挽章[姜弘重]

漢主開金馬。公才出衆儒。賦非楊執戟。策是董江都。正值風雲會。難知造化爐。城西送丹旆。揮涕一長吁。

挽章[洪 翼]

一甲科仍顯。三男世亦稀。誰知莊海擊。忽化蜀魂歸。披霧還如昨。乘驄事已非。相期違宿昔。淚濕故人衣。

挽章[申尙哲]

去年哭孝伯。今年哭亨甫。年年哭親朋。此身誠踽踽。人固有一死。脩短不足數。亨甫天下士。竭力事明主。對策董賢良。製誥韓吏部。嶷嶷廊廟器。誰貴簋與簠。朝廷尙羈縻。君乃一言拄。每一章奏上。見者皆戰股。人心方有待。天奪何遽爾。亭亭獨立意。諤諤敢言氣。嗚呼不復見。吾道終已矣。落月露梁路。潛揮一掬淚。

挽章[李挺南]

桂籍儒仙姓字香。明時聲價動鵷行。桐鄉風化遺仁澤。栢府霜威振紀綱。一枕槐安鷄夢罷。百年桑土鶴歸忙。歲寒心事將何托。白首人間獨自傷。

挽章[曹漢賓]

嶺海神精孕上靈。惟公鍾得秀而清。翱翔一代推經學。出入三司抗直聲。木稼成冰關世運。銘旌冒雨返鄉程。攀轡此哭非私慟。只爲朝家失國楨。